

大阜島鄉里誌

平華江

平長

康永

平平島

山金黃

陰島
在南島
水路半里

大阜島地運有權
八條南橋
新屋五五
四圍十里
人口四百三十五

南橋
作堤

伊五路
西至十路水運有權
馬島馬路

馬山津水路半里

安山文化院
安山鄉土史研究所

大阜島鄉里誌

발행인 : 이정태
편집인 : 이현우
편집일 : 2001년 12월
발행일 : 2002년 2월 15일
발행처 :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604
T E L : (031)480-9823
F A X : (031)480-9824
홈페이지 : www.ansanculture.or.kr
이메일 : cc425as@chollian.net
인쇄처 : 가야기획 T.(031)494-8354

이 향리지는 안산시 보조금과 국·도비 보조금,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비매품

大阜島郷里誌

安山文化院
安山郷土史研究所

발 간 사



역사기록문화 창달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역사기록문화의 소중함이 더욱더 절실하게 여겨지는 이즈음에 대부도의 역사문화를 기록한 향리지가 발간되게 됨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며 안산의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대부도 주민들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부도에서 발견되는 선사시대의 유적으로 보아 대부도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 5천여년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지금에서야 독자적인 대부도의 역사문화기록물이 나오게 된 것은 너무 늦은 감도 있지만 처음 나오는 이 향리지를 근간으로 앞으로 더욱 자세하게 깊이 있는 역사기록물들이 증보되어 나올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들이 놓은 이 초석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5년여 전부터 기초적인 자료수집을 하여 왔었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향리지 발간사업을 추진한 3개월의 시간은 너무도 짧았고 서둘러 수집하는 자료는 늘 부족한 듯 했으며 좀더 많은 전문인력과 재원과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도 주민들의 호응과 도움으로 이 만큼의 기록물이나마 엮을 수 있었던 것도 큰 다행으로 생각하며 대부도의 부속 유·무인도, 나무들, 샘물등과, 문화유적들을 고루 살펴보고 지명유래와 전설, 옛 노래 등을 조사하면서 대부도에는 참으로 많은 문화유산이 남겨져 있어 앞으로도 이 사업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며 이 책자를 살펴보는 여러사람들이 생각하는 누락된 기록, 또는 잘못된 기록을 찾아 내어 멀지 않은 시기에 더욱 알찬 대부도향리지 증보판이 발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신 안산시 당국과 문화관광부,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대부도에 사시면서 대부도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 대부도출향인사들, 그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02년 2월

대부도향리지 편찬위원장 이 정 태
안 산 문 화 원 장

축 간 사

조화로운 발전과 문화 향상을 위해.....

안산시의 조화로운 발전과 문화 향상을 위해 우리시로 편입되어 많은 변화를 가져온 대부도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향리지를 발간하게 됨을 대부지역 주민은 물론 60만 안산시민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급격한 도시의 발달로 그동안 전해 내려오던 풍속과 생활방식등 향토 고유의 문화가 차츰 사라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번에 발간된 향리지는 대대로 계승 발전 시켜야 할 대부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올바른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향리지는 시민들에게는 올바른 향토관을 정립하고, 역사와 전통을 정확히 알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고리인 동시에 우리가 가야할 길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대부도의 역사를 바로 알고 계승함으로써 우리고장의 뿌리를 튼튼하게 할 것이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시민들의 자긍심과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귀중한 자료가 되어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구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부도 향리지 발간으로 우리고장의 역사문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참여하신 모든분들과 도움을 주신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민 모두에게 대부도 향리지가 널리 읽혀져, 21세기의 새로운 희망 녹색 첨단산업도시를 만들고 깨끗한 안산을 만드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2002년 2월

안 산 시 장

축 간 사

역사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도 그 맥은 면면히.....

지난 1994년 안산시로 편입되어 우리시의 일원이 된 대부도의 역사 및 문화 등을 총망라하여 상세히 정리한 대부도 향리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도 그 맥은 면면히 이어져 후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발전해 오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고 전통문화를 도외시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안산지역의 역사기록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대부동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청소년들의 역사 학습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는 대부도 향리지 발간은 매우 뜻깊고 가치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듯이 옛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익힐 때 우리의 밝은 미래는 보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향리지 발간을 계기로 우리고장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다시한번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대부도 향리지 발간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시민들의 애향심을 더욱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2월

안산시의회 의장



1871년 제작(규장각 소장)





대부도 위성사진(한국해양연구소 제공)



공룡발자국



규화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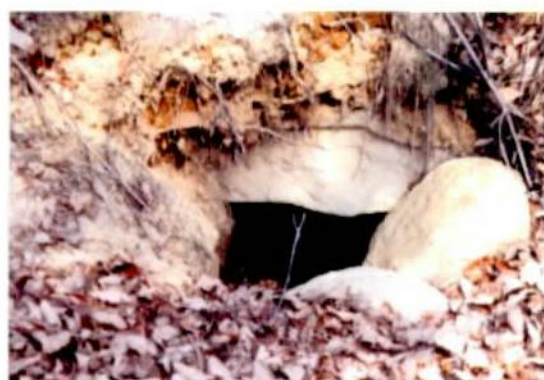
공룡알 군락지



공룡알



패총



석곽묘



필사본 시첩 숙종년간 1700년대 초(신대현 소장)



사서언해 목판인쇄본 1700년대 초기(신대현 소장)



부사와 홍우규
무과 병과 교지(1784년)



내금위 홍희구
무과 병과 교지(18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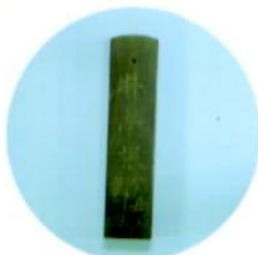
조선시대 호패 앞면(홍석장 소장)



조선시대 호패 뒷면(홍석장 소장)



공조참판 홍명희선생 교지
고종 16년 (1879년)



박영근 호패
(1853년 생)



박영근 무과 급제 교지
(1890년)



시현서 1841년(신경수 소장)



명시력 1908년(신경수 소장)



남양 홍씨 문정공파 가승 1892년(홍석장 소장)



1921년 대부공립보통학교 낙성식



대부공립보통학교 제3회 졸업사진



1949년 발행 국어사전(신대현 소장)



남양공립보통학교 제14회 졸업사진



홍순구선생
1855년 8월 20일 生



홍남표선생
1906년 8월 24일 生



홍원표선생 사진과 훈장 중
1875년 9월 29일 生



홍찬의(1905~1941)家 타작 장면



홍정의 결혼사진 (1914년 生)



1940년대 선감학원생들의 교육장면



1940년대 노역 후 몸을 씻는
선감학원학원생들



1950년대 초 선감학원생들의 염전 노역



1950년대 초 선감학원생들의 축구경기



1950년대 초 선감도
염전에서 일하는
선감학원생



1950년대 초 모내기를
하는 선감학원생들



1955년도 농가의 모습
고유지



1956년 김정호, 정인순 결혼사진



1955년도 농가의 돼지우리
고유지



대부면 이장들(1962년)



남4리 부녀회 야유회
(1967년 4월)



선감도 주염나무
약 150년 추정 현재없음. 1993년
경기도립 산업학교 건립 당시 베어버림



선감도 선돌(1952년도 모습)



선감도 선돌 현재 절반정도가 남아있음. 1950년대
제방공사 때 돌을 사용하기위해 훼손
(2001년도 모습)



공마루 전답(1947)



공마루 전답(2001)



보존등기 문서 1971년
(홍성웅 소장)



토지매매 계약서 1964년
(최창운 소장)



1967년도 대부초등학교 전경



2001년 12월 대부초등학교 전경



유간간(76세 사망)
1970년 장례식 상여 나가는 장면.
고유지 김금준(1936) 모친



대부면 이장교육 기념사진(1970)



유간난(76세 사망)
1970년 장례식 노재지내는 장면.
고유지 김금준(1936 生) 모친



김형(1957년 生)
고고시절 대부면사무소 앞에서



배춘에 회갑연(1972)



홍준표 회갑연(1972)



약혼식 후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는 이영자씨
(1971)



이영자씨가 약혼 후 친정집(영전)을 나서는
장면(1971)



최창훈, 이영자씨 혼인식에서 맞절하는 장면
(1971)



김형(1957년 생) 결혼식 장면



대부고등학교 봄소풍 사진(1973)



대부초등학교 제53회 졸업기념 사진(1978)

시화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1994년 1월)





시화간석지(농지 조성을 위한 수로)

풍도항





선감도 선돌



선감도 전망대(팔각정)



풍도 등대



시화호 간석지



풍도에서 바라본 육도



메추리섬(홀곶)



쪽박술섬(홀곶)



큰할미섬(말부흥)



작은할미섬(말부흥)



털미섬(신당동)

탄섬(영전)



외지섬(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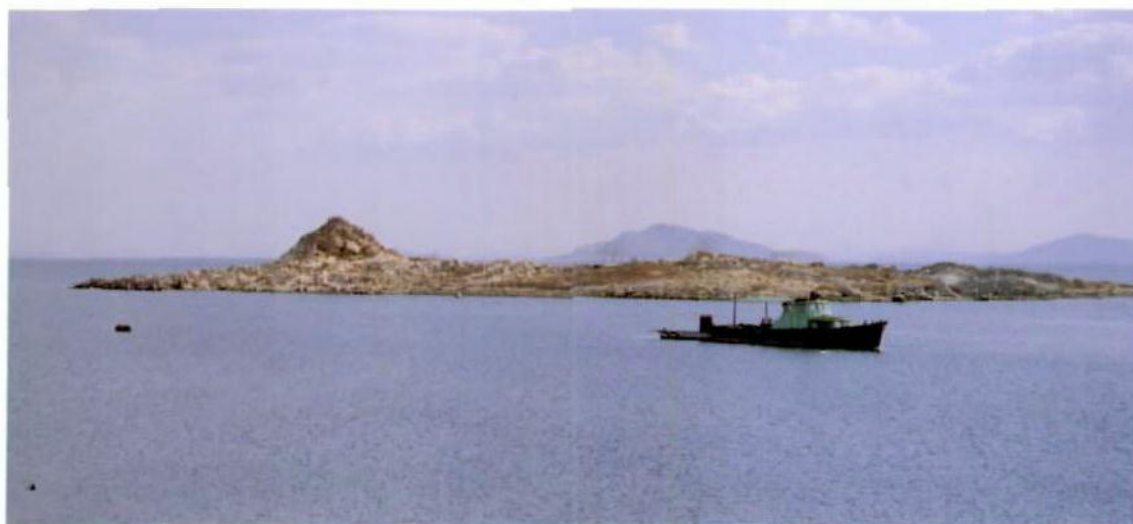
풍도전경



큰가리기섬



감투섬(숯부리)



노루녀(방아머리)



육도전경

가운데 녹섬(중육도)



질마섬(육도)





정초리섬(육도)



끝죽섬(말육도)



물우녀(미육도)



꼬깔섬



구봉도



돈지섬



구봉이 선돌



반선정



탄도선돌(부부바위)



털미섬의 기암괴석



시화호



육도 가운데죽섬 장군바위(수리바위)



북동저수지



육도 정철이섬 곰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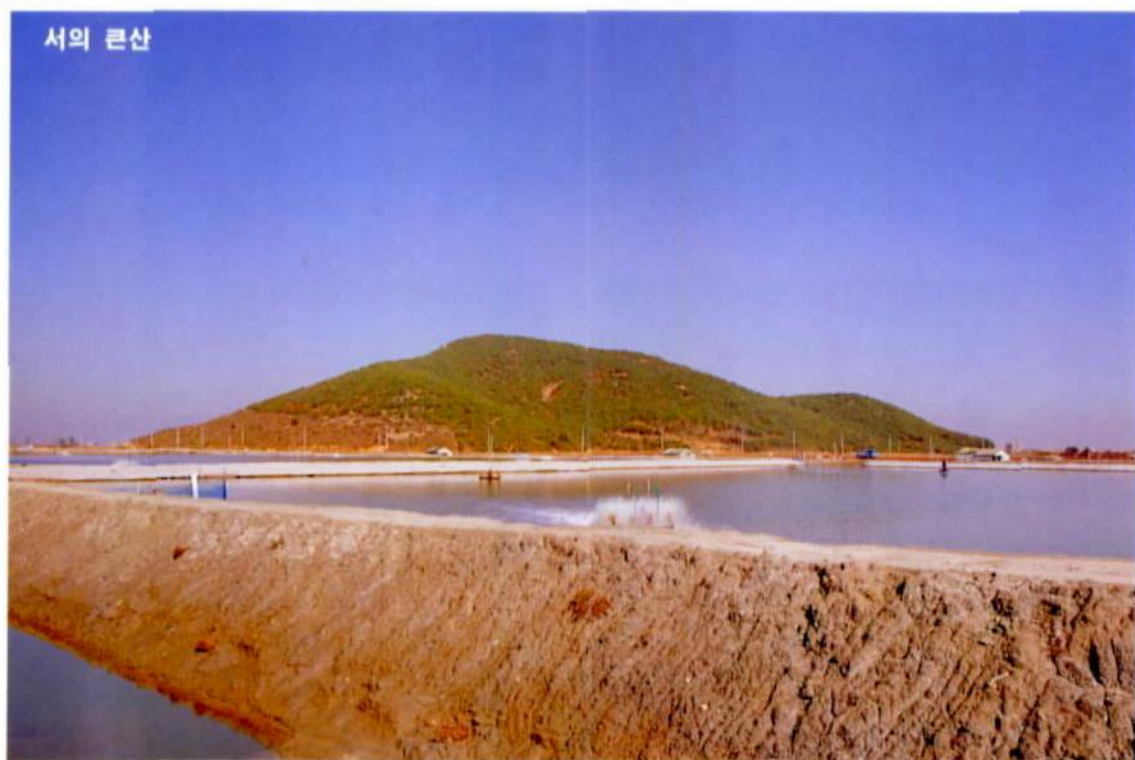
육도 이무기바위

긴장술이(남3리)





풍도마을



서의 큰산



수상골 우물



선감도 당우물



샛터말 우물



쌍계사 용정



당앞 작은우물



당앞 우물



종현동 어릿골 우물



풍도 웅달샘



남4리 큰말 우물



흥성리 정상골 우물(1938년 조성된 시멘트 구조물)



고유지 웃말 우물



흥성리 한사위 우물(1974년 조성된 시멘트 구조물)



갈마지 소나무



중부흥 최창운家 감나무



홀곶 해나무

중부흥 왕소나무



풍도 은행나무A



풍도 은행나무B



상동 쥐엄(좁)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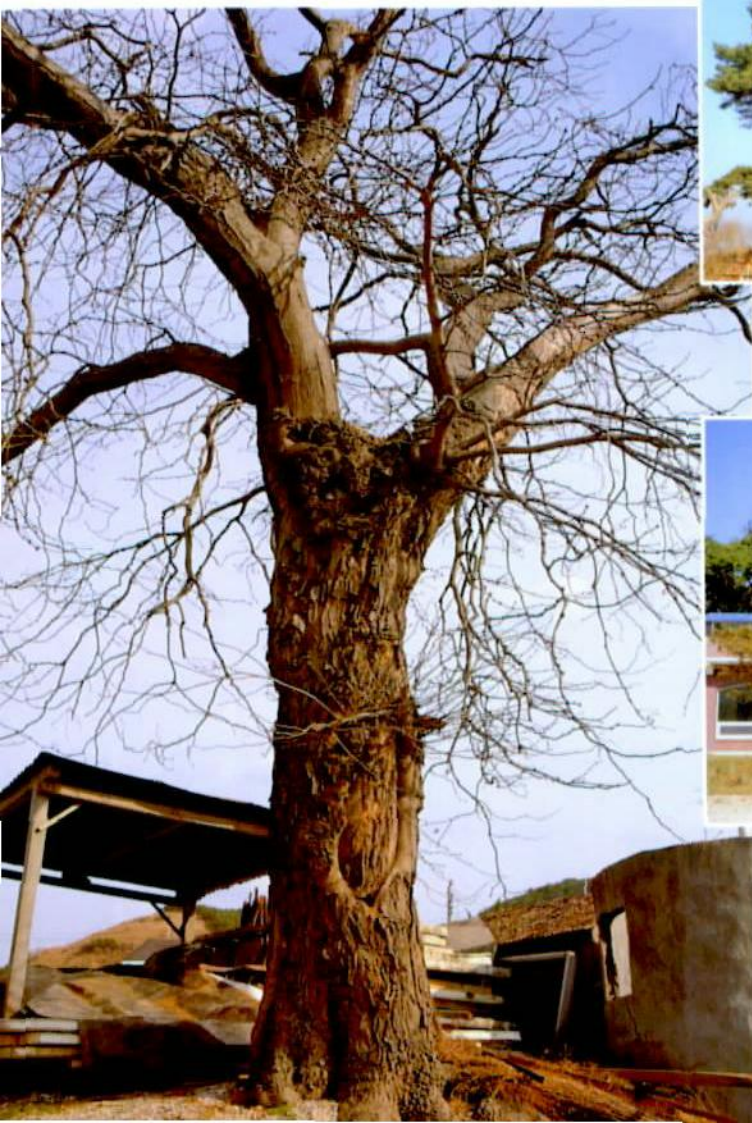
당전 참나무



비선거리 노송



종현동 당목 소나무



쌍계사 느티나무

종현동 쥐엄(좁)나무



노철우 고가



쌍계사 극락보전



홍정희 효자문



대부도 점등기념비





김원수 면장 불망비



홍원표 선생묘



대부도 자선비



홍명희 선생묘



쌍계사 산신탱화



쌍계사 신중탱화



쌍계사 지장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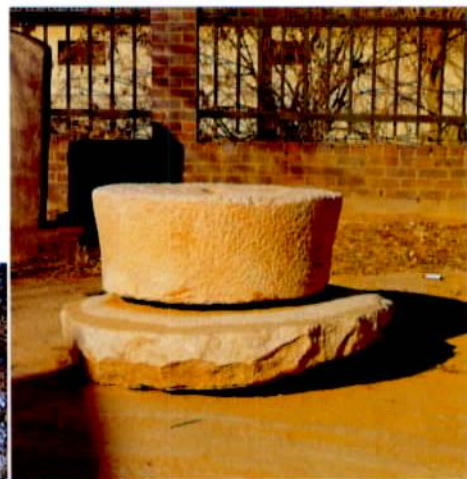


쌍계사 용만가화사마 동방록



구 대부면사무소 청사

연자메



선정비 군





제1대 김완수



제2대 김지하



제3대 홍성문



제4,7대 이창흠



제5대 임근도



제6대 이상길



제8대 공태영



제9대 임범용



제10대 홍성도



제11대 임성환



제12대 김영도



제13대 안세참

대부도의 역대 면장 및 출장소장



제 14대 김성태



제 15대 하준성



제 16대 안현기



제 17대 최선호



제 18대 박상득



제 19대 이두철



제 20대 안병훈



제 21대 이범구

대부도의 역대 시의원



제 1대 박정호



제 2, 3대 노영호

차 례

발간사
축간사
화보

제1절 대부도의 역사 · 55

1. 선사시대의 대부도 · 55
2. 삼국 · 고려시대의 대부도 · 57
3. 조선시대의 대부도 · 63
 - 1) 인구와 경제기반의 확립 · 63
 - 2) 국영목장의 운영 · 69
 - 3) 해양방어 체제의 강화 · 73
 - 4) 상업해로의 발달 · 79
4. 근 · 현대의 대부도 · 55

제2절 대부도의 지리와 기상 · 91

1. 위치와 면적 · 91
2. 지질 · 92
3. 지형 · 94
 - 1) 간석지와 염생습지 · 97
 - 2) 해빈과 해안사구 · 99
 - 3) 해식애와 시스택 · 102
4. 하천 · 104
5. 토양 · 104
6. 기후 · 108
 - 1) 기온 · 109
 - 2) 강수량 · 112
 - 3) 바람 · 114
7. 대부도의 역사지리 · 117
 - 1) 대부도 역사지리적 개관 · 117
 - 2) 지도도와 지도로 본 대부도의 옛 모습 · 119

- (1) 전국지리지에 포함된 대부도
- (2) 전국읍지, 도지에 포함된 대부도
- (3) 군현읍지 중의 대부도
- 3) 고지도를 통해 본 대부도의 옛 모습 · 132
 - (1) 전국지도와 도별지도에 표현된 대부도
 - (2) 군현지도 및 분도에 표현된 대부도

제3절 대부도와 인근 해안지역의 고고유적 · 151

- 1. 머리말 · 151
- 2. 대부도와 인근 해안지역의 고고유적 · 151
 - 1) 오이도 안말 패총 · 151
 - 2) 오이도 가운데살막 패총 · 161
 - 3) 오이도 뒷막살 패총 · 166
 - 4) 오이도 신포동 패총 · 168
 - 5) 대부도 흘곶 패총1 · 169
 - 6) 대부도 흘곶 패총2 · 172
 - 7) 대부도 구봉이 패총1 · 174
 - 8) 대부도 구봉이 패총2 · 178
 - 9) 대부도 북동 패총1 · 181
 - 10) 대부도 북동 패총2 · 183
 - 11) 대부도 남동 패동 · 185
 - 12) 대부도 남동 석곽묘 · 188
 - 13) 대부도 중부흥 패총 · 192
 - 14) 대부도 말부흥 패총 · 195
 - 15) 불도 패총 · 196
 - 16) 탄도 패총 · 198
 - 17) 선재도 통오리 패총 · 204
 - 18) 선재도 사매기 패총 · 207
 - 19) 선재도 버드리지 패총 · 209
- 3. 맺음말 · 211

제4절 대부도의 문화유적 · 215

1. 홍정희 효자문 · 215
2. 대부도 자선비 · 216
3. 쌍계사의 탕화 · 217
 - 1) 쌍계사 현왕탱화 · 217
 - 2) 쌍계사 신중탱화 · 218
 - 3) 쌍계사 아미타후불 탕화 · 221
 - 4) 쌍계사 지장탱화 · 223
 - 5) 쌍계사 독성탱화 · 224
 - 6) 쌍계사 산신탱화 · 225
4. 홍명희선생 묘 · 226
 - 1) 유래 · 226
 - 2) 구조 · 226
 - 3) 군마훈련육영장 · 227
5. 구 대부면사무소 청사 · 277
 - 1) 유래 · 227
 - 2) 일제시대 기록문 · 228
 - 3) 일제시대 기록 번역문 · 229

제5절 대부도 3 · 1 독립운동 · 231

제6절 대부도의 전설과 옛노래 및 방언 · 237

1. 설화 · 237
 - 1) 정수암 · 237
 - 2) 인조와 은행나무 · 238
 - 3) 인조임금과 대부도 처녀 · 238
 - 4) 대부도 학지 · 237
 - 5) 왕주물 · 240
 - 6) 홍정희 효자문 · 240
 - 7) 탄도의 삼형제 바위 · 241
 - 8) 발고랑 전설 · 242
 - 9) 황금산의 나무귀신 · 242
 - 10) 풍도의 왕신 독잡이 · 244

- 11) 선감도 나룻배 · 245
- 12) 까치섬 · 249
- 13) 독주골 부자 · 250
- 2. 옛노래 · 251
 - 1) 모심기 소리 · 251
 - 2) 논매는 소리 · 251
 - 3) 닛줄꼬기 호롱통 감을때 · 252
 - 4) 굴 딸 때 하는 소리 · 252
 - 5) 배울로네 · 253
 - 6) 반디노래 · 254
 - 7) 실강 달강 · 254
 - 8) 남생이 · 255
 - 9) 방구타령 · 255
 - 10) 고사덕담 · 256
 - 11) 행상 소리 · 259
 - 12) 회닥이 소리 · 260
- 3. 대부도의 방언 · 260
 - 1) 고유어 · 261
 - 2) 한자어 · 263

제7절 지명유래 · 267

- 1. 상동 · 268
- 2. 종현동 · 271
- 3. 두우현 · 275
- 4. 방아머리 · 277
- 5. 고유지 · 279
- 6. 갈마지 · 281
- 7. 당전동 · 282
- 8. 분지내 · 284
- 9. 신당리 · 286
- 10. 영전동 · 288

- 11. 중부흥 · 290
- 12. 말부흥 · 291
- 13. 학난골 · 293
- 14. 흘곶동 · 296
- 15. 흥성리 · 299
- 16. 샛터 · 302
- 17. 선감동 · 303
- 18. 불도 · 307
- 19. 탄도 · 308
- 20. 풍도 · 310
- 21. 육도 · 316

제8절 종교 · 319

- 1. 민속신앙 · 319
 - 1) 불도와 탄도의 당제 · 319
 - 2) 풍도의 당제 · 321
 - 3) 불도의 가신신앙 · 324
 - 4) 풍도의 가신 신앙 · 325
 - 5) 영전 당제 · 329
- 2. 오래된 사찰과 교회 · 331
 - 1) 쌍계사 · 331
 - 2) 대부천주교회 · 332
 - 3) 대부감리교회 · 333
- 3. 대부도 종교단체 현황 · 335

제9절 기관단체 및 교육기관 · 337

- 1. 행정기관 · 337
 - 1) 안산시 대부출장소 · 337
 - 2) 대부 보건지소 · 338
 - 3) 경로당 · 339

- 4) 용진 농협 대부지점 · 339
- 5) 용진 수협 대부지점 · 340
- 6) 용진축산농협 대부지점 · 340
- 7) 안산시농업기술보급소 대부농민상담소 · 341
- 8) 안산경찰서 대부파출소 · 342
- 9) 인천 해양경찰서 대부지서 · 343
- 2. 교육기관 · 345
 - 1) 대남초등학교 · 346
 - 2)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 · 346
 - 3) 대동초등학교 · 347
 - 4) 대부초등학교 · 349
 - 5) 대부중 · 종합 고등학교 · 351
 - 6) 시립 대부 어린이집 · 353
 - 7) 선감 학생 수련원 해양탐구관 · 356
 - 8) 경기도립 직업 전문 학교 · 358
 - 9) 경기도 선감 청소년 수련원 · 359
 - 10)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 · 360

부 록

- 1. 고문헌속의 대부도와 인근섬 · 363
 - 1) 소인 · 363
 - 2) 각종 지리지속의 대부도와 인근섬들 · 364
 - 3) 정사속의 대부도 · 375
 - 4) 옛 한시속의 대부도와 풍도 · 395
- 2. 역대 면장과 의원 · 399
- 3. 편찬위원회 · 402

大阜島郷里誌

安山文化院
安山郷土史研究所

제1절 大阜島의 歷史

1. 선사시대의 대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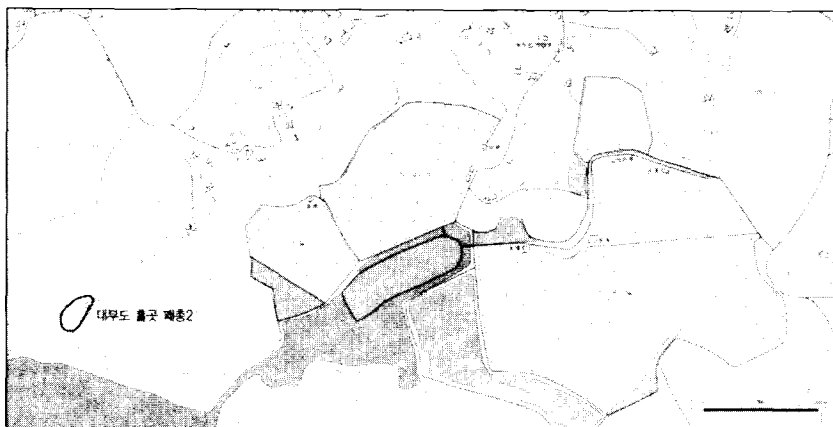
대부도(大阜島)는 시청이 있는 안산(安山)에서 서쪽으로 35.8km 떨어지고 동경 126°39′ 북위 37°18′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대부도라 하면 주변의 선감도(仙甘島), 불탄도(佛炭島), 풍도(豐島), 육도(六島) 등 5개의 유인도와 중육도(中六島), 미육도(尾六島), 말육도(末六島), 변도(辨島, 꼬갈섬), 잠도(蠶島, 누에섬), 訖串島(매추리섬), 터미섬, 큰 터미섬, 할미섬, 외지도, 大加里島, 小加里島 등 12개의 무인도를 포함하기도 한다. 면적은 40.34km²이고 현재(2001년) 2,316가구 6,231명(남3,226, 여3,005)의 주민이 살고 있다.

대부도의 최고봉은 섬 중앙부의 황금산(黃金山, 167.7m)이다. 대부도가 독진(獨鎭)으로 독자적인 행정단위였을 때 진산(鎭山)으로 여겨진 산이다. 이 산을 중심으로 100m 내외의 소규모 구릉성 산지가 북서-남동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이러한 산세의 방향은 탄도와 불도에서 시작하여 대부도 북서단의 구룡이(96.5m)까지 연결되어 있다. 대부도의 산세는 험하지 않으나 평지의 규모가 크지 않고 대개 산지의 골짜기를 따라 소규모로 나타나거나 해안 지역의 매립에 의해 형성된 것들이 많다. 섬 내에는 방죽천, 분지천, 영전천 등 비교적 큰 네 개의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들은 최고봉인 황금산에서 발원한다.

대부도의 특징적인 지형은 간석지이다. 대부도의 북쪽은 군자만 일대로 넓은 간석지가 펼쳐져 있고, 남쪽 화성군 제부도에 이르는 지역에 간석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시화지구(始華地區) 개발사업에 따라 화성군 마산포에서 불도, 탄도, 선감도를 거쳐 대부도까지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¹⁾

이와 같은 대부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으며, 또 그것이 어떤 계통의 주민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규명된 바는 없다. 그러나 1984년과 지난 2000년 두 차례 조사

1) 용진균, 『통계연보』 1987, p.59.



지도1 대부도 홀곳 패총

된 대부면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들은 이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1984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국립박물관에서 대부도와 선감도에 대한 고고학적인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선감도(仙甘島)에서는 뚜렷한 선사유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부도(大阜島)에서는 홀곳과 말부흥에서 각각 1군대의 신석기시대 패총(貝塚)을 발견하여 빗살무늬토기 파편 20점과 타제석기(打製石器) 1점을 채집하였고 대부중학교에서 홀곳 등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마제석부(磨製石斧) 1점을 확인하였다.¹⁾ 그런데 패총에서 나오는 조가비의 90% 이상이 굴껍데기라고 한다. 지난 2000년 경기도박물관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대부도와 그 남쪽 탄도에서 신석기시대 조개더미 8곳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안산시 대부남동인 홀곳에서 2군데, 중부흥과 말부흥에서 각각 1군데, 대부북동 구봉이에서 2군데, 구봉이 회쎄타 뒷산 언덕에서도 또 한곳이 발견되었으며, 선감동 탄도에 1군데의 조개더미가 조사되었다.²⁾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는 아가리와 그 아래 부분에 서로 다른 무늬를 새기는 것, 같은 무늬로 새긴 두 종류가 있고 그 연대는 토기의 모든 면에 무늬를 새긴 것을 전기(B.C 5000~B.C 3000), 아가리와 몸통까지만 무늬를 새긴 것을 중기(B.C 3000~B.C 2000), 아가리만 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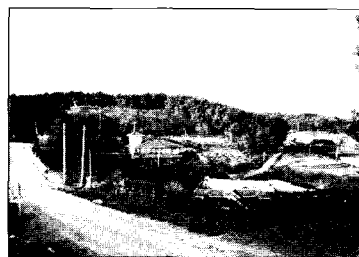


사진1 대부도 홀곳 패총 원경



사진2 대부도 홀곳 패총 근경

1) 지건길·안승보 <서해도서지방의 지표조사(2)> 『국립중앙박물관 교적조사보고』 16 1984, pp.85~111

2) 경기도박물관,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Ⅱ』 2001, pp.60~88.

를 새기거나 전혀 무늬가 없는 것을 후기(B.C 2000~B.C 1000)로 나눈다.¹⁾

대부도 흘곶 조개더미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서해안 지역과 공통된 위의 2종류의 토기가 모두 나오고 있으며 몸통부분에 무늬가 없는 것이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몸통 아래의 무늬가 생략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이 유적의 연대를 신석기시대 중기로 잡고 있다. 그리고 다른 서해 도서지방에 비해 사냥이나 농경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타제석기, 마제석부 등이 출토된 사실을 가지고 당시 주민들이 굴 채취 등의 어로활동 이외에도 사냥, 원시농업 등에 의한 식량획득도 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대부도는 지금도 어업보다는 농업의 비중이 월등한 지역이다. 한편 흘곶 패총과 말부흥 패총은 공통적으로 바닷가에 가까운 구릉의 비탈을 택하여 위치하고 또한 남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근거지가 바닷가의 강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구릉을 뒤로하고 양지바른 남향터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대부도에는 늦어도 신석기시대 중기에는 서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주민과 같은 계통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주로 굴 채취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렵과 원시농경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대부면 지역에는 신석기시대를 이은 청동기, 초기철기시대에도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되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흔적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2. 삼국 · 고려시대의 대부도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한강유역과 인천이나 남양만 방면에서 덕적도(德積島)를 거쳐 황해를 건너 중국으로 통하는 해상교통로를 장악하려는 3국간의 치열한 지배권 다툼에 따라 그 소속이 여러 차례 변환되었다. 대부도 일대를 처음 지배한 것은 백제였다. 백제는 한강유역의 서울부근에서부터 점차 성

1) 任孝室, 「西海岷地域의 繩文土器文化」 『韓國考古學報』 14 15合, 1983, pp.5~8

장하여 3세기 중반 경부터는 경기 충청도지역까지 영토를 넓혀 나갔는데 대부도는 이 무렵에 백제의 세력권내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근초고왕(近肖古王) 27년(372)부터 인천 능허대(凌虛臺)로부터 덕적도를 거쳐 황해를 건너 중국 산둥반도(山東半島)에 이르는 중국과의 해상교통로를 개설한 이후 인천과 덕적도를 잇는 항로상에 위치한 대부도에 백제의 지배도 보다 강화되어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4세기 말부터 5세기까지 계속되는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따른 공격과 백제의 대중국 해상교통로를 자주 차단함으로써 대부도에 대한 백제의 지배력도 상당히 약화되었을 것이다. 마침내 장수왕 63년(백제 개로왕 21년, 475) 고구려는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계속 남하하여 서쪽으로는 남양만에서 동으로 충청도와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거쳐 동해안의 영일만에 걸치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이 때 고구려는 남양만 지역에 당성군(唐城郡)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도 지역은 고구려의 영토에 포함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당성군에 소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강유역의 공주로 천도한 백제는 고구려의 남하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자 신라와 나제동맹을 맺어 이에 대응하는 한편 잃어버린 한강유역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때마침 고구려가 내분으로 혼란에 빠지자 백제 성왕은 신라와 함께 551년에 북상하여 숙원인 한강유역을 탈환하였는데, 이에 따라 대부도 지역도 다시 백제의 세력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2년 후인 553년에 신라 진흥왕은 백제를 기습 공격하여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남양지역에만 당항성(唐項城)을 쌓아 여기서부터 덕적도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해상교통로의 교두보로 삼았다. 이에 따라 대부도 지역은 신라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신라의 대중 국교통로를 차단하려는 백제와 고구려는 당항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격하였지만 신라는 이곳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한편 남양만 지역을 처음 장악한 진흥왕 14년(553)부터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까지 신라는 당성군(唐城郡)이란 고구려시대의 지명을 계속 사용하여오다가 경덕왕16년(757) 당은군(唐恩郡)으로 고친 것을

제외하고는 신라 말까지 변화가 없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대부도 지역은 계속하여 당은군에 소속되었다. 다만 당은군의 지명과 그 관할처가 여러 차례 변환되었다. 고려 초에 당은군을 고쳐 고구려시대의 지명인 당성군으로 하고 인천에 소속시켰다. 현종 9년(1018)에 수주(水州)의 속군으로 삼았다가 뒤에 인주로 환원하였다. 명종 2년(1172)에 감무를 두었고 충렬왕 16년(1290)에 홍다구(洪茶丘)의 내향(內鄕)이라 하여 지익주사(知益州事)로, 여기서 다시 강녕도호부(江寧都護府)로 삼았다가 같은 왕 34년(1308)에 익주목(益州牧)으로 승격하였는데 충선왕 2년(1310)에 전국의 목이 폐지됨에 따라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로 삼았다. 이때 남양도호부에는 대부도 지역을 비롯하여 영흥·덕적·자월면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다.¹⁾

고려시대에 대부도와 선감도라는 지명이 문헌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부도는 ‘대부도(大部島)’, ‘대부도(大府島)’등으로, 선감도는 ‘선감미도(仙甘彌島)’로 표기하였다. 대부도와 선감도란 지명의 어원이나 유래는 분명치 않다. 다만 대부도는 주변 도서보다는 대단히 큰 섬이고 지형이 황금산을 중심으로 평탄한 구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대부도(大府島)’란²⁾ 표기는 고려시대에만 사용되었으나 ‘대부도(大部島)’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사용되었으며 성종 18년(1487)부터는³⁾ ‘대부도(大阜島)’와 함께 사용되다가 조선 말기부터는 사라지고 대부도(大阜島)만이 사용되었다.

선감미도(仙甘彌島)는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사용되었는데 때로는 ‘선감도(仙甘島)’로 줄여서 쓰기도 하였으며 구한말부터는 선감도(仙甘島)만이 사용되었다. 한편 대부도가 섬의 모양이 낙지같다 하여 낙지섬, 혹은 대나무가 많다 하여 죽호(竹湖), 혹은 모양이 연꽃이 물에 떠 있는 것과 같다 하여 연화부수지(蓮花浮水地)라고도 불렀다고

1) 『高麗史』 57, 地理志, 唐城郡條

2) 『高麗史』 24, 고종 3년 정월 乙亥條

3) 『成宗實錄』 200, 18년 2월 己丑條

전하는데¹⁾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13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 국제정세에는 일대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그것은 몽고세력의 흥기였다. 13세기 초엽 테무진(鐵木眞)이라는 영웅이 나라와 흩어진 부족을 통일하고 황제의 지위에 올랐으니 이가 유명한 칭기스칸(成吉思汗)이다. 이 때부터 몽고는 사방으로 정복사업을 전개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북중국에 자리잡은 금을 침략하여 그 세력이 강성해지더니 마침내 고려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고종 12년(1225)에 고려에 왔던 몽고 사신 제구유(著古與)가 돌아가다가 압록강유역에서 피살되자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고려에 침입하기에 이르렀다.

몽고는 고종 13년(1231)제 1차 침입으로부터 고종 46년(1259) 강화가 맺어질 때까지 전후 9차례나 침입하였다. 오랫동안 걸쳐 몽고군의 침략이 되풀이되었지만 고려인은 끈질긴 항쟁을 계속하여 국토를 수호하였다. 강력한 반몽정책(反蒙政策)을 견지한 최씨무인정권이 바다 건너 강화도에서 곳곳이 항전을 지휘하였고 일반 민중들도 침략군에 대항하여 싸움으로써 몽고군을 격퇴할 수 있었는데, 대부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몽고의 제 7차침입(1225년 가을~1256년 9월)이 있던 고종 43년(1256) 4월 庚辰에

大阜面別抄가 밤에 仁川(인천)境域의 蘇萊山 아래에 나가 蒙古兵 100여 인을 擊走시켰다²⁾

라고 하는 것이 그 실례이다. 몽고의 제 7차 침입은 육지에서의 노략과 함께 서해안의 해도를 직접 공격하고 있던 것이 전략상 변화된 특징이다. 그것은 강화도(江華島)로 천도한 고려정부를 위협하고 강화도로 들어가는 교통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서 강화도 갑곶(甲串)과 마주 대하는 곳에 대규모 군대를 집결시켜 무력을 과시하는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³⁾ 하지만 몽고의 해도 공격작전은 수군을 남하시키는 고려정부

1) 이훈익, 『仁川沿海島嶼地誌』(원사본) p.130.

2) 『高麗史』 24. 고종 43년 4월 庚辰條

3) 井龍淵, 〈고려의 海道入保策과 몽고의 戰局變化〉 『歷史教育』 32, 1982, pp.70~77

의 적극적인 대응책과 해도주민의 분전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 시기 몽고에 대응한 고려정부의 대응을 흔히 해도입보책(海島立堡策)이라 한다.¹⁾ 육지 주민을 육지와 가까운 섬으로 옮겨 몽고에 항전을 한다는 전략이었다. 대부도는 육지에서 가깝고 섬의 면적도 넓어 해도입보를 하기에는 적당한 섬이었다. 최근 대부도 여러 곳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석곽묘(石槨墓)는 바로 이 시기 주민들이 남긴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도에는 일반 주민만이 아니라 대부도 별초군(別抄軍)도 있었다. 이들은 육지로 상륙하여 적의 해도공격을 교란하였다. 이를 ‘大阜島別抄’라 한다.²⁾ 본래 별초군은 최우(崔瑀) 무인정권이 도적과 폭력을 금지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일종의 경찰군이었으나 몽고의 침입과 더불어 대몽항쟁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 또한 점차 인원이 늘어나자 좌·우별초로 나누고 여기에 몽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군사들로 구성된 신의군(神義軍)을 합쳐 삼별초(三別抄)라 불렀다. 그러나 삼별초는 중앙군이였다. 이들은 물론 지방에 파견되어 그 곳에서도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그 조직과 소속은 어디까지나 경군(京軍)에 해당하는 군대였다. 삼별초를 경별초(京別抄)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별초군은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도 조직되고 있었다. 이들의 편성은 처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몽고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차츰 상비적인 성격을 지닌 부대들도 생겨났다고 한다.³⁾ 이와 같이 지방에 설치된 별초군은 외별초(外別抄) 또는 경외별초(京外別抄)라 하는데 대부도별초(大阜島別抄)를 비롯하여 위주별초(渭州別抄), 태주별초(泰州別抄), 부녕별초(扶寧別抄), 교동별초(喬桐別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부도별초(大府別抄)는 대몽항쟁의 주요 근거지로 이용된 해도에 대한 몽고의 침입을 방어하고 삼남지방에서 강화도로 들어오는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별초군으로 여기에는 대부도를 비롯한 주변의 주민 가운데 용력(勇力)있는 자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1) 尹龍琳, 앞의 논문

2) 대부도별초군의 활동에 대하여는 尹龍琳, 「高麗對蒙抗爭期の『安山治軍』—三別抄에 관한 제비나—」 1988에 상세하다.

3) 金宰基, <三別抄와 그의 亂에 대하여> 『東方文化交流史論叢』 1984, pp.114~115.

몽고의 맹렬한 공격에 대해 고려정부와 일반 민중들은 끈질긴 저항을 하였으나 고종 45년(1258) 최의(崔頤)가 몽고와 강화하려는 세력에 의해 피살되고 끝까지 반몽정책을 고수하던 임유무(林惟茂)마저도 반대파에 의해 제거되자 고려는 왕정을 복구하고 개경으로 환도하였지만 아직 반몽항쟁이 그친 것은 아니었다.

원종 11년(1270) 출육명령이 내리자 개경환도는 곧 몽고에 대한 항복을 의미한다하여 배중손(裴仲孫)이 이끄는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승화후(承化候) 온(溫)을 왕으로 옹립하고 몽고세력을 등에 업은 원종의 개경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장기전을 펴기 위하여 배를 타고 남하하여 한때 영흥도(靈興島)를 근거지로 활동하다가¹⁾ 곧 진도(珍島)로 내려가 남부지방 일대를 지배하에 넣고 제주도(濟州島)로 옮겨 적에게 평정될 때까지 끈질긴 항쟁을 계속해 나갔다. 삼별초가 진도로 내려가 항몽전을 계속하자 많은 지방의 호응이 있었는데 이점에 있어서 대부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① 원종 12년(1271) 2월 辛丑에 착량(窄梁, 손돌목)을 지키던 몽고병이 대부면(大阜面)에 들어가 거민(居民)을 침탈하니 백성이 심히 원망하더니 대부인이 승겸(崇謙) 등이 봉기했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몽고인 6명을 죽이고 반하거늘 수주부사 안열(安悅)이 군사를 거느리고討平하니...²⁾

② 원종 12년(1271)에 窄梁防戍의 몽고병이 大阜面에 들어가 주민을 침략하였으므로 島人들이 분노하여 몽고병을 죽이고 반란하거늘 水州副使 安說이 군사를 거느리고 처서 평정하매...³⁾

위의 기록에서 대부도 주민이 몽고에 항거하던 원종 12년(1271) 2월은 삼별초정부를 지지, 호응하는 세력이 각 지방의 군현에서 봉기하던 때였다.⁴⁾ 가장 먼저 봉기한 밀양(密城)에서 “진도(珍島)의 삼별초정부에 호응하자”는 요지의 격문을

1) 오진근, 『웅진군지』 1988에 상세하다.

2) 『高麗史』 27, 元宗 12년 2월 辛丑條

3) 『高麗史』 56, 地理志, 水州條

4) 金潤坤, 「三別抄의 對蒙抗戰과 地方 郡縣民」, 『東洋文化』 20·21合, 1981.

사방으로 돌린지 7일 만인 1월 29일 개경에서 승겸(崇謙)·공덕(功德) 등이 백성을 모아서 몽고관리와 개경정부의 관료를 살해하고 삼별초정부로 투신하려 하였다. 이 파급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갔고 이 때 대부도에서도 몽고인을 살해하고 반기를 들고 일어섰던 것이다.

13세기는 몽고의 침입에 대항하여 대부도와 대부도 주민들이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때였다. 그리하여 대몽항쟁의 근거지인 해도로 침입하여 강화도로 통하는 교통로를 차단하려는 몽고의 침입을 격퇴하였으며 몽고에 항복과 같은 의미인 개경환도에 반대하여 봉기한 삼별초정부를 지지하고 최후까지 항전을 계속해 나갔던 것이다.

3. 조선시대의 대부도

1) 인구와 경제기반의 확립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대부도 지역은 계속하여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세종실록』 지리지로부터 1864년 경에 간행된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이르기까지 역대 지리서와 읍지에서 대부도 지역을 남양도호부의 일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풍도(楓島)만이 성종 17년(1468)에 수원도호부에 속하였다가 중종(1506~1544)초 다시 남양도호부로 옮겨온 일이 있을 뿐이다.¹⁾

조선시대에 대부도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을까 먼저 조선 초기의 사정을 알려주는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대부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화지량(花之梁)에서 서쪽으로 2리 멀어지고 (섬의)길이가 30이요, 너비는 15이다. 경기좌도선군영(京畿左道船軍營)과 100여 결의 전이 있다. 국마 418필을 방목하였는데 염부(鹽夫) 4호가 들어가 그것을 돌본다.²⁾

1) 『新增東國輿地勝覽』9, 南陽都護府 山川條

2) 『世宗實錄』148, 地理志, 南陽都護府

이에 의하면 조선 초기에 대부도에는 좌도선군영(左道船軍營)이 설치되어 있었고 100여 결(結)에 달하는 토지와 418필이라는 많은 말을 사육하는 목장이 있었다. 비록 목마는 염부(鹽夫) 4호에 의해 사육되고 있었다고 전하지만 위의 기록만으로도 당시 대부도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였는지 그리고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주민거주가 확인되는 것은 현 안산시와 웅진군내 도서 중에서는 대부도가 유일한 예에 속한다. 다른 곳은 뱃길이 멀고 고려 말에 극심하던 왜구의 침입으로 많은 수의 주민거주가 극히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 반면에 대부도는 육지와 대단히 가까워서 썰물 때는 걸어서도 육지와 통할 정도로¹⁾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였으며 해도로서는 드물게 넓은 면적과 황금산을 중심으로 남으로 평탄하게 뻗어내린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거주와 농경에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더욱이 삼남지방에서 수도 한양이 있는 한강 어귀로 들어오는 해상교통로상의 요충지로 군사·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이미 고려시대 몽고침략기에도 대부도에 대부도별초군(大阜島別抄軍)이 설치되어 있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조선 중기에 들어 대부도의 주민 수는 더욱 증가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개편된 지방군제에 따라 남양 화량(花梁)에 본영을 두고 있던 경기도수군절도사(京畿道水軍節度使)가 바람이 잔잔할 때(風和時)는 대부도로 옮겨와 주둔하였고, 대부도 목장의 목자수가 증가하여 선조대에는 348명에 달하였으며, 성종 18년(1478)부터는 대부도에 둔전(屯田)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 들어 숙종 4년(1678)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난다.

우의정 權大運이 말하기를 “남양 大阜島와 인천 紫燕島(영종도)는 예로부터 사슴을 잡아 進上하는 규정이 있사온데 지금

1) 『東國輿地志』 2, 南陽都護部 山川條, 그런데 육지와 통하는 이 길을 처음 鶴이 건너는 것을 보고 알았다하여 鶴島라고도 전해온다.

주민의 수가 많아져서 사슴이 멸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있지도 않은 사슴 진상을 위해 돈으로 대납하는 병폐가 극심하오니 금년까지만 시행하고 이후로는 면하게 하옵소서” 하니 왕이 “영원히 파하라” 고 하였다.¹⁾

이에 따르면 대부도에는 한때 사슴이 많아서 사슴을 잡아 진상했다는 사실과 함께 숙종 4년(1678)경에 사슴이 멸종할 정도로 많은 수의 주민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부도 지역에 상당수의 주민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주민이 거주하던 자연촌에 면리제(面里制)를 설치할 때 대부도에도 대부도면(大阜島面)이 설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리제가 실시되던 18세기 중엽에 대부도면에는 722호, 3,002명(이중 남 1,845, 여 1,157)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²⁾ 이는 대부도민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상당수의 대부도민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19세기 전반기의 사정을 알려주는 『청구도(靑丘圖)』(1837년)와 이에 기초한 『대동지지(大東地志)』(1861년)에는 대부도에 대하여 한결같이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많다’라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³⁾ 실제 대부도에 독진(獨鎭)이 설치되어 주변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독자적인 행정단위를 가지고 있던 1871년~1849년 사이의 사정을 알려주는 대부지도(大阜地圖)에 의하면⁴⁾ 당시 대부도에는 403호에 달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더구나 조선시대의 호수(戶數) 파악은 16세~60세 사이의 남정(男丁) 3인을 1호로 한 편호(編戶)였으므로 실제 호수 및 남녀노소를 합한 주민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인구의 증가와 함께 촌락의 지명이 문헌에 등장하고 그 수도 점차 늘어났는데, 19세기 전기에는 영전동(營田洞)을 비롯해 흘곶동(訖串洞), 중현동(鍾縣洞) 등 3개 촌락에 불과하던

1) 『肅宗實錄』 7, 45, 10월 庚午條

2) 『輿地圖書』 上, 南陽都護部 坊里條

3) 『靑丘圖』 17屏 15版

4) 『大阜地圖』(奎10361·고종대)
『大東地志』 4, 南陽, 山水條

것이¹⁾ 19세기 후반에는 방아머리(舂頭浦), 사동(寺洞), 와동(瓦洞), 화불리(禾不里), 영전동(營田洞), 당전촌(堂前村), 마동(麻洞), 고유지(古油地), 분지촌(汾之村), 구억동(九億洞), 망산리(望山里), 서촌(西村), 진두(津頭), 신당리(新唐里), 공현(拱峴), 말부흥(浮甌浦), 흘곶동(訖串洞) 등 18개 촌락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부터 문헌에 기록된 대부도와 선감도 외에 풍도, 불도, 탄도 등이 문헌에 나타나던 때였다. 풍도는 이미 성종 8년(1447)부터 나타나는데²⁾ 조선시대 말까지 풍도(楓島)라 표기하였다. 불도는 1837년부터,³⁾ 그리고 탄도는 1871년부터⁴⁾ 기록에 보이는데 불도(佛島)와 탄리도(炭理島)로 표기하였다.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에는 둔전(屯田)이라는 토지형태가 있었다. 둔전은 군병이 평상시에 토지를 개간, 경작하여 그 수확을 군량에 충당할 목적으로 설정한 토지이다. 둔전제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말에 들어왔는데 이후 나름대로 변모하여 조선시대에도 존속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국둔전(國屯田), 군둔전(軍屯田), 관둔전(官屯田)과 호급둔전(戶給屯田)이 있었으나 세조대 이후 점차로 통합·정비작업이 진행된 결과 『경국대전』에는 국둔전과 관둔전만 남게 되었다.⁵⁾ 대부도에는 조선 전기에 군둔전이 설치되어 있었다.

대부도에 군둔전설치가 처음 논의된 것은 성종 18년(1487) 정월이었다. 이 때 경기도 관찰사 성건(成健)이 대부도 지도를 왕에게 올리면서 “대부도는 토질이 비옥하고 기름져 가히 200여 석을 거둘 수 있고 해택(海澤)이 있어(독을 막아 언전(堰田)으로 한다면) 역시 200여 석을 거둘 수 있으므로 마땅히 목장과 경계를 지어 말들이 넘나들지 못하게 하고 화량(花梁)에 명하여 선군(船軍) 가운데 반을 떼어 경작케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는데 성종은 목장과의 문제가 있으

1) 『京畿誌』 2. 南陽坊里條(奎12178, 1842년)

2) 『成宗實錄』 81, 성종 8년 6월 丁未條.

3) 『靑丘圖』 17幅 15版

4) 『高宗實錄』 8, 8년 6월 7일條

5)金玉根, 『韓國土地制度史研究』, 1980, p.337.

므로 사복시(司僕寺)와 의논토록 하였다.¹⁾

같은 해 2월 이 문제를 논의하던 중 특진관 김승경(金升卿)이 “대부도에 둔전 설치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사복시 정(정3품, 당하)인 강귀손(姜龜孫)을 보내되 중요한 일이므로 홀로 보내지 마시옵고 사복시 제조, 호조 당상, 경기감사를 함께 보내어 심사케 하기를 청합니다. 목장에 둔전을 두어 군자(軍資)에 충당하는 것은 참으로 급한 업무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대부도에 군둔전이 설치되었고, 이를 화량의 수군이 경작하도록 하였다.²⁾

대부도에 군둔전을 설치되자 대부도목장 이설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대부도목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게 되었고, 이를 위해 화량수군으로 하여금 목장과 경계에 토축(土築)과 목책(木柵)을 설치하게 하고³⁾ 소전(召田)을 논으로 만들었다. 농우는 영흥·선감·대부도목장의 목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육하는 것을 사용토록 하고 남양부사와 화량수군첨절제사가 감농관(監農官)으로 경작하도록 하였다.⁴⁾

그러나 대부도에 군둔전을 일반농민에게 경작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하였다. 즉 군둔전이 설치된지 한 달 만인 성종 18년(1487) 3월 호조(戶曹)에서는 대부도목장에 소속된 주민들이 2년 전(1485)에 있던 대기군으로 지금까지도 생활이 몹시 곤궁할 뿐만 아니라 수군의 임무는 국토방위가 우선이며 군둔전을 실시한다면 감농관의 작폐가 심할 것이므로 대부도 주민들에게 경작케 하여 법대로 수세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이를 성종이 들어주지 않았다. 또한 같은 달에 유사시에는 경작이 불가능하지만 지금은 평화시이므로 군인들이 경작에 종사해도 잘못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⁵⁾ 그리고 같은 해 4월에 사복시에서는 대부도가 땅은 넓은데 말의 수가 적어 비록 둔전을 설치해도 목장에는 피해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⁶⁾ 그러나 농번기에 들어서면서 논의가 점차

1) 『成宗實錄』 199, 성종 18년 정월 丁未條.

2) 『成宗實錄』 200, 성종 18년 2월 乙丑條.

3) 『成宗實錄』 201, 성종 18년 3월 甲辰條.

4) 『成宗實錄』 201, 성종 18년 3월 乙卯條.

5) 『成宗實錄』 201, 성종 18년 3월 丙辰條.

줄어들더니 그 해 농사가 끝난 10월에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박선손(朴善孫)은 경연에서 “수군을 둔 것은 방술(防戍)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둔전은 본래의 취지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세종·세조 때 호조의 강청에 못이겨 설치된 것이 많습니다. 마땅히 백성들로 하여금 경작케 함이 옳습니다.”라고 진언하였다. 이에 성종은 “경의 말은 대부도를 두고 한 말 같은데 대부도는 수로가 험하고 멀어 백성의 왕래가 곤란하기 때문에 수군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것 뿐이다”라고 하자 박선손이 답하기를 “왕래의 어려움은 백성이나 수군이 다룰 것이 없으며 또한 대부도는 수확이 불과 500석에 불과하여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백성을 모아 경작케 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것이 마땅한데 만일 응모하는 백성이 없으면 원래대로 목장만을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였다.¹⁾

이때 성종은 마땅히 재검토하여 시행토록 명하였으나 다음 해 대부도 농사가 풍작을 이루었고 또 방천수축(防川修築)에 따라 생긴 경작지에 대한 경작허가 사실²⁾ 이외에는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한 대부도 군둔전(軍屯田)의 향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성종조에 반포된 『경국대전』에 의해 각 진둔전(鎭屯田)과 군둔전을 관둔전(官屯田)으로 법제화 하였는데³⁾ 이에 따라 대부도 군둔전도 역시 관둔전화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둔전은 임진·병자 등 전란을 겪은 이후 중앙의 각 관아에서 경비조달이 어려워지자 각 지역에 둔토(屯土)를 설치 확정할 때 관방(官房)을 위시한 양반귀족들의 침탈대상이 되었다. 대부도의 관둔전도 이에 따라 사복시의 아문둔토(衙門屯土)가 되었다. 아문둔토는 일반 백성들에게 고율의 소작료를 받고 경작케 하였으므로 이를 경작하던 대부도 주민들의 생활은 몹시 곤궁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후기에는

6) 『成宗實錄』 202, 성종 18년 10월 癸巳條.

1) 『成宗實錄』 208, 성종 18년 10월 丁夜條.

2) 『成宗實錄』 213, 19년 2월 丙午條.

3) 『經國大典』 2, 戶典 諸田條.

대부도 뿐만 아니라 선감도·불도·탄도·풍도의 토지까지 모두 사복시의 아문둔토가 되고 말았다.¹⁾

2) 국영목장의 운영

조선시대에는 대부도 관내의 대부도·선감도·불도·풍도 등지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목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대부도 목장이 언제 설치되었는 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이 된 것으로 보아 늦어도 세종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에 대부도목장에는 말 418필과 염부(鹽夫) 4호가 소속되어 있었으며,²⁾ 선조대에는 말 16필에 목자(牧子)가 348명이었다.³⁾ 그리고 18세기 중엽에는 말 568필과 839명의 목자가 소속된 것으로 나타난다.⁴⁾ 한편 숙종 3년(1677)에는 제주도의 준마(駿馬) 68필을 대부도목장에서 번식시키기도 하였다.⁵⁾

대부도목장은 조선전기에 설치되어 조선중기에는 말과 목자수도 상당수에 이르렀으나 조선후기에는 말이 점차 폐사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고종 21년(1884)에는 이를 경외 각지로 분양토록하니 이제 대부도목장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⁶⁾ 또한 고종 31년(1893)에는 분양과정에서 누락되었던 58필의 말을 마리당 10냥으로 환산하여 사복시에 납부케 하니 대부도목장은 이제 사실상 폐지된 것이었다.⁷⁾

선감도목장(仙甘島牧場)의 설치년도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세종 13년(1431)에 사복시 제주(提調)가 세종 9년(1427)에 혁파된 선감도목장을 다시 설치하여 소를 방목하자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⁸⁾ 세종 9년(1427) 이전에는 선감도목장이

1) 註22)와 같음

2) 註17)과 같음

3) 南都泳, 「朝鮮時代の馬政研究(1)」, 『韓國學研究』 1, 1976, p. 235.

4) 『島地圖』 上, 南陽郡護府 牧場條.

5) 『肅宗實錄』 6, 34년 10월 乙巳條

6) 『高宗實錄』 21, 21년 9월 21일條

7) 『高宗實錄』 30, 30년 9월 8일條

8) 『世宗實錄』 51, 13년 3월 壬辰條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것이 혁파되었다가 세종 13년(1431)에 다시 복설된 것이다. 선감도목장은 말보다는 소를 기르던 목우장(牧牛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종 13년(1431)에 복설될 당시에 소를 방목하게 하고 있으며,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우쌍입방(牛雙入放)’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¹⁾ 목우장으로 시작한 선감도목장은 조선중기 어느 시기엔가 목마장으로 변환된 것으로 보인다. 선조대 전국의 목장 운영실태를 알려주는 『목우도(牧牛圖)』에 따르면 29필의 말을 56명의 목자가 방목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²⁾ 선감도목장은 조선후기에도 계속 유지되었으며³⁾ 1864년에 간행된 『대동지지』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⁴⁾ 폐지년대는 1864년 이후가 될 것이다.

한편 풍도목장(豐島牧場)은 성종 8년(1477)에 영종도 소속의 목장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것으로⁵⁾ 보아 늦어도 이 때에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는 폐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성종 8년(1477)에 풍도목장에는 목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불도목장(佛島牧場)은 1864년 경에 간행된 『대동지지』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⁶⁾ 그 설치와 폐지연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말을 키우던목마장(牧馬場)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도 지역의 목장은 선감도목장에서 일시적으로 소를 방목한 것 이외에는 모두 말을 사육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말은 전마(戰馬)로서 뿐만 아니라 역마(驛馬)로서 교통통신에도 이용되고 외국과의 교역품이나 사례품으로 사용되는 등 국가운영에 필수적이었다. 또한 농경과 승마 및 말털, 말가죽, 말고기 등을 가공하여 사용되는 등 일반의 실생활에도 유용

1) 주17)과 같음

2) 주42)와 같음

3) 『東國輿地志』 2, 南陽都護部 山川條

4) 『大東地志』 4, 南陽 牧場條

5) 『成宗實錄』 81, 8년 6월 丁未條

6) 주52)와 같음

한 것이었다. 때문에 조선왕조에서도 일찍부터 마정기구의 정비를 통한 목장의 조직적인 관리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몇 차례의 변화 끝에 성종대에 『경국대전』의 반포로 정비되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¹⁾ 각 도의 목장은 관찰사를 총 책임자로 하고 그 아래 일정수의 감목관(監牧官)이 각 목장을 감독·관리하였는데, 목장은 암말 100필, 숫말 15필을 단위로 1군(群)으로 삼고 매 군마다 군두(群頭) 1명, 군부(群副) 2명 등의 중간관리자와 실제 방목에 종사하는 목자 4명을 배정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은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부터 100필 이상을 사육하던 대부도목장의 경우는 군두, 군부 및 목자가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도지역의 목장도 감목관의 관할을 받았다. 감목관은 목장의 사육실태를 관리하고 군두, 군부, 목자를 순찰·감독하는 것을 직책으로 하는 중 6품의 관직이었다. 감목관에는 지방수령이 겸임하는 겸임인 감독관과, 목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던 전문적인 감목관의 두 종류가 있었고 감목관의 수도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²⁾

경기도 감목관은 세종대에는 1명, 인조대에는 2명, 영조대에는 3명, 정조대에는 4명이었고 이후 5명으로 늘어났는데 소속관계가 복잡해진 영조대 이후 대부도지역의 목장은 남양감목관(南陽監牧官)의 관할하에 있었다.³⁾ 남양감목관은 남양도호부사나 영종첨사(永宗僉使)가 겸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전에 의한 규정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더 복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는 대부도에 ‘대부감목관(大府監牧官)’이 따로 설치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부진첨사가 겸직하기도 하였다. 대부감목관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영종 15년(1739) 우의정 유척기(兪拓基)가 30년 전(숙종35년, 1709) 대부감목관(大阜監牧官)을 혁파하고 별

1) 『經國大典』 4, 兵典廐牧條

2) 南都泳, 앞의 논문, pp.212~220

3) 同上 p.231

도로 첨사를 두어 그로 하여금 감목관을 겸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느 때 무슨 이유로 혁파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지금 다시) 화랑진(花梁鎭)을 내어 대부진(大阜鎭)에 설치하고 이로써 감목관을 겸하게 하는 것이 형편에 합당한 것이옵니다.¹⁾

라고 하니 왕이 여러 대신들과 의논한 결과 허락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과 숙종 35년(1709)에 설치된 대부진이 혁파된 것이 경종 3년(1723) 이라는 사실을²⁾ 아울러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이해가 가능하다.

즉 늦어도 숙종 35년(1709)에는 전문적인 대부감목관이 있었는데 이 때 그것을 없애고 대부진첨사가 감목관을 겸하게 하다가 경종 4년(1723)에 혁파하였으며 영종 15년(1739)에 다시 대부진을 설치하고 대부진첨사가 감목관을 겸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757년~1765년 사이에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³⁾ 대부진도 대부감목관도 나오지 않는다. 이는 1842년~1843년에 편찬된 『경기지(京畿志)』에도⁴⁾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영조 15년(1739)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진뿐만 아니라 대부감목관도 폐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1864년에 간행된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⁵⁾ 대부감목관이 다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무렵 대부감목관이 복설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도 곧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고종 8년(1871)에는 대부도에 다시 진을 설치하고 첨사를 파견해 감목관을 겸하게 하고 있다.⁶⁾ 그러나 이것도 같은 해 7월 20일에는 다시 폐지되었으며,⁷⁾ 고종 22년(1884)에 대부진첨사가 감목관을 겸하게 되었다.⁸⁾ 그러나 이것도 유명무실해

1) 『承政院日記』 902, 영조 15년 11월 9일條

2) 『高宗實錄』 12, 3년 6월 申夜條

3) 『輿地圖書』 上, 喬桐 水營水軍條

4) 『京畿志』 2, 南陽 牧場條

5) 註52)와 같음

6) 『高宗實錄』 8, 8년 5월 25일條

7) 『高宗實錄』 8, 8년 7월 20일條

8) 『高宗實錄』 22, 22년 4월 6일條

져 고종 30년(1893) 대부도의 목장을 영원히 혁파함으로써¹⁾ 대부감목관도 없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 대부도 지역에 감목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남양도호부사가 감목관을 겸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도에 감목관이 배치되고 있을 때는 선감도, 영흥도, 자월도, 이작도, 선재도, 불도, 입파도, 승복도목장까지도 이 감목관의 속장(屬場)으로 삼고 있었다.²⁾

3) 해양방어체제의 강화

조선시대 대부도는 서해 해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수로의 안전과 방어를 위한 제반 시설이 마련되었다. 대부도의 동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남양도호부 화량(花梁)은 조선 전기에 경기도 수군을 총괄하던 곳이다. 당시 화량에는 경기좌도수군첨절제사가 주둔하면서 교동 응암량(鷹巖梁)에 있는 경기우도수군첨절제사와 함께 수군을 관할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화량에 배치된 좌도수군의 군영은 대부도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³⁾ 따라서 기록만 가지고 본다면 세종대 경기좌도수군의 지휘자인 첨절제사는 화량에 머물렀고 그 군영은 대부도에 주둔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지휘관과 군영이 별도의 지역에 있을 수 있는지, 또한 화량과 대부도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는 경기좌도 수군첨절제사를 대신하여 역시 화량에 배치된 경기도수군절도사(경기수사)와 대부도와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대에 일단 정비되었던 조선 초기의 지방군제는 세조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그것은 세종대까지의 지방군제가 해안방비에만 치중하여 내륙방어가 소홀하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몇 차례의 변화 끝에 지방군제는 『경국대전』의 반포와 함께 진관체제

1) 『高宗實錄』 30, 30년 9월 8일條

2) 註52)와 같음

3) 『高宗實錄』 88년 4월 조6

(鎭官體制)로 개편되었다. 진관체제는 거진(巨鎭)을 중심으로 여러 진을 여기에 속하게 하여 덕진(獨鎭)을 없애고 각진의 독자성을 살리는 등 일원적 군사체제를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¹⁾ 수군에 있어서도 육군의 진관편성체제에 따라 역시 진관조직을 갖춘 것이었다.

경기도에는 2명의 수군절도사(수사)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경기도관찰사가 겸임하였으며, 나머지 하나는 남양군 화랑에 배치되어 있었다. 관찰사는 겸임수사이고 화랑수사는 전임수사였던 것이다. 더구나 관찰사에게는 소속 수군진이 없었으므로 화랑수사가 경기도 수군의 실질적인 총지휘관이었던 셈이다. 그러면 화랑에 배치된 경기수사와 대부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 이 점에 대해 『경국대전』과 역대 지리서와 읍지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다행히 영조 15년(1739)에 당시 우의정이던 유척기의 상소내용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하고 있다.

신이 한때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있으면서 화랑, 대부 양처를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병자란 이전에 경기수사는 바람이 잔잔할 때는(風和時) 대부에 머물렀고, 바람이 높을 때는(風高時) 화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것을) 병자란 중에 강도(江都)로 옮겼다가 난후에 다시 교동(喬桐)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도에는 옛날 경기수사가 머물렀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²⁾

이를 통해 볼 때 화랑에 경기수사가 처음 파견되었던 세조 원년(1455)부터 병자호란(인조 14, 1636) 이전까지 경기수사는 바람이 잔잔할 때는 대부도에 머물고 바람이 높을 때(또는 거셀 때)는 화랑에 주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영이 이동할 때는 수군과 병선도 함께 이동하였을 것이므로 그 규모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당시 경기수영에 직속된 병선만도 대맹선(大猛船) 6척, 중맹선(中猛船) 7

1) 閔賢九, <鎭官體制의 確立과 地方軍制의 成立>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1968. pp.157~162

2) 註58)과 같음

척, 소맹선(小猛船) 4척 무군소맹선(無軍小猛船) 1척 등 도합 18척에 달하였다고 한다.¹⁾

그러면 경기수사가 대부도에 머물렀던 바람이 잔잔할 때와 화랑에 머물렀다는 바람이 거셀 때는 기상변동에 따라 수시로 이동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일정기간동안 번갈아 가며 머물렀던 것일까. 기상변동에 따라 이동하였다고 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기분으로 이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영이 이동할 때는 병선과 병사를 함께 옮겨야 했으므로 잦은 이동이 그리 수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수사(黃海水使)의 경우는 어떠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웅진(甯津)에 배치된 황해수사도 화랑의 경기수사와 마찬가지로 바람이 잔잔할 때는 소강(所江, 行營)에 주재하였으며 바람이 거세어지면 본영인 웅진에 주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 여기서 바람이 잘 불때란 3월부터 8월까지이고 바람이 거셀 때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였다.³⁾ 이는 대략 춘분부터 추분까지는 바람이 잔잔하던 때로, 춘분부터 춘분까지의 기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경기수사도 황해수사와 마찬가지로 3월부터 8월까지의 대부도에 그리고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화랑에 머물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볼 때 세종대 경기좌도 수군첨절사가 화랑에 주재하고 그 군영은 대부도에 두었던 것도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 대부와 화랑을 양쪽을 교대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러한 전통이 경기수사 시기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수영이 병자호란 중에 강화도로 옮겨간 이후 화랑과 대부는 어떤 상태로 남아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도 앞에서 살펴 본 유척기의 상소문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금(영조 15년, 1739) 이 곳을 보면 화랑, 대부 모두 진(鎭)을 둘 만한 곳이나 화랑은 깊은 구석에 치우쳐 있어서 대부도가 직접 해로에 면한 것만 같지 못합니다. 30년전(숙종 35

1) 『經國大典』 4, 兵典 諸道兵船條

2) 『萬畿要覽』 軍政篇4, 海防 西海北部條

3) 『黃海道全誌』, 甯津都護府 官職條(藏 M1675.1899)

년,1709) 대부감목관(大阜監牧官)을 혁파하고 별도로 첨사(僉使)를 두어 그로 하여금 감목관을 겸하게 하였는데, 이것을 어느 때 무슨 이유로 혁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랑진을 옮겨 대부도에 설치하고 이로써 감목관을 겸하게 하는 것이 형편에 합당하옵니다.” 라고 하니 왕이 여러 대신과 의논한 결과도 이와 같으므로 허락하였다.¹⁾

이를 통해 병자호란 중에 경기수사가 강화로 이동해 간 후 대부도에는 어떠한 군사시설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숙종 35년(1709)에 대부도에 진이 설치되고 첨사가 파견되어 감목관을 겸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중간에 폐지되었으며 영조 15년(1734) 유척기의 건의에 의하여 다시 복설되었던 것이다. 숙종 35년(1709)에 설치된 대부진이 폐지된 것은 경종 3년(1723)이었다.²⁾ 이는 경종 원년(1721)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화랑과 대부도 양쪽 모두에 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인접한 지역에 이중으로 첨사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그리하여 보다 중요성이 덜하다고 판단된 대부진(大阜鎭)이 폐지되기에 이른 것이다.³⁾ 대부진 첨사에 대하여는 자세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 여러 문서에 간혹 보이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대부진 첨사

| 성 명 | 부임년도 | 성 명 | 부임년도 |
|-------|------|-------|------|
| 韓 用 善 | 1871 | 申 泰 休 | 1888 |
| 趙 存 億 | 1885 | 閔 致 愼 | 1889 |
| 李 奎 鴻 | 1886 | 張 基 濂 | 1894 |
| 李 道 載 | 1887 | | |

아무튼 영조 15년(1739)에 다시 설치된 대부진은 얼마까지

1) 註58)과 같음

2) 『景宗實錄』 12, 3년 6월 申夜條

3) 『景宗實錄』 4, 원년 7월 乙卯條

못하고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757~1765년 사이에 간행된 『여지도서』를 비롯하여 1864년경에 간행된 『대동지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헌과 지리서 및 읍지에 전혀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19세기 중엽 대원군이 집권하자 곧 왕전을 강화하며 그 동안의 각종 폐단을 제거하고 조선 왕조의 지배체제를 재정비하려는 일대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군비강화책은 그가 추진한 일련의 개혁정책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것이었다. 때마침 서구열강에 의해 발생한 두 차례의 양요는 강화도를 중심한 연안방비책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그런데 강화도방비책은 강화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강화도로 들어오는 연해도서의 요충지에도 실시되었다.¹⁾

이에 따라 고종 8년(1871) 5월 25일에 대부도가 요충지임을 감안하여 진을 설치하고 첨사를 파견하여 감목관을 겸임하도록 하였다.²⁾ 그리고 대부진은 독립적인 진으로 하여 강화 진무영(鎭撫營)에 예속시키고 진무영의 전해방장(前海防將)을 겸하도록 하였다.³⁾ 그리고 대부진의 영역이 협소하므로 부근의 영흥도, 선재도, 풍도, 선감도, 탄도, 불도 및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등의 전결과 호구를 대부진에 소속시켰다.⁴⁾

그러나 같은 해 7월 20일에 이르러 대부도의 진장(鎭將)을 혁파하여 다시 남양도호부에 환속시켰다. 그것은 진설치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고 주변 도서를 소속시킨데 따른 어려움 때문이었다. 그 대신 웅진·태안의 경우와 같이 풍고풍화(風高風和)시에 남양부사가 대부도에 옮겨오도록 하되 남양부의 포병 100명을 애구(隘口)방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⁵⁾ 이 때

1) 朴廣成, 《洋擾後の 江華島 防備策에 對하여》

『畿甸文化研究』 7, 1976

2) 『高宗實錄』 8, 8년 5월 25일條

『備邊司啓錄』 253, 고종 8년 5월 25일條

『日省錄』 고종 8년 5월 25일條

3) 『高宗實錄』 8, 8년 5월 26일條

『日省錄』 고종 8년 5월 25일條

4) 『高宗實錄』 8, 8년 6월 7일條

『日省錄』 고종 8년 6월 8일條

5) 『高宗實錄』 8, 8년 7월 20일條

남양부사가 풍고풍화에 따라 대부도에 옮겨와 주재하도록 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선 전기 화랑의 경기좌도수 군첨절제사 뿐만 아니라 경기수사가 바람이 잔잔할 때는 대부도에서, 바람이 셀 때는 화랑에서 주둔하고 있던 것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이 당시 남양부사도 풍화시(風和時) 즉 바람이 잘 때는 대부도에서, 풍고시(風高時) 즉 바람이 셀 때는 남양도호부에 주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종 21년(1884)에 이르러 대부도에 다시 진의 설치가 논의되었다. 4월 14일에 선박왕래의 요충지로 포대를 설치하여 영흥, 덕적과 서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¹⁾ 9월 21일에 기연해방아문(畿沿海防衙門)에서 대부도에 진을 설치하고 주변 도서를 소속시켜 이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경비에 충당함이 마땅하다는 논의가 거듭되자²⁾ 마침내 진을 설치하고 총제영(總制營)에 소속케 하였다.

고종 30년(1893) 총제영에 속해 있던 대부진을 독진으로 하더니³⁾ 얼마 못 가서 폐단이 속출하였다. 감독관청이 없자 연안방비가 소홀하고 그에 따라 민심이 흉흉해졌으며 매년 사복시에 소금 33석을 납부하였는데 현재는 작간에 따라 330석을 거두고 있으며, 해애(海艾)·전초(前椒), 삼정(三丁) 등 공물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고종 21년(1884) 대부도목장의 말을 모두 경외의 각관에 분양하도록 하였는데 그중 일부를 빼돌려 불법으로 기르는 등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폐해가 극심하여 대부진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⁴⁾ 그리하여 해방통제영(海防統制營)에서 군사 100여명 무사 100여명을 보내고 별장(別將)을 파견하여⁵⁾ 재정비에 노력하더니 고종 31년(1894)에 다시 대부도에 진을 설치하고 첨사가 파견되었다.⁶⁾

『日省錄』 고종 8년 7월 20일條

1) 『高宗實錄』 21, 21년 4월 14일條

2) 『高宗實錄』 21, 21년 9월 21일條

3) 『高宗實錄』 30, 30년 2월 27일條

4) 『高宗實錄』 30, 30년 9월 8일條

5) 同上

6) 『高宗實錄』 32, 31년 7월 8일條)

진의 복설과 함께 대부진 운영 특히 1년간의 수입과 지출과 같은 재정방면의 재편에 힘을 썼으며 구목장 소유 토지와 대소 관원의 봉급 등도 재정비 또는 기준을 새로 정하는 성과가 있었지만¹⁾ 고종 32년(1895)에는 혁파되고 남양군에 편입되었다. 대부진이 폐지된 것은 1895년에 실시된 지방 행정 구역의 개편에 따른 것이었다.

4) 상업해로의 발달²⁾

대부도는 서해해로의 중요 경유지였다. 대부도는 경기만 남부해로의 중요경유지였다. 조선후기에 상업이 발달하고 각종 화물의 해상운송이 활발해지면서 이 해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조선시대에 미곡 등의 수송은 주로 수운에 의존하였다. 특히 세곡은 각지의 창고에 집적한 후 내륙의 수로나 해로를 통하여 서울로 운송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사용되던 선박은 원양항해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먼 바다로 나가야만 통과할 수 있었던 충청도 태안의 안흥량과 황해도 장산곶에서는 침몰사고가 잦았으며 배들은 포구간의 최단거리를 택하여 직선으로 항해하지 못하고 거센 바람과 높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육지와 아주 가까운 항로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

전라도와 충청도의 조운선은 영산창(榮山倉), 법성창(法聖倉), 덕성창(德城倉), 공세곶창(貢稅串倉)을 출발하여 대부도와 육지 사이의 수로를 거쳐 강화를 지나 서울의 경창(京倉)에 도달하였다. 대부도 일대는 경기도의 안성, 진위에서 출발한 조운선의 경로였으며, 충청도 태안의 안흥진을 거쳐 온 충청도와 전라도의 조운선 역시 이곳을 지나야만 했다. 각지에서 출발한 항로는 이곳에서 합류하여 필미도를 지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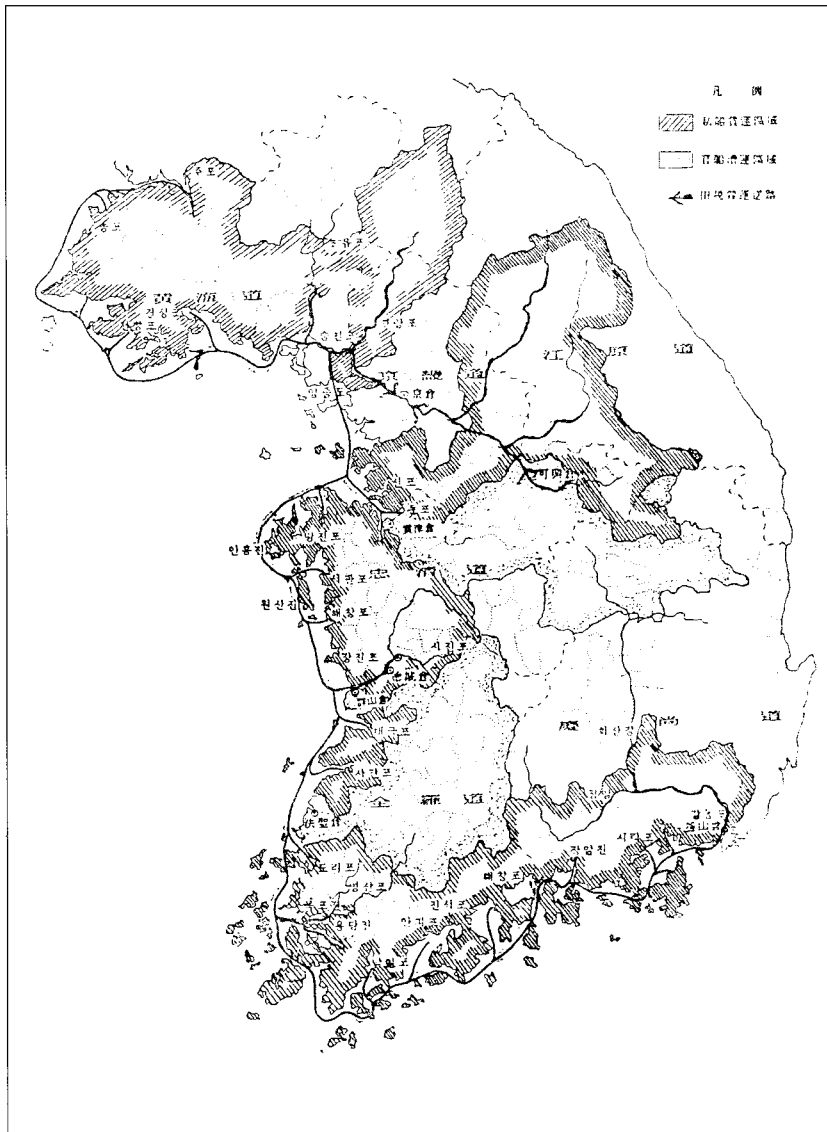
1) 『大阜島新定事例』(奎, 19292, 1894년 11월)

『大阜鎮錢穀抄下事例成冊』(奎, 16291, 1894년 12월)

『大阜鎮牧場田畜結數及所抄年租太錢實數區別成冊』(奎, 16366, 1895년 4월)

2) 이하의 내용은 강석화의 논문

(『조선후기의경기남부로와大阜·靈興島』 『畿甸文化研究』 28, 2000)에 의하여 서술하였다.



▶ 조선 후기 세곡선운송도
(최완기, 『조선 후기 선운업
사 연구』 일지사, 1990)

통진으로 향했던 것이다. 이 수로의 방지를 위해 남양부에 경기수영을 두었으며, 성종 16년(1485)에 교동으로 수영을 옮긴 후에는 그 터에 화량진을 세우고 수군동침절제사를 설치하여 관할케 하였다.

조선후기에 대동법이 시행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곡물을 비롯한 각종 화물의 해상운송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항해술의 발달로 전국적인 해상운송로가 확보되었다. 안흥진은 더 이상 험지가 아니었으며, 황해도 장산곶을 경유하는 해로도 개통되

었다. 물길에 익숙한 사공들이 모는 배는 내해의 수로를 거치지 않고 덕적도에서 곧바로 장봉도와 주문도 사이의 수로로 나아가 강화도 북쪽해안을 따라 한강하구에 이르기도 하였다.

18세기 중엽이후 갯벌은 넓어지고 토사가 퇴적되어 대부도와 육지 사이의 수로이용이 점차 곤란해지자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의 수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길은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곳이었으나 삼남의 세곡선과 대동선이 지나갈 때에는 물길에 익숙한 영흥도 주민 중에서 별장과 사공이 차출되어 인도되었다. 이 때문에 전라도와 충청도의 포구에서 출발한 선박들은 대부분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의 수로를 취하였다. 이 지역은 안홍량을 통과한 선박들에게 여전히 가장 안전한 항로였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경기지역 해안의 도서들은 해방론(海防論)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먼저 친명정책을 표방한 인조대에는 후금과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여 유사시 보장처로서의 강화도를 중시하였다. 병자호란시 수비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켰고 수지체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수군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수사를 충청, 경기, 황해 3도의 수군을 총괄하는 삼도수군통어사(三道水軍統御使)로 승격시키고 수군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교동에 근거를 둔 수영은 이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중심군영으로 바뀐 것이다. 또 남양에 있는 경기수영의 옛터에는 화랑진을 설치하고 영종, 초지, 제물에도 보를 만들어 강화도 중심방어체제를 구축하였다. 강화도를 중시하는 정책은 북벌정책을 내세운 효종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남양이나 안산 등 경기도 남서부 해안 일대에 있던 기존 진보를 강화도 근처의 도서지역으로 이속시켜 강화중심 수비체제를 재편하였다.

숙종대에도 강화도 중심 연안 방위체제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청의 직접 침공 가능성보다는 반청 해양세력의 위협과 해적의 활동에 대한 우려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거론되면서 서해안지역의 해방론은 이전 시기와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17세기 후반에는 중국 정금(鄭錦)세력의 내침 가능성에 대

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명이 멸망한 후 대만에 근거지를 두고 반청활동을 전개하던 정금의 무리들이 청을 치기전에 조선을 자기편에 가담시키기 위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숙종 9년(1693)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 대마도주의 서계(書契)가 도착하여 온 나라가 동요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안장비의 강화와 산성 등 방어거점 정비에 강조되었으나 서해안 전역의 방비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당시 정금의 역량을 고려해 볼 때 조선을 침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해안방어론이 다시 심각하게 논의된 것은 18세기 초였다. 숙종 36년(1710) 9월에 청은 황해의 해적들이 조선 서해안을 침공할 우려가 있다고 통고하였으며, 이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해방론이 강구되었다.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산성정비론이었다. 해로를 통해 침입한 해적은 육전에 약할 것이므로 고지대의 방어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산성을 축조하는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 해안에 상륙한 적을 신속히 몰아내기 위하여 각지에 기병부대를 창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함경도의 친기위(親騎衛)가 증강되고 편안도에 별무사(別武士)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해안방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국방대책이었다. 해로를 통한 적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군을 육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다. 적이 일단 상륙한 다음에는 기병대를 동원하여 해양에서 격퇴하건 산성에서 농성하면서 적의 퇴진을 바라거나 외부의 지원을 기대하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비해 바다에서 적을 막으면 백성들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정에서는 서해 연안의 각도에 순무사(巡撫使)를 보내 전선과 수군병사를 점검하고 시재(試才)를 거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군사력의 증강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군사력 점검수준에 불과한 조치였다. 당시 서해 해적의 침공가능성이나 역량에 대해 그리 크게 우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서해안 방어의 문제에 있어서 해적보다 더 유의했던 것은 이른바 ‘荒唐船’이라고 지칭되는 중국의 어선들이었다. 17세기

말부터 중국어선들이 연근해에 출몰하여 조업하거나 밀무역을 행하면 지역주민들과 충돌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는 청이자국민의 해외도항 금지를 해제하여 청인들의 해상활동이 활발해지고, 서해를 무대로 활동하는 어선과 해적선의 활동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새로운 문제였다.

황당선의 출몰은 국가적 위기의식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연안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협하고 민심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요소가 있었다. 특히 영조 14년(1736)에 황당선이 해서지방에 출몰했다가 경기도 연안을 거쳐 충청도 연안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하여 서해안 방어에 있어 경기도 연안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었다.

영조대에는 대청위기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전면전과 청과 침공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불식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경기지역 중심 해안방위체제는 육로를 통한 침공에 대비하여 강화를 보장처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대동미를 비롯한 해운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화되었다.

숙종대 이후로 전국적인 해로유통권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포구의 신설과 복설이 진행되었다. 해로의 전국적인 개척은 국내상업의 발달에 따른 것이었다. 상업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통의 발달이 필수적이었으므로 대량운송이 용이한 해운업이 숙종대를 거쳐 영·정조시기에 크게 발달하였다. 이런 추세와 아울러 외방포구를 중심으로 진을 설치하여 외적과 해적을 방어할 대비를 갖추었다. 군사적 필요에 의해 설치된 기존의 진보도 상업유통의 거점으로 이용되어 있고, 해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진을 세우고 보강할 필요도 증가하였다. 황당선의 출몰은 조운로와 서해안 해로방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지도에 묘사된 대부도의 변모도 조선후기 이 지역이 지닌 중요성을 보여준다. 먼저 ‘남양부지도’를 보자. 덕적도에 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지도는 영조 16년(1740) 이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해동지도》가 편집된 때는 영조 23년(1747) 이후로 추정되지만 여기에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지도도 포함된 것이다. 남양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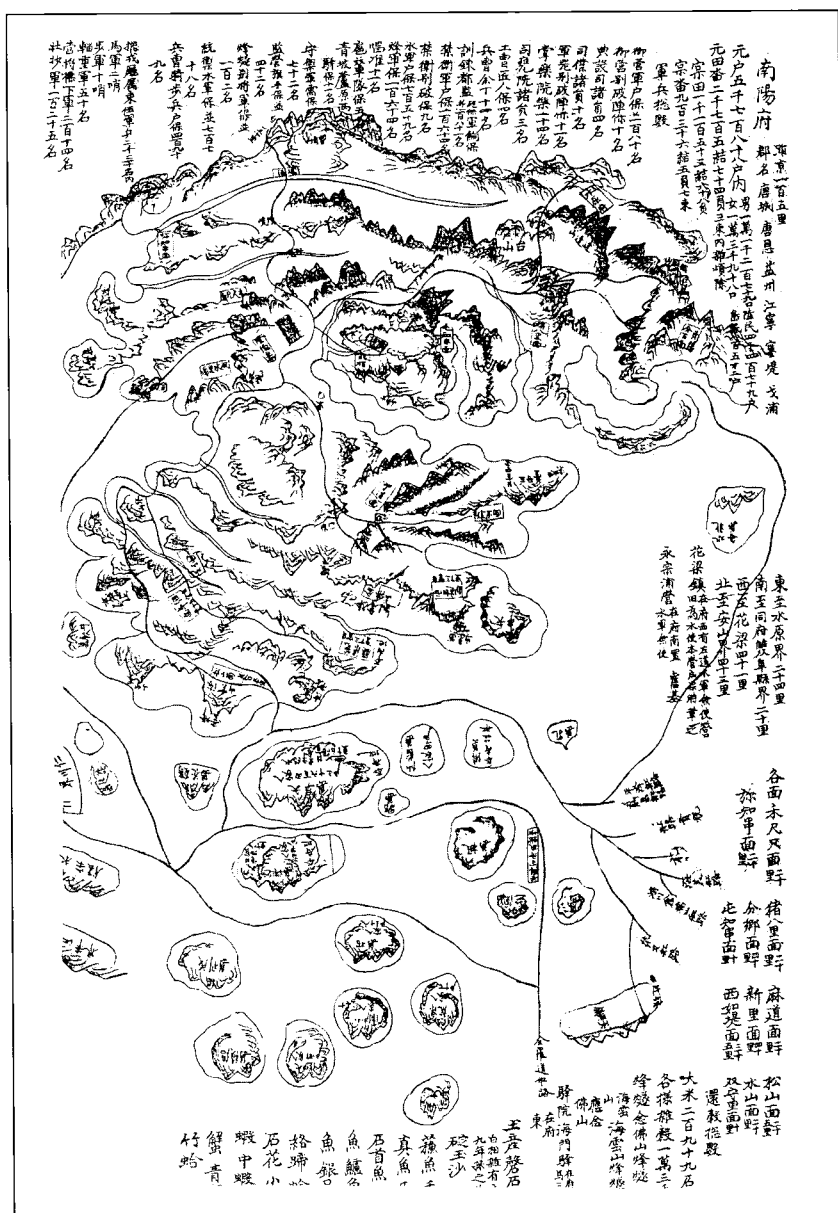


그림2. <南陽府地圖>에

보이는 대부도

(1840년경 제작 : 규장각
소장)

읍치와 도로, 관방시설에 대한 지도이면서 대부도와 영흥도 중심의 서해안도로가 상세히 그려져 있다. 남양부 소속 화랑진에서 해로를 통어할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에 그려진 대부도 부근의 수로를 보면 남양만 남쪽에서 나오는 경기도 까지의 뱃길과 충청지역의 선로는 모두 유도(乳島)의 외양에서 합류하여 유도와 물고(佛島) 사이를 거쳐 대부도와 육지 사이의 항로를 통해 인천 영종진 방



그림3. <大地阜圖>

(1871년경 제작 : 규장각 소장)

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각 향로에는 별도의 주기를 붙여 출발지를 명기하였다.

대부도와 육지의 화랑진 사이를 지나는 내해의 수로는 결성선로(結成船路), 홍성창(洪川倉), 서산항로(瑞山航路), 해미항로(海美航路), 아산항로(牙山航路), 공세(貢稅), 신창항로(新昌航路), 평택항로(平澤航路) 등 주로 충청도지역에서 출발한 배들이 지나는 길이다.

안흥진을 지나온 전라도의 수로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풍도의 외양에서 영흥도 외해를 돌아 영종진 방향으로 가는 경로이다. 두 번째 경로는 안흥에서 하루밤을 기다린 후 출발한 배에 해당한다. 이 지도가 그려진 18세기 전반기 이전에는 대부도와 내륙사이의 길이 경기 서해안 수로의 주 경로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1871년경에 제작된 ‘대부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대부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삼각산, 남쪽으로는 충청도의 경계지점, 서쪽으로는 덕적도, 동쪽으로는 남양부까지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남양부 소속의 대부도를 그린 것이 아니라 대부진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아울러 그림 지도이다. 대부도 섬 내에 있는 포구와 각 마을의 명칭 및 위치를 자세히 기록하였고, 주위에 있는 섬들의 위치와 방향, 거리를 기재하였다. 섬 하나에 대해 이같이 상세하게 그린 지도는 강화도지도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이 시기에 해양방위의 거점으로 대부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준다. 1871년 대부도에 첨사진을 두기로 결정한 직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섬의 중심지 서편에 관사가 표시되어 있고 5리쯤 되는 성을 쌓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성곽은 그려져 있지 않다. 토성이거나 축성계획만 표기한 것으로 짐작된다.

4. 근 · 현대의 대부도

대부진이 혁파되기 1년 전인 1894년에 대부도지역의 풍도 앞바다에서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1876년 개항이후 조선에 대해 세력을 확장시키려던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인 것이다. 조선 내에서 서로의 이권을 놓고 다투던 청·일간의 전쟁은 필연적인 것이었지만 그 발단은 1884년의 갑신정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갑신정변의 결과 청·일 양국은 천진조약을 맺어 한국에 변란이 생겨 군대를 보낼 경우에는 미리 통고하고 사후에는 즉시 철병할 것을 결정하여 그 완화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던 중에 고종 31년(1894) 6월에 조선에 동학혁명이 일어나 조정에서는 청나라에 원군을 청하여 3천명의 군대가 들어오자 일

본은 항의를 제출하고 공사관과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보내어 조선에 있어서 청·일 양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 하였다. 조선정부는 동학란의 전세가 악화되고 서울이 안전하니 군대를 철병시키기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철병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일본군의 파병이 동학혁명의 정세에 관계없이 조선정부와 청의 원세개(袁世凱)에게 압력을 가하여 조정에서 척족과 청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세력을 부식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개화당 정권이 서고 내정개혁을 단행할 즈음에 7월 23일 일본 연합함대가 풍도 앞바다에서 청국 군함 제원호(濟遠號)·광지호(廣之號)에 포격을 가하여 격침시킴으로써 전쟁이 개시되었다. 이는 선전포고가 있기 전의 기습공격이었다. 일본의 육군은 성환·평양 등에서 전승하였고, 요동을 공격하였으며, 해군은 풍도를 위시한 황해도에서 청의 군대를 격파, 족순(族順)·위해위(威海衛)를 육해 양군이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니 다음해 청나라는 할 수 없이 화의를 청하고 4월 17일에 시모노세키(下關)조약이 성립하였다.¹⁾

이 청·일 전쟁으로 인해 청나라는 조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조선에 침략적 야욕을 더해갔던 것이다. 1895년 을미개혁에 의해 대부진이 혁파되자 남양군에 편입되어 온 대부도지역은 1897년에 대부도와 영종도를 합해 하나의 군으로 만들려는 논의도 있었지만²⁾ 변화가 없이 유지되다가 1909년에 지방 행정구역 개편을 맞았다. 즉 1909년 6월에 법률 제20호로 공포된 ‘지방구역과 명칭에 관한 건’에 의해 남양군의 행정구역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이 때 대부도가 설치되고 그 하부에 상동(上洞), 하동(下洞), 흘곶동(訖串洞), 영전동(營田洞), 종현동(鍾縣洞), 풍도(豐島) 등 6개 동으로 나뉘었다.³⁾

이와 같은 행정구역은 1910년에 각도의 도령으로 ‘면내 동, 리, 촌의 폐지 분할과 그 명칭 및 경제 변경에 관한 건’의 공

1) 李光麟, 『韓國史講座』 V. 近代篇, 1981, pp.297~307

2) 『高宗實錄』 35, 建陽 2년 1월 13일條

3) 『朝鮮地誌資料』 京畿道 南陽郡 大阜面條

포에 따라 대부도에도 다소간 변동이 생겼다. 이 때 대부도는 상동, 하동, 종현동, 영전동, 흘관동, 풍도 외에 새로이 선감동(仙甘洞)이 신설되었다. 이로써 오늘날의 대부도와 거의 일치하는 행정구역이 이 때 이루어진 것이다.¹⁾

1913년 12월 29일 부령 제 111호인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었다. 이에 의해 대부도는 남양군에서 부천군으로 관할이 바뀌었으며 행정구역도 선감리(선감도와 탄도를 합친 것이다), 풍도리(풍도일원 도서를 합침), 동리(영전동과 하동 일부를 합침), 남리(흘곶동과 상동 일부), 북리(상동과 하동 각 일부를 합침)등 5개의 리로 나누고 북리에 면사무소가 설치되었다.²⁾ 그리고 이와 같은 행정구역은 8·15해방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일제시기에 대부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1910년 일본의 침략주의에 조국을 빼앗긴 후 이에 항거한 한국민이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를 전개할 때 대부도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되찾고자 주민들의 의거가 있었던 것이다.

대부도 동리 김윤규(金允圭), 노병상(盧秉相), 홍원표(洪元杓)등 3인이 1919년 3월 31일 대부도 영전리에서 만나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결의하고 이날 밤 11시 김윤규의 집에서 포묵으로 태극기를 만들었다. 그 다음날 오전 3시경 집 밖으로 나가 독립만세를 외치니 이 곳의 주민이 합세하여 권도일(權道一)의 집 앞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후 위의 3인은 체포되어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루었다.³⁾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대부도지역의 행정구역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 2597호에 의해 영종, 용유, 북도, 덕적, 영흥면과 함께 옹진군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1993년 인천이 광역시로 재편되면서 영종면을 흡수하는 등 연안 섬지역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1994

1) 朝鮮總督府,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2)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pp.61~62

3) 薺津郡, 『내고장 傳統가꾸기』 1981, pp.20

년 12월 웅진군 대부면은 안산시로 편재되어 오늘에 이르렀다.¹⁾

[윤용구(尹龍九) 인하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1) 웅진군, <연혁> 『통계연보』 1987. p.33.

제2절 대부도의 지리와 기상

1. 위치와 면적

대부도는 면적 40.93km², 해안선의 길이 61km에 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섬으로서, 안산시청으로부터 35.8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원래는 바다를 경계로 북쪽으로는 인천광역시 남구와 경기도 시흥시와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과, 동쪽으로는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과 서신면에, 남쪽으로는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에 각각 접해 있었다. 그러나 1987년에 축조되기 시작하여 1994년 완공된 시화방조제의 건설로 섬의 남동쪽으로는 선감도(仙甘島), 불도(佛島), 탄도(炭島)를 통해 화성군 서신면과 연결되었으며, 북동쪽으로는 작은가리섬을 가로지르는 시화 1·2호 방조제를 통해 시흥시 정왕동의 오이도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의 영흥도와 선재도가 2001년 11월에 대부도와 연륙화되었다. 하지만 대부도는 안산시와는 육지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이 없어 아직도 본토와 떨어진 섬과 다름없으며, 실제로 본도 이외에 풍도나 육도 등지는 교통이 외진 유인도로 남아 있다.

표 1. 대부도의 경도와 위도의 극점

| 극 단 | 지 명 | 극 점 |
|-----|-------------|---------------------------------|
| 동 | 안산시 선감동 불도 | 북위 37°12' 30" 동경 126°39' 24" |
| 서 | 안산시 풍도동 풍도 | 북위 37°06' 32" 동경 126°22' 55" |
| 남 | 안산시 풍도동 비육도 | 북위 37°04' 40" 동경 126°27' 50" |
| 북 | 안산시 북동 큰가리섬 | 북위 37°18' 52" 동경 126°36' 30" |

지리적 좌표는 북위 37°04' 40" ~ 37°18' 52", 동경 126°22' 55" ~ 126°39' 24"에 위치한다(표 1).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우리나라 남북의 중간 부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남서해안에 해당되므로, 기후, 식생, 토양 등의 자연환경

과 토지이용, 가옥구조, 생활상 등의 인문환경에서 남북으로
는 점이적인 특징을, 동서로는 해안지역의 특징을 모두 보여
주고 있다.

대부동은 용진군 대부면에 속해 있던 지역들이 1994년 12
월에 안산시 대부동으로 편입되면서 만들어졌다. 대부동은 현
재 대부분 육지와 연결된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풍도 일대
의 섬을 포함할 경우, 대부도 본도를 비롯한 선감도, 불도, 탄
도의 연륙화된 섬과, 풍도와 육도의 2개 유인도, 그리고 중육
도, 미육도, 말육도, 변도(辨島, 고갈섬), 잠도(蠶島, 누에섬),
홀곶도(訖串島, 메추리섬), 터미섬, 큰터미섬, 할미섬, 외지도,
대가리도(大加里島), 소가리도(小加里島) 등의 12개 무인도가
포함된다. 행정구역은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선감동,
풍도동의 5개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도는 인근의 제부도와 더불어 최근 서울과 인천을 비
롯한 수도권의 대도시에게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
의 해안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등의 주요 간선도로의 건설, 연륙화에
따른 교통의 편의성이 높아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지질

대부도의 지질은 선캄브리아시대의 서산층군에 속하는 변
성퇴적암류와 편암류 및 편마암, 시대미상의 화성암류, 이를
관입한 중생대 백악기의 화산암류와 맥암류, 그리고 이 모두
를 피복하고 있는 제4기의 충적층으로 구성된다(그림 1)¹⁾. 지
체구조구의 분할에 의하면 경기육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주
로 분포하는 암석의 종류는 경기편마암 복합체의 각섬석-흑
운모 편마암을 기반으로 편암류, 각섬암, 서산층군의 태안층
과 소규모의 시대미상의 엽리상 화강암, 백악기 경상누층군에
대비되는 응회질 퇴적암이다. 이들을 부정합으로 하천과 구릉
지 주변으로 제4기 충적층이 덮고 있다(한국자원연구소,

1) 대부도의 지질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1999)의 내용을 토대로 장동호(2001)가 작성한 것을
재편집하였음.

1999).

대부도 서부에는 모래 및 점토 기원의 지면성 퇴적암들이 비교적 넓게 분포하는데 이 암석은 남쪽의 태안반도로부터 연장 분포하는 태안층군이다. 지층은 주로 사암 및 이암으로 구성되며, 천매암화된 사암, 이암 또는 실트암이 교호되는 변성 퇴적암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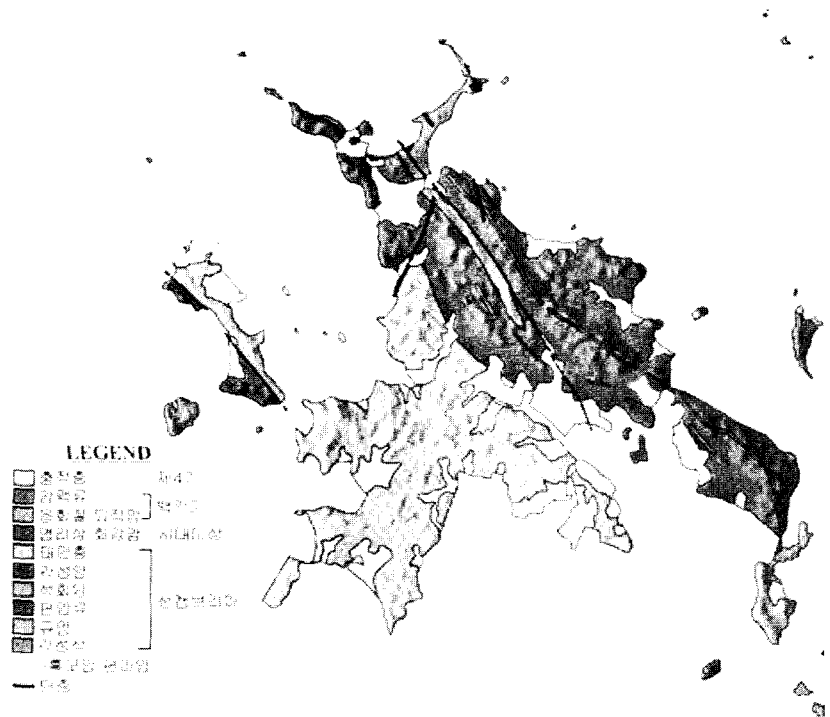


그림 1. 대부도의 지질

대부도에 해당하는 편암류 및 편마암류는 남쪽의 태안반도에서 연장 분포하는 소위 서산층군의 일부로 생각된다. 서산층군 중 서산층, 대산층 및 서산편마암 복합체는 경기육괴를 구성하는 최고기 기반암에 해당하며, 남북방향의 당진단층에 의해 경기편마암 복합체의 최하부 암석인 부천층군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육괴를 형성하는 편암류는 최소한 3차 이상의 중복변형작용을 받았으며, 변성상도 녹색 편암상에서 암피블라이트상에 이르는 중복 변성상을 보인다. 태안층군은 대부도 서부 및 남부지역에 분포한다. 특히 대부도 남쪽 매추리섬에서는 수cm~수십cm 두께의 판상체의 재결정된

석회질 사암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각섬석-흑운모 편마암은 대부도 북부 방아머리 일대에 일부 분포한다. 이 암석은 일종의 편마암 복합체의 형태로 산출하며, 석류석을 함유하는 규암, 각섬석-흑운모 편마암, 흑운모 편마암, 석영-장석질 흑운모 편마암 등으로 구성되며, 호상구조를 이루고 있다. 암석의 기질은 이암 내지 이질사암으로 생각되며, 광범위한 각섬암의 관입을 받은 후 구조적 전이를 수반하는 고도 변성작용에 의해 각섬석과 흑운모가 우세한 편마암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편암류는 대부도 북서부의 구봉이, 누에뿌리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이 암석은 규암 및 석회암을 협재하는 전형적인 변성 퇴적암류이며, 주로 운모편암, 석영-운모 편암, 석영질 내지 석영-장석질 편암으로 구성된다. 본층의 편리방향과 운모편암의 방향과는 아주 불규칙한 주향 및 경사를 보인다. 이 편암류는 대개 건운모 편암, 흑운모-건운모 편암, 석영-건운모 편암, 석영편암 등으로 구성되며, 규암 및 석회암이 다수 협재된다. 또한 편암류는 지역에 따라 석영이나 장석 입자들이 커지면서 편마암상을 보이기도 한다.

제4기 충적층은 후빙기 이후 전세계적인 기후의 온난화에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지역에 충적층이 퇴적되어 있는데, 주로 계곡 및 소하천에 불규칙하게 발달하여 있다. 주로 자갈, 모래 및 땔 등으로 구성된 미고결층인 제4기 퇴적층은 상기의 지층들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간석지 충적층은 최근 간척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간석지가 육지화되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지질구조의 방향은 우리나라 지질분포 양상에 크게 영향을 준 NE-SW의 지나방향과 NW의 북서방향으로 대별된다. 대부도의 지질은 노년기 지형으로 심한 조구조운동을 받았으며, 많은 습곡과 단층을 발달시키고 있다. NE-SW의 중국방향은 모든 화성암류의 관입과 관계가 있으며, 구조선의 방향도 북동방향이 우세하다. 그 후에 일어난 조산운동의 결과로 NW의 북서방향 및 동서방향의 구조선이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3. 지형

대부도의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섬 중앙부의 황금산(167.7m)으로, 이 산을 중심으로 100m 내외의 소규모 구릉성 산지와 구릉성 산지 사이에 소규모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100m 이상의 주요 산지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데, 최고봉인 황금산을 중심으로 하여 선감도의 무명봉(124m)에서 구봉이(96.5m)를 잇는 축과 대부남동의 큰산(106m)에서 영흥면의 선재도로 이어지는 2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남서방향으로 몇 개의 저지대가 갈라지고 있다(그림 2). 이들 구릉성 산지는 대개 지질구조 상의 단층선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산세의 흐름이 일정한 방향성을 띠는 것은 앞서 지질부분에서 언급한 지질구조선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약한 곳의 차별침식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구릉성 산지의 상부는 비교적 얇은 수 미터 내외의 표토와 풍화대에 의해 덮여 있다.



그림 2. 대부도의 주요지형

100m 내외의 구릉성 산지를 제외하면 섬의 대부분은 20~50m에 이르는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땅속의 기반암까지 풍화되어 단단하지 않은 심층풍화층이 두껍게 발달하여 있어 육안으로 볼 때 수십 미터에 달하는 것도 있다. 상부의 표토는 적황~적색 계통의 색깔을 띠는데 오랜 기간 동안의 평탄화 작용과 함께 화학적 풍화를 주로 하는 풍화 작용을 받은 결과로 생각된다. 이 지역은 토양층이 두꺼울 뿐만 아니라 경사 또한 완만하여 대부분 포도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발이 용이하여 대부도에서 행해지는 개발사업의 대부분이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충적지는 구릉지 사이의 소하천 유로 주변에서 좁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이는 해발고도가 낮은 구릉성 산지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유량이 많은 큰 규모의 하천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대부도에서 나타나는 충적지의 대부분은 하천이 만든 자연상태의 하성충적지가 아니고, 이들 저지대의 구릉지 사이로 들어 온 만입부를 간척하여 만든 바다에 의한 해성충적지이다. 간척은 대부도의 인문환경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시화방조제 축조 이전에 개간된 간척지로는 대부도 북동의 대봉염전, 구봉염전, 서호염전, 대홍염전, 남동의 천신염전, 대남염전, 부흥염전 등이 있으며, 시화방조제 축조와 함께 섬의 동쪽은 모두 간척지로 바뀌었다.

대부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기만 일대의 해안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에서 북동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는 광주산맥의 서남단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내륙은 구릉성 산지가 발달한 일명 노년기 지형특성이 뚜렷하며 해안에는 이들 구릉성 산지의 절단과 해식애의 발달이 현저한 암석해안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조차가 커 해안을 따라 조간대(潮間帶)가 넓게 발달되어 있으며 이 조간대는 대부분 갯벌로 이루어진 간석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안선은 대조차(大潮差) 환경을 반영하여 구릉성 산지와 만나는 암석해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사질(微砂質)의 간석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일부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는 파랑의 작용과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

에 해빈과 해안사구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은 대부도에 나타나는 주요 해안지형의 특징을 항목별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간석지(干潟地)와 염생습지(鹽生濕地)

대부도의 가장 특징적인 해안지형은 간석지이다. 대부도의 북쪽은 군자만 일대로 넓은 간석지가 펼쳐져 있고, 남쪽에도 화성군 제부도에 이르는 지역에 간석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시화방조제의 건설로 대부도 북동부의 시화간석지는 육화되어 원래의 간석지 기능을 상실하였다. 간석지에는 조수가 흐르는 갯골이 형성되어 있는데, 대부도 주변은 간석지의 규모가 큰 편이어서 갯골 또한 규모가 크다. 대부도의 서쪽에 있는 선재도와 영흥도 사이에 영흥수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도의 동부에는 군자만과 제부도 사이를 흐르는 마산수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수로들은 주변보다 수심이 깊어 오래전부터 뱃길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마산수로가 막히면서 새로운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현재의 시화호 부분으로 유입되어야 하는 조류가 영흥수로로 집중되어, 과거보다 조류의 힘이 강해져서 퇴적환경이 변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간석지는 주로 세사(細砂; fine sand)와 미사(微砂; silt)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다에서 육지로 향해 저위간석지(subtidal flat), 조간대(intertidal flat), 고위간석지(supratidal flat), 염생습지(salt marsh)의 순서로 형성되어 있다. 간석지 퇴적층의 두께는 대략 10m 이하로서 얇은 편이며 곳에 따라서는 기반암이 노출되어 소규모 암초(stack)를 이루는 경우도 많다. 퇴적물의 공급원은 대하천 및 주변 산지에서 공급된 육성풍화물이 대부분이다. 경기만에 포함된 대부도의 간석지들은 한강에서 공급되어 분산 퇴적된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파랑에 의해 실트나 모래가 제거되고 조립질의 퇴적물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간석지에는 갯골이 조밀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간석지

에 복잡한 구하도가 많고 퇴적물의 입자가 비교적 조립질이어서 갯골의 발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간석지의 퇴적물은 기반암 위의 육성풍화물 위에 퇴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주변의 산지에서 운반된 주빙하퇴적물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간석지의 기반암표면이 육상영력에 의해서 풍화된 다음에 이 지역이 침수됨에 따라 점차 간석지 퇴적물로 덮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간석지 퇴적물은 대하천의 하구나 그 부근에서는 주로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의 하천에서 공급되어 분산·퇴적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해저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며 곳에 따라서는 해안의 산지에서 사면이동(mass movement)에 의해서 직접 공급되기도 한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해저기원의 퇴적물과 육성퇴적물이 서로 혼합되어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분급이 불량하며 보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지반이 단단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파랑에 의해서 미사나 점토가 제거되고 조립질의 퇴적물이 남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므로 퇴적층이 단단하다고 하여도 모두 혼성퇴적층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림 3. 고위간석지와
염생식물

고위간석지의 배후에는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인 염생식물이 성장하는 염생습지(salt marsh)가 발달하는 것

이 보통이다. 염생습지에는 소규모의 갯골이 많이 분포하여 염생습지에서부터 발원하는 소갯골은 그 아래에 있는 고위간석지, 조간대, 저위간석지로 연속되어 대규모 갯골로 발달되는 경우도 많다. 염생습지의 퇴적물은 식생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는 염생습지의 퇴적층이 렌즈상의 층(lenticular bedding)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염생습지는 간석지 가운데 육지에 가장 인접하여 분포하는 데다가 지면이 높아서 대조(사리) 만조시에만 침수되므로 일찍이 간척의 대상이 되어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대부남동의 대남초등학교 전면의 소규모 만입부를 중심으로 한 고위간석지에는 염생식생이 정착하고 있어 염생습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그림 3).

2) 해빈과 해안사구

해빈이란 해안선을 따라서 파랑과 연안류가 모래나 자갈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 놓은 지형으로서, 특히 파랑의 작용을 직접 받는 부분을 가리킨다.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빈(sandy beach)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 사빈의 배후에는 해안사구가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해빈의 구성물질은 기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암석 해안에서 해식애 밑에 발달하는 얇은 해빈은 일반적으로 소량의 모래와 다량의 자갈 또는 암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물질의 광물조성은 파식대나 해식애의 기반암에 의하여 결정된다. 해빈이 얇은 까닭은 견고한 기반암은 퇴적물의 공급원으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대량의 모래를 운반하는 하천이 흘러들거나 고화되지 않은 제기층이나 제4기층이 노출되어 있는 해안에는 사빈이 두껍게 발달한다. 하천으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아 형성되는 하천에 서는 퇴적물이 유역분지의 지질과 하천의 특성을 예민하게 반영한다.

서해안의 사빈 가운데는 하천을 끼고 있지 않은 것이 많은데, 이 경우 규모는 작다. 이러한 곳에 발달하는 해빈은 연안

의 기반암과 풍화층에서 물질을 공급받으므로, 주로 암석에서 비롯하는 광물성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서해에 돌출해 있으면서 외해에서 접근하는 큰 파랑의 영향을 직접받는 사빈 중에는 패사를 많이 포함한 것이 있다.

파랑의 에너지가 더 커지면 입자가 작은 모래들이 제거되어 자갈로 구성된 자갈해안(pebble beach)이 형성된다. 자갈해안의 구성물질은 주변의 헤드랜드에서 침식된 물질이 연안



그림 4. 자갈해안의 다양한 구성물질(1)



그림 5. 자갈해안의 다양한 구성물질(2)

류에 의해 운반된 것으로 그 크기는 콩알만한 크기에서 지름

이 약 30cm에 이르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그림 4, 5).

해안사구는 간석지의 배후에 바람에 의해 운반되어 해빈의 후면에 풍성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지형으로 경기만 일대에서는 대부분 섬들에 형성되어 있다. 대부도 인근의 주요 해안사구는 덕적도의 서포리해안, 대청도의 북안, 제부도 서안, 영흥도 북서안, 용유도의 서남안, 무의도의 동안, 백령도의 남서안, 자월도의 남서안 등지에 발달해 있으며, 대부도에는 대부남동의 고래뿌리에서 메추리섬 사이와 메추리섬 북쪽 해안,



그림 6. 대부남동의
해안사구 흔적

그리고 방아머리 서쪽 부분에 형성되어 있다(그림 6).

대부도 남서해안 메추리섬의 북쪽에 형성된 사구는 폭 1km에 종심이 50m 정도이며, 남부의 것도 폭 2km에 종심이 약 50m에 불과하지만, 후면에 있는 초지와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모두 과거에는 사구지대에 속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보다 더 후면에 염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구지대의 후면에 나타나는 사구저지(dune slack)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7). 그러나 시화방조제가 완성된 후 대부도 우측의 마산수로로 흐르던 조류가 대부도 좌측으로 바뀌면서 물살의 흐름이 강해져 기존의 사구퇴적물 위에 새로운 환경에서 운반되어온 자갈들이



그림 7. 대부남동 해안사구 후면의 염전

최근 대부분의 염전이 양식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쌓이고 있는 중이다.

사구 토양의 성질은 특수하므로 좀보리사초, 통보리사초, 갯메꽃 등과 같은 식생이 군락을 이루며, 좀더 내륙 쪽으로는 갯쇠보리, 모래톱쟁이 등이 조밀한 군락을 형성한다. 가장 내륙에 가까운 사구에는 해당화, 들장미, 곰솔 등이 자란다. 그러나 사구는 대체로 해안에 가까울수록 불안정하고 내륙 쪽에 있는 것도 완전히 고정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일정한 사구환경에 적응한 식생이 극상종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다른 사구에 의해서 침범당하면 그 식생은 쉽게 파멸되어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남동의 사구지대에는 이러한 식생이 전형적인 군락을 이루고 있지 못하며, 현재는 포도밭으로 이용되고 있어 소규모 군반 형태로 사구식생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3) 해식애와 시스택(sea stack)

해안 침식지형은 절벽으로 된 암석해안에서 가장 모식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해안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주요 침식지형, 즉 해식애(海蝕崖; sea cliff)와 파식대(波蝕臺; wave-cut terrace)로 이루어져 있다.

해식애가 침식을 받아 후퇴하면, 파식대는 육지 쪽으로 확대되므로 이 두 지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해식 또

는 파식(wave erosion)은 폭풍 시의 거파에 의해서 특히 활발하게 진행된다. 암석해안에서는 대개 기반암이 직접 파식을 받는데, 폭풍시에 해식애의 기저부에 반복해서 가해지는 거파의 수압이나 사력과 같은 마식도구의 충격은 막대한 위력을 발휘한다.

기반암에서 분리된 암설은 파랑의 작용으로 더욱 작게 파괴되고 연마되는데, 일부는 해식애 밑에 쌓여 얇은 두께의 해빈을 형성한다. 이같은 해빈은 흔히 모래보다는 자갈을 많이 포함하며, 때로는 거력도 풍부하다. 모래와 같이 입자가 작은 퇴적물은 연안류에 의하여 해안을 따라 횡적으로 운반되어 가거나, 파식대 외측의 깊은 바다로 제거된다. 해식애의 기저부는 일반적으로 고조위와 일치하며, 이곳에서 시작되는 파식대는 저조위 밑으로 연장된다.



그림 8. 대부도 남리에 발달해 있는 파식대와 시이스택

해식애는 암석해안으로 된 산악성 해안에서 발달하지만, 서해와 같이 소규모 구릉이 바다로 돌출한 산각말단부 부분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곳에서는 파랑의 침식작용을 받아 해식애가 서서히 후퇴하게 되는데, 암석의 경연차와 지질구조의 영향을 받아 차별침식이 일어나 여러 가지 독특한 지형을 형성하게 된다. 대부도의 경우에는 대규모 해식애가 발달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래뿌리와 같이 산지와 해안이 맞닿

는 곳에는 국지적으로 해식애가 나타난다.

해식애의 기저부에 형성되는 기반암의 침식면인 파식대는 경사가 극히 완만하게 바다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파식대의 형성 작용으로서는 파랑에 의한 굴식과 마식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파식대의 안쪽, 즉 해식애의 기저부 부근에서는 파랑의 충격에 의한 굴식이 중요하고, 그 바깥쪽에서는 마식이 중요하다. 파식대의 표면을 고르게 만드는 역할은 주로 마식이 담당한다. 해안선과 인접하여 파식대 위에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작은 바위섬은 시이스택(또는 파식주: sea stack)이라 불리는데, 차별침식에 의해 경암부가 남아 있는 경우이다(그림 8).

4. 하천

대부도 내에는 방죽천, 뽕죽천, 분지천, 영전천 등 비교적 큰 4개의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들은 섬 내 최고봉인 황금산에서 발원한다. 황금산을 중심으로 남동부로는 분지천이, 서측에서 발원하여 남서부로는 뽕죽천이, 북부에서 시작되어 북동부로는 영전천이, 그리고 북서부로는 방죽천이 각각 흐르고 있다. 대부도의 논은 대부분 이 하천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거나 해안가의 좁은 평지와 간척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1차수 내지 2차수에 해당되는 소규모 하천으로서 유로가 2km 미만인 불과하고 평시의 유량도 많지 않아 이렇다할 하천 지형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로 주변에는 국지적으로 소규모 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유출구 부분에는 감조하천의 영향으로 소규모 기수성 습지가 발달해 있다.

5. 토양

1971년에 작성된 개략토양도(1:50,000)-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토양은 지형을 기준으로 해안지토양, 해안평탄지토양, 하천범람지토양, 내륙평탄지토양, 구릉 및 산악곡간지토양, 저구릉곡간지토양, 저구릉지토양, 산록지토양,

구릉지토양, 산악지토양 등 10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대부도의 토양분포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9)¹⁾.

대부도는 해안을 따라 바닷물의 영향을 받은 토양이 널리 분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해안지토양(Fba)으로 풍적 및 충적의 백색 패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안평탄지 내지는 완경사지에 분포한다. 이 토양은 주로 해안사구에 발달한 것으로 토양배수가 양호 내지 매우양호한 사질 내지 조사토이며, 토양반응은 염기성이고 투수성은 높고 비옥도는 낮다. 이 토양대는 대부도의 북부 방아머리 부근과 남서부 일대에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을 뿐 그 분포가 매우 적다.

안산시에 나타나는 해안평탄지토양(Fm)은 해안선과 인접한 신구간석지의 토양으로서 회색토, 염류토 및 충적토로 이루어져 있다. 회색토가 대부분인 Fma토양은 비교적 간척이 이루어진 후 오래된 토양으로 토양반응이 매우 약한 산성 내지는 중성이고 염기치환용량과 염기포화도가 높은 미사식양질 내지 식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회색토의 표토는 회색 암회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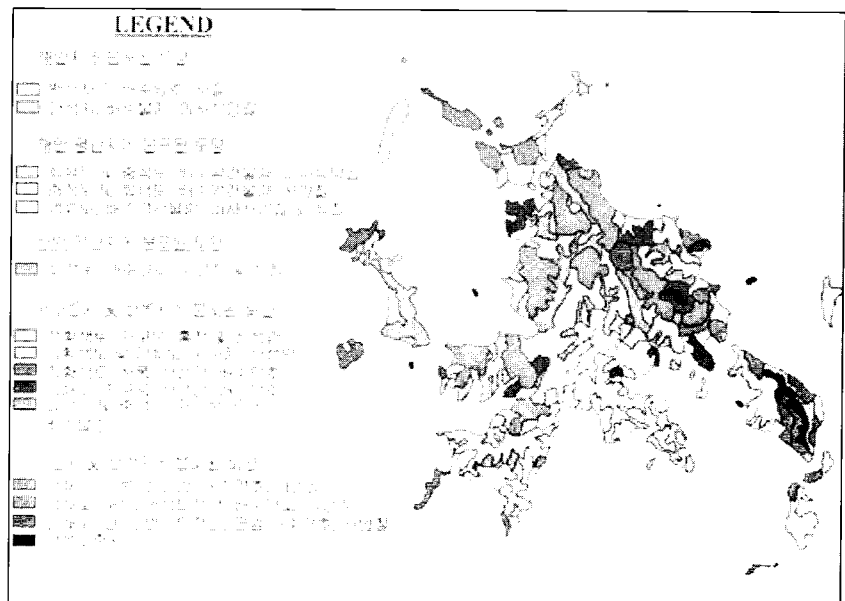


그림 9. 대부도의 토양

또는 회갈색의 미사질식양토 및 미사질양토이며 황갈색 적갈

1) 대부도의 토양도는 농업과학기술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동호(2001)가 작성한 것을 재편집한 것임.

색 및 진갈색의 반점이 많이 있다.

소규모 구릉성 산지 사이에 협재된 모양으로 분포하며, 과거에는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도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도시화에 의해 농경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 토양은 벼 재배에 있어서 생산성은 비교적 높으나 토양배수가 약간 불량하여 배수구를 설치하고 시비에 유의하면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기층은 대개 5m 이상을 유지한다.

Fmc토양은 주로 염류토로 간석지와 인접되어 나타나므로 일명 간석지토로 불리기도 하는데, 표토는 회색, 암회색, 청회색의 미사질양토이고 심토는 회색, 암회색, 청회색 및 녹회색의 미사질양토 및 미사토이다. 기층은 매우 깊으며 암회색, 청회색 및 녹회색의 미사질양토 내지 미사토이고 암반까지의 깊이는 대체적으로 5m 이상이다. 이 토양은 많은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토양반응은 염기성이며 염기포화도는 매우 높다. 토성은 미사사양질 내지 식질이고 토양배수는 불량으로 염기포화도가 매우 높아 작물의 생육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부분 염전으로 이용되었고 일부만 논으로 이용되었다. 1994년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이래 해안도로 전면에는 노출된 구시화만의 갯벌도 현재는 이 토양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염분농도가 매우 높아 건조기간이 지속되거나 일조량이 많은 시기에는 모세관현상으로 인해 표토 위에 염분이 많이 집적되어 외관상 흰색을 띠기도 한다.

내륙평탄지토양은 하천유역의 범람지에 발달하는 충적토(Af)와 좁은 골짜기를 따라 발달하는 충적토(An), 계곡의 낮은 지대에 발달하는 저습지 토양(Ap)의 세 종류가 있다. 이들은 대개 하천을 끼고 발달되어 있으나 대부도에는 하천의 발달이 극히 미약하므로, 그 결과 Af토양과 Ap토양은 존재하지 않으며, An토양은 구릉지 사이의 평지에 극히 제한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내륙평탄지토양의 분포는 매우 적다. 이 토양은 지형상 고도 10-40m의 저평한 지대에 발달되어 있다.

구릉 및 산악곡간지 토양은 구릉 및 산악곡간지, 또는 준급

경사인 산록퇴적지에 분포하는 회색토, 충적 및 퇴적토이며, 저구릉곡간지토양은 저구릉곡간의 환경사지에 있는 회색토 및 충적토이다. 이 토양의 비옥도는 비교적 높으며 토양반응은 약산성 내지 중성이다. 그리고 염기치환용량은 보통 내지 높고 염기포화도도 높은 편이다.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생산성은 높은 편이다.

저구릉지토양(Raa)은 적황색토와 일부 암쇄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구릉지, 홍적층 및 산성암 잔적층의 대지 및 기복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토성은 식질 내지 식양질이고 토양배수는 양호하다. 이 토양의 표토는 적갈색, 적황색 및 황적색의 양토 내지 식양토이며 발달상태가 보통인 입단구조를 이룬다. 심토는 매우 깊어 1m 이상이며 적색, 적황색, 적갈색, 혹은 황적색의 식토, 미사질식토, 미사질식양토 혹은 식양토이고 잘 발달된 각괴상 내지 반각괴상구조를 이루며 연속된 점토질피막이 형성되어 있다. 기층은 적황색, 황갈색, 적황색 및 갈색의 양토, 사양토, 사질식양토 및 자갈이 있는 식토이며 암반까지의 깊이는 3m 이상이다. 이 토양의 비옥도는 보통 내지 비교적 낮고 염기포화도도 보통 내지 낮으며 염기치환용량은 보통 내지 높다. 토양 반응은 강산성 내지 약산성이다. 이 토양의 대부분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지역내에서는 고도 40-150m에 이르는 소규모 저구릉지 및 산록지에 분포한다.

산록지토양(Rab)은 산성암의 산록지에 분포하는 적황색토 및 퇴적토로서 저구릉지토양과 연속하여 발달하며 양토, 사양토, 사질식양토 및 자갈이 섞인 식토로 입자가 비교적 큰 편이다. 비옥도와 유기물함량, 치환성양이온과 염기포화도 등이 모두 낮고 토양반응 또한 약산성이어서 농경지로 적합하지 않다. 뽕나무밭이나 과수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지금은 대부분 임야로 덮혀있다.

일반적으로 고도 200m 이상인 구릉 및 산악지에 분포하는 구릉지토양(Mma)과 산악지토양(Mmb)은 황금산을 중심으로 한 산지의 정상부와 그 주변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이상에서 기술한 대부도의 토양분포를 고도별로 살펴보면, 해

면으로부터 고도 10m에 이르는 해안지역에는 염류도가 높고 염기성을 띠는 간석지토양이 주로 분포하고, 10-40m의 저평한 하천유역지대를 따라서는 소규모지만 충적토양이 분포한다. 또한 고도 40-150m 사이에서는 적황색의 구릉지 토양이 분포하고 100m 이상의 산지 정상부와 주변부에서는 주로 토층이 얇은 암쇄토와 암석노출지가 분포되어 있다.

6. 기후

우리나라는 기후상 온대의 중위도의 대륙동안의 편서풍대에 속한다. 그러나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같은 위도상의 다른 서구지역과는 여름과 겨울철에 따라 기후특징이 크게 상이하다. 따라서 대부도가 속한 안산시는 이러한 기후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한랭건조하고,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 고온다습한 특징을 갖고 있다.

대부도는 위치상 한반도의 중서부에 속하므로 온난한 남부지방으로부터 대륙성의 북부지방으로 옮겨가는 점이지대에 해당되지만, 수심이 얕고 내륙성인 서해와 접하고 있어 겨울기온이 연안을 따라 낮은 특색을 보이고 있다.

대부도에는 기상자료 측정을 위한 측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안산시의 경우는 그 동안 각종 통계자료에서 인근의 중앙기상대 수원관측소 측후자료를 사용하여 왔으나, 대부도가 섬 지역이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관측소의 측후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기상청은 무인자동기상자료측정 시설인 AWS(Automatic Weather Station)을 설치하여 1995년 이후부터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나, 결측자료가 많고 아직까지 누적된 자료의 양이 많지 않아 특정요소만을 대상으로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수원관측소와 인천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부도의 기후적 특성을 크게 기온, 강수량, 바람, 수문학적 특성, 천기일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온

수원과 인천의 기후자료를 토대로 예측한 최근 30년간 대부도의 연평균 기온은 11.6°C 내외로서 전국평균인 12.6°C 보다 1°C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중 최한월은 1월로서 평균기온이 -3.2°C 와 -2.4°C 이고, 최난월은 8월로서 평균기온이 25.2°C 와 24.9°C 로 연교차는 27°C 이상이다. 월평균 기온이 영하인 달은 수원지역의 경우는 3개월, 인천지역의 경우는 2개월로 나타나 겨울철 기온은 인천지역이 수원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 분포 패턴은 대부도는 서해안의 섬이므로 인천지역의 특성과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적 위치에 기인한 대부도의 기온 특성을 살피기 위해 동위도 상의 중부내륙지방에 위치한 원주와 동해안에 위치한 울진의 기온자료를 비교하였다. 연평균 기온은 원주와 울진이 각각 10.8°C 와 12.5°C 였고, 연교차는 29.3°C 와 22.8°C 로서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의 기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부도는 원주와 비교할 때 겨울철은 따뜻하고 여름철은 유사한 기온 특성을 보여 전체적으로 해안지역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울진에 비해서는 겨울철 기온이 낮고 여름철 기온이 높아 같은 해안지역이라도 동해안지역과 서해안지역의 기후 특성이 다름을 알 수 있다(그림 10;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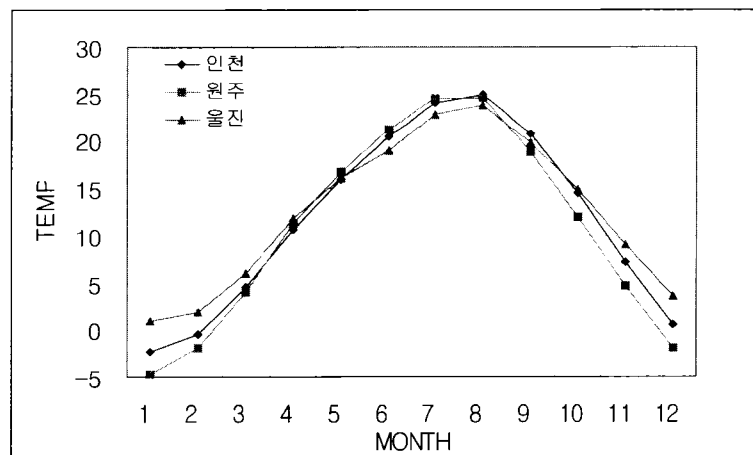


그림 10. 지역 30년간 월평균기온 분포 비교(1971-2000)

표 2. 수원과 다른 지역의 기온 비교 (1971~2000)(단위 : °C)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전년 |
|----|------|------|-----|------|------|------|------|------|------|------|-----|------|------|
| 수원 | -3.2 | -1.0 | 4.5 | 11.2 | 16.7 | 21.4 | 24.8 | 25.2 | 20.2 | 13.4 | 6.1 | -0.4 | 11.6 |
| 인천 | -2.4 | -0.5 | 4.5 | 10.7 | 15.9 | 20.4 | 24.0 | 24.9 | 20.7 | 14.5 | 7.2 | 0.6 | 11.7 |
| 원주 | -4.8 | -2.0 | 4.0 | 11.3 | 16.8 | 21.3 | 24.5 | 24.5 | 18.9 | 12.0 | 4.7 | -1.9 | 10.8 |
| 울진 | 1.0 | 1.9 | 6.0 | 11.9 | 16.1 | 19.0 | 22.9 | 23.8 | 19.8 | 14.9 | 9.0 | 3.6 | 12.5 |

출처: 기상연보, 1971~2000.

최근 10년간 수원지역과 인천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2.3°C와 12.2°C로서 전국평균인 12.6°C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중 최한월은 1월로서 평균기온이 -2.0°C와 -1.6°C로서 인천이 수원보다 약간 낮고, 최난월은 8월로서 평균기온이 25.7°C와 25.3°C로서 역시 인천이 더 낮다. 30년 평균에 비하면 최한월 기온은 각각 1.2°C와 0.8°C가 상승하였고, 최난월 기온은 0.3°C와 0.4°C가 상승하였는데,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 기온의 상승폭이 훨씬 높았다.

표 3. 수원 지역의 기온 (1991~2000)(단위 : °C)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전년 |
|------|------|------|-----|------|------|------|------|------|------|------|-----|------|------|
| 1991 | -2.9 | -1.3 | 4.3 | 11.8 | 16.8 | 22.0 | 24.1 | 24.9 | 20.2 | 12.8 | 5.4 | 1.7 | 11.7 |
| 1992 | -0.8 | 0.0 | 6.6 | 11.2 | 15.7 | 19.9 | 24.5 | 24.9 | 20.5 | 13.2 | 5.6 | 1.2 | 11.9 |
| 1993 | -2.7 | 0.4 | 4.8 | 10.0 | 17.3 | 20.6 | 23.2 | 22.8 | 20.8 | 12.6 | 8.5 | -0.1 | 11.5 |
| 1994 | -1.2 | 0.3 | 3.7 | 14.2 | 17.7 | 22.3 | 28.7 | 27.6 | 20.7 | 14.8 | 8.6 | 1.3 | 13.2 |
| 1995 | -2.4 | 0.0 | 5.8 | 10.7 | 16.6 | 21.5 | 24.8 | 26.4 | 20.0 | 15.1 | 5.6 | -1.6 | 11.9 |
| 1996 | -2.2 | -2.0 | 4.5 | 9.7 | 17.6 | 22.3 | 25.1 | 26.5 | 21.7 | 14.0 | 6.4 | 1.1 | 12.1 |
| 1997 | -3.2 | 0.3 | 5.9 | 12.0 | 16.9 | 22.8 | 25.9 | 26.6 | 20.2 | 12.9 | 8.3 | 1.5 | 12.5 |
| 1998 | -1.4 | 2.6 | 6.5 | 15.2 | 18.5 | 21.6 | 25.2 | 25.6 | 23.0 | 16.7 | 6.9 | 1.4 | 13.5 |
| 1999 | -1.1 | 0.4 | 6.0 | 12.8 | 16.9 | 22.4 | 25.5 | 25.9 | 22.9 | 13.9 | 7.3 | -0.1 | 12.7 |
| 2000 | -2.0 | -2.1 | 5.6 | 11.6 | 17.5 | 23.3 | 26.9 | 25.9 | 20.1 | 14.1 | 6.1 | 0.3 | 12.3 |
| 평균 | -2.0 | -0.1 | 5.4 | 11.9 | 17.2 | 21.9 | 25.4 | 25.7 | 21.0 | 14.0 | 6.9 | 0.7 | 12.3 |

출처: 기상연보, 1991~2000.

연도별 평균기온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원의 경우 11.5~13.5°C, 11.5~13.1°C로서 평균기온을 중심으로 1°C 내외의 진동폭을 보이고 있으나, 수원보다 인천지역의 변화폭이 더 작다. 특히 최고기온의 편차가 더 작은 것으로 보아 해안지역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하나의 경향은 1994년을 제외하면 수원과 인천지역 모두 1990년대 전반기보다는

후반기로 갈수록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들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영향과도 일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1994년의 평균기온 상승요인은 최난월 기온 28.7℃(7월)이라는 여름철 기온의 상승에 힘입은 바가 크다.

표 4 인천지역의 10년간 기온자료(1991-2000)(단위: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전년 |
|------|------|------|-----|------|------|------|------|------|------|------|-----|------|------|
| 1991 | -2.3 | -0.7 | 4.0 | 11.6 | 16.2 | 20.9 | 23.6 | 24.7 | 20.8 | 14.1 | 6.6 | 2.1 | 11.8 |
| 1992 | -0.3 | 0.7 | 6.4 | 10.9 | 15.1 | 19.4 | 23.7 | 24.3 | 20.5 | 14.0 | 6.6 | 1.6 | 11.9 |
| 1993 | -2.1 | 0.6 | 4.9 | 9.1 | 16.6 | 19.8 | 22.7 | 22.9 | 20.9 | 13.5 | 8.5 | 0.2 | 11.5 |
| 1994 | -1.0 | 0.2 | 3.4 | 13.4 | 16.5 | 21.0 | 27.2 | 27.2 | 21.0 | 15.4 | 9.2 | 1.3 | 12.9 |
| 1995 | -1.7 | 0.9 | 5.1 | 9.6 | 15.6 | 20.3 | 23.6 | 25.7 | 20.0 | 15.4 | 6.7 | -0.7 | 11.7 |
| 1996 | -2.2 | -1.7 | 4.1 | 8.9 | 16.1 | 20.7 | 23.6 | 25.4 | 21.4 | 14.5 | 6.1 | 1.8 | 11.6 |
| 1997 | -3.4 | -0.1 | 5.6 | 11.0 | 15.9 | 21.8 | 24.9 | 26.1 | 19.9 | 13.4 | 8.5 | 1.7 | 12.1 |
| 1998 | -1.2 | 2.8 | 6.2 | 13.8 | 17.4 | 20.6 | 24.1 | 24.9 | 22.6 | 17.0 | 7.3 | 2.2 | 13.1 |
| 1999 | -0.6 | 0.5 | 5.8 | 12.2 | 16.0 | 21.4 | 24.8 | 25.4 | 22.3 | 14.2 | 8.1 | 0.8 | 12.6 |
| 2000 | -1.5 | -1.2 | 6.0 | 11.5 | 16.5 | 22.3 | 26.1 | 26.5 | 21.3 | 15.6 | 7.4 | 1.5 | 12.7 |
| 평균 | -1.6 | 0.2 | 5.2 | 11.2 | 16.2 | 20.8 | 24.4 | 25.3 | 21.1 | 14.7 | 7.5 | 1.3 | 12.2 |

출처: 기상연보, 1991~2000.

대부도 주변의 장기간 기온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수원지역을 대상으로 30년 평균기온의 10년 이동평균과 최근 10년간의 평균기온을 비교한 결과, 평균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요인은 주로 겨울철 기온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수원지역의 장기간 평균기온변화(단위: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평균 |
|-------------|------|------|-----|------|------|------|------|------|------|------|-----|------|------|
| 1961-1990평균 | -3.9 | -1.8 | 3.7 | 10.9 | 16.5 | 20.9 | 24.4 | 25.1 | 19.8 | 13.0 | 5.7 | 1.2 | 11.1 |
| 1971-2000평균 | -3.2 | -1.0 | 4.5 | 11.2 | 16.7 | 21.4 | 24.8 | 25.2 | 20.2 | 13.4 | 6.1 | -0.4 | 11.6 |
| 1991-2000평균 | -2.0 | -0.1 | 5.4 | 11.9 | 17.2 | 21.9 | 25.4 | 25.7 | 21.0 | 14.0 | 6.9 | 0.7 | 12.3 |

출처: 기상연보, 1961~2000.

더욱이 초기보다는 후기로 갈수록 평균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최근의 전세계적인 기후온난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수 십년에 불과한 자료를 통해 기후온난화를 예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것이 단기간의 변동인지, 아니면 정말로 지구온

난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좀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강수량

대부도는 지형상 산지가 적어서 주로 장마철의 전선성 강우에 의한 강수량과 7~9월 사이에 내습하는 태풍에 의한 강우가 대부분이다. 수원과 인천 지역의 최근 30년(1971~2000) 간 연평균 강수량은 1,268mm와 1,152mm로서 같은 기간의 전국평균 1,200mm와 비슷한 값을 갖는다. 동위도 지역의 다른 지방과 비교해 보면, 내륙지역에 있는 원주와 수원이 비슷한 강수량을 보이고 해안지역에 위치한 울진과 인천이 비슷한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륙지역에 비해 해안지역의 강수량이 더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강수의 계절적인 패턴은 동해안지역이 서해안지역에 비해 연중 고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표 6).

표 6. 수원과 다른 지역의 강수량 비교 (1971~2000)(단위 : mm)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전년 |
|----|----|----|----|----|----|-----|-----|-----|-----|----|----|----|-------|
| 수원 | 24 | 24 | 47 | 76 | 95 | 133 | 303 | 306 | 134 | 52 | 51 | 24 | 1,268 |
| 인천 | 21 | 21 | 41 | 71 | 91 | 111 | 262 | 289 | 127 | 49 | 49 | 22 | 1,152 |
| 원주 | 22 | 24 | 49 | 80 | 92 | 146 | 325 | 283 | 147 | 51 | 44 | 28 | 1,291 |
| 울진 | 48 | 48 | 67 | 74 | 69 | 106 | 154 | 192 | 169 | 77 | 61 | 38 | 1,102 |

출처: 기상연보, 1971~2000.

강수량의 계절적인 분포를 살펴 보면 장마철을 포함한 6월 9일의 4개월 동안에 연강수량의 68~69% 정도가 내려 뚜렷한 하계집중형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겨울 기간인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불과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수량을 나타내어 계절적 편차가 매우 심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7, 8월의 강수량이 48% 정도를 차지해 이 두 달 동안의 강수량이 연간 강수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1년 강수량의 반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은 남서 몬순, 양자강 저기압의 통과, 열대성 저기압의 내습 등이 이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월별로는 8월이 최다우, 12월이 최소우(最小雨)이고 초여

름에서 장마기로 이행하는 5~6월과 초가을 장마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9~10월 사이의 강수량 변화가 현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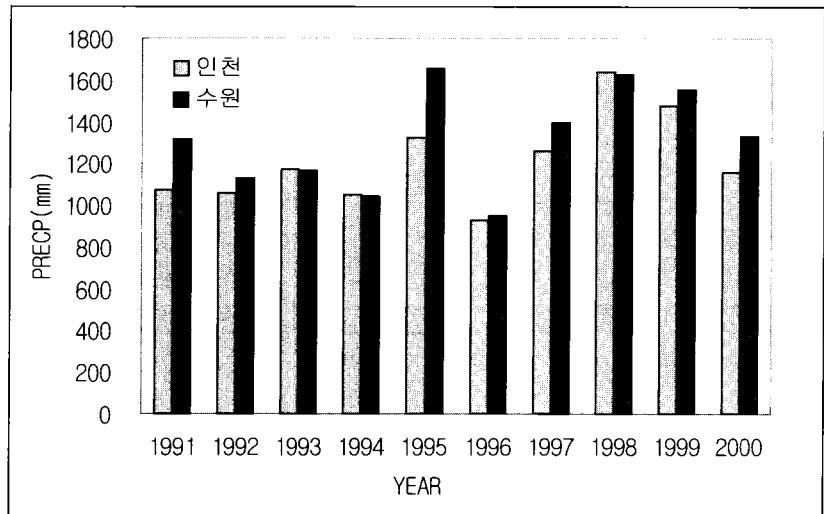


그림 11. 강수량의 연변화 추이(1991-2000)(단위 : mm)

그러나 해에 따른 강수량의 변동은 심한 편으로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수원의 경우 952~1,653mm, 인천의 경우 929~1,638mm로서 700mm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해마다의 강수량 증감패턴도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그림 11; 표 7, 8). 이와 같이

표 7. 수원 지역의 강수량 (1991-2000)(단위 : mm)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전년 |
|------|----|----|-----|-----|-----|-----|-----|-----|-----|-----|----|----|------|
| 1991 | 17 | 42 | 52 | 53 | 123 | 90 | 568 | 82 | 185 | 31 | 25 | 53 | 1320 |
| 1992 | 14 | 26 | 12 | 79 | 122 | 51 | 169 | 334 | 169 | 38 | 63 | 54 | 1129 |
| 1993 | 2 | 56 | 27 | 64 | 84 | 152 | 458 | 133 | 84 | 22 | 62 | 19 | 1163 |
| 1994 | 4 | 11 | 51 | 25 | 141 | 94 | 81 | 327 | 68 | 191 | 31 | 20 | 1046 |
| 1995 | 13 | 11 | 46 | 34 | 59 | 68 | 373 | 968 | 24 | 29 | 25 | 3 | 1653 |
| 1996 | 20 | 4 | 101 | 51 | 27 | 286 | 241 | 78 | 9 | 70 | 49 | 16 | 952 |
| 1997 | 14 | 41 | 30 | 61 | 260 | 150 | 332 | 299 | 25 | 52 | 82 | 47 | 1394 |
| 1998 | 23 | 34 | 44 | 106 | 86 | 214 | 306 | 592 | 141 | 25 | 52 | 4 | 1627 |
| 1999 | 7 | 2 | 54 | 74 | 121 | 77 | 345 | 338 | 402 | 92 | 25 | 18 | 1556 |
| 2000 | 58 | 1 | 3 | 20 | 44 | 118 | 376 | 449 | 182 | 22 | 28 | 28 | 1329 |
| 평균 | 17 | 23 | 42 | 57 | 107 | 130 | 325 | 360 | 129 | 57 | 44 | 26 | 1317 |

출처: 기상연보, 1991~2000.

표 8. 인천 지역의 강수량 (1991-2000)(단위 : mm)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전년 |
|------|----|----|----|-----|-----|-----|-----|-----|-----|-----|----|----|------|
| 1991 | 18 | 26 | 50 | 44 | 72 | 77 | 406 | 82 | 195 | 32 | 28 | 44 | 1073 |
| 1992 | 9 | 39 | 11 | 51 | 118 | 91 | 125 | 278 | 193 | 31 | 59 | 56 | 1060 |
| 1993 | 4 | 57 | 23 | 86 | 103 | 135 | 451 | 140 | 65 | 15 | 81 | 11 | 1170 |
| 1994 | 6 | 7 | 34 | 42 | 159 | 63 | 93 | 272 | 75 | 247 | 41 | 15 | 1053 |
| 1995 | 14 | 2 | 49 | 36 | 44 | 83 | 368 | 621 | 57 | 27 | 23 | 1 | 1326 |
| 1996 | 11 | 1 | 85 | 64 | 20 | 237 | 276 | 70 | 8 | 77 | 71 | 10 | 929 |
| 1997 | 14 | 33 | 21 | 49 | 286 | 76 | 230 | 344 | 53 | 18 | 96 | 40 | 1258 |
| 1998 | 17 | 40 | 42 | 111 | 103 | 187 | 326 | 568 | 191 | 21 | 29 | 2 | 1638 |
| 1999 | 14 | 2 | 56 | 83 | 110 | 67 | 187 | 565 | 248 | 91 | 32 | 19 | 1473 |
| 2000 | 47 | 2 | 3 | 27 | 64 | 62 | 79 | 591 | 210 | 21 | 32 | 22 | 1159 |
| 평균 | 21 | 23 | 39 | 62 | 107 | 138 | 264 | 342 | 166 | 53 | 50 | 21 | 1286 |

출처: 기상연보, 1991~2000.

해에 따른 강수량의 변동이 매우 큰 것은 주로 여름철 강수량의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름철 강수량의 다과(多寡)가 연강수량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바람

계절풍 기후지대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아시아대륙에서 불어오는 한랭건조한 북서풍이 탁월하고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연변에 위치하여 고온다습한 남풍계의 바람이 많이 분다. 즉 지구적 규모의 대풍계로 보면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속하지만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대륙과 태평양과 같은 대양의 영향을 크게 받아 탁월풍으로는 계절풍이 우세하다. 계절풍의 교체기인 봄철과 가을철은 풍향에 뚜렷한 특징은 없으나 악천후가 아닌 날에는 편서풍대에 속해있으므로 편서풍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태풍이 불때를 제외하면 바람은 일반적으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많이 불며, 특히 2, 3, 4월의 늦겨울에서 초봄에 가장 강하다.

대부도 지역의 바람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근 지역인 수원과 인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¹⁾(표 9). 풍속을 살펴보면 내륙

1) 현재 안산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통계연보에는 수원측후소의 자료가 이용되고 있다.

에 위치한 수원은 연간 평균 풍속이 1.6m/s였으며, 월별 풍속의 변화도 매우 작았다. 풍속이 강하게 나타나는 달은 2-5월 사이였으나 연간 평균 풍속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안에 위치한 인천의 경우는 연간 평균 풍속이 3.7m/s로 수원보다 매우 높았으며, 특히 겨울철의 풍속이 대부분 4m/s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풍속이 평균 4.4m/s를 넘어서면 바람에 의해 모래의 이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의 3월 평균 풍속은 4.5m/s로 이 기간에 해안지역에서 모래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추측되며, 서해안의 해안과 도서지역의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해안사구에도 이 시기에 모래가 공급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10. 안산시 인근 지역의 월별 평균풍속(단위: m/s)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전년 |
|----|-----|-----|-----|-----|-----|-----|-----|-----|-----|-----|-----|-----|-----|
| 수원 | 1.6 | 1.8 | 2.0 | 2.0 | 1.7 | 1.5 | 1.5 | 1.3 | 1.2 | 1.2 | 1.4 | 1.4 | 1.6 |
| 인천 | 4.2 | 4.3 | 4.5 | 4.2 | 3.7 | 3.0 | 3.3 | 3.1 | 2.8 | 3.0 | 4.0 | 4.1 | 3.7 |

출처: 기상연보, 1986~1995.

표 10. 풍향별 관측횟수와 평균풍속(인천) (단위: %, m/s)

| 풍향 | 정온 | 북북동 | 북동 | 동북동 | 동 | 동남동 | 남동 | 남남동 | 남 | 남남서 | 남서 | 서남서 | 서 | 서북서 | 북서 | 북북서 | 북 |
|------|-----|-----|-----|-----|-----|-----|-----|-----|-----|-----|-----|-----|-----|-----|-----|-----|-----|
| 관측횟수 | 2.1 | 6.0 | 4.1 | 3.3 | 4.4 | 4.3 | 4.4 | 5.9 | 6.3 | 7.0 | 7.4 | 5.9 | 6.4 | 7.0 | 9.4 | 9.7 | 6.3 |
| 평균풍속 | | 3.0 | 2.9 | 3.1 | 3.3 | 3.3 | 3.3 | 3.7 | 3.7 | 3.9 | 3.8 | 3.9 | 4.1 | 4.2 | 4.0 | 3.9 | 3.1 |

표 11. 풍향별 관측횟수와 평균풍속(수원) (단위: %, m/s)

| 풍향 | 정온 | 북북동 | 북동 | 동북동 | 동 | 동남동 | 남동 | 남남동 | 남 | 남남서 | 남서 | 서남서 | 서 | 서북서 | 북서 | 북북서 | 북 |
|------|-----|-----|-----|-----|-----|-----|-----|-----|-----|-----|-----|-----|-----|-----|-----|-----|-----|
| 관측횟수 | 2.1 | 6.0 | 4.1 | 3.3 | 4.4 | 4.3 | 4.4 | 5.9 | 6.3 | 7.0 | 7.4 | 5.9 | 6.4 | 7.0 | 9.4 | 9.7 | 6.3 |
| 평균풍속 | | 3.0 | 2.9 | 3.1 | 3.3 | 3.3 | 3.3 | 3.7 | 3.7 | 3.9 | 3.8 | 3.9 | 4.1 | 4.2 | 4.0 | 3.9 | 3.1 |

풍향별 관측횟수와 평균풍속을 살펴보면(표 10, 표 11), 겨울에는 북서풍과 서풍, 여름에는 남서풍과 서풍이 일반적인 풍향이지만, 안산시의 경우 AWS 관측에 의한 지난 1년간의 자료를 볼 때, 겨울철에는 이 탈월하고 여름철에는 풍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봄철과 가을철은 환절기에 해당하여 뚜렷한 탈월풍은 없으나 한반도가 중위도 편서풍대에

속하기 때문에 편서풍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특히 봄철에 강하게 부는 편서풍은 황사현상을 일으킨다. 바람은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육지부보다는 해안도서지방이 강하다.

4) 천기일수

대부도의 지난 10년간(1986-1995) 기후를 맑음, 흐림, 비, 서리, 안개, 뇌전, 폭풍, 호우 등의 천기일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대부도의 천기일수중 쾌청일수(맑음)는 전체적으로 20일 정도이나 하계(6~8월)와 동계기간(11월~2월)에는 평균일수에 비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계에는 강수일수(비), 동계에는 강설일수(눈)의 영향때문으로 생각된다. 강설일수는 전체적으로 12월~2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수문학적 특성에서 이 기간이 토양내 수분 저장량이 다른 곳에 비해서 높은 사실과 관련성을 갖는다.

서리는 초가을부터 늦은 봄에 걸쳐 기온의 일교차가 크며 바람이 없이 맑은 날 야간에 형성되기 쉽다. 따라서 바람이 약하고 기온의 일교차가 심한 내륙지방이 해안지방보다 발생 빈도가 높다. 서리가 내리는 기간을 유상기일이라고 한다면 이와 반대로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을 무상기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물의 생육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체로 생육기일은 봄의 마지막 서리가 내린 후부터 늦가을의 첫서리가 내릴 때까지의 기간이며 모든 농작물이 이 시기에 자란다. 수원측후소의 자료에 따르면 서리가 있는 유상기일은 지난 10년간 단 1회만 발생했던 9월을 제외하면 7개월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도의 경우는 수원과는 달리 해안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이것보다는 서리가 내리는 날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겨울철의 눈은 저기압에 따른 기압골에 의해 형성되는 것 외에 겨울철의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부도 지역에서는 11월말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다음해 4월까지 지속되며, 연간 눈이 내리는 날은 20일 정도이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위로 밀어 올려져 적란운이 발생하면 소나기, 호우, 뇌우, 돌풍 등이 생기는데, 이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수반하는 현상을 뇌우(thunderstorm)라고 한다. 뇌우는 강한 상승기류로 인한 불안정한 기층의 형성으로 발생한다.

표 12. 안산시의 천기일수(단위: 일)

| | 맑음 | 흐림 | 비 | 서리 | 안개 | 눈 | 뇌우 |
|----|-------|-------|-------|------|------|------|------|
| 1 | 12.8 | 7.9 | 9.2 | 19.0 | 1.2 | 6.7 | - |
| 2 | 10.9 | 7.5 | 9.6 | 16.7 | 1.9 | 5 | 0.1 |
| 3 | 9.6 | 10.6 | 7.0 | 16.9 | 2.6 | 1.6 | - |
| 4 | 10.3 | 8.2 | 8.4 | 7.1 | 3.8 | 0.1 | 0.9 |
| 5 | 8.0 | 11.3 | 10.4 | - | 2.8 | - | 1.2 |
| 6 | 4.5 | 14.0 | 10.7 | - | 3.4 | - | 1.1 |
| 7 | 2.1 | 18.1 | 16.5 | - | 1.6 | - | 3.3 |
| 8 | 4.4 | 12.6 | 13.9 | - | 3.4 | - | 2.5 |
| 9 | 7.0 | 10.4 | 9.0 | 0.1 | 3.6 | - | 1.1 |
| 10 | 12.2 | 6.4 | 9.8 | 5.9 | 4.3 | - | 1.3 |
| 11 | 10.2 | 7.5 | 9.1 | 13.9 | 4.7 | 1.1 | 0.4 |
| 12 | 9.6 | 7.2 | 8.8 | 18.4 | 2.4 | 5.3 | 0.3 |
| 전년 | 102.6 | 112.5 | 125.5 | 99.0 | 31.2 | 20.1 | 12.2 |

출처: 안산시 통계연보, 1986~1995.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 연간 뇌우일수는 20일 이하이며 주로 4-10월 사이에 일어나는데, 이곳에서도 연간 뇌우일수는 12일 정도이며 그 시기도 7, 8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대부도의 역사지리

1) 대부도의 역사지리적 개관

신석기 문화유적으로 대부도의 흘곶과 말부흥 등에서 조개무지(패총·貝塚) 2곳이 발견됨으로써 대부도 지역에서 인간의 거주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들 선사유적은 대부도의 원주민과 선사문화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대규모 패총이 발견된 시흥 오이도를 비롯, 선재도와 영흥도·영종도·용유도 등 인근 도서와 연안지방의 선사문화를 연계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부도는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삼국시대에는 백제, 고구려에 속하였다. 『삼국사기』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대부분의 지리지들은 대부도가 속한 남양도호부의 삼국시대 역사를 고구려의 영토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반계 유형원이 편찬한 『동국여지』에서는 남양도호부를 백제의 땅으로 기록하였으니, ‘본래 백제의 땅인데, 고구려가 이를 취하여 당성군(唐城郡)을 삼았다’고 하였다. 이후 고산자 김정호가 편찬한 『여도비지』와 『대동지지』도 이 지역을 백제의 영역으로 기록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주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남양도호부 소속이었으며, 지방제도 개정에 의해 1895년에 인천부 남양군, 1896년에 경기도 남양군 소속이 되었다. 1910년 일본은 강제로 국권을 침탈한 후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였다. 1914년 대폭적인 군면 폐합에 의해 대부도가 남양군에서 부천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법률 제2597호)으로 옹진군에 편입되었다. 그후 1994년 12월 26일 행정구역 개편(대통령령 제14434호)으로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안산시로 편입되었다.

대부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조선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은 목장과 감관의 설치, 또는 해안 방어의 중요성 때문에 군사진의 설치와 관련된 기록이다. 또한 고지도나 지지에서 이 지역이 삼남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바닷길의 요충지였음을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양선 등 외국 선박이 대부도 주변 해로를 따라 서울에 접근하였으며, 이는 병인양요·신미양요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군사 방어의 중심지인 진(鎭)을 설치했다가 폐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한편 조선 후기에 연해 도서 지방의 인구 증가와 개간, 어염(魚鹽)의 이익 증대, 수로를 이용한 유통경제의 활성화와 상업의 발달에 따라 해로의 요충에 위치해 있던 대부도에도 인구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양도호부 소속의 한면(面)으로서 대부도의 인구 자료를 기록한 것은 18세기 중엽의 지리지 『여지도서』가 처음이다. 『여지도서』의 남양부읍지

에는 면별 인구 자료가 수록되었는데, 대부도(大阜島)의 인구는 3,002구(戶로 기록되었으나, 口의 오기로 보임) 남자 1,845구(口) 여자 1,157구로 기록되어, 작은 군현에 육박하는 인구를 지닌 큰 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도면의 인구와 함께 동리명(洞里名)이 기록된 최초의 자료는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戶口總數)』이다. 이 책 중 대부도면의 인구는 1,073호, 3,552구(남자 1,517 여자 2,035)로 기록되고, 승황동(昇黃洞), 영전동(營田洞), 하동(下洞), 상동(上洞), 종현동(鍾懸洞), 흘곶동(訖串洞), 영흥동(靈興洞), 얼벌동(醃筏洞), 이작도(伊作島), 선감도(仙甘島), 소우도(小牛島), 소홀도(召忽島)의 12개 동리가 기재되어 있어 당시 대부도를 비롯한 주변의 섬들이 행정구역으로 조직되어 대부도면(大阜島面)으로 편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부도의 하위 행정구역인 동리 편제는 이후 19세기 읍지 자료들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도의 인구수는 1759년에 3,002구에서 1789년에 3,552구로 약 18.3%의 높은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 기재된 인구는 대부도만이 아니라, 주변 섬에 거주하는 인구를 포함한 것이다.

1910년의 자료를 싣고 있는 『민적통계표(民籍統計表)』에 의하면 대부면(大阜面)의 인구가 732호, 남자 2428명 여자 2,064명 합 4,492명이었고, 영흥면(靈興面)이 636호, 남자 1,626명 여자 1,390명 합 3116명이었다¹⁾. 두 면의 인구를 합하면 1,368호, 7,508명에 이르렀으며, 이 시기에는 영흥면이 대부면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면을 이룰 정도로 대부도와 주변 섬 지역에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민적통계표』에는 직업도 표시되었는데, 대부면이 어업호가 53호, 농업호가 540호, 상업호 30호, 기타가 109호이며, 영흥면이 어업호가 127호, 농업호 402호, 상업호 24호, 기타 83호의 숫자를 보여, 다른 지역에 비해 어업호와 상업호의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2) 지지와 지도로 본 대부도의 옛 모습

1) 이현창, 1997, 『民籍統計表의 해설과 이용방법』,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78쪽

지지(地誌, 또는 지리지)와 지도(地圖)는 지역의 모습을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드러내 주는 자료이다. 지지는 지역에 관한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어, 한 지역의 역사, 지리, 사회, 경제, 민속, 인물 등을 살피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지도는 지역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따라서 지지와 지도는 상호보완적이고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옛 사람들은 ‘좌도우서(左圖右書)’라 하여 지지와 지도를 항상 옆에 두고 가까이 하며 치국과 경륜의 바탕으로 삼았다.

대부도를 그린 옛 지지와 지도들은 직접적으로는 대부도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 주지만, 대부도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향토문화와 지역문화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된다. 대부도를 대상으로 한 지지와 지도를 통해 대부도의 옛 모습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1) 전국지리지에 포함된 대부도

대부도에 관한 기록을 남긴 지지(地誌)는 『삼국사기』지리지를 제외하면 조선시대 이후의 자료들만 현전하고 있다. 이들 지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전국지리지(全國地理志)의 일부로 수록된 지지이며, 둘째는 각 군현에서 작성한 읍지를 도에서 일차 수합하여 도별로 장책하거나 전국 읍지를 모아 놓은 도별 지지 중에 포함된 지지이다. 셋째는 군현별로 작성되어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군현읍지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편찬한 전국지리지는 조선 전기에는 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힘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개인들에 의해 대부분 편찬되었다. 전국지리지는 전국의 각 군현이 모두 포함된 장점이 있지만, 각 지역의 지지 내용은 비교적 간략하다. 대부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지리지로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동여도지(東輿圖志)』, 『여도비지(輿圖備志)』, 『대동지지(大東地志)』 등이 있다.

이들 전국지리지 이전에 편찬된 『삼국사기』지리지와 『고려사』지리지에 있었지만, 이들은 독립된 지리지라 아니고 역사서의 부분으로 포함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제도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명의 변화를 다루고 있을 뿐 지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해 주는 내용은 아니다. 『삼국사기』지리지와 『고려사』지리지는 군현 단위 지역의 연혁을 정리한 기록이므로, 대부도는 수록되지 않았다.

지역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지리지의 역할을 하는 지리지의 편찬은 1424년(세종 6)에 편찬령을 내려 1432년(세종 14)에 완성한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에서 시작되었다. 이 지지는 현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종의 사후 세종대에 편찬된 지리지를 기본으로 하고, 그 동안에 새로 조선의 영토로 편입된 지역인 평안도·함경도의 양계(兩界) 지방을 추가하여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1454)에 그 모습이 남아 있어 『신찬팔도지리지』의 내용과 세종대 각 지역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인구, 토지, 성씨,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산 등 사회, 경제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당시 지지 편찬의 주 목적이 인구수와 인구 이동 같은 사회적 실태, 경지면적과 물산과 같은 각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파악하는데 있었음을 보여 주며, 이를 통해 15세기 전반의 대부도의 사회, 경제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대부도는 조선시대에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 소속이었으므로 남양부에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남양도호부에는 대부도와 선감도의 두 섬에 관한 기록이 있다. 선감미도(仙甘彌島)는 둘레가 5리이며, 소를 놓아 먹인다고 하였으며, 대부도(大部島)는 길이 30리, 너비가 15리, 좌도선군영(左道船軍營) 밭이 1백여 결(結)이 있으며, 나라의 말 4백 18필을 놓아 먹이는데, 염부(鹽夫) 4호가 살면서 돌보게 한다고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초기에 이 두 섬이 주요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30년(중종 25)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인구, 경지 면적, 물산과 같은 사회 경제적인 내용이 제외되거나 대폭 약화되었다. 반면에 형승(形勝), 누정(樓亭), 학교, 불우(佛宇), 사묘(祠廟), 고적, 인물, 제영 등 문화적인 내용의 비중이 커짐으로써 조

선시대 유교 문화의 확립을 반영한 조선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남양도호부 「산천(山川)」조에는 20개의 섬의 명칭과 위치, 목장 설치 여부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수록된 섬은 수홀도(愁訖島), 우음도(吁音島), 선감미도(仙甘彌島), 대부도(大部島), 영흥도(靈興島), 소홀도(召忽島), 덕적도(德積島), 독갑도(禿甲島), 승황도(昇黃島), 풍도(楓島), 신야꽃도(新也串島), 이측도(伊則島), 제부도(濟扶島), 탄모로도(炭毛老島), 오질도(於叱島), 소우도(小牛島), 선협도(仙俠島), 입파도(立波島), 구을압도(仇乙鴨島), 결오리도(結吾里島) 등이다.

이 가운데 목장이 설치된 섬은 수홀도, 선감미도, 대부도, 영흥도, 독갑도, 승황도, 이측도, 오질도 등 8개 섬으로 조선 초에 대부도를 비롯한 남양부 소속 섬들이 목장으로 활발하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홀도는 1486년(성종 17)에 안산군(安山郡)으로 소속을 바꾸었다가 1519년(중종 14) 다시 남양부로 이속시켰으며, 1486년에 덕적도와 신야꽃도는 인천부(仁川府)로, 풍도는 수원부로 행정 구역을 바꾼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의 인천도호부 「산천」조에는 1486년에 남양부에서 인천부로 관할이 바뀐 섬으로 덕적도와 함께 신야꽃도(上也串島)가 기재되어 있어, 조선 초기 특히 성종대에 남양만 일대에 위치한 섬들의 관할을 둘러싼 행정구역의 변경이 빈번했음을 보여 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조선전도와 팔도의 도별지도 등 총 9종의 지도가 포함되어 지리지에 지도를 함께 수록하는 지리지 양식의 효시를 이루었다. 그러나 조선전도는 물론 도별 지도인 「경기(京畿)」 지도에도 대부도는 표시되지 않았다. 이는 크기가 작은 책에 첨부된 지도라는 점과, 지도의 성격과 목적이 제사처를 표시하는 문화적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심에 ‘동람도(東覽圖)’라 쓰여 있기 때문에 흔히 『신증동국여지승람』 중에 포함된 지도들은 ‘동람도’로 호칭된다. 동람도를 바탕으로 모사한 지도들이 조선 후기에 매우 광범위하게 민간에서 유행한 점에 이 책과 지도의 의의가 있는데, 이 지도들에서도 대부도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전국지리지의 편찬은 숙종대 등 조선 후기에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몇차례 시도되었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반면에 개인에 의해 전국지리지의 편찬되어 우리에게 귀중한 자료로 남아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는 편찬자와 편찬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1656년에 일차 완성하여 1660년대 후반까지 계속 수정, 보완한 책으로 추정된다. 『동국여지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찬(私撰) 전국지리지로서, 16세기 후반부터 활발하게 만들어졌던 사찬읍지의 성과를 수용한 것이었다.

반계는 읍지가 지니는 지방적 한계를 극복하고, 서술 대상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시켜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역과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파악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지리지인 『동국여지지』를 편찬하였다. 이 책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명일통지』 등을 기본으로 하여 편찬되었다. 그러나 역사지리적인 내용이 늘어나고, 군현 하부 행정단위인 면(面)의 수를 기록한 반면, 「성씨」 「제영」 등은 삭제함으로써 『신증동국여지승람』과는 성격이 다른 지리지였다.

「범례」에 의하면, 대부분의 책들이 각 군현의 연혁에서 대체로 삼국시대 이후의 것을 서술하고, 삼국 이전은 서술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서술에서 빠진 지역을 찾아 바로 잡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로 『삼국사기』에 백제 경역의 북쪽 경계가 한강이라 하였으나, 한강 남쪽 지역 즉 광주·여주·이천·부평·인천·안산·금천·과천·음죽·죽산·안성·양성·용인·진위·직산·진천·청안 등이 백제 부분에 빠지고, 고구려에 기록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동국여지지』에서 처음으로 대부도가 포함된 남양도호부를 백제의 땅으로 기록하였다. ‘본래 백제의 땅인데, 고구려가 이를 취하여 당성군(唐城郡)을 삼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국여지지』는 삼국시대의 대부도를 포함한 남양부의 역사를 백제→고구려로 변천한 것으로 본 것이다.

조선 후기를 마감하는 19세기 중엽, 위대한 지리학자 김정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청구도(靑邱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수선전도(首善全圖)』 등의 지도 외에도 『동여도지(東輿圖志)』(1834년경, 영남대학교 도서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여도

비지(輿圖備志)』(총 20책, 1851-1856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韓國人文科學院에서 1991년 韓國邑誌總覽의 일부분으로 3책으로 영인), 『대동지지 大東地志』(1861년경, 1976년 亞細亞文化社에서 영인)와 같은 전국지리지를 남겼다.

『삼국사기』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대부분의 지지들은 대부도가 속한 남양부의 삼국시대 역사를 고구려의 영토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여도비지』와 『대동지지』는 백제의 영역으로 기록하여 주목되며, 이는 유형원의 『동국여지』의 시각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전국읍지, 도지에 포함된 대부도

16세기 중엽 이후 각 지방에서는 군현 단위의 지리지 즉 읍지의 편찬이 매우 활발하여 조선 후기에는 각 군현마다 여러 종의 읍지들이 만들어졌다. 읍지 편찬 초기에는 각 지역의 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사찬읍지(私撰邑誌)가 중심이 되었으나,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국가에서 읍지를 주목하고, 수시로 읍지 편찬령을 내려 관찬읍지(官撰邑誌)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도 단위로 수합한 도지나 전국의 읍지를 수합한 전국읍지들은 중앙 정부가 주체가 된 관찬읍지였다. 대부도가 포함된 전국읍지와 도지는 다음과 같다.

가. 『여지도서(輿地圖書)』 1760년경,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나. 『경기지(京畿誌)』 184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다. 『경기읍지(京畿邑誌)』 187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라. 『기전읍지(畿甸邑誌)』 1894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7세기 후반~18세기 초 숙종대에는 여러 번 지리지 편찬 의논이 제기되었으나 수 차례에 걸친 환국 등 복잡한 정치 상황 때문에 완성되지 못하였다. 이때 완수하지 못한 지리지 편찬 사업은 18세기 중엽 영조대에 실현되었다. 영조대에는 여지승람의 증보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새로 국가에서 각 읍의 읍지를 종합하고 여러차례 개수하였으니, 이 책이 『여지도서』 55책이다. 『여지도서』

의 「호구」 등 항목에는 대부분 ‘기묘장적(己卯帳籍)’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1759년 이후 즉 1760년을 전후한 시기에 편찬된 읍지들을 모았음을 보여 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비하여 『여지도서』의 내용 체계는 사회, 경제, 행정적인 내용이 매우 강화된 것이었다. 채색지도가 각 군현 읍지의 앞에 반드시 수록되고, 방리, 도로, 제언, 교량, 제언, 전결(旱田, 水田), 부세(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稅), 군병 등의 항목이 새로 설정되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내용이 매우 풍부하게 수록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16세기 후반 이래 활성화되었던 새로운 읍지 편찬의 경향을 정리하고 종합한 것으로서 18세기 읍지의 종합적 성격을 대표하고 있다. 군현의 역사와 행정제도의 변화에 관한 내용인 「건치연혁」이 일반적으로 읍지의 첫머리에 기록되었으나, 『여지도서』에는 「방리」조를 가장 첫머리에 두고 면리(面里) 별로 명칭, 위치, 호수, 남녀인구수를 기록하여 매우 자세하게 군현의 하부 행정 단위와 지역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가 행정력의 강화와 함께 리(里)가 국가 행정의 하부 단위로 파악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촌락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로」조 역시 「건치연혁」조 보다 앞에 위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시기에 신설된 항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로의 크기에 따라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하여 군현 내의 도로망과 인접 지역과의 거리, 경계 표지물을 자세히 기록하여, 도로가 매우 중시되고 있던 당시의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당시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도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역간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지역간 및 지역내의 구체적인 유통망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각 군현 읍지의 첫머리에 채색지도가 안내지도 역할을 하도록 첨부된 점이다. 남양부 읍지의 지도는 타지역에 비하여 매우 소략한 형태이다(그림 12). 그러나 섬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강조된 점이 특징이다. 대부도에는 감목관이 파견됨을 표현하고, 지금의 황금산을 ‘대금산(大金山)’으로 표시하였다.

『여지도서』의 남양부읍지에는 면별 인구 자료가 수록되었다. 대부도(大阜島)는 3,002호(戶; 11의 오기로 보임) 남자 1,845구(口)

여자 1,157구로 기록되어 있어, 매우 심한 남초 현상을 나타냈다. 이는 대부도 및 주변 섬 지역이 목장으로, 남자들이 목자(牧者)로 활동했던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기지(京畿誌)』는 1842~1843년에 편찬된 지리지로 경기도 34개 읍지와 영종진의 진지를 4책으로 합한 것이다. 『경기지』는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경기지역의 도지(道誌)이다. 『경기지』 「방리(坊里)」조에 의하면 당시 대부도를 비롯한 주변의 섬들이 행정구역으로 조직되어 대부도면(大阜島面)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또한 대부도면은 선감도동(仙甘島洞), 영전동(營田洞), 포내동(浦內洞), 흘곶동(訖串洞), 중현동(鍾懸洞), 소우동(小牛洞), 포내하동(浦內下洞), 열벌동(筵筏洞), 영흥내동(靈興內洞), 소홀동(召忽洞), 이작동(伊作洞), 승황동(昇黃洞)의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大阜島面：自官門西距一百里，仙甘島洞 自官門西距越一海五十里，營田洞 自官門西距越一海五十里，浦內洞 自官門西距越一海五十里，訖串洞 自官門西距越一海五十里，鍾懸洞 自官門西距越一海五十里，小牛洞 自官門西距越二海六十里，浦內下洞 自官門西距越一海五十里，筵筏洞 自官門西距越三海七十里，靈興內洞 自官門西距越三海七十里，召忽洞 自官門西距越三海九十里，伊作洞 自官門西距越四海九十里，昇黃洞 自官門西距越四海一百里

『경기지』 중 남양부읍지에 수록된 지도(그림 13)를 보면, 대부도·선감도·불도·열도·영흥도·소우도·소홀도·소이작도·대이작도·승황도·제부도 등의 섬이 크게 그려져 있다.

『경기읍지(京畿邑誌)』 6책은 1871년(고종 8)에 편찬된 경기도 35개 지역의 읍지와 영종진지를 모은 책이다.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 등 외세와 직접적인 충돌을 겪고 난 후 국가가 전국에 읍지 편찬 명령을 내려 작성한 것이 이 시기의 읍지이다. 1871년에 편찬된 전국 각 도의 도지의 공통된 특징으로, 군현읍지의 뒤에 간략한 읍사례(邑事例)가 첨부된 점이 특징이다. 읍사례는 중앙으로의 상납 내역 등 지방 재정

의 지출 부분을 주로 기록하였는데, 이 부분은 이전 읍지들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성이다. 이 책의 남양부 읍지는 『경기지』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읍지 앞에 수록된 읍지도(그림 14)도 『경기지』의 지도와 대동소이하여, 그 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전읍지(畿甸邑誌)』(4책)는 1894~1895년에 편찬된 경기도 지리지이다.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 등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전국에 걸쳐 읍지가 편찬되어 도지로 묶였다. 이 시기의 읍지는 읍사례(邑事例) 중심으로 읍지의 비중이 변화되고, 본래의 지지 내용은 사례의 부속물로 바뀌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읍지 부분은 형식화되어 새로 작성되는 것보다 이전의 읍지를 전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책의 남양부읍지에 수록된 남양부지도도 『경기지』의 지도와 거의 유사하며, 대부도를 비롯한 섬들이 매우 크게 강조되어 그려져 있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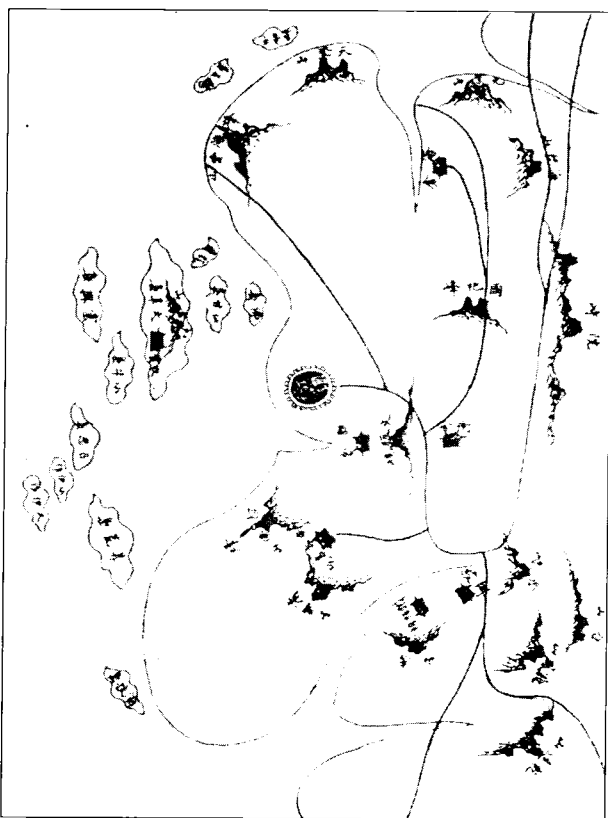


그림 12.
『여지도서(輿地圖書)』의
남양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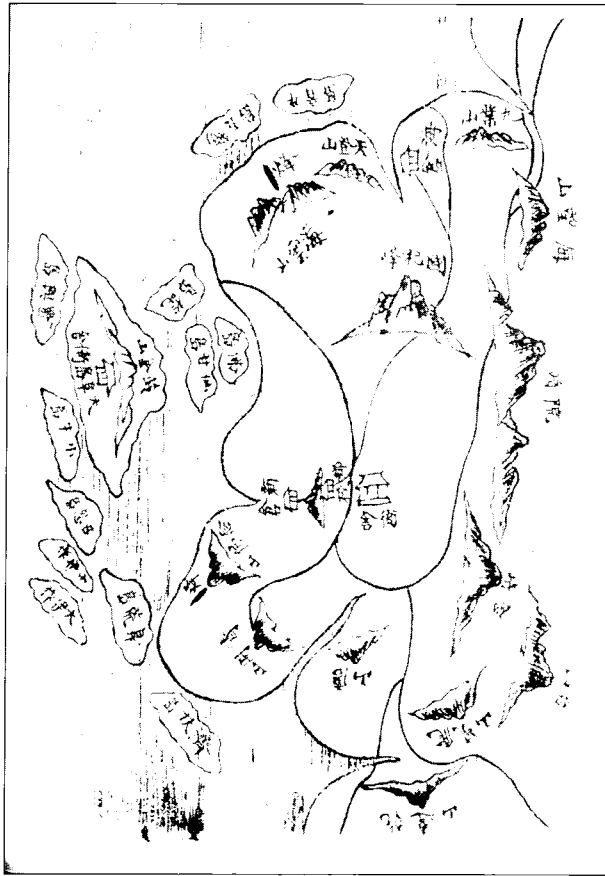


그림 13. 『경기지(京畿誌)』
남양부읍지도 중의 대부도



그림 14. 『경기읍지(京畿邑誌)』
남양부읍지도 중의 대부도

그림 15. 『기전읍지(畿甸邑誌)』
남양부읍지도 중의 대부도



(3) 군현읍지 중의 대부도

대부도만을 대상으로 하여 편찬된 읍지는 없다. 그러나 대부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군현을 단위로 하여 단독으로 독립되어 편찬된 남양부읍지는 다음이 현존하고 있다.

가. 『남양부읍지(南陽府邑誌)』, 1책(3장), 19세기 후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나. 『남양군읍지(南陽郡邑誌)』, 1책(13장), 1899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다. 『남양읍지(南陽邑誌)』, 1책(26장), 1899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

단독으로 독립된 남양 읍지는 18세기 후반 고종대에 편찬된 본만 현존하고 있다. 읍지들이 16세기 이후 편찬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 단독 읍지는 시기적으로나 양적으로 늦으며, 부족한 편이다. 또한 읍지의 내용도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여지도서』나 1840년대에 편찬된 『경기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다.

『남양부읍지(南陽府邑誌)』는 고종대에 편찬된 읍지로 추정된다. 내용은 『경기지』에 수록된 남양부읍지와 거의 동일하다. 읍지 앞에 수록된 읍지도도 『경기지』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데, 대부도 등 섬은 상대적으로 크게 과장되어 있다.(그림 16) 『남양군읍지(南陽府邑誌)』(그림 17)와 『남양읍지(南陽邑誌)』(그림 18)는 1899(광무 3)년에 전국 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작성된 읍지이다. 『남양읍지』는 역대 수령의 명단을 자세히 수록하여,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기존 읍지에 포함된 읍지도와 비교하면, 두 읍지에 수록된 지도에는 이전 지도에 없었던 면 이름이 추가되어 있다. 『남양군읍지』의 읍지도에는 또 남양부 내의 관아들이 그려져 있다. 특히 대부도에는 이전에 ‘대금산’으로 기록되었던 중심 산이 ‘황금산(黃金山)’으로 기록되었으며, 이전에 진(鎭)이 설치되었었음을 알려 주는 ‘전진아사(前鎭衙舍)’라는 기록이 있다.



그림 16.
『남양부읍지(南陽府邑誌)』의
읍지도 중의 대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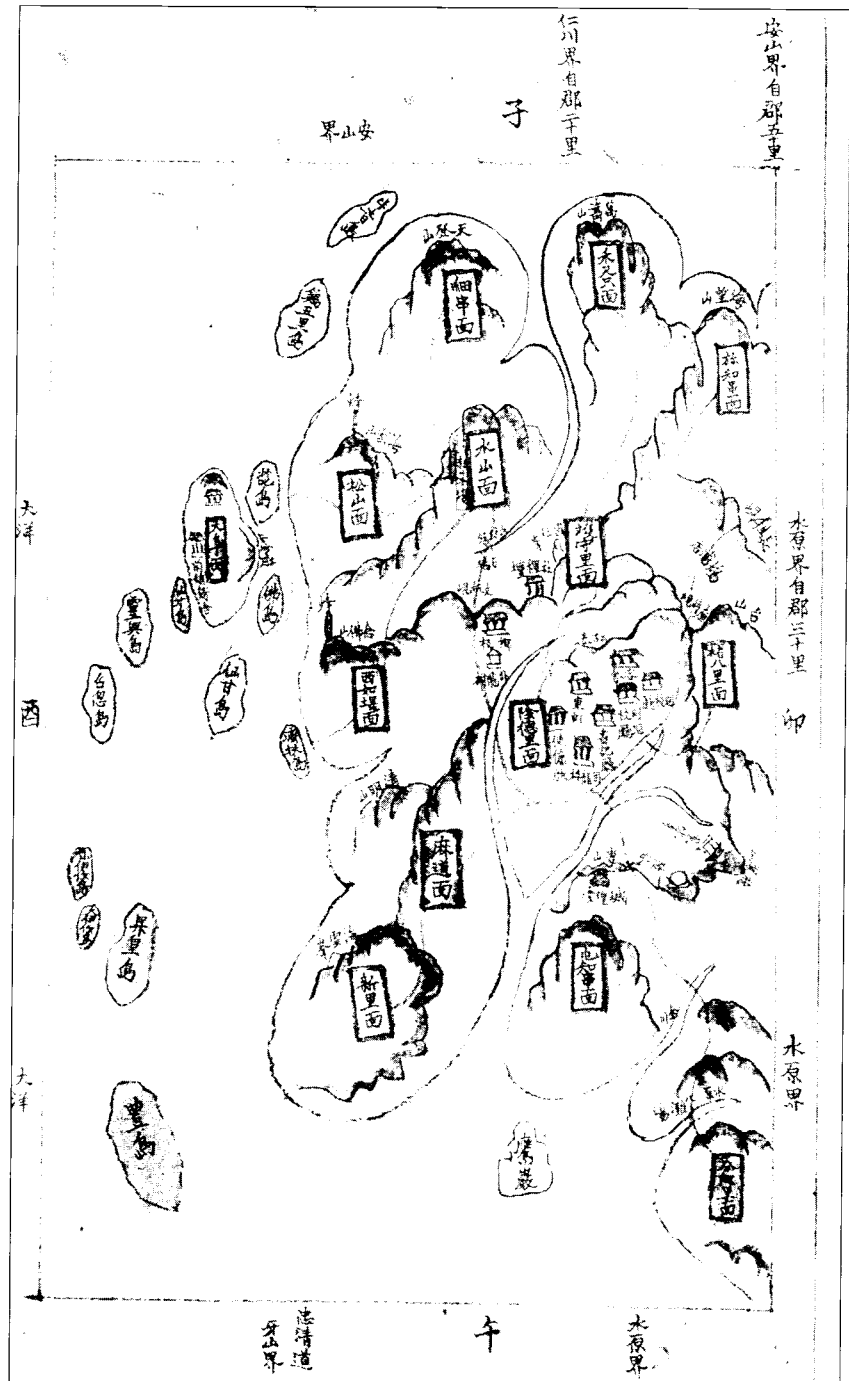


그림 17. 『남양군읍지(南陽郡邑誌)』의 읍지도 중의 대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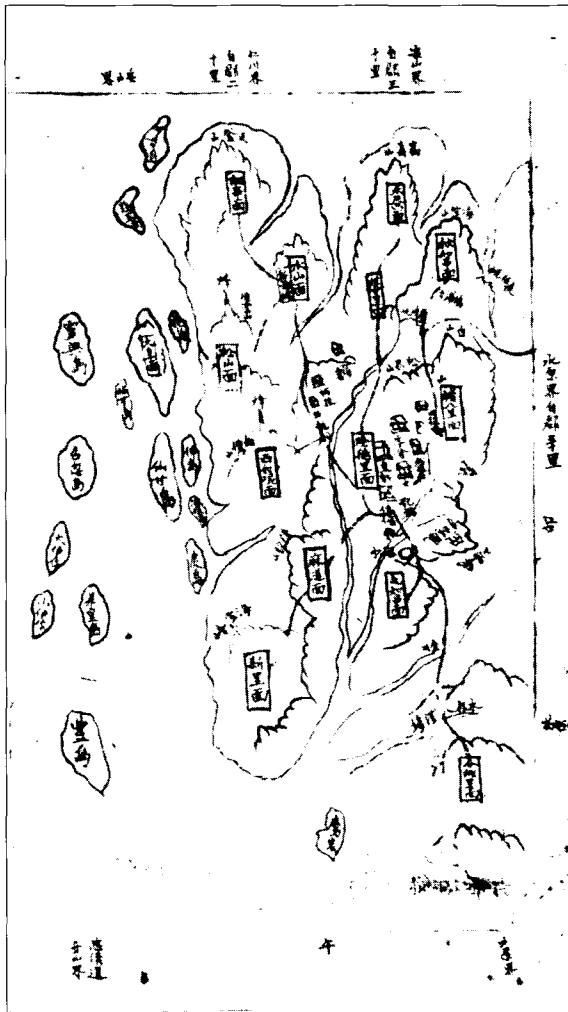


그림 18. 『남양읍지(南陽邑誌)』
의 읍지도 중의 대부도

3) 고지도를 통해 본 대부도의 옛 모습

대부도의 옛 지도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본들만 전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전국이나 도별 지도책 또는 지도첩 속에 다른 군현지도들과 함께 일련의 지도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읍지 등 지지류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이다. 셋째는 개별 군현지도로 독립되어 있는 지도이다.

(1) 전국지도와 도별지도에 표현된 대부도

대부도가 표현된 주요 전국지도와 도별지도는 다음과 같다.

전국지도

- 가.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之圖)』, 1710년대, 개인 소장.
- 나. 『해동지도(海東地圖)』, 18세기 중엽,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다. 『청구도(靑邱圖)』, 1834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라. 『해좌전도(海左全圖)』, 1850년대 후반, 개인 소장.
- 마.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바.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 19세기 후반, 개인 소장.

도별지도

- 가. 『여지도(輿地圖)』 중 「경기도」, 18세기 말,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나. 『해동도(海東圖)』 중 「경기」, 18세기 말, 호암미술관 소장.
- 다. 『팔도지도(八道地圖)』 중 「경기·충청도」, 18세기 말,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라. 『팔도지도(八道地圖)』 중 「경기·충청도」, 18세기 말,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전국지도와 도별지도는 대부도 내부의 자세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부도의 다른 지역과의 관계 즉 상대적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드러내 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1668~1715)가 1710년경에 그린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之圖)』¹⁾는 18세기 초의 우리나라의 조선전도를 대표하는 지도 중의 하나이다. 이 지도는 세로 114.8cm 가로 65.2cm로 크기가 작은 지도이지만, 해안 지방의 섬들이 상세히 표시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근해의 여러 섬들을 삼각형으로 그리고, 이 섬들이 어느 군현 소속인지를 적색 선으로 연결하여 밝혀 놓았는데, 대부도와 함께 소우도, 영흥도, 승황도, 결오리도, 신야도, 오질도, 수홀도, 우음도, 탄모로도, 소홀도, 이측도, 선협도, 독갑도, 제부도, 입파도, 풍

1) 국립지리원·대한지리학회, 2000, 한국의 지도, 33쪽에 수록.

원본은 해남 윤씨 종가에 소장되어 있으며, 중앙지도문화사 영인본이 있다.

도, 덕적도 등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었던 섬들이 모두 그려져 있다(그림 19).

『해좌전도』는 19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목판본 조선전도이다. 지도의 윤곽과 내용은 18세기 중엽 우리나라 지도 발달에 전환을 가져 온 농포자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동국지도』와 유사하여 『동국지도』 유형의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산줄기와 하계망, 그리고 조선시대 지방행정단위인 부(府)·목(牧)·군(郡)·현(縣), 그리고 군사요충지였던 진보(鎭堡)를 자세하게 표시하였다. 특히 팔도(八道)의 경계를 점선으로 나타내고 그 위에 채색을 함으로써 도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부·목·군·현은 원 안에 이름을 썼는데, 군현명 우측에 서울부터 해당 지역까지의 거리를 이수(里數)로 적어 놓아, 각 지역까지의 절대 거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교통로도 매우 자세하다. 이 지도는 크기가 작으므로(세로 97.8, 가로 55.4cm) 대부도와 영흥도[延興]만 그려져 있는데(그림 20), 이러한 모습은 소형 조선전도의 대표적인 구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산자 김정호의 작품인 『청구도』(1834년)는 2권으로 구성된 채색필사본 전국 지도책이다. 『청구도』는 전국 지도 중 가장 큰 지도 중의 하나이며, 각 군현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다. 대부도·영흥도·소홀도에는 목장 표시가 되어 있다. 대부도 아래에는 “토지가 비옥하며 백성이 많고, 생선과 소금을 판매한다”라는 설명을 써 놓아 대부도가 토지 비옥과 어염(魚鹽)의 이점을 발판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대부도 서쪽 소우도와 영흥도 사이에 “바닷길의 요충[海路要衝]”이라고 기록하여, 이 일대가 중요한 해로임을 나타냈다(그림 21).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고산자 김정호가 1861년(1864년 중간본)에 제작한 분첩절첩식 형태의 전국지도이다. 전국 지도이지만 축척이 크기 때문에 대부도와 그 주변 지역을 살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이기 때문에 전국을 모두 볼 수 있도록 그렸으므로 대부도의 산천의 배치, 주변 지역과의 관계, 도로망, 도서(섬)의 위치 등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2는 『대동여지도』에 『동여도(東輿圖)』의 지명을 추가한 지도이다. 『동여도』의 내용이 활자로 삽입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대동여지도』에 비해 『동여도』에 주요 섬의 둘레, 제주도·탄모로도 등 여러 섬이 더 많이 그려져 있음을 살필 수 있다(그림 22).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축소 요약한 목판본 조선전도인데, 김정호의 작품인가 여부에 관심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도이다. 이 지도도 소형 조선전도이므로(세로 114.3, 가로 64.8cm) 대부도와 영흥도, 풍도, 덕적도 등만 그려져 있다(그림 23).



그림 19.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之圖)』의 대부도와 주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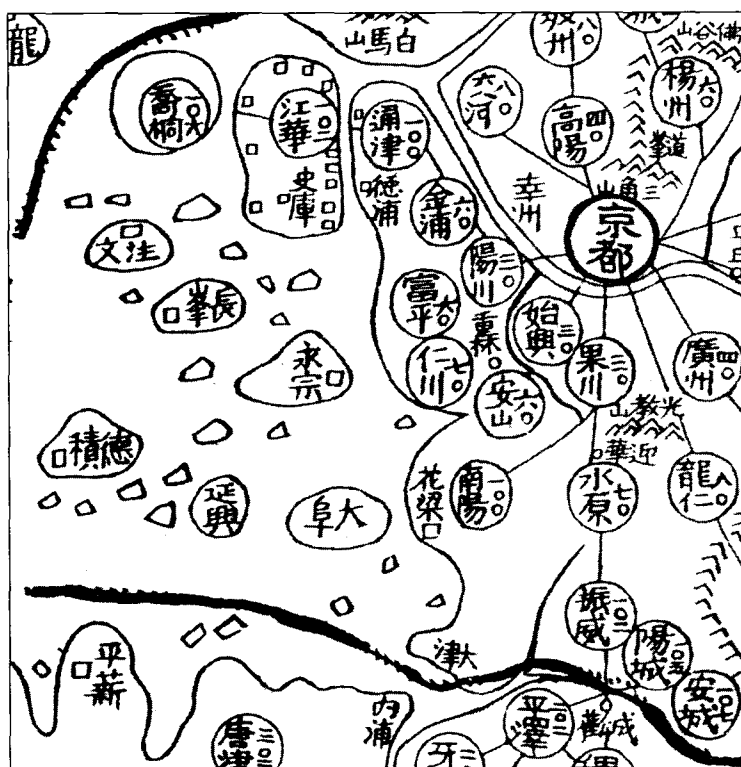


그림 20. 『해좌전도(海左全圖)』의 대부도와 주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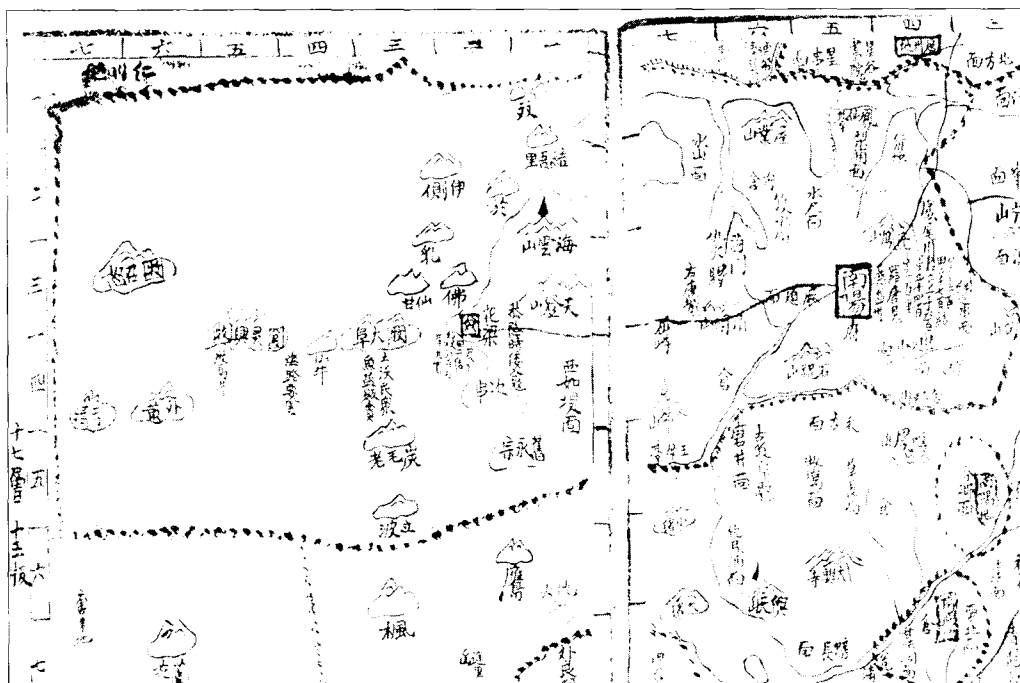


그림 21. 『청구도(靑邱圖)』의 대부도와 주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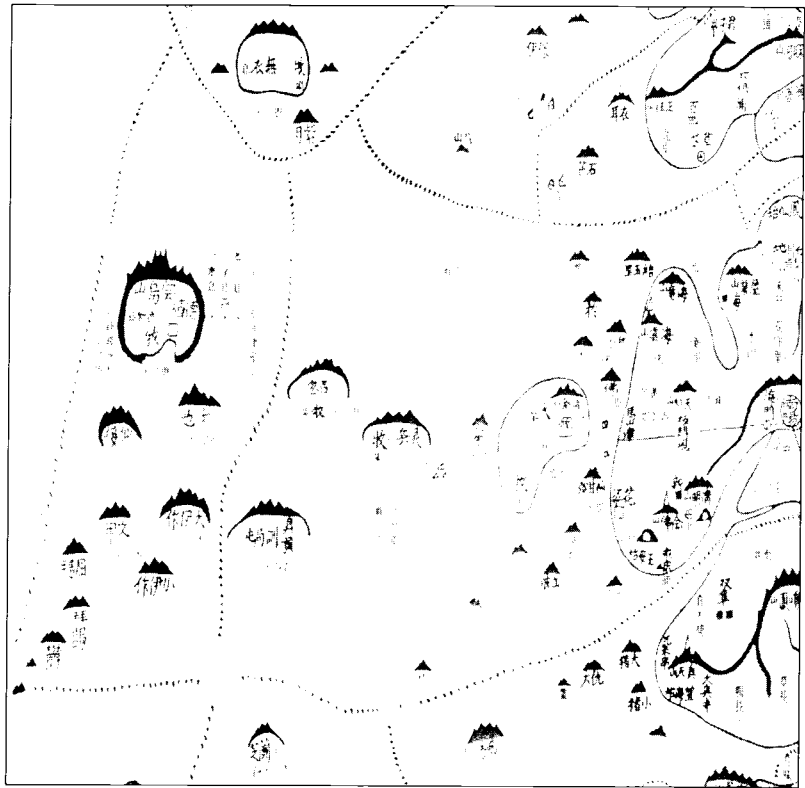


그림 22.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대부도와 주변 지역



그림 23.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의
대부도와 주변 지역

각 도를 단위로 그린 도별지도(道別地圖) 유형의 지도에는 경기도 지도 중에 대부도가 표시되어 있다. 도별지도는 ‘동람도’식 유형과 사실적이고 정확한 도별지도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중에 포함된 팔도의 도별지도 중 ‘경기도’ 지도와 후대에 이를 모사하여 그린 ‘동람도’식 경기도 지도들에는 대부도는 표시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동람도’식 지도들에는 대부도가 그려지기도 한다(그림 24). 이는 인구나 토지 등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부도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었으며, 대부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확하고 사실적인 도별지도에 대부도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 본다. 이 유형의 대표적 지도는 정상기(1678~1752)의 『동국지도(東國地圖)』 중의 ‘팔도분도’이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일정한 축척을 사용하여 도별지도를 합하면 전도가 되도록 고안되었으며, 축척인 백리척(百里尺)을 표시하여 거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 점, 축척이 약 1:420,000의 대축척지도로 커짐에 따라 도로·봉수·지명 등을 상세하게 나타낸 점, 조선의 윤곽 특히 북부 지방의 윤곽이 정확해진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상기의 지도는 아들 정항령(鄭恒齡, 1710~1770), 손자 정원림(鄭元霖, 1731~1800), 종손 정수영(鄭遂榮, 1743~1831) 등 4대에 걸쳐 계속 전사·수정이 되면서 조선 후기에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던 지도로서, 필사본이 수십여 종 남아 있다. 이 유형의 경기도 지도에는 대부도, 불도, 연흥도(延興島), 승황도, 소홀도, 소이작도, 대이작도 등의 섬이 표시되었으며(그림 25), 이 유형의 지도들은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팔도지도』(占軸 4709-48,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중 「경기·충청도」 지도나 『팔도지도』(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중 「경기·충청도」 지도와 같이 수정본 계열의 지도에는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그리고 영흥도 서쪽으로 바닷길[海路]이 표시되어 있다(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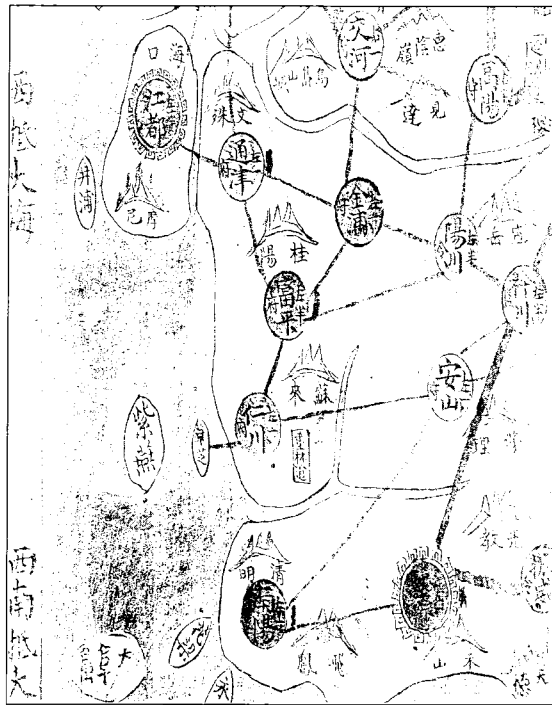


그림 24. 『여지도(輿地圖)』
「경기도」 중의 대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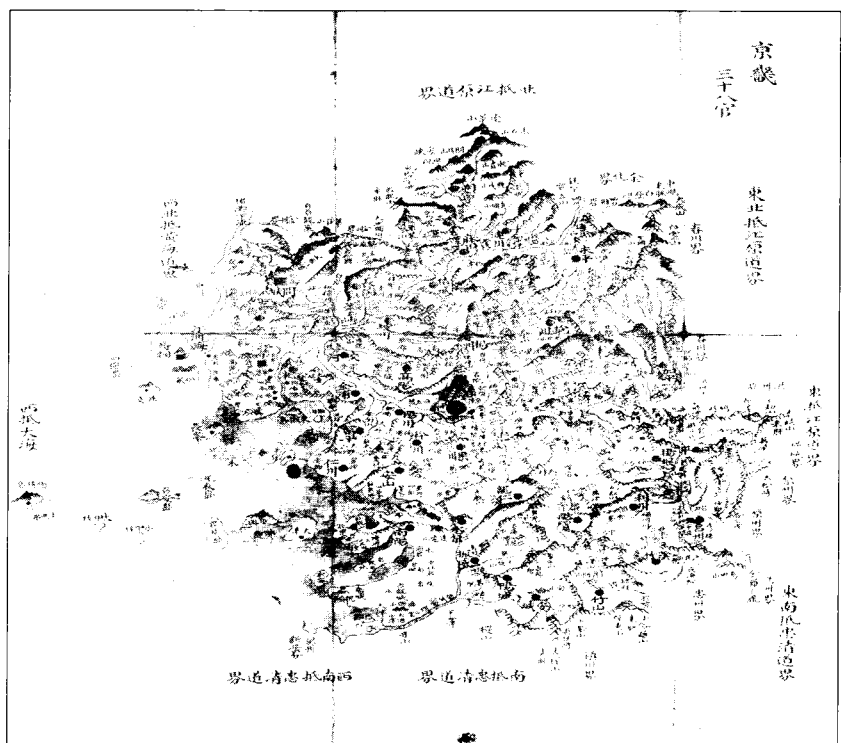


그림 25. 『해동도(海東圖)』 「경기」 지도 중의 대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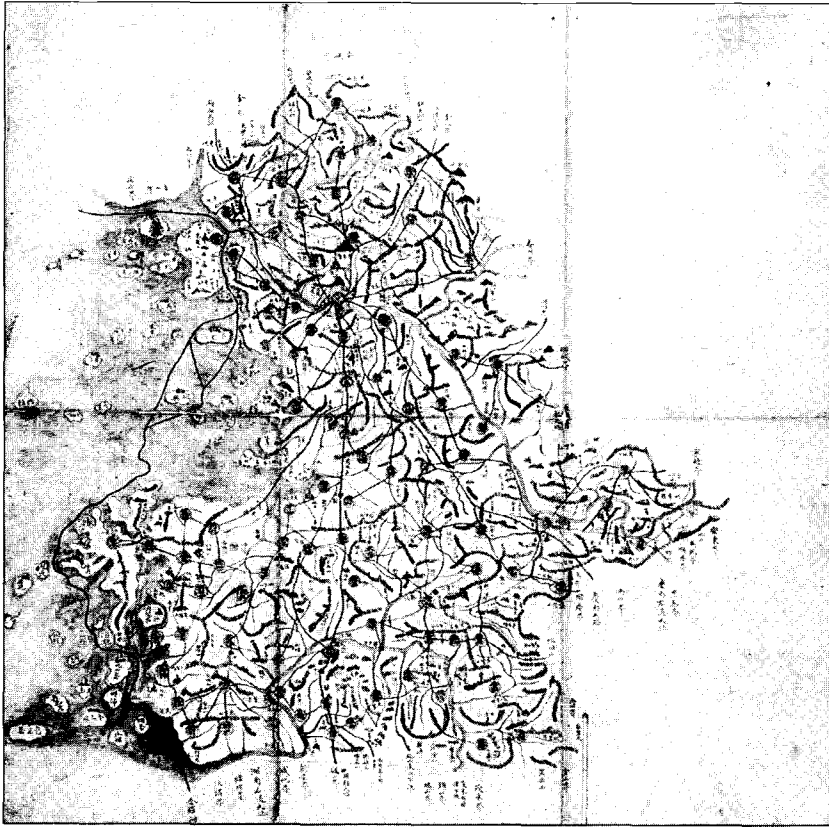


그림 26. 『팔도지도(八道地圖)』
「경기·충청도」 중의 대부도와
서해안 해로

(2) 군현지도 및 분도에 표현된 대부도

군현을 단위로 하여 그린 군현지도나 하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린 분도(分圖) 중 대부도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지도는 다음과 같다.

가. 『여지도(輿地圖)』 중 「남양부」, 18세기 전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나. 『광여도(廣輿圖)』 중 「남양부」, 19세기 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나. 『해동지도(海東地圖)』 중 「남양부」, 18세기 중엽,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라.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중 「남양부」, 19세기 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마.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 중 「남양부」, 18세기 후반, 서

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바. 『조선지도(朝鮮地圖)』 중 「남양부」, 18세기 후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사. 『남양지도(南陽地圖)』, 187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아. 『대부지도(大阜地圖)』, 187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대부도를 수록한 군현 단위의 군현지도들은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들만 전하고 있다. 전국 각 군현의 지도를 모두 수록한 전국 군현지도집인 『여지도(輿地圖)』, 『광여도(廣輿圖)』 등은 18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전국 군현지도집이나, 이에 기록된 내용은 대체로 18세기 전기의 상황이다. 전국군현지도집(全國郡縣地圖集)이란 전국 각 지방의 모든 군현의 지도를 함께 모아 수록한 지도집을 말한다. 이들 지도집은 지도책의 형태로 묶여져 있으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지도의 뒷면에는 각 지역에 대한 인구, 토지면적 등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기(註記)의 내용도 모두 같다. 다만 책의 크기가 다르고, 지형이나 건물의 표현 양식·채색 등이 상이하다. 이 지도의 특징으로는 섬에 거주하는 호수(戶數)를 섬마다 표시한 것인데, “대부도 人居 463호 延興島 170호 柵島 83호 昇黃島 70호 仙監島 40호 小伊作 17호 大伊作 14호”라 쓰여 있어(그림 27), 주요 섬에 거주하는 가호가 857호에 이른다. 이는 당시 섬에 대한 관심과 섬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 여백의 설명의 면이름 중에 ‘대부도면’이라는 면명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도 아래 쪽에 각 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배들이 다니는 바닷길을 상세하게 표시해 놓은 점도 매우 독특하며, 주목되는 내용이다. 이에 표시된 해로는 동쪽부터 “평택(平澤) 선로(船路)” “신창(新昌) 선로” “공세창(貢稅倉) 아산(牙山) 선로” “예산(禮山) 선로” “해미(海美) 선로” “홍천(鴻川) 선로” “서산(瑞山) 선로” “결성(結城) 선로” 등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뱃길과, “호남(湖南) 선로”이다.

『해동지도(海東地圖)』는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또다른 훌륭한 지도책으로, 전국 각 군현의 지도를 모두 수록한 전국 군

현지도집이다.¹⁾ 『해동지도』에는 주요 산천, 관아, 역원, 면, 창 등이 표시되어 있고, 도로가 적색 선으로 그려져 있다. 또 지지(地誌)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여 각 지역에 관한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주기에는 호구, 경지면적, 고장의 둘레, 군병총수(軍兵總數), 환곡총수(還穀總數), 각 면과 위치, 연혁, 사방강계, 지형적 특징, 군명, 산천, 고적, 교량, 봉수, 역원, 형승, 토산 등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여 마치 읍지를 요약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

『해동지도』는 도로가 상세한 점이 특징인데, 남양부의 경우 바닷길이 매우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위쪽이 동쪽으로 배치된 것도 서쪽에 위치한 여러 섬들과 바닷길을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한 구도로 보인다. 이 지도는 가장 세밀하게 해로를 나타낸 지도라 할 수 있다. 서해안 남북을 연결하는 세 가지 선로(船路)가 대부도와 영흥도 주위를 통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선로는 충청도 쪽에서 올라오는 배들의 바닷길로서 “평택(平澤) 선로” “신창(新昌) 선로” “아산(牙山) 공세(貢稅) 선로” “예산(禮山) 선로” “해미(海美) 선로” “홍천창(鴻川倉) 서산(瑞山) 선로” “결성(結城) 선로” 등이 유도(乳島) 앞에서 모여 남양 본부와 대부도 사이의 뱃길로 합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선로는 “전라도(全羅道) 선로”로서, 풍도 동쪽을 돌아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로 통과하는 뱃길이며, 그리고 풍도 서쪽을 통과 영흥도 서쪽 승황도 사이로 지나가는 뱃길이었음을 알려 준다(그림 28).

『해동지도』의 「덕적진」 지도에는 충청도 안흥진부터 황해도 서해안에 이르는 경기도 서해안 앞바다의 섬들과 뱃길이 표시되어 있다. 대부도 동쪽 해안에 설치되었던 화량진(花梁鎭)은 전선이 정박할 수 있는 만을 품고 있는 군사 요충지였으나, 퇴적이 진행되어 썰물 때에는 배가 오갈 수 없어 포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 지도의 우측 여백에는 경기만 일대의 해로에 대한 주기가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그림 29).

1)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1995년에 『해동지도』 영인본 2책(상,하)과 해설·색인집 1책을 간행하였다.

“이른바 팔미(八尾)라는 것은 화랑진과 불도 사이의 작은 수로(水路), 불도와 선감도 사이의 작은 수로, 선감도와 대부도 사이의 작은 길,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의 작은 길 셋, 영흥도와 소홀도 사이의 중간 크기의 뱃길, 소홀도와 덕적도 사이의 큰 뱃길 등 8개의 길(八路)을 말한다. 아침저녁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물길이 이 여덟 갈래의 길의 사이에 들어갔다가 팔미도(八尾島) 앞 바다에서 합하며, 북쪽으로 영종도·월미도·무치도 사이로 밀고 올라간다.

이 밖에 지도 아래 쪽의 각 섬들 사이의 바닷길에 일일이 물이 빠지면 뺨이 드러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지, 수로의 폭 등을 기록하였다. 이를 보면 조선 후기에 선박이 대형화되고, 해안 쪽에 퇴적이 이루어지면서, 작은 선박들은 해안 가까운 작은 뱃길을 계속 이용했으나, 큰 선박들을 비롯하여 점차 대부도 동쪽 바닷길 보다는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또는 영흥도 외양의 큰 바닷길을 이용했음을 살필 수 있다.

『八道郡縣地圖(팔도군현지도)』(그림 30)와 『朝鮮地圖(조선지도)』는 영조 말인 1767~1776년 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현 지도집이다. 이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약 4.1cm의 방안(方眼)에 그린 방안지도라는 점이다. 지도의 크기가 가로 24.4cm 세로 16.2cm에 불과한 작은 지도이므로 상세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전국의 모든 군현을 일정한 축척에 의해 그려 지도책으로 수록하는 데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지역을 일정한 축척으로 그린 점, 그것을 통해 전국을 군현 단위로 연결시켜 볼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든 점 등은 지도 제작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도는 일정한 크기의 방안에 전국 각 군현을 그렸기 때문에 축척이 동일하여 각 지역의 크기와 거리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으며, 지도 제작의 기본 요소인 축척을 방안(方眼)으로 표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선의 지도 발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도라 할 수 있다. 대부도군을 그린 조선시대의 지도 중 유일하게 북쪽을 위로 한 지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팔도지도(八道地圖)』와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도 같은 양식의 지도로 위의 규장각 소장의 방안지도와 내용이 동일한데, 좀더 뒤 시기인 19세기에 전사하거나 제작

한 지도책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들은 일정한 축척을 적용하여 그린 지도이나, 섬들은 상대적으로 크게 그렸다.



그림 27. 『광여도(廣域圖)』 「남양부」 지도 중의 대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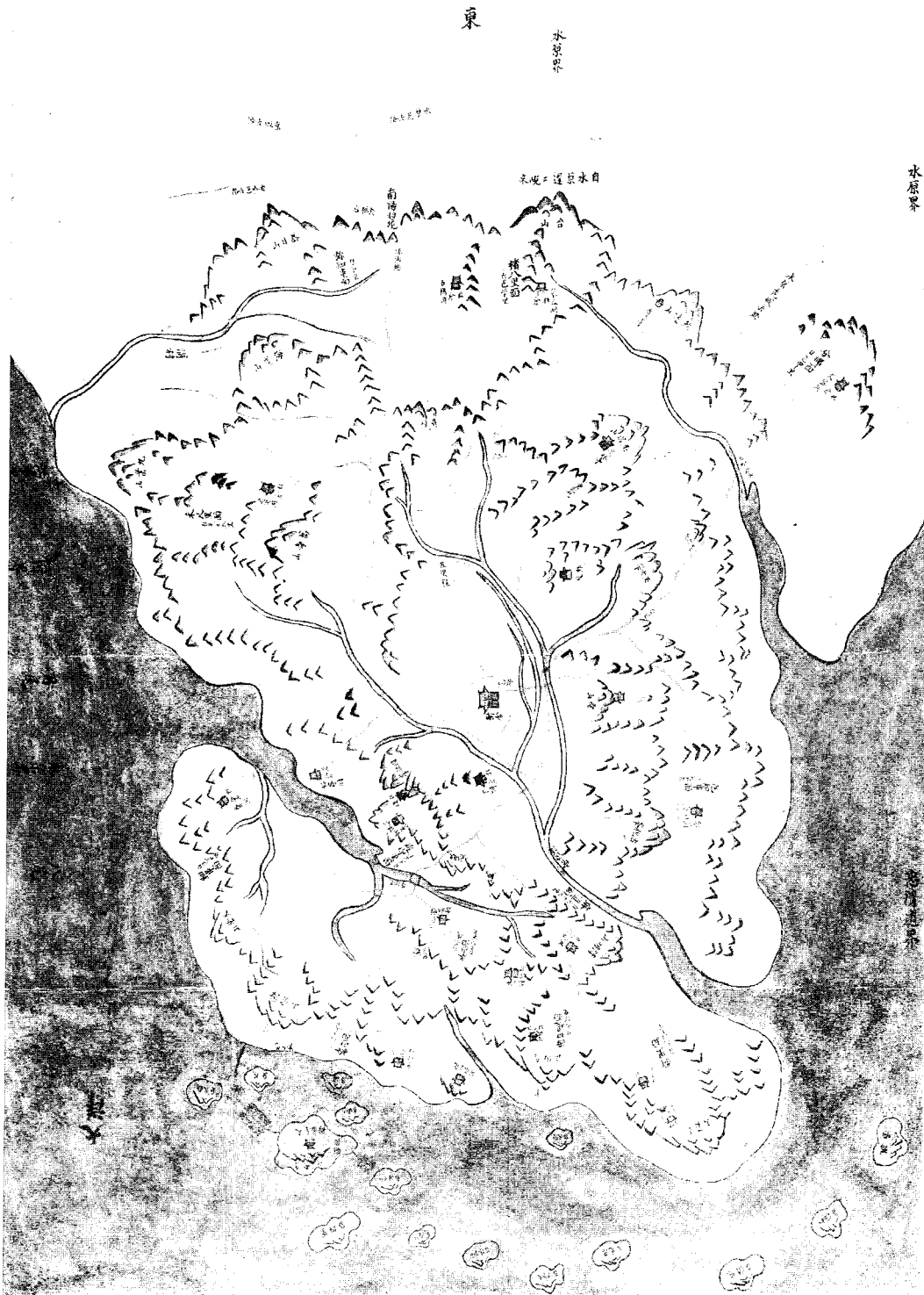


그림 28. 『해동지도(海東地圖)』 「남양부」 지도 중의 대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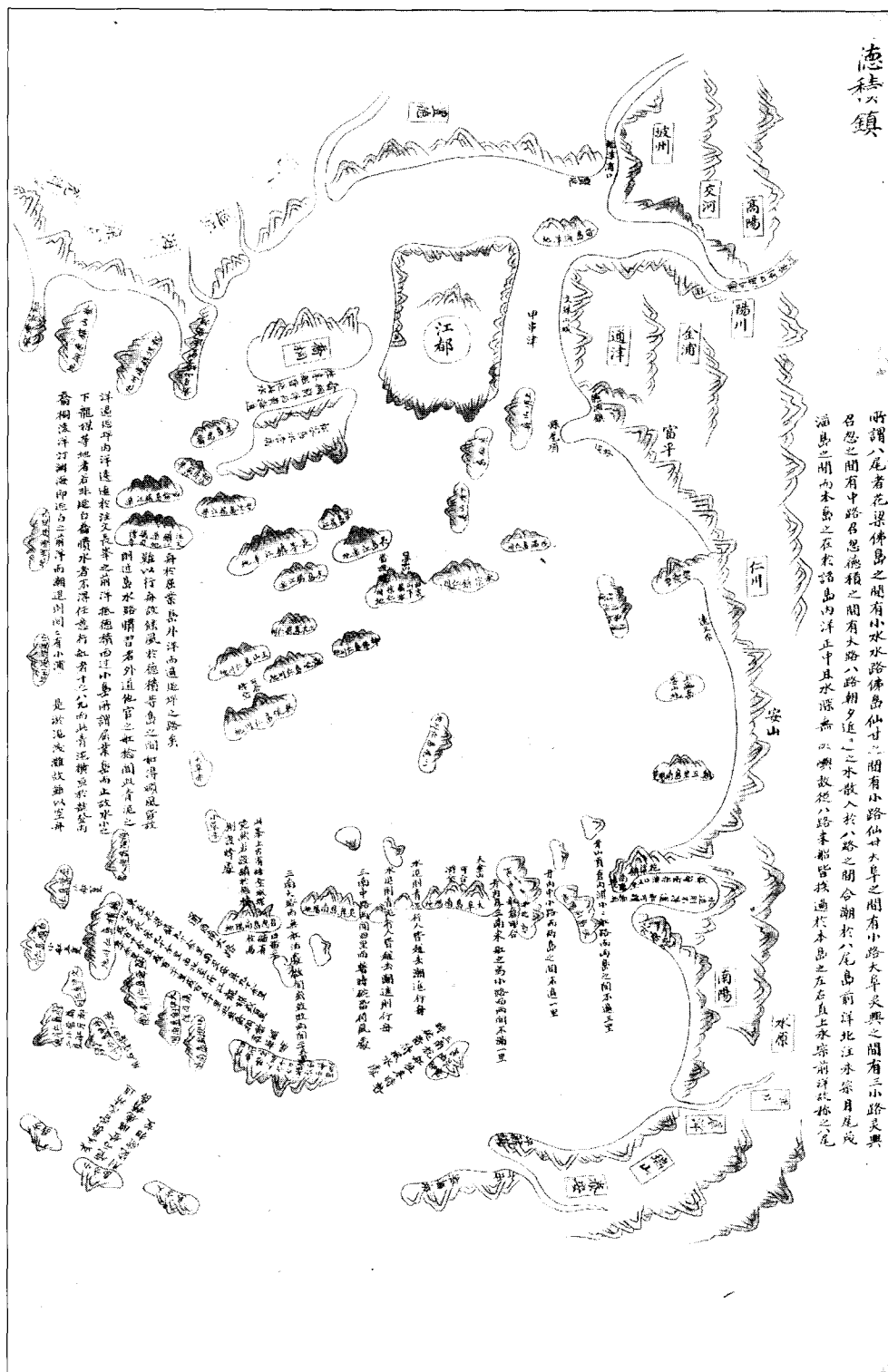


그림 29. 『해동지도(海東地圖)』 중의 「덕적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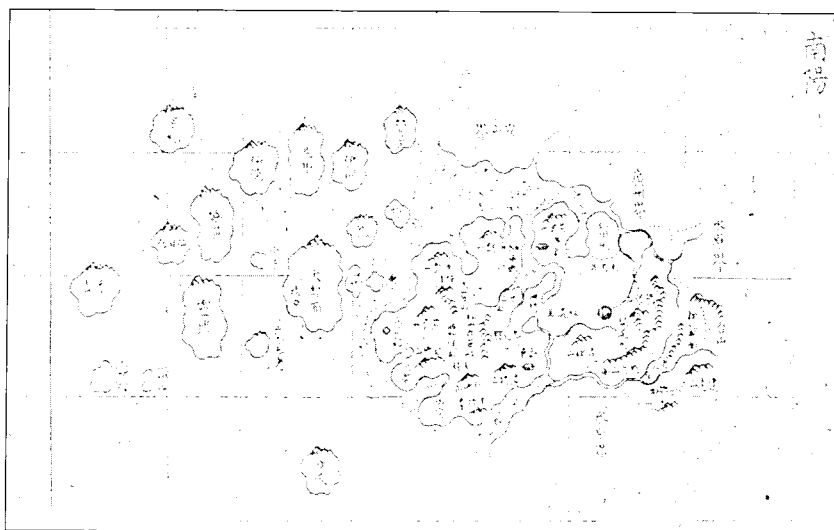


그림 30.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
「남양」 지도 중의 대부도

군현지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위에서 언급한 군현지도집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들이다. 지도책이나 지도첩의 형태 속에 경기도 전체 군현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므로 지역간의 비교나 경기도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지도책은 대부분 크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면에 두번째 유형의 군현지도인 단독 군현지도는 대부분 대형으로 제작한 경우가 많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상세한 지도가 많으며,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들 군현지도 중 가장 상세한 지도는 19세기 후반 고종대에 편찬된 지도들이다. 단독으로 독립되어 있는 단독지도로서 1872년(고종 8)에 제작된 경기도 각 군현의 지도가 남아 있어 조선 후기의 지역 모습을 훌륭하게 전해 주고 있다. 이들은 채세필사본 지도로서 1866년의 병인양요, 1871년의 신미양요를 겪은 후 중앙에서 각 지방에 읍지와 지도 편찬령이 내려졌으며, 그 결과물로서 각 읍에서 지도를 제작하여 상송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들은 크기가 매우 큰 대축척지도임은 물론, 채색이 명료하며, 그 내용도 매우 풍부하고 상세하다. 동시기에 제작되었지만 각 군현에서 작성하여 올렸기 때문에 지역마다 표현 방식이나 강조된 내용들이 서로 달라서 개성 있는 지도들로 남아 있다. 경기도 지도는 총 40장의 낱장으로

구성되었는데, 38개 군현과 영종도·대부도의 진지도(鎭地圖)가 포함되어 있다¹⁾. 이들 지도에는 산과 하천 등 지형, 교량, 면리, 장시, 서원, 향교, 관아 등이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어 지명의 고증과 복원은 물론 옛 지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경기 지역의 지도들은 타도에 비하여 상세한 편은 아니나, 대부도의 경우 남아 있는 지도 중 가장 자세한 지도이다.

먼저 『남양지도』를 보면, 대부도를 비롯하여 주위의 14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 특히 대부도에는 “대부아사(大阜衙舍)” “관방(關防)”이라 기록되어 있어(그림 31), 해안 방어의 요충지로 중시되었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를 겪은 후 해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1871년 5월 25일에 대부도에 진을 세우고 진무영에 속하게 하였다가, 7월 20일에 혁파하였는데²⁾, 이 시기에 지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남양지도(南陽地圖)』에는 육로는 매우 자세히 표시하였으나 해로는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대부지도』를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지 대부도와 마산진(馬山津) 사이의 바닷길을 표시하고, “밀물 때는 바다이나 썰물이 되면 뿔이 된다”라고 기재하고, 대부도와 선재도 사이의 바닷길에도 “배가 다니기도 하고, 뿔이 되기도 한다”라 표시함으로써 육지와 대부도, 선재도 사이에 퇴적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대부지도(大阜地圖)』는 대부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서울의 삼각산, 서쪽으로 덕적도, 동쪽으로 남양부, 남쪽으로 충청도 경계까지 그린 지도이다. 대부도는 마을까지 자세히 그렸으나, 주변 지역은 멀리 있는 지역을 끌어당겨 압축하여 그렸으므로 중심부와 주변부의 축척이 달라 이원적(二元的) 축척(縮尺)이 적용된 지도이다.

대부도 내에 있는 마을을 표시한 점이 주목되는데, 영전동

1)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1996년부터 「朝鮮後期 地方地圖」라는 명칭으로 1872년에 제작된 군현지도를 도별로 영인, 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편은 1997년에 간행되었다.

2) 備邊司啓錄, 권181, 고종 8년 5월 25일, 7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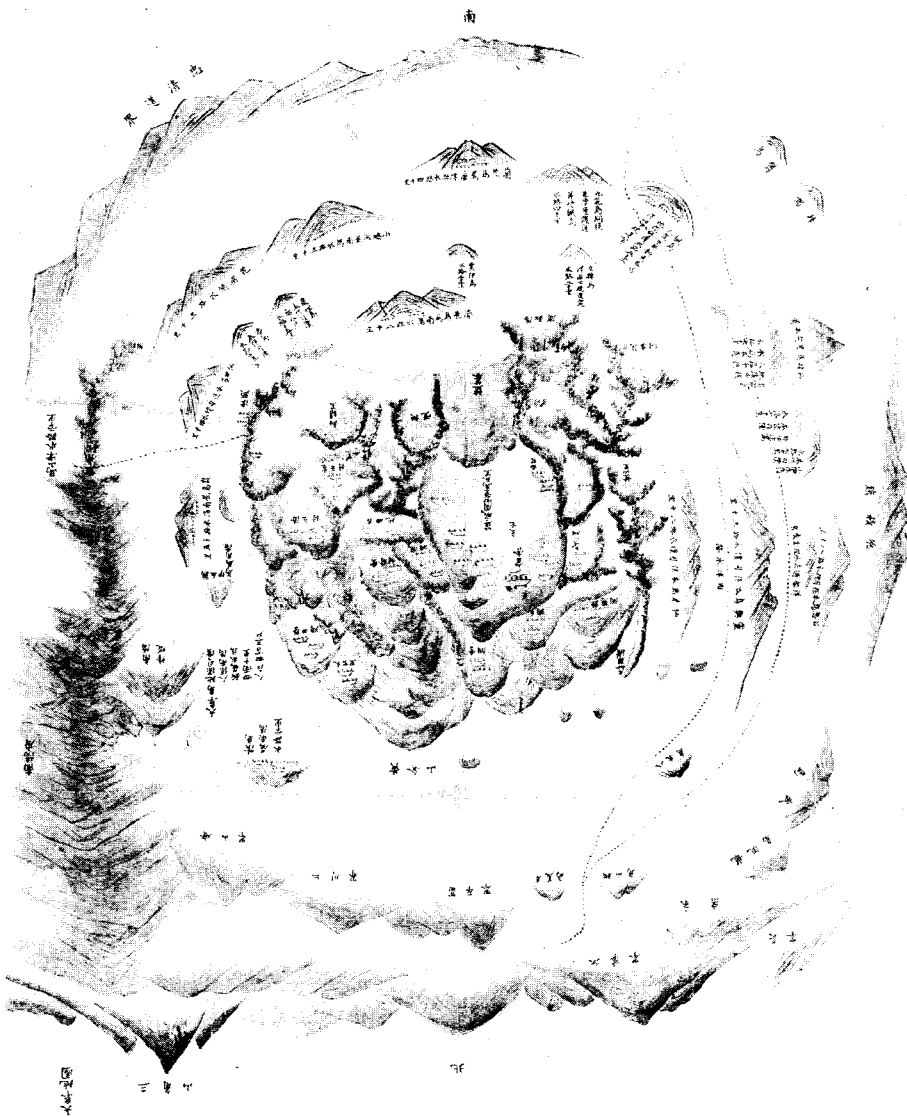


그림 31. 1872년에 제작된 『대부지도(大阜地圖)』

(營田洞), 흘곶동(訖串洞), 종현동(鍾懸洞)을 제외하면 화불리(禾不里), 당전촌(堂前村), 분지촌(汾之村), 마동(麻洞), 고유지(古油地), 한지촌(寒之村), 신당리(神塘里), 진두(津頭), 공현(拱峴), 서촌(西村), 부선포(浮船浦), 망선리(望仙里), 구억동(九億洞), 와동(瓦洞), 사동(寺洞) 등은 이전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던 지명들로서, 대부도의 인구 및 촌락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사(官舍)가 있던 대부도 중심지에는 5리 되는 성(城)을 쌓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남쪽 해안에는 당시에도 소금을 굽던 염막(鹽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변의 섬들도 모두 그리고 소속을 밝혀 놓았는데, 승황도의 경우 “땅은 덕적도에 속하고, 사람은 남양에 속했는데, 새로 본도[대부도]에 속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도에 진(鎭)을 설치함에 따른 변화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풍도(楓島)와 입배도(人排島)에는 “서양선박이 정박했던 곳”이라 쓰여 있고 해로를 점선으로 표시해 놓아, 대부도 주변 해로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통로가 되었던 지역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서종철(국립환경연구원 생물다양성센터 책임연구원)]

제3절 대부도 및 인근지역의 고고유적

1. 머리말

안산시 인근지역은 노년기 지형으로서 강원도 북부에서 남남서로 달리는 광주산맥의 서남단에 위치한다. 북동부는 비교적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해안을 따라 서부와 남부는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안산시 동부의 산지지역은 대부분이 편암 및 편마암류로 구성되어 있고 안산시와 시흥시 부근의 서부해안지역은 대부분이 구릉성 산지를 형성하며 침식해안을 이루고 있다¹⁾. 해안선의 길이는 99.51km이고 유인도 5개, 무인도 13개를 포함하고 있다²⁾.

안산지역의 야트막한 구릉과 저평한 평야지대는 선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은 이미 택지개발과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원형을 많이 잃은 상태이다.

이 지역의 문화유적 조사는 그리 활발히 이루어진 편이 아니어서 알려진 유적도 해안선 주변에 산포하는 패총유적이 대부분이다³⁾. 본고에서는 안산시의 해안지역과 도서지역(대부도, 선감도, 불도, 탄도, 오이도, 선재도)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과 새롭게 발견된 유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대부도와 인근 해안지역의 고고유적

1) 오이도 안말 패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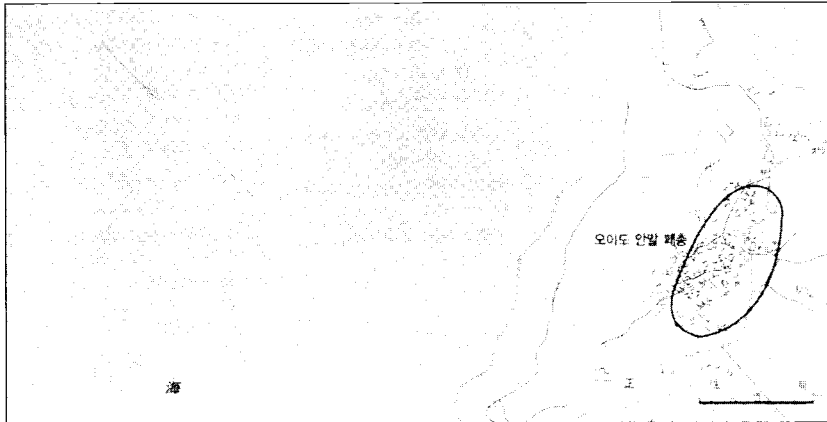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1) 국립지질조사서, 『남양지질도폭』, 1972
『安山市史編纂委員會, 『安山市史』(上), 1999

2) 『安山市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9

3) 지건길·안승모, 「서해도서지방의 지표조사(2)」, 『中島』V, 국립중앙박물관, 1984
明知大學校, 『始華地區 開發事業區域 地表調査』, 1988
서울大學校, 『烏耳島貝塚』, 1988
서울대학교박물관조사단, 「오이도 가운데살막패총 발굴조사개요」, 1999
서울대학교박물관 발굴조사단, 「오이도 뒷살막패총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2000

- 시대 : 신석기시대
- 현황 (지도1, 사진1~4)



지도1 오이도 안말 패총
위치도(인천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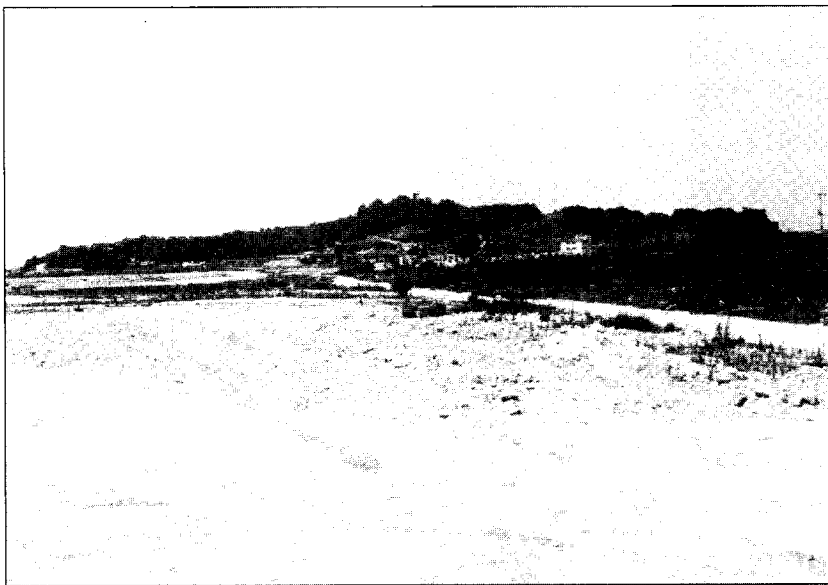


사진1 오이도 안말 패총
근경(동에서)

오이도 패총은 1960년 윤무병박사에 의해 처음 학계에 소개된¹⁾ 후 지표²⁾·발굴조사³⁾가 이루어지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 尹武炳, 「烏耳島 貝塚」, 『考古美術』 4號, 韓國美術史學會, 1960

2) 明知大學校, 앞의 책, 1988

3) 서울大學校, 앞의 책, 1988

서울대학교박물관조사단, 앞의 글, 1999

서울대학교박물관 발굴조사단, 앞의 글, 2000

사진2 오이도 안말 패총
근경



사진3 오이도 안말 패총
세부



안산에서 39, 84번 도로를 따라 시화공단을 거쳐 시화방조제 방향으로 가면 오이도를 알리는 표지판이 나온다. 표지판을 따라 500m 가량 가서 도로 왼쪽으로 난 소로를 따라가면 안말에 이르게 된다. 입구에는 버스종점, 공장 등이 들어서 있고 현재는 대부분의 가구가 이주를 한 상태여서 주변은 쓰레기, 각종 건축부재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사진4 오이도 안말 패총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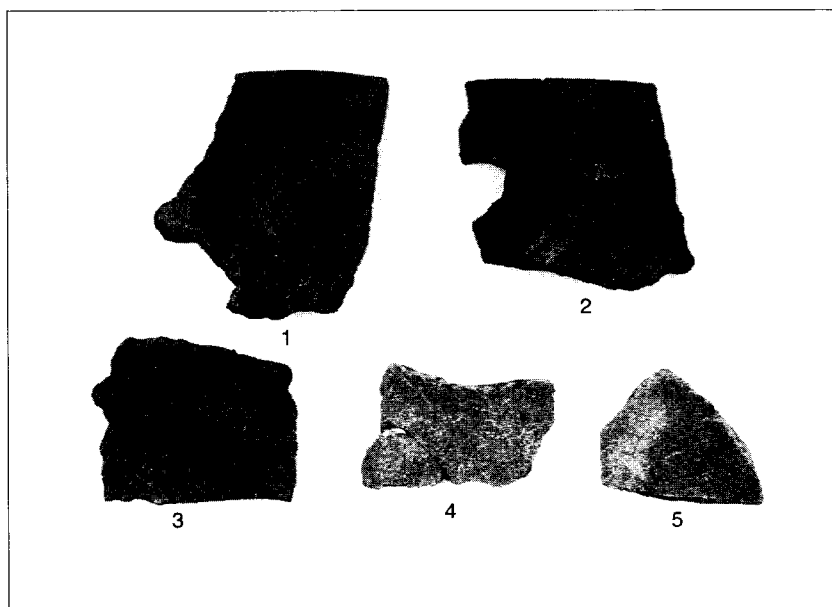


사진5 오이도 안말 패총
채집 토기류1

패총은 오이도의 중앙에 있는 구릉을 중심으로 마을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구릉사면은 물론 민가, 공장 등이 들어서 있는 마을 끝부분까지 패총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거의 파괴되어 지표 아래에서 일부만이 확인된다.

마당이나 텃밭의 지표부분은 파괴·교란되었으나 지표 아래로 이어진 부분은 제모습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다. 남아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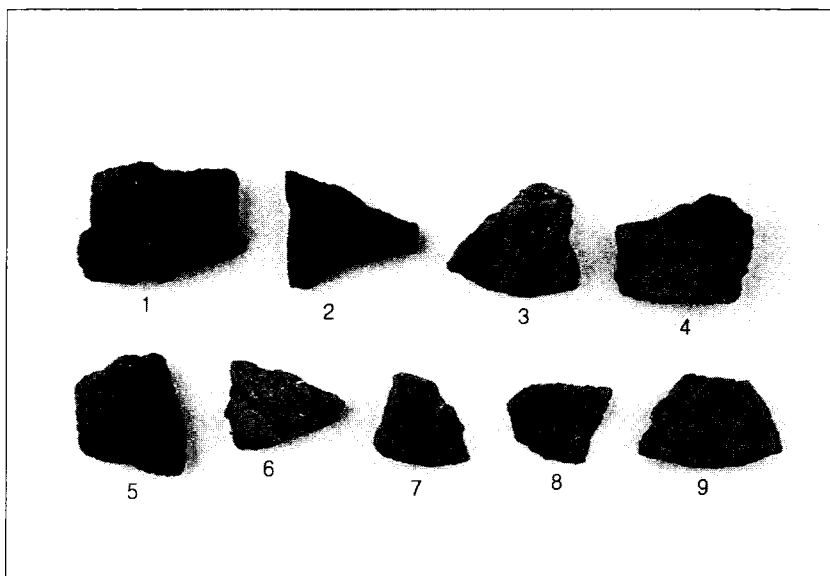


사진6 오이도 안말 패총
채집 토기류2

상태로 보면 거의 순패각층으로 대부분 굴껍질로 이루어져 있다. 패층의 두께는 30~60cm이며 그 아래쪽으로는 황색모래층이 놓여 있다. 유물의 산포도는 구릉쪽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한 버스종점 주변의 민가, 경작지 등에서 더 높았다. 다량의 빗살무늬토기편과 동물뼈 등을 채집하였다.

• 채집유물

도면 1-1(사진 5-1)은 암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약간 외반하였고 구연단은 평평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였다. 구연 아래쪽에는 횡방향으로 기면을 눌러 정리한 흔적이 보인다. 외면에는 사선을 교차시켜 일부 격자문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내면은 여러 방향으로 정면하였다. 태토에는 사립, 석립등을 다량 섞었다. 기벽단면에는 테쌍기 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0.7cm

도면 1-2(사진 5-2)는 암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약간 외반하였고 구연단은 평평하다. 외면에는 線間이 불규칙한 사선문을 깊게 시문하였다. 내면은 대체로 횡방향으로 정면하였다. 태토에는 사립, 석립 등이 다소 섞여있다. 기벽단면에는 테쌍기 흔적이 잘 남아있다. 두께 0.9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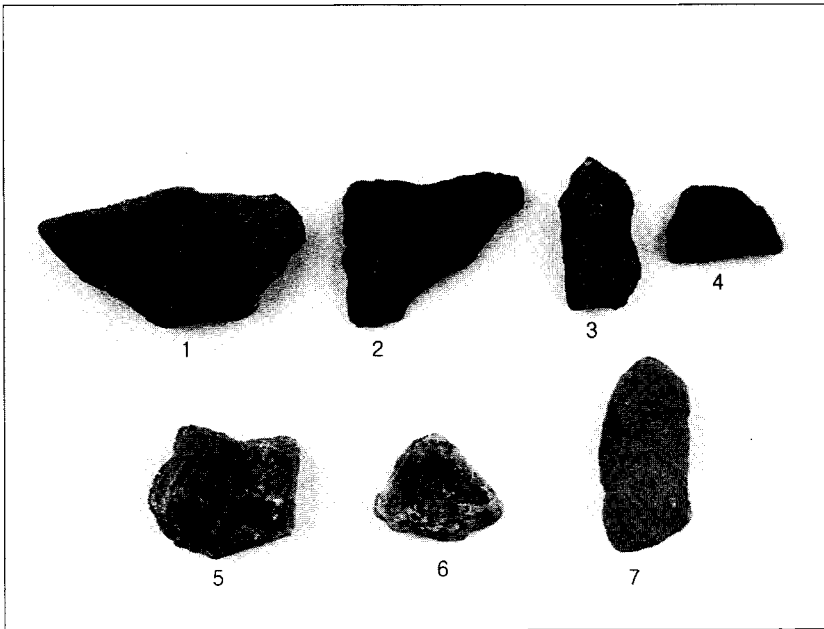


사진7 오이도 안말 패총
채집 토기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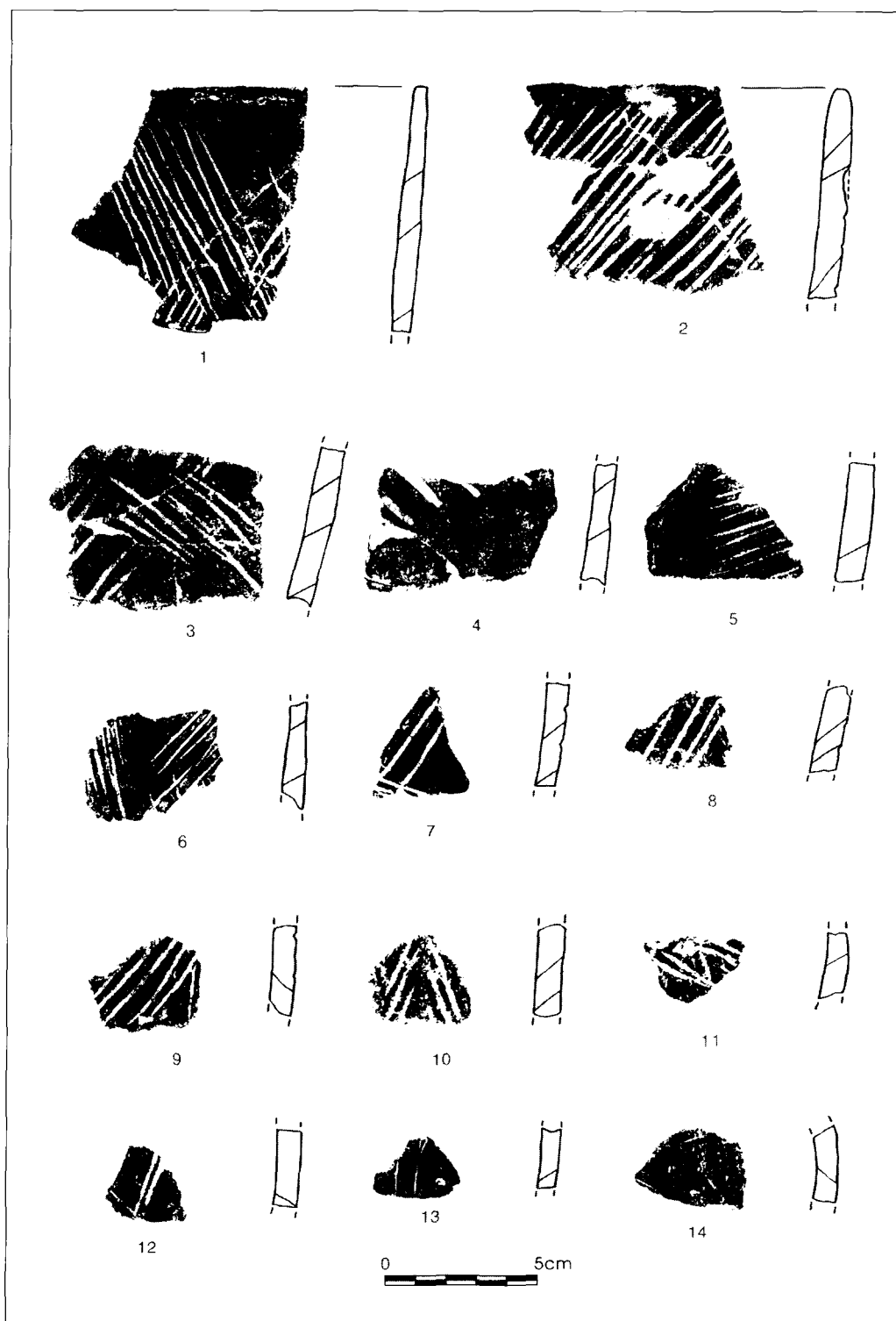
도면 1-3(사진 5-3)은 암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문을 교차시켜시문하였다. 정선된 사질점토에 석립이 소량 섞였다. 기벽단면에 테쌓기 흔적이 잘 남아있다. 두께 0.8cm

도면 1-4(사진 5-4)는 황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의 상단에는 線間이 넓은 사선문이 남아있고 하단에는 문양이 없다. 비교적 정선된 사질점토에는 석립이 소량 섞여있다. 기벽단면에 테쌓기 흔적이 관찰된다. 두께 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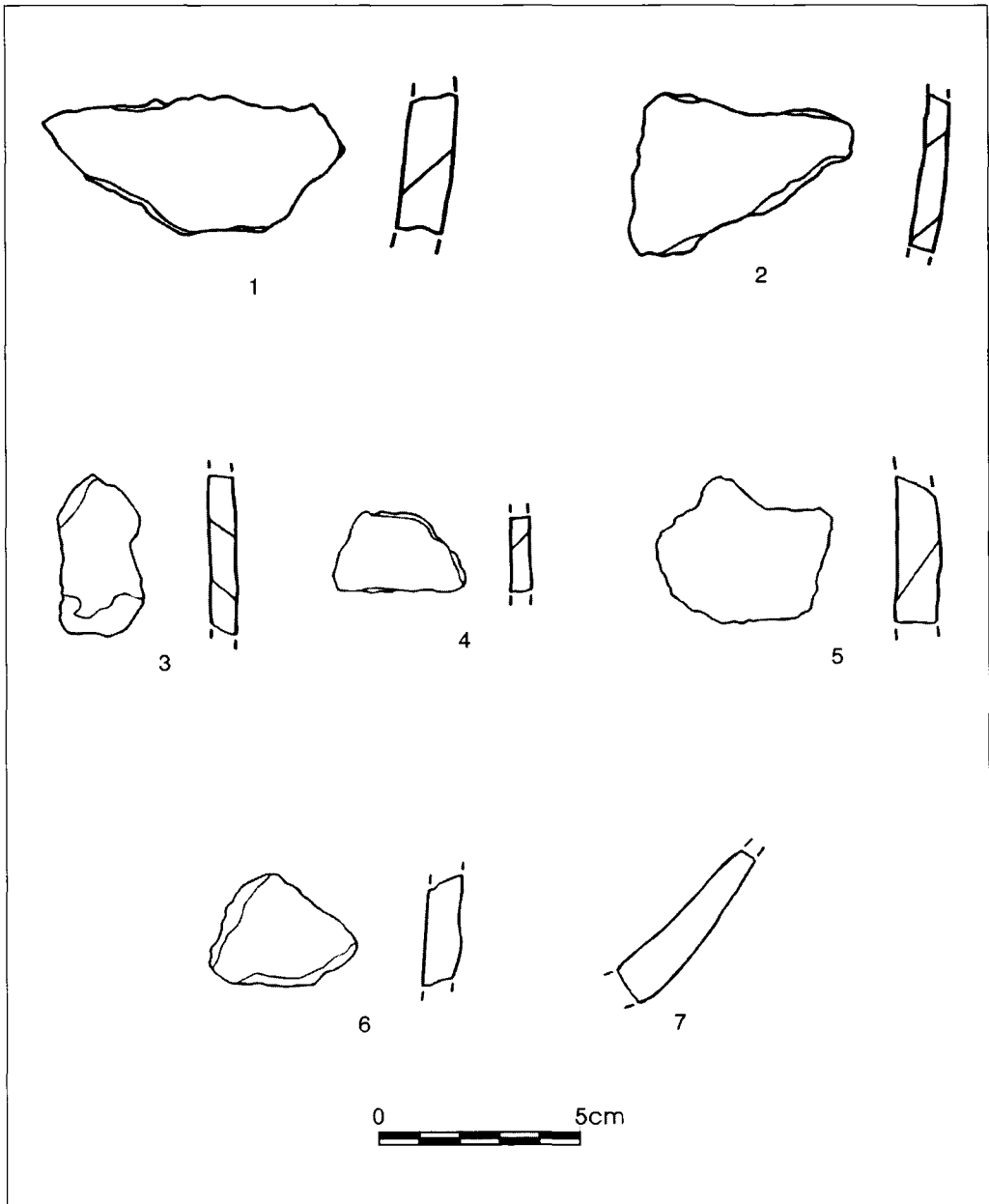
도면 1-5(사진 5-5)는 황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線間이 불규칙한 사선문을 시문하였다. 비교적 정선된 사질점토에 석립이 소량 섞였다. 기벽단면에 테쌓기 흔적이 관찰된다. 두께 0.8cm

도면 1-6(사진 6-1)은 암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을 교차시켜 격자문 계통의 문양을 시문하였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내면은 횡방향으로 정면하였다. 사질점토에 굵은 석립을 다소 섞어 태토로 사용하였다. 기벽단면에 테쌓기 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0.8cm

도면 1-7(사진 6-2)은 암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



도면1 오이도 안말 패총 채집 토기류1



도면2 오이도 안말 패총 채집 토기류2

부편이다. 외면에는 횡주어골문을 시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정면하였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소 섞여있다. 기벽단면에 테쌓기 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0.7cm

도면 1-8(사진 6-3)은 황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 부편이다. 외면에 사선방향으로 정면한 후 정면방향과 교차되

게 사선문을 시문하였다. 점토질 태토에 석립을 다소 섞었다. 두께 0.9cm

도면 1-9(사진 6-4)는 적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문을 시문하였다. 점토질 태토에 석립을 다량 섞어 기면이 거칠다. 기벽단면에는 테쌓기 흔적이 관찰된다. 두께 0.9cm

도면 1-10(사진 6-5)은 암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종주어골문을 시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모가 심하다. 점토질 태토에 석립을 다량 섞어 태토로 사용하였다. 두께 0.9cm

도면 1-11(사진 6-6)은 황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문을 시문하였다. 점토질 태토에 굵은 석립을 다소 섞었다. 기벽단면에 테쌓기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0.8cm

도면 1-12(사진 6-7)는 황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2줄의 침선을 사선방향으로 시문하였다. 점토질 태토에 사립, 석립등이 다소 섞여 있다. 두께 0.8cm

도면 1-13(사진 6-8)은 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정면하였다. 점토질 태토에 굵은 석립을 다량 섞었다. 두께 0.6cm

도면 1-14(사진 6-9)는 외면은 갈색을, 내면과 속심은 흑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문을 시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만 남아 확실치 않다. 비교적 정선된 사질점토에 굵은 석립을 다소 섞어 태토로 사용하였다. 두께 0.8cm

도면 2-1(사진 7-1)은 외면은 갈색을, 내면은 흑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은 있으나 문양은 없다. 사질점토에 사립, 석립 등을 다소 섞어 사용하였다. 기벽두께가 두꺼운 편으로 기벽단면에는 테쌓기 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1.0cm

도면 2-2(사진 7-2)는 암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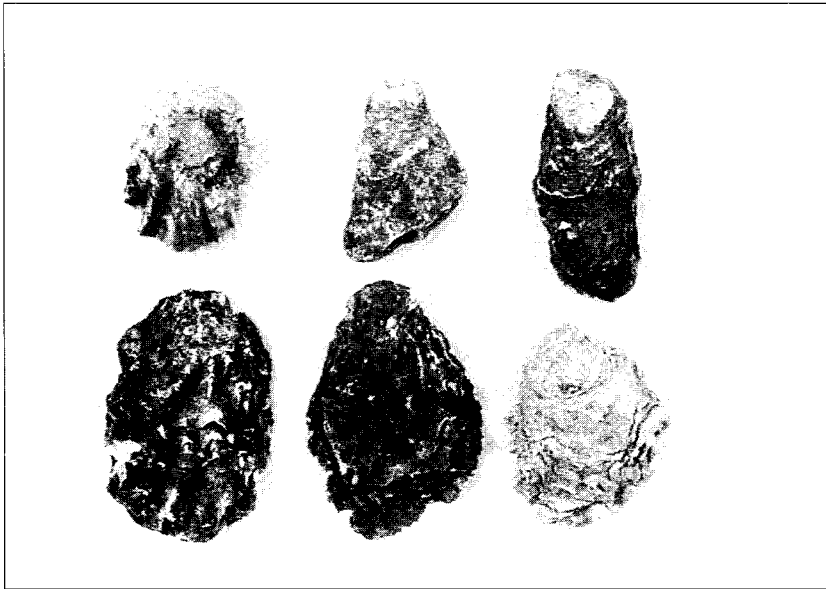


사진8 오이도 안말 패총 채집
패각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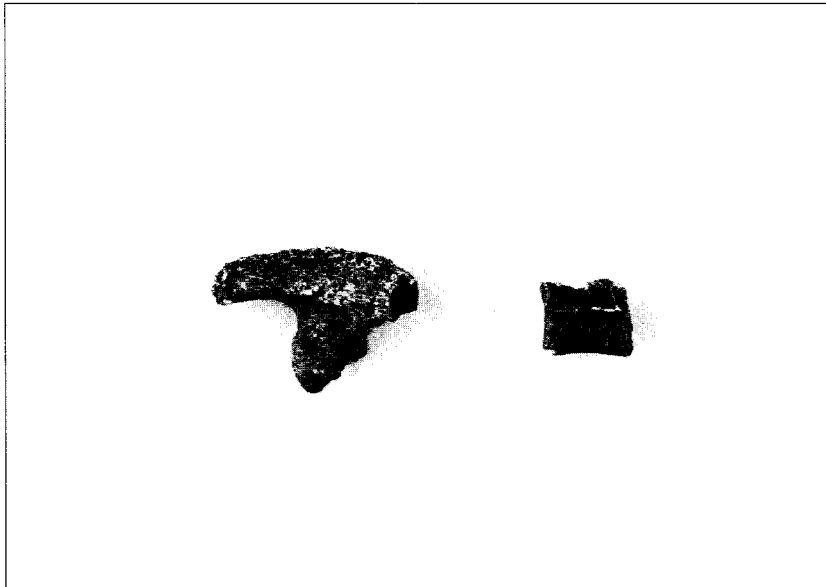


사진9 오이도 안말 패총 채집
동물 유존체

부편이다. 외면에 문양은 관찰되지 않는다. 사립이 다량 섞인 사질점토를 태토로 사용하여 표면이 매우 거칠다. 기벽단면에는 테쌍기 흔적이 잘 남아있다. 두께 0.6cm

도면 2-3(사진 7-3)은 적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 부편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다. 사질점토에 사립이 다량 섞였다. 두께 0.6cm

도면 2-4(사진 7-4)는 외면은 적갈색, 내면과 속심은 흑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다. 비교적 정선된 사질점토를 태토로 사용하였다. 두께 0.5cm

도면 2-5(사진 7-5)는 황갈색을 띠는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다. 점토질 태토에 사립, 석립 등이 다소 섞여 거칠다. 기벽 두께가 매우 두꺼운 편이다. 두께 1.1cm
도면 2-6(사진 7-6)은 황갈색을 띠는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점토질 태토에 사립, 석립 등을 다소 섞어 사용하였다. 두께 0.9cm

도면 2-7(사진 7-7)은 회색을 띠는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다. 손에 묻어날 정도로 고운 점토질 태토를 사용하였다. 두께 0.9cm

2) 오이도 가운데살막 패총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 시대 : 신석기시대
- 현황 (지도 2, 사진 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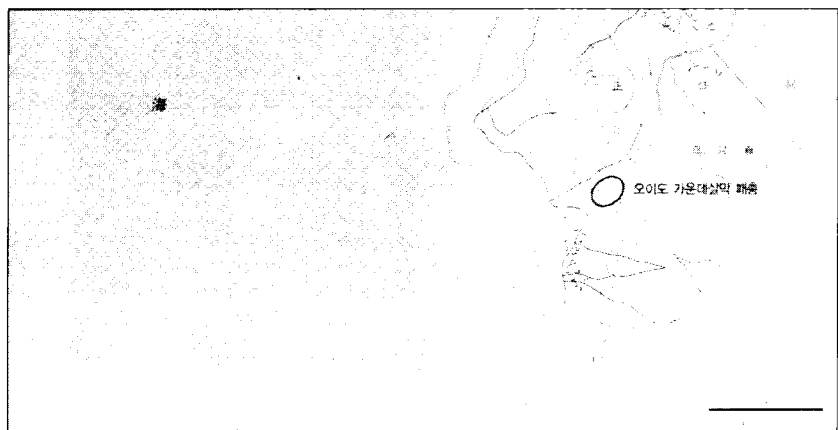


사진10 오이도 가운데살막 패총
위치도(인천68)

1999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이다¹⁾. 오이도 입구에서 안말을 지나 바닷가쪽으로 넘어가면 해변회집이 나타난다. 패총은 해변회집이 위치한 구릉의 단애면에서 확인되었다. 마을 소로를 개설하면서 노출되었고, 최근 굴삭

1) 서울대학교박물관조사단, 앞의 글, 1999



사진10 오이도 가운데살막 패총
근경



사진11 오이도 가운데살막 패총
세부

기로 더 파헤쳐진 듯한 흔적이 있다. 주변에는 군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발굴조사에서는 수혈주거지 3기와 야외노지 3기, 1000여점의 빗살무늬토기편, 석기류 등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지표조사한 곳은 발굴조사 당시 ‘가’지구로 명명된 지점이다.



사진12 오이도 가운데살막 패총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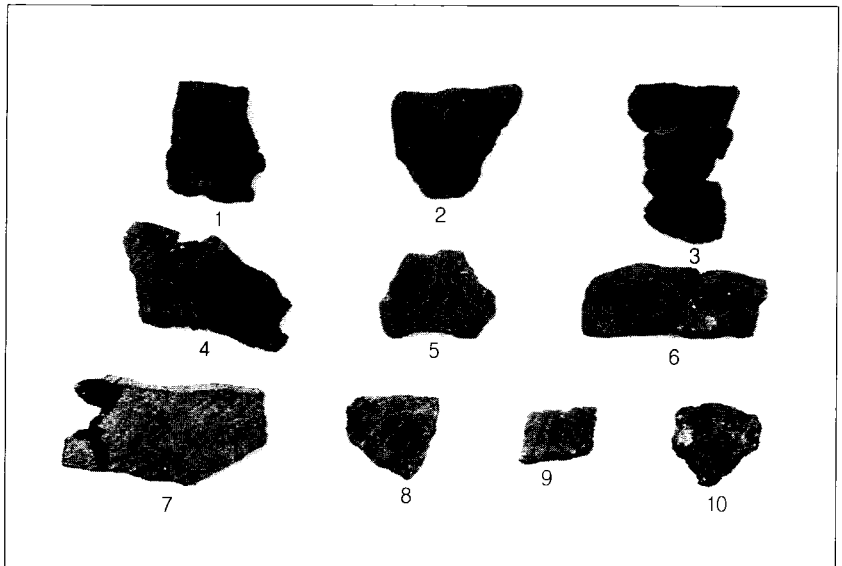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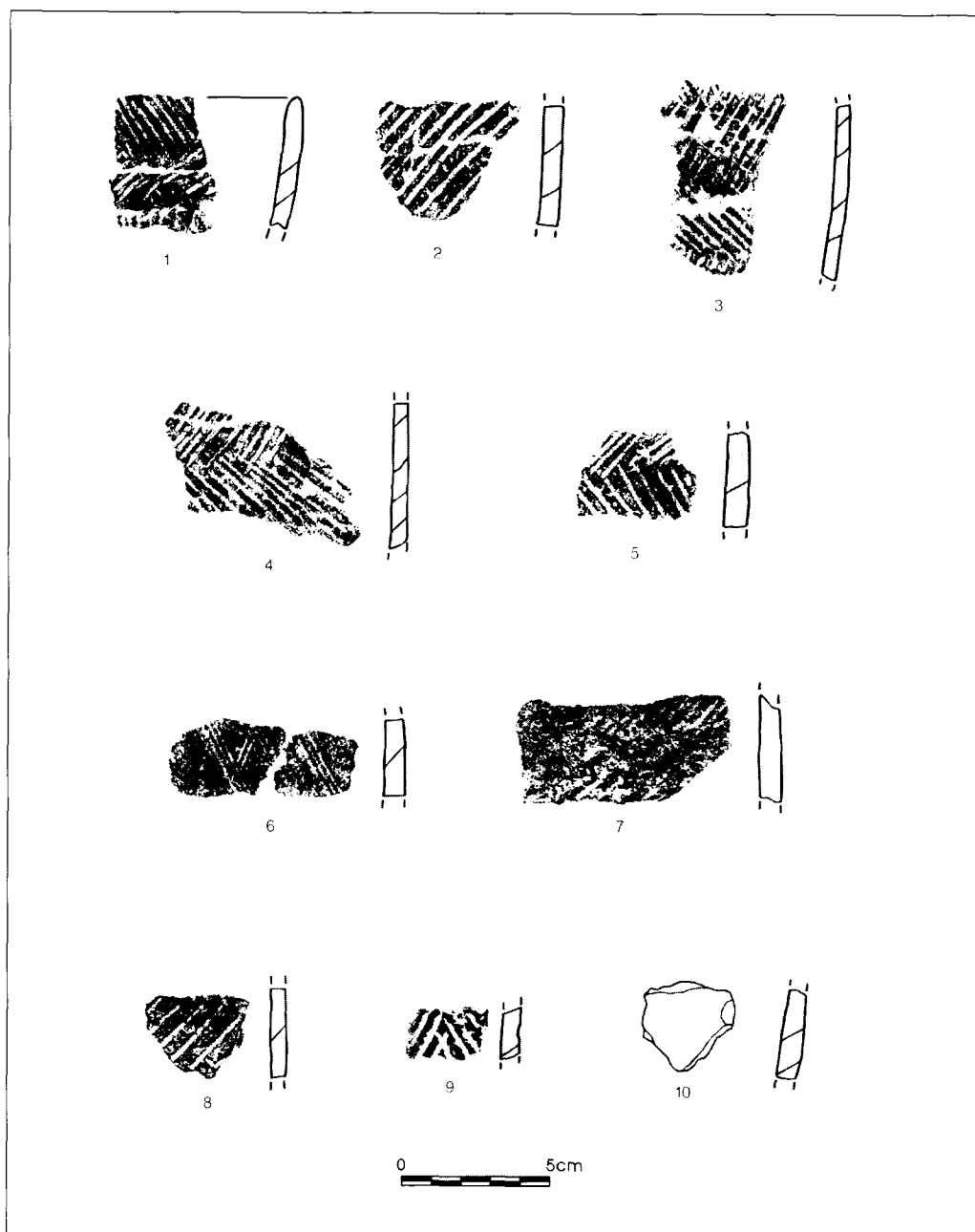


사진13 오이도 가운데살막 패총
채집 토기류

패총은 대부분 굴껍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패각층에 가깝다. 남아있는 규모는 동서방향으로 25m이상, 남북방향으로 5.5m 가량 확인되었다.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두께가 120cm가량인데 이미 상당부분은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패각층내에서는 드문드문 목탄이 확인된 것외에도 소량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채집되었다.



도면3 오이도 가운데살막 패총 채집 토기류

• 채집유물 :

도면 3-1(사진 13-1)은 적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직립하고 구순은 둥글다. 외면에는 횡주 어골문과 그 아래쪽으로 점열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지두

흔과 흑반이 약간 남아있다. 정선된 사질점토에 사립, 석립 등을 다소 섞어 태토로 사용하였다. 두께 0.6cm

도면 3-2(사진 13-2)는 적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문을 시문하였다. 비교적 정선된 사질점토를 태토로 사용하였다. 기벽단면에 테쌓기 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0.7cm

도면 3-3(사진 13-3)은 적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도면 3-4(사진 13-4)와 같은 개체편이다. 외면에는 횡주어골문을 정연하게 시문하였다. 비교적 정선된 사질점토를 사용하였다. 두께 0.5cm

도면 3-4(사진 13-4)는 적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횡주어골문을 시문하였다. 비교적 정선된 사질점토를 사용하였다. 기벽의 두께는 얇은 편으로 단면에는 테쌓기 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0.5cm

도면 3-5(사진 13-5)는 적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횡주어골문을 시문하였다. 사질점토에 사립, 석립 등을 다량 섞어 기면이 거칠다. 기벽단면에 테쌓기 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0.7cm

도면 3-6(사진 13-6)은 적갈색, 흑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多齒具로 종주어골문을 시문하였다. 비교적 정선된 사질점토를 태토로 사용하였다. 기벽단면에는 테쌓기 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0.8cm

도면 3-7(사진 13-7)은 외면은 적갈색, 내면은 흑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이다. 외면의 상단과 하단에는 사선문이 남아있으나 문양이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사질점토에 활석립이 다소 섞여 있다. 두께 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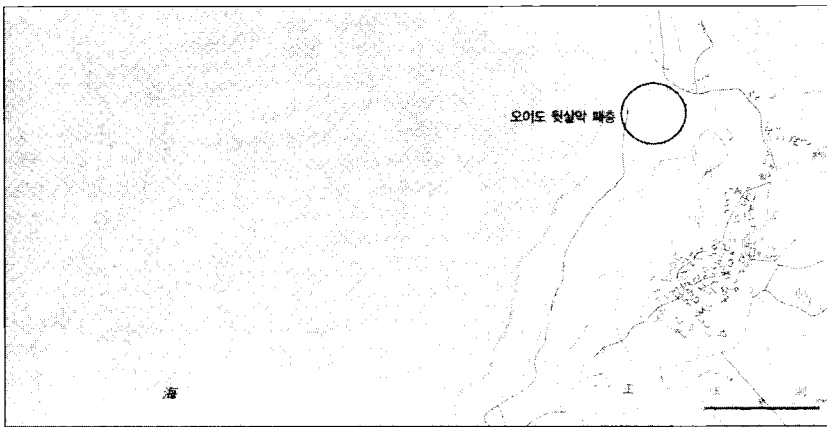
도면 3-8(사진 13-8)은 흑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횡주어골문을 시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정선된 사질점토를 태토로 사용하였다. 기벽단면에는 테쌓기 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0.6cm

도면 3-9(사진 13-9)는 적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종주어골문을 시문하였다. 비교적 정선된 사질점토를 사용하였다. 기벽단면에는 테쌓기 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0.7cm

도면 3-10(사진 13-10)은 외면은 적갈색, 내면은 흑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방향의 정면흔이 선명하게 남아있으며 문양은 없다. 비교적 정선된 사질점토를 태토로 사용하였다. 기벽단면에 테쌓기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0.7cm

3) 오이도 뒷살막 패총



지도3 오이도 뒷살막 패총
위치도(인천68)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 시대 : 신석기시대, 백제시대
- 현황 (지도 3, 사진 15~17)

오이도 안말의 구릉 너머로, 가운데살막 패총에서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700~800m가량 떨어져있다. 오이도 중앙에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는 구릉의 서사면에 형성되어 있는데 주변은 시가지를 조성하느라 공사가 진행중이다. 공사용 철근과 포장에 가리워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미 공사로 인하여 일부는 파괴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단애면에 노출되어 있다.

패총이 있는 지점은 해발 10~20m 가량으로 구릉단면의 높이는 3~4m이다. 노출된 패총의 규모는 남북방향으로 길이 12.5m이상, 동서방향으로 8.5m 이상 확인되었다. 주변에 군시설이 설치되어 파괴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듯 하다. 표토 아래 5cm부터 시작되어 최대 두께는 280cm가량이다. 거의 순패각층

사진 15 오이도 뒷살막 패총
근경



사진 16 오이도 뒷살막 패총
세부



으로 대부분 굴껍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개·소라 껍질도 소량 섞여있다. 지표면에서는 잡목과 낙엽으로 인하여 패총의 범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번조사에서 유물은 채집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시굴조사¹⁾에서는 신석기시

1) 서울대학교박물관 발굴조사단, 앞의 글,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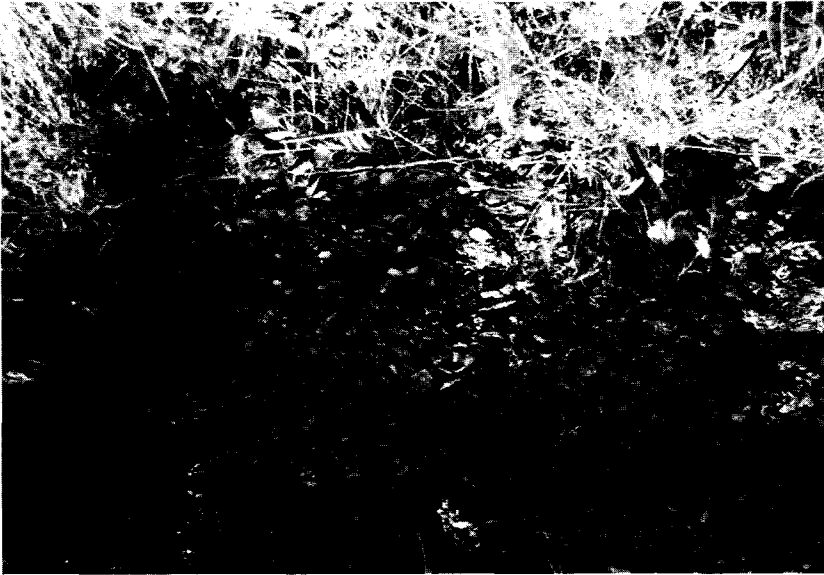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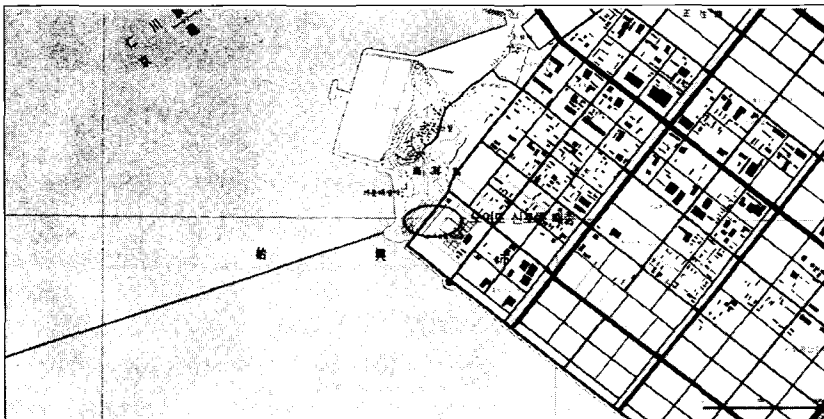


사진17 오이도 뒷살막 패총
세부

대의 유구로 야외노지 7기와 수혈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백제시대의 유구로는 주거지 또는 노지가 확인되었고 다량의 빗살무늬토기편과 타날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4) 오이도 신포동 패총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 시대 : 신석기시대
- 현황 (지도 4)



지도4 오이도 신포동 패총
위치도(인천68)

이 유적은 시화지구개발사업이 계획됨에 따라 1988년 명지대학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알려져¹⁾ 이후 발굴조사 되었다²⁾. 지표조사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 와질토기편, 도질토기편 및 철제류 등이 채집되었고 발굴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패총으로 밝혀졌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오이도의 남쪽끝에 형성된 신포동 마을의 뒷산으로 해발고도 7~15m 가량 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팀이 현장을 찾았을 때에는 섬의 남단부는 이미 시화방조제 도로건설로 인하여 패총이 모두 파괴된 상태였고, 흔적을 짚어볼만한 지역에는 군부대가 들어서있어 출입이 통제되었다.

이전 발굴조사에서는 야외노지 3기와 빗살무늬토기편, 마제석촉 1점, 석부 2점, 굴따는 석기 1점, 동물뼈를 갈아서 만든 골촉 등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보고자는 빗살무늬토기의 문양 모티프를 토대로 오이도 신포동 패총의 연대를 신석기 중기 후반~신석기 후기로 편년하였다.

5) 대부도 흙궤패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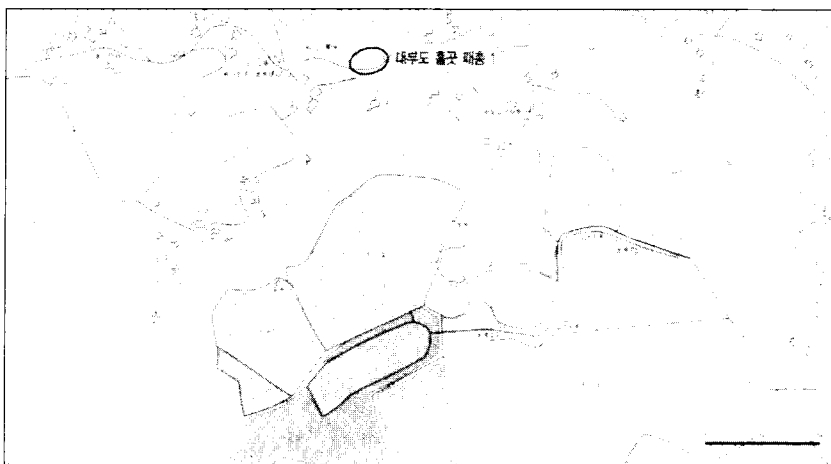


사진5 대부도 흙궤 패총1
위치도(대부도13)

- 위치 : 안산시 대부남동
- 시대 : 신석기시대

1) 明知大學校, 앞의 책, 1988

2) 서울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1988



사진18 대부도 흘곶 패총1
원경(서남에서)

• 현황 (사진 18~20)

대부도는 동경 126도 35분, 북위 37도 15분에 위치해 있다. 섬의 면적은 33km²이고 해안선은 61km이다. 본래는 섬이었으나 시화방조제 사업으로 연륙화되었다.

대부도의 최고봉은 섬 중앙부의 황금산(167.7m)이다. 이 산을 중심으로 100m 내외의 소규모 구릉성 산지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이러한 산세의 방향은 탄도와 불도에서 시작하여 대부도 북서단의 구봉이(96.5m)까지 연결되어 있다. 대부도의 산세는 험하지 않으나 평지의 규모가 크지 않고, 대개 산지의 골짜기를 따라 소규모로 나타나거나 해안지역의 매립에 의해 형성된 것들이 많다. 섬 내에는 방죽천, 뽕꼭천, 분지천, 영전천 등 비교적 큰 네개의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들은 섬내 최고봉인 황금산에서 발원한다.

대부도의 가장 특징적인 해안 지형은 간석지이다. 대부도의 북쪽은 군자만 일대로 넓은 간석지가 펼쳐져 있고, 남쪽에도 화성군 제부도에 이르는 지역에 간석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시화방조제의 건설로 대부도 북동부의 시화간석지는 육화되었다¹⁾.

흘곶패총1은 1984년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서해도서 지표조

1) 安山市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9.

사진 19 대부도 흩긋 패총 1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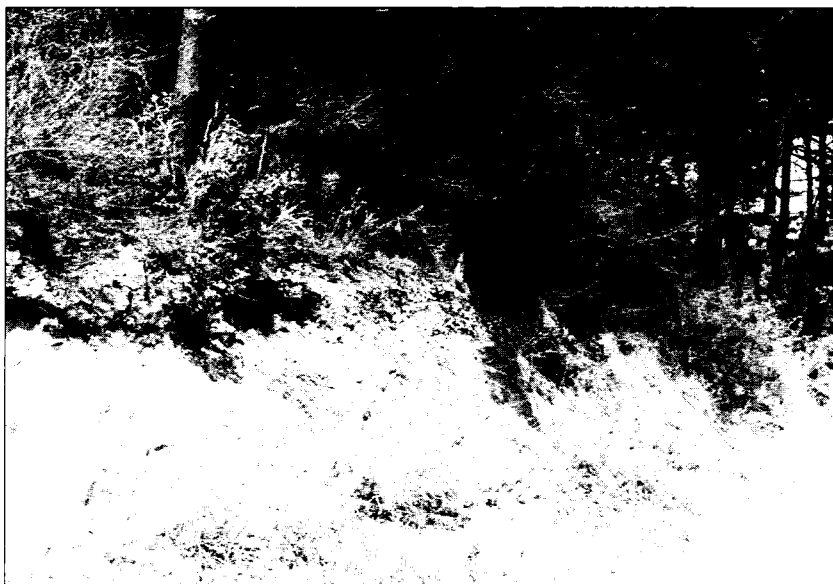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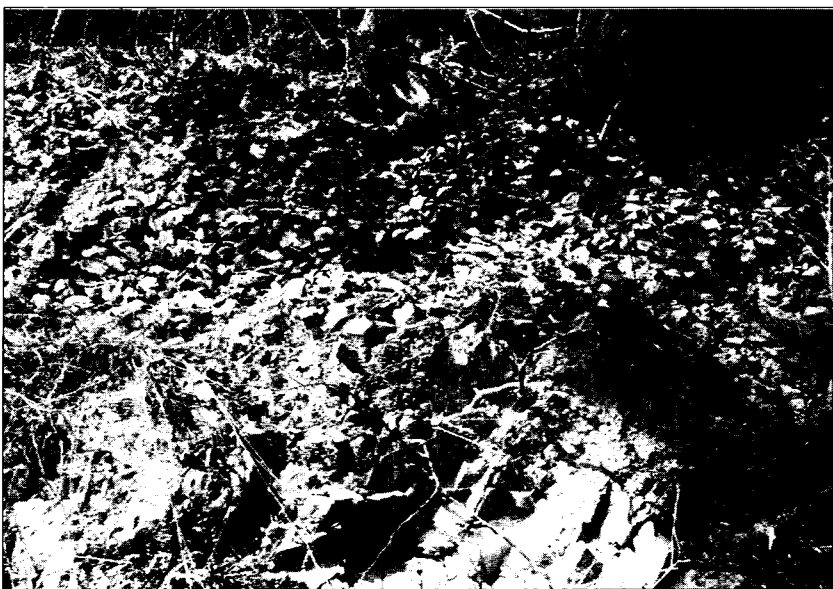


사진 19 대부도 흩긋 패총 1
세부



사에서 확인되었다¹⁾. 대부도 시가지에서 대부남동쪽으로 가는 도로로 우회전하여 3km가량 진행하면 대남초등학교에 이르게 된다. 대남초교를 끼고 우회전하여 약 2.5km 따라가면 흩긋패총에 이르게 된다.

이곳은 대부 남4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의 오르막길로 해발

1) 지건길 · 안승보, 앞의 글, 1984

44.2m의 산정상부의 남사면에 해당된다. 패총은 소로를 만들면서 단면에 노출되었다. 표토 10~20cm 아래에 드러나있는 패총의 규모는 길이 약 16m, 두께 20~70cm 가량이다. 주로 굴껍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패각층으로 보인다. 구릉 사면 위쪽은 잡목과 낙엽으로 뒤덮혀 지표에서는 범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물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1984년도 조사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을 채집하였다고 한다.

6) 대부도 흙곳 패총2



지도6 대부도 흙곳 패총2
위치도(안양71)



사진21 대부도 흙곳 패총2
원경(동북에서)



사진22 대부도 흙곳 패총2
근경



사진23 대부도 흙곳 패총2
세부

- 위치 : 안산시 대부남동
- 시대 : 미상
- 현황 : (지도 6, 사진 2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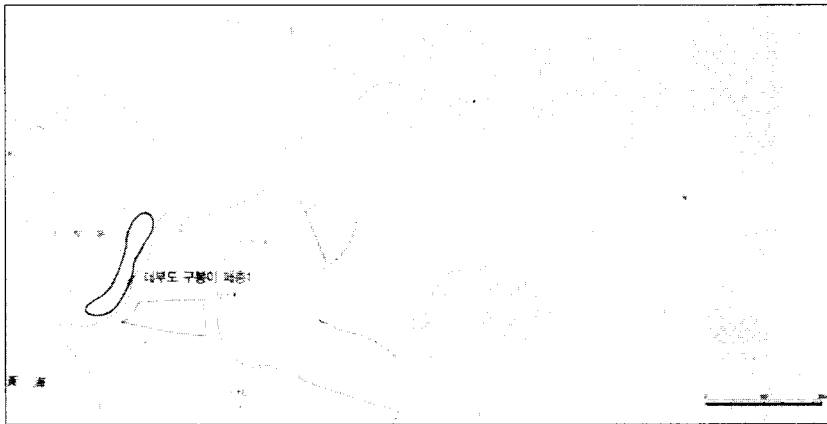
흙곳패총1에서 오르막길로 조금 가면 남4동 마을회관이 있는 고개의 정상부에 이른다. 정상부에서 좌회전하여 700~800m 가량 바닷가쪽으로 진행하면 섬의 남단부에 이르게 된

다. 이곳은 메추리섬으로 가는 길목으로 주변은 포도밭, 염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패총은 해발 18.0m의 매우 야트막한 구릉의 절단면에 노출되어 있다. 패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위층은 굴껍질로 이루어진 혼토패총이다. 표토 바로 아래에서 시작하여 중심부의 두께가 30cm가량이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길이는 약 6.2m이나 균일하게 층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위층에서 약 60cm 아래에 형성된 아래층은 중심부의 두께 30cm, 길이 5.5m 가량의 규모이다. 대부분 굴껍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패각층으로 보인다. 위층에 비해 균일하게 띠모양을 이루고 있다. 유물은 채집되지 않았다.

7) 대부도 구봉이 패총1



지도7 대부도 구봉이 패총1
위치도(인천83)

- 위치 : 안산시 대부북동 구봉이
- 시대 : 신석기시대
- 현황 (지도 7, 사진 24~26)

안산에서 시화방조제를 건너 대부도에 이르러 1km가량 南進하면 구봉이로 갈라지는 소로가 나온다. 소로를 따라 다시 1km가량을 바닷가쪽으로 진행하다 회센터에서 우회전하여 가면 구봉이에 이르게 된다. 대부도의 북단에 자리잡은 산은 정상부의 해발이 96.5m 가량으로 남북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바다와 접해있다.

패총은 산의 아래쪽에 나있는 마을소로에 의해 노출되어



사진24 대부도 구릉이 패총1
원경(남에서)



사진25 대부도 구릉이 패총1
근경

있으며 표토 아래 5~10cm에 형성되어 있다. 산의 남사면에 걸쳐 넓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패각층이 형성된 지점의 규모는 길이 7.5m, 두께 50cm 가량이다. 대부분 굴껍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량의 조개껍질이 포함되어 있다. 순패각층으로 보인다.

단애부 위쪽 사면에서도 계속 패층이 확인된다. 표토 아래



사진26 대부도 구룡이 패총1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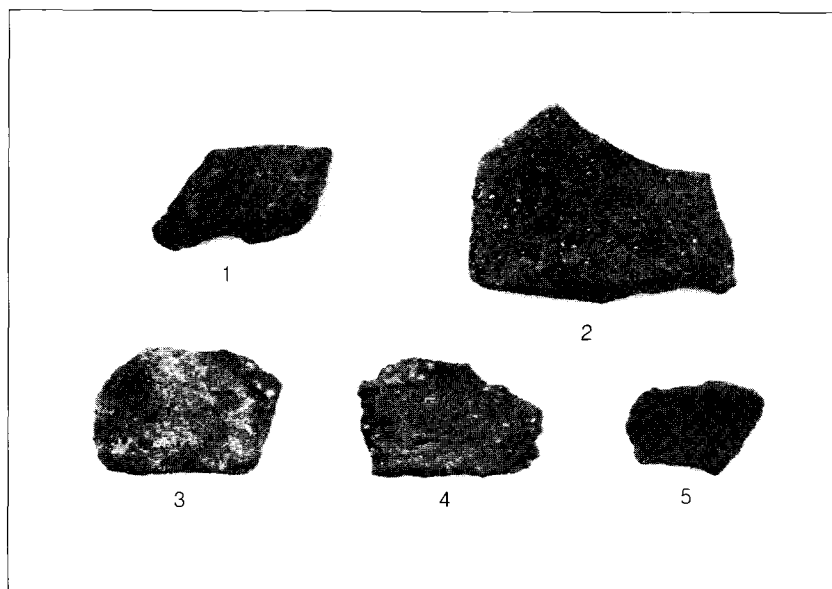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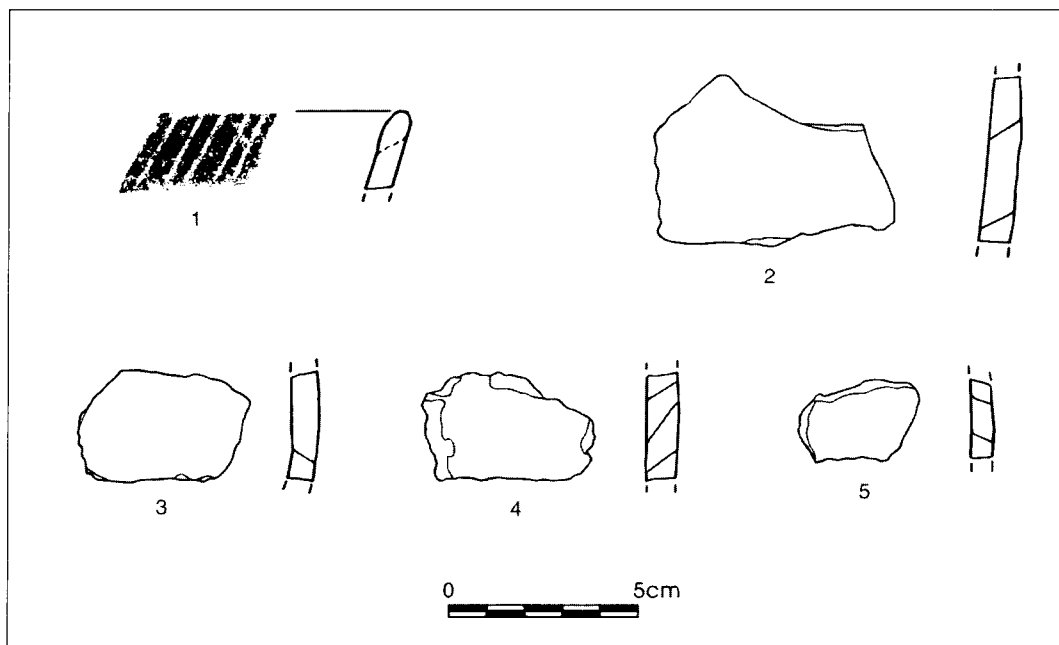


사진27 대부도 구룡이 패총1
채집 토기류

5~15cm에 형성되어 최대두께는 70cm가량이다. 사면 위쪽으로 10m가량 확인되었으나 아카시아 나무 등 잡목이 우거져 범위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패총은 서쪽으로 바닷가에 이르기 전 상가, 가축장 등이 있는 지점까지 확인되며 동쪽으로도 거의 끝부분에 자리잡은 회집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미루어 남사면 전체에 걸쳐 넓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량의



도면4 대부도 구봉이 패총1 채집 토기류

빗살무늬 토기편을 채집하였다.

• 채집유물 :

도면 4-1(사진 27-1)은 적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약간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다. 외면에는 사선문을 시문하였다. 정선된 사질점토를 태토로 사용하였다. 두께 0.6cm

도면 4-2(사진 27-2)는 적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 문양은 관찰되지 않는다. 사질점토에 사립, 석립 등을 다량 섞어 표면이 매우 거칠다. 기벽단면에 테쌍기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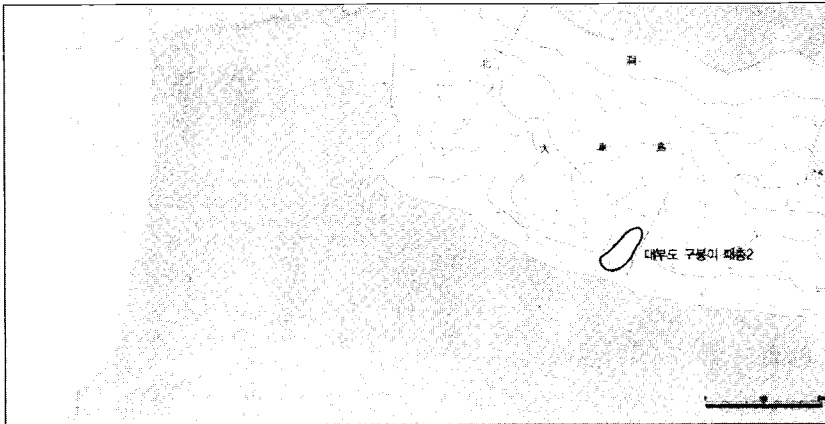
도면 4-3(사진 27-3)은 외면은 적갈색, 흑갈색을 내면은 흑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다. 점토질태토에 석립이 소량 섞였다. 두께 0.6cm

도면 4-4(사진 27-4)는 적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로 추정되는 동체부편이다. 점토질 태토에 석립을 다소 섞어 태토로 사용하였다. 기벽단면에 테쌍기 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0.7cm

도면 4-5(사진 27-5)는 암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다. 태토로 비교적 정선된 사질 점토를 사용하였다. 두께 0.5cm

8) 대부도 구봉이 패총2

- 위치 : 안산시 대부북동 구봉이
- 시대 : 신석기시대
- 현황 (지도 8, 사진 28~30)



지도8 대부도 구봉이 패총2
위치도(인천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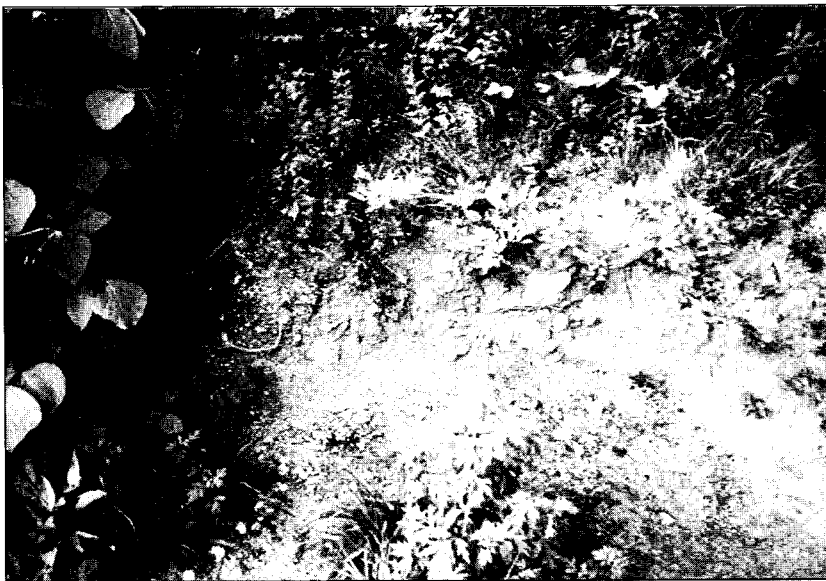


사진28 대부도 구봉이 패총2
근경



사진29 대부도 구봉이 패총2
근경



사진30 대부도 구봉이 패총2
근경

구봉이 패총1에서 서쪽 바닷가쪽으로 600~7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구봉이 패총1에서 북서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산으로 최고봉 해발은 77.5m이다. 패총은 산의 서사면에 형성되어 있는데, 구봉이 패총1이 위치한 산과 접하여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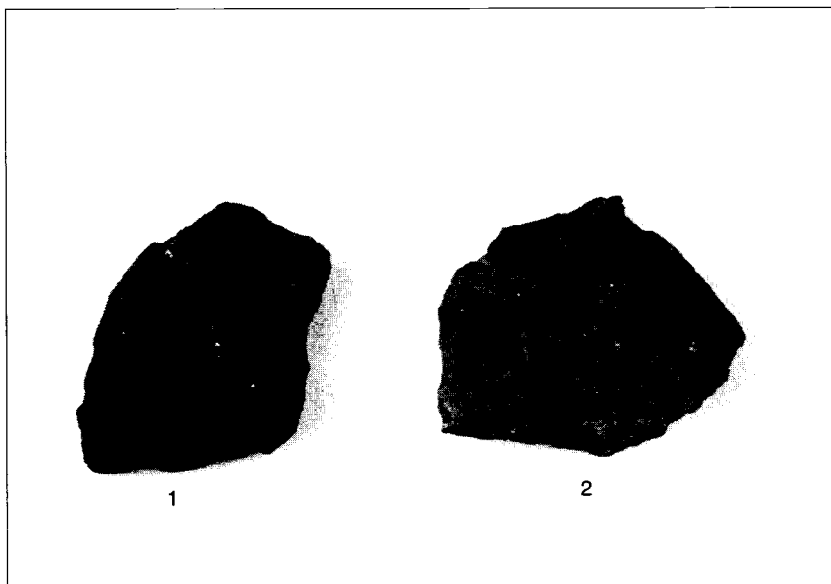


사진31 대부도 구봉이 패총2
채집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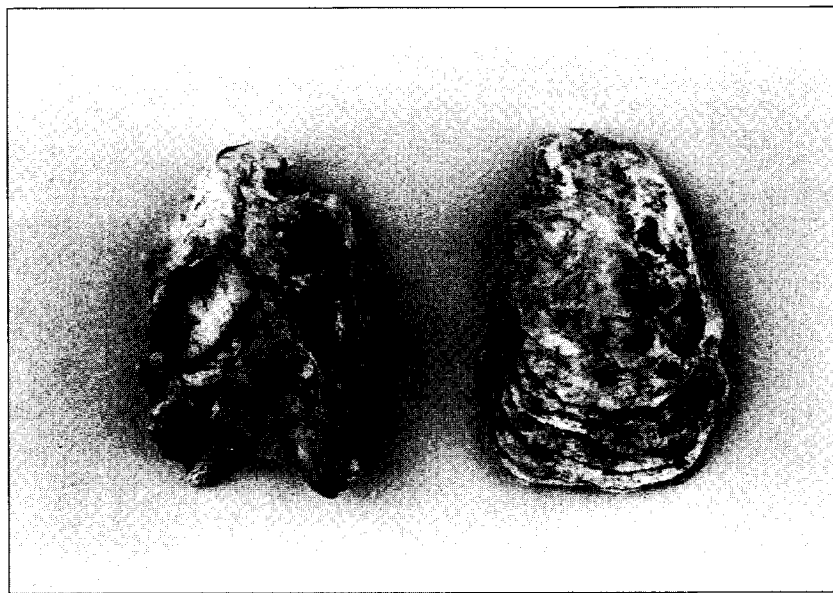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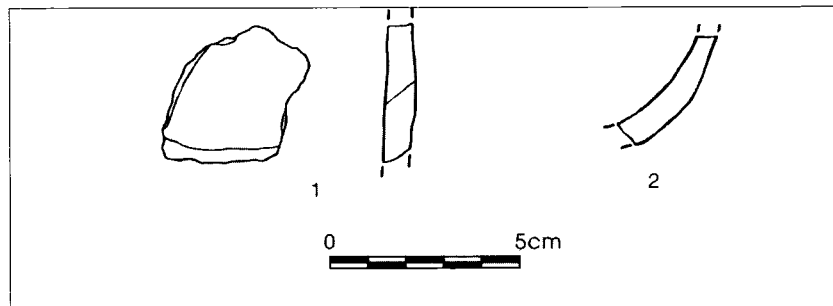


사진32 대부도 구봉이 패총2
채집 패각류



도면5 대부도 구봉이 패총2
채집 토기류

들어진 계곡부 주변에 주로 형성되어 있다.

우선 패총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닷가와 면한 단애면이다(사진 28). 표토 아래 10~15cm가량에 형성되었는데 패총의 가장자리여서 규모도 작고 패각도 많이 부스러진 상태이다. 두께는 50cm가량으로 일부는 순패각층처럼 밀집해 있으나 나머지는 흙에 드문드문 패각이 섞인 모양이다.

사면 위쪽에서도 패총이 확인되는데 군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지름 2m가량의 원형 병커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패총이 파괴·교란되었다(사진 29). 굴껍질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빗살무늬토기편 2점을 채집하였다.

단면에서 약 20m가량 위로 올라간 사면에서도 드문드문 패총이 확인되었다(사진 30). 지표면에 파헤쳐진 구덩이 단면에 드러나 있다. 정확한 규모는 알수 없으나 지표면에서 30cm 이상 아래쪽으로 계속 이어지며 대체로 굴껍질로 이루어져 있다. 혼토판층(흑색점질토+굴껍질)이다. 유물은 채집되지 않았다. 전체적인 패총의 규모는 동서방향으로 20m, 남북방향으로 10m, 두께 50cm이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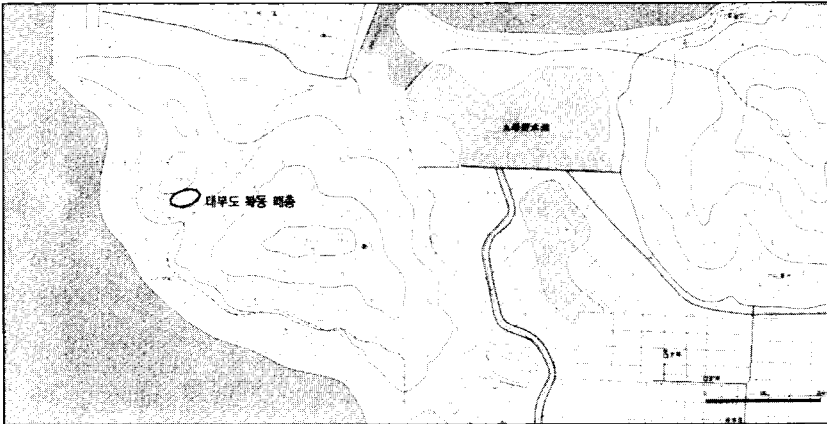
• 채집유물

도면 5-1(사진 31-1)은 외면은 적갈색, 내면은 흑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다. 비교적 정선된 사질점토에 석립이 소량 섞였다. 두께 0.7cm

도면 5-2(사진 31-2)는 암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내외면 모두 여러 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은 보이나 문양은 관찰되지 않는다. 점토질 태토에 석립이 소량 섞였다. 두께 0.8cm

9) 대부도 북동패총1

- 위치 : 안산시 대부북동
- 시대 : 신석기시대
- 현황 (지도 9, 사진 33)



지도9 대부도 북동 패총1
위치도(인천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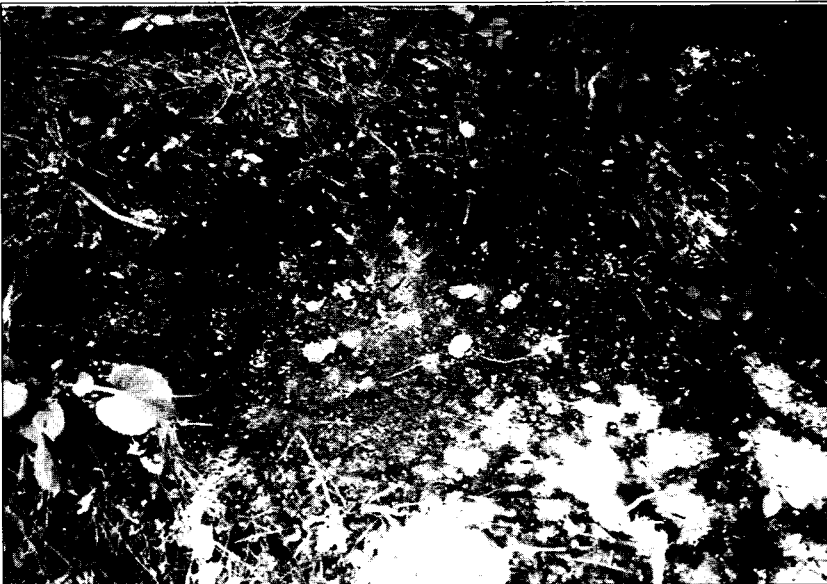


사진33 대부도 북동 패총1
세부

전술한 구멍이 회센타의 뒷편(동쪽)으로 뻗어있는 산에 위치한다. 일대는 대부도의 북서쪽 지역으로 야산이 발달하여 있고 그 사이에는 경작지와 염전이 자리하고 있다.

패총이 확인된 산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모양으로 최고봉의 해발은 86.0m, 패총이 노출되어 있는 정상부의 해발은 58.3m 이다. 정상부 바로 아래쪽에 해당하는 8~9부 능선의 남사면에 노출되어 있다. 소량의 굴껍질이 지표면에 살짝 덮히듯이 쌓였는데 두께는 10cm 내외이다. 낙엽으로 덮혀 확실히 알수는 없으나 패총은 주변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을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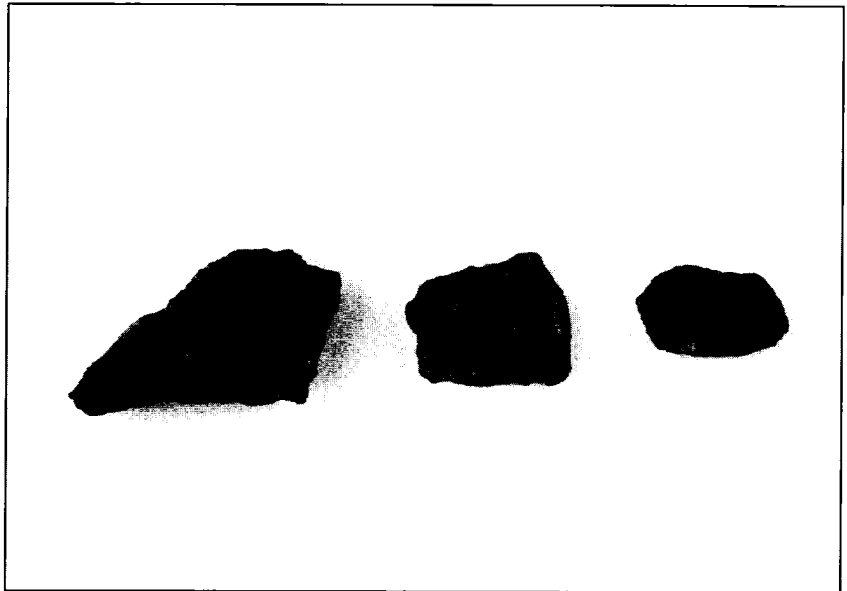


사진33 대부도 북동 패총1
채집토기류

로 보인다. 빗살무늬토기편을 소량 채집하였다.

• 채집유물

도면 6-1(사진 34-1)은 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방향으로 구불구불한 침선문을 시문하였다. 점토질 태토에 석립을 다소 섞어 태토로 사용하였다. 두께 1.0cm

도면 6-2(사진 34-2)는 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방향으로 표면을 그은 흔적이 보이거나 문양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질점토에 사립을 소량 섞어 태토로 사용하였다. 두께 0.7cm

도면 6-3(사진 34-3)은 암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문양이 없다. 비교적 정선된 사질점토를 태토로 사용하였다. 두께 0.7cm

10) 대부도 북동 패총2

- 위치 : 안산시 대부북동
- 시대 : 미상
- 현황 (사진 36~37)



사진36 대부도 북동 패총2
원경(동남에서)



사진36 대부도 북동 패총2
세부

시화방조제를 건너 대부도의 입구에서 2.5km가량 南進하면 도로 오른쪽으로 구봉회단지로 갈라지는 도로가 나타난다. 이 도로로 “계림모텔” 방향으로 따라가다 모텔 앞 네거리에서 우회전하여 700~800m가량 바닷가쪽으로 가면 “나그네 회센타”에 이르게 된다.

패총은 나그네 회센타의 뒷편에 노출되어 있다. 이곳은 해

발 57.0m의 정상부에서 바닷가쪽으로 돌출된 구릉의 남사면 말단부에 해당된다. 회센타가 들어서면서 패총이 단면에 드러났으나 현재는 각종 쓰레기 등으로 덮혀 패각의 존재만 확인될 뿐 자세한 상황은 알기 어렵다

가장 잘 남아있는 부분은 길이 4m 가량, 최대두께는 약 50cm로 측정되나 지표 아래쪽으로 패각층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혼토판층(흑갈색점질토+굴껍질)이다. 남사면에 길게 형성되었으나 회센타 및 부속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상당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채집되지 않았다.

11) 대부도 남동패총

- 위치 : 안산시 대부남동
- 시대 : 신석기시대, 백제시대
- 현황 (사진 3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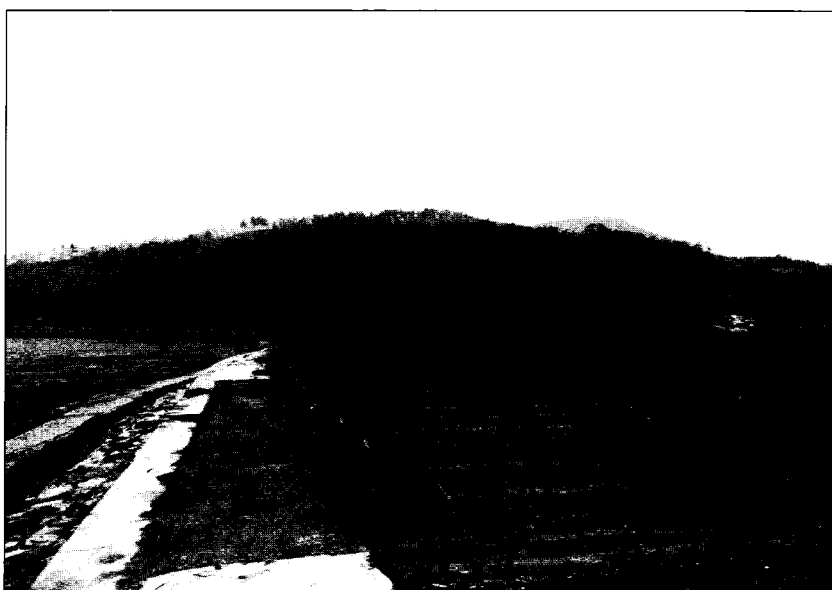


사진38 대부도 남동 패총
원경(남에서)

시화방조제를 건너 대부도로 진입한 후 3km가량 南進하다 영흥화력발전소, 대부출장소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3km가량 가면 다시 삼거리에 이르게 된다. 이곳에서 영흥도, 선재도 방향으로 직진하여 약 7.5km 진행하면 도로 왼쪽으로 한사위 마



사진39 대부도 남동 패총
원경(남에서)



사진40 대부도 남동 패총
원경(남에서)

을로 들어가는 이정표가 나타난다. 이정표를 따라 진입하여
오른쪽으로 난 소로로 500m가량 따라가면 유적에 이르게 된
다.

이곳은 선재도와 연결되는 선재대교의 주변으로 지형이 바
닷가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도로공사로 인하여 절단된 큰산
(해발 109.0m)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내린 구릉에 해당된다.

사진41 대부도 남동 패총
채집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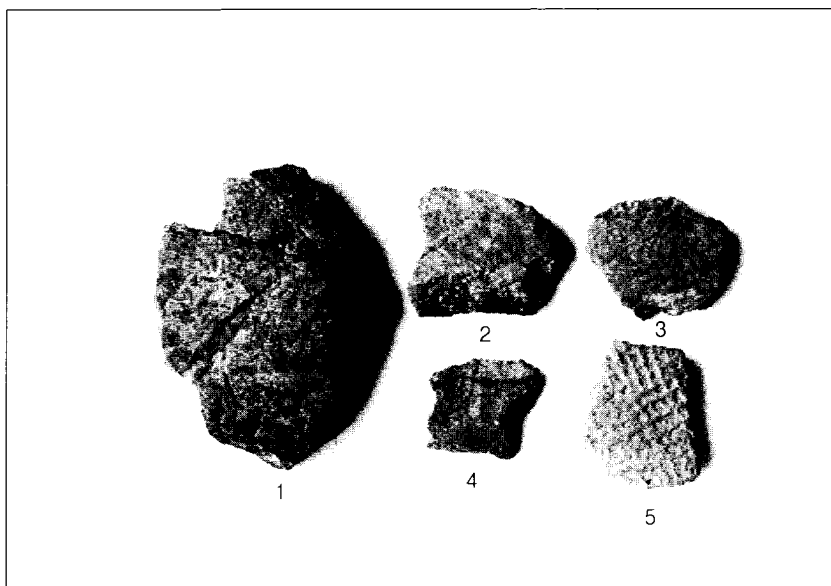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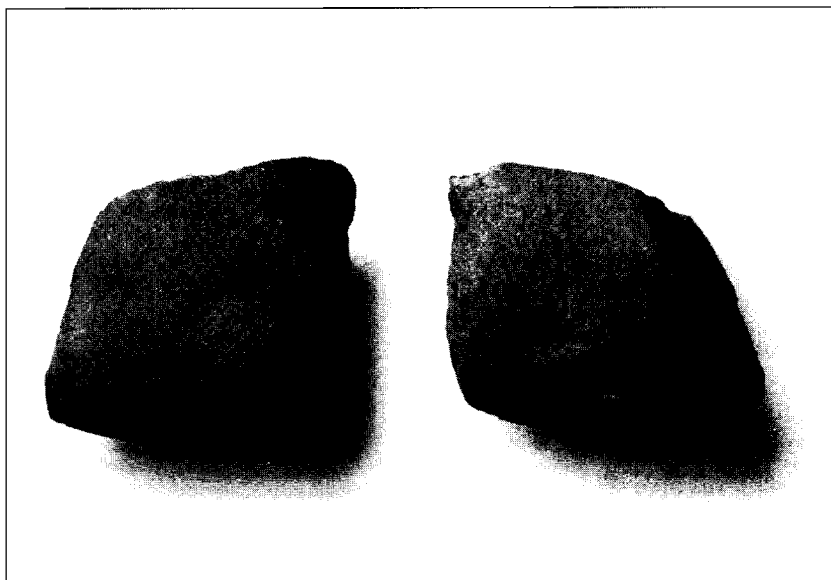


사진42 대부도 남동 패총
채집 석부



패총이 발견된 구릉의 정상부는 해발 23.5m 가량으로 작고 야트막하다.

패총은 소로를 만들면서 단면에 노출된 상태이다. 혼토패총(흑갈색점토+굴껍질)으로 표토 아래 30~50cm에 형성되어 있다. 단면에서 측정되는 길이는 약 17m, 최대두께는 60~70cm 이나 소로 아래쪽으로 패각층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

체적으로 비교적 균일한 띠모양을 이루고 있다. 패각층과 그 주변에서 빗살무늬토기편, 타날문토기편, 석부 등이 채집되었다.

• 채집유물

(토기류)

사진 41-1·2·3·4는 빗살무늬토기편으로 대체로 황갈색, 흑갈색, 적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점토질 태토와 사질성 태토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석립이 섞여 있으나 소량이다. 외면에는 사선방향으로 평행선문을 시문한 듯 하나 희미하다. 대부분 문양은 관찰되지 않는다. 두께 0.6~1.0cm

사진 41-5는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타날문토기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을 비교적 정연하게 타날하였다. 점토질 태토에 석립을 섞어 태토로 사용하였다. 두께 0.6cm

(석기류)

사진 42는 蛤刃石斧로 斧身の 상당부분이 결실되었다. 刃部는 종방향으로 마연하였으며 비교적 예리하게 남아있다. 身部는 표면 전체를 모두 마연하였다. 잔존길이 6.2cm 폭 7.5cm 두께 3.7cm

12) 대부도 남동 석곽묘

- 위치 : 안산시 대부남동
- 시대 : 고려시대
- 현황 (사진 43~44)

전술한 남동 패총이 있는 한사위마을에서 직선거리로 2km 가량 동쪽으로 떨어져있다. 대부도 입구에서 영흥도, 선재도로 향하는 도로로 들어서서 2km가량 진행하면 제부도, 사강으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오는데 삼거리의 남쪽에 펼쳐진 능선에 위치한다.

일대는 대부도의 서남지역으로 해발 50~100m가량의 비교

사진43 대부도 남동 석곽묘
원경(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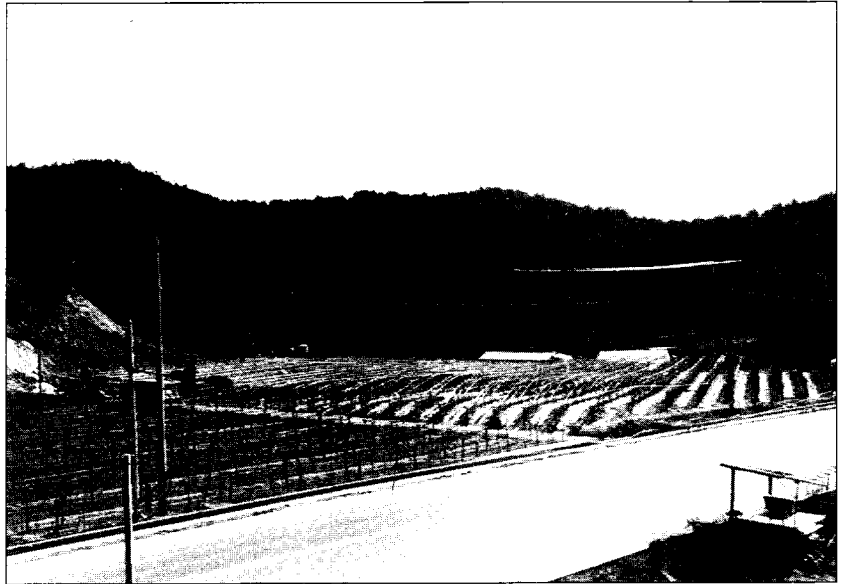


사진44 대부도 남동 석곽묘
원경(서에서)



적 얇은 산지가 발달하여 있으나 도로공사로 상당부분이 절개된 상태이다. 석곽묘가 발견된 곳은 주능선의 방향이 남-북 방향인 산의 서사면이다. 사면 아래쪽으로는 포도밭과 민가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석곽묘는 포도밭 위쪽으로 위치한다. 산의 4~5부 능선쯤에 해당되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면으로 지표에서는 3기 가량이 눈에 띈다. 5~10m 간격을 두고 분포



사진45 대부도 남동 석곽묘1



사진46 대부도 남동 석곽묘2

하고 있다. 노출된 3기 모두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석곽묘 1(사진 45)

동-서방향을 主軸으로 하여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게 설치되었다. 지표면에서 40cm 가량 아래쪽에 노출된 상태이다. 蓋石



사진47 대부도 남동 석곽묘7



사진48 대부도 남동 석곽묘4

일부와 西短壁이 유실되어 내부가 드러나 있다. 개석과 壁石 모두 산돌을 약간씩 다듬어 사용하였다. 벽은 30cm 가량의 할석으로 横積하였으며 1단만 확인된다. 내부 너비 : 55cm

석곽묘 2(사진 4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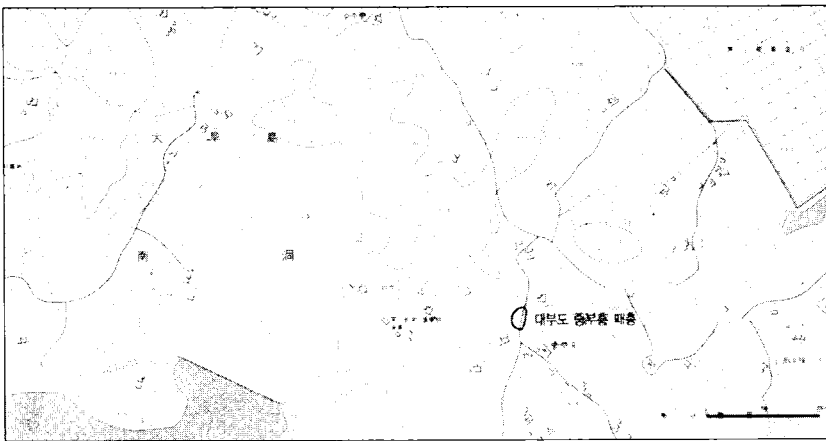
등고선방향과 직교하게 동-서방향을 主軸으로 하여 설치되

었다. 파괴가 심하여 석곽 내부의 상당부분이 드러나있다. 蓋石 일부와 서단벽이 유실되었으며 남·북벽도 일부 유실되고 壁石의 배열도 흐트러진 듯하다. 개석이나 벽석 모두 거의 다듬지 않은채로 사용하였다. 벽은 30cm내외의 할석으로 横積하였으며 1-2단 가량 남아있다. 내부 너비 : 65cm, (잔존)내부 길이 : 120cm

석곽묘 3(사진 48)

主軸방향은 동-서방향으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지표면에 蓋石만 흐트러진채로 노출되어 있고 壁石은 보이지 않는다. 개석은 모두 4매로 산돌을 거의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길이 60cm, 너비 40cm, 두께 10~20cm의 크기이다.

13) 대부도 중부흥 패총



지도10 대부도 중부흥 패총
위치도(대부14)

- 위치 : 안산시 대부남동 중부흥
- 시대 : 조선시대
- 현황(사진 49~51)

대부도 시가지에서 말부흥 가는 도로를 따라 2.5km 진행하다 진행방향의 왼편으로 난 마을소로로 들어서자마자 보인다. 주변은 해발 20~40m 가량의 낮은 구릉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릉의 대부분 지역을 포도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사진49 대부도 중부흥 패총
원경(동에서)



사진50 대부도 중부흥 패총
근경



패총은 포도밭으로 경작중인 구릉의 남단면에 노출되었으며 개설된 마을소로에 의해 상당히 파괴된 상태이다. 표토 아래 5~10cm부터 시작하여 두께가 60~90cm, 현재 남아있는 길이는 9.3m가량의 규모이다. 패총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며 아래쪽부터 조개-굴-조개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아래층인 조개층의 두께는 25cm가량으로 유물은 발견



사진51 대부도 중부층 패총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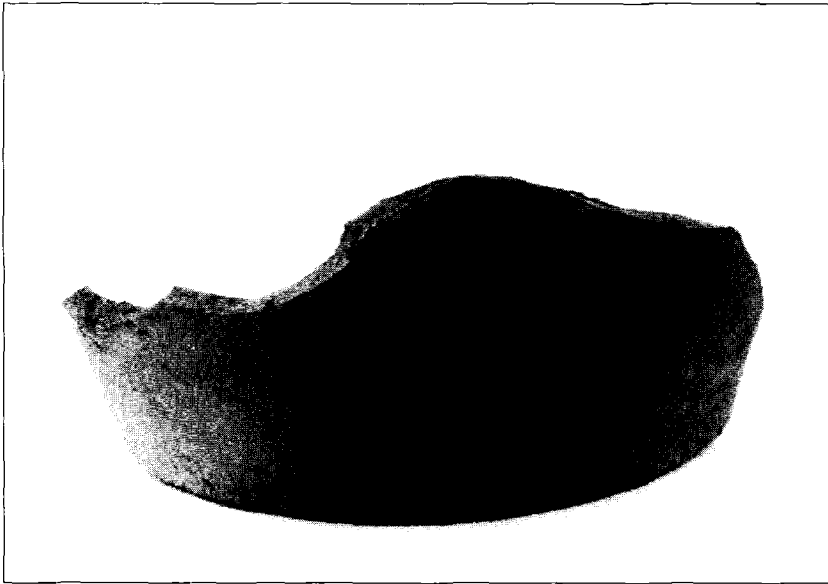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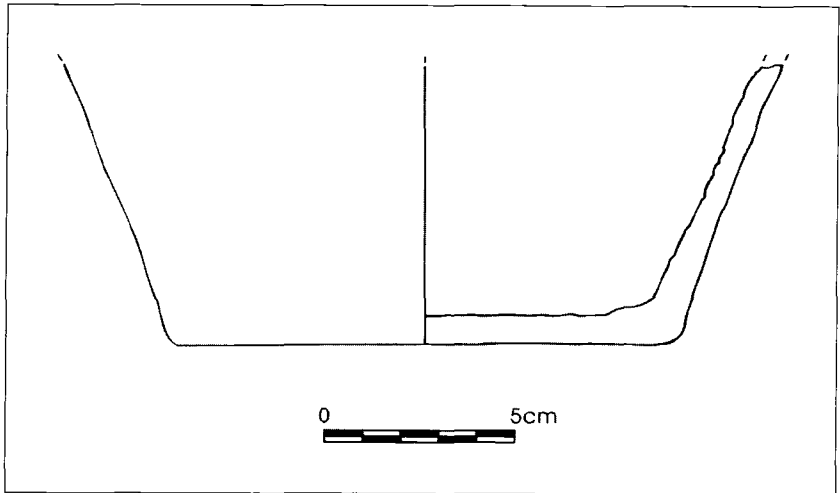


사진52 대부도 중부층 패총
채집 토기편

되지 않았다. 가운데층인 굴층은 중심부의 두께가 약 35cm이며 가장자리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이다. 마모가 심하여 대부분 부스러져있다. 가장 윗쪽에 있는 조개층은 두께가 25cm 가량이다. 아래 조개층에 비하여 비교적 큰 조개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는 교란되었다. 가장 아래층인 조개층에서는 유물이 채집되지 않았으나 유물이 채집된 굴층과 그 윗층인

조개층은 크게 시기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도면7 대부도 중부층 패총
채집 토기편



• 채집유물

도면 7(사진 52)은 회색을 띠는 연질토기의 저부편이다. 구연과 동체는 결실되었다. 평저이며 내외면에는 문양이 없다. 바닥상면에는 바닥과 동체를 접합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선명하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었다. 추정저경 17.4cm 현재높이 9.6cm

14) 대부도 말부층 패총

- 위치 : 안산시 대부남동 말부층
- 시대 : 신석기시대
- 현황

이 패총은 1984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서해도서지방 지표조사에서 처음 발견되었다¹⁾. 당시의 보고에 의하면 유적은 말부층 마을의 도로가 끝나는 곳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 뒷산에서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팀이 말부층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지형, 지물이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패

1) 지건길·안승모, 앞의 글, 국립중앙박물관, 1984

총이 있는 지점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나 도면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보고서의 설명과는 다르지만 그나마 예상되는 지역은 사유지여서 출입이 불가능하였다. 주변에서 단면을 위주로 살펴보았으나 패총을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전 보고에 따르면 패총이 발견된 산은 해발 40m가량으로 패총은 바다를 면하고 있는 남쪽의 6~7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해안대지에 넓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1984년 조사당시에는 대부분 없어지고 일부만 남아 지름 20m, 폭 1m 가량의 그믐달 모양으로만 관찰되었다고 한다. 두꺼운 곳의 두께는 110cm 가량으로 중간에 30cm 정도의 혼토패총을 사이에 두고 아래위로 순수한 패각층이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졌다. 조사 당시에 빗살무늬토기편은 채집하지 못하였으나 패각층 가장 아래에서 뎀석기 1점을 채집하였다고 한다. 보고자는 유적의 입지조건이나 굴껍질의 부식상태로 보아 신석기시대 패총으로 추정하였다.

15) 불도 패총

- 위치 : 안산시 선감동 불도



사진54 불도 패총
원경(남에서)



사진55 불도 패총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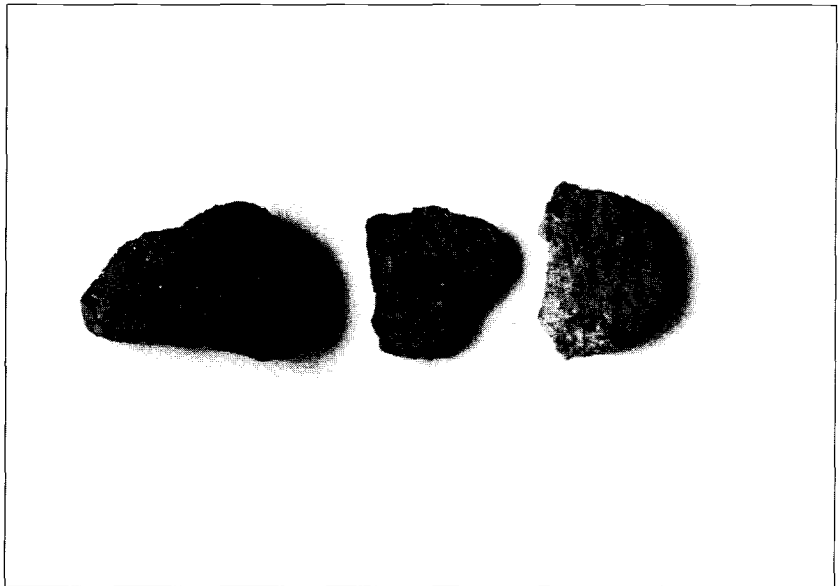


사진56 불도 패총
채집 토기류1

- 시대 : 신석기시대, 백제시대
- 현황 (사진 54~55)

대부도에서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따라 계속 南進하면 선감도를 지나 불도에 이르게 된다. 불도의 남단부에 이르러 구릉 위로 좌회전하여 소로에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비포장소로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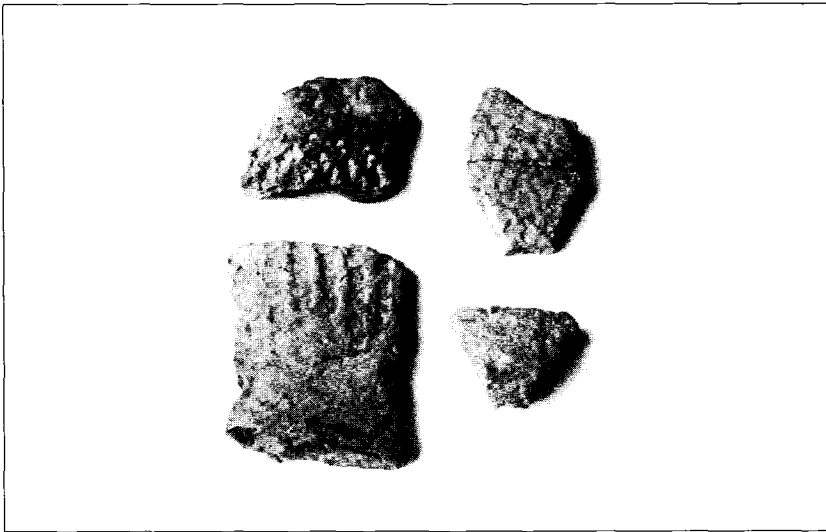


사진57 불도 패총
채집 토기류2

패총은 이 비포장소로 옆 단면에 노출되어 있다. 지표면 바로 아래쪽에 놓여 있으며 굴껍질로 이루어진 혼토판층이다. 길이 15m, 두께는 15~30cm가량의 규모로 얇은 띠모양을 이루고 있다. 지표사면에서는 그 범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주변 소로의 바닥에도 파괴된 패각들이 널려있다. 빗살무늬토기편과 타날문토기편을 소량 채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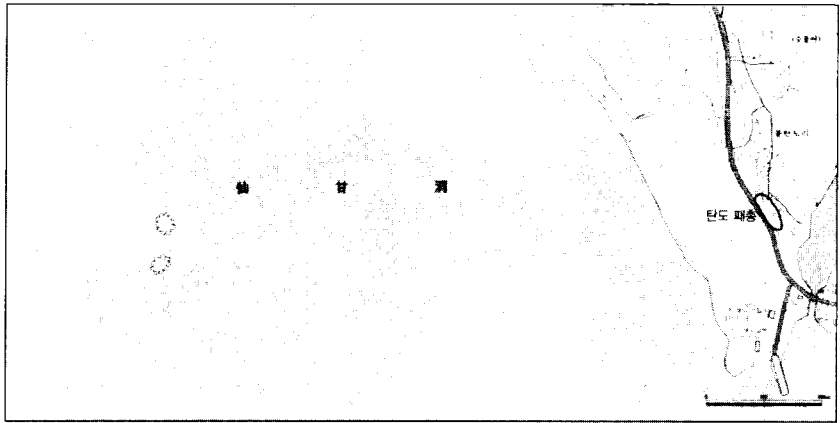
• 채집유물

사진 56은 적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대부분 무문으로 보이나 일부 토기편에는 횡주어골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표면의 마모가 심하여 잘 알 수는 없다. 대체로 사질태토에 운모, 장석, 소량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기벽단면에는 테쌍기 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0.5~0.7cm

사진 57은 황갈색, 흑갈색, 적갈색 등을 띠는 타날문토기의 동체부 및 저부편이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대체로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저부편의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태토는 사질성태토와 점토질태토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석립이 소량 섞여있다. 두께 0.5~0.7cm

16) 탄도 패총

지도11 선감동 탄도 패총
위치도(대부26)



- 위치 : 안산시 선감동 탄도
- 시대 : 조선시대
- 현황 (지도 11, 사진 58~61)

대부도에서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따라 계속 南進하면 선감도, 불도를 지나 탄도에 이르게 된다. 탄도는 남북으로 긴 모양의 섬으로 작고 야트막한 산들이 섬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남북의 길이가 1.5km 내외의 매우 작은 섬인데, 그나마 건설 공사등으로 원형이 남아있지 않다.

패총이 위치한 곳은 탄도의 최남단지역으로 화성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패총이 있는 구릉의 서쪽부분은 안산-화성간 도로에 의해서 일부가 파괴되었고 구릉의 동쪽부분에는 민가가 들어서 있어 실제로는 남-북방향으로 길게 남아있다. 특히 민가 주변으로는 구릉을 깎아낼 때 함께 파괴된 패각들이 지표에 넓게 부서져 있다.

현재 사방 단면에서 모두 패총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구릉 전체에 패각층이 넓게 분포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의 순수한 패각층으로 대부분 조개껍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라껍질도 소량 관찰된다.

도로에 의해서 파괴되어 구릉의 서쪽 절단면에 드러난 패각층(사진 59) 남-북방향으로 약 20m, 두께는 130cm 내외의 규모이다. 구릉 반대편에 위치한 민가에 이르기까지 거의 끊임없이 층이 연결되며 동-서 길이는 8m 가량이다.

또한 구릉 남반부쪽에는 바닷가로 향하는 소로 옆 단애부



사진58 선감동 탄도 패총
전경(서에서)



사진59 선감동 탄도 패총
근경

에 패총이 노출되어 있다(사진 61). 크게 두 개의 층으로 나뉘는데 전체적으로 길이는 17m에 이른다. 아래층은 주로 굴껍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량의 조개껍질이 포함되어 있는 혼토판층이다. 두께는 15~60cm 가량이다. 위층은 표토 아래 5~30cm아래에 형성되어 있는 혼토판층이다. 주로 조개껍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께는 50cm가량이다. 위층인 조개층에서 조



사진60 선감동 탄도 패총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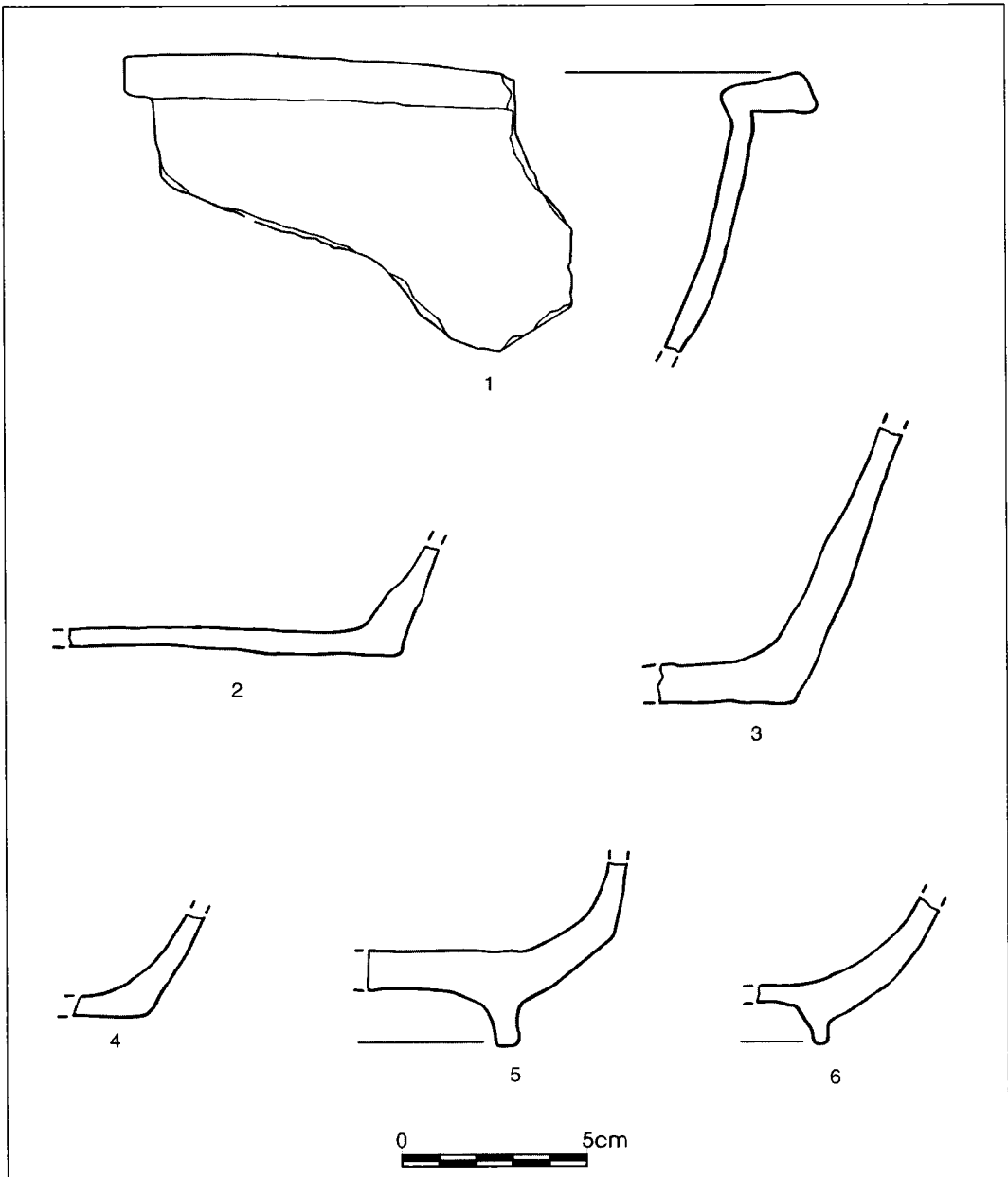
사진61 선감동 탄도 패총
근경

선시대의 자기, 토기편을 소량 채집하였다.

• 채집유물 :

(토기류)

도면 8-1(사진 62-1)은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도기 구연부편이다. 구순 상면을 넘적하고 평평하게 만들어 진을 마련하였



도면8 선감동 탄도 패총 채집 유물

다. 내외면에는 물레흔이 선명하다. 태도는 비교적 정선되었
다. 두께 0.6cm

도면 8-2(사진 62-2)는 도면 8-1(사진 62-1)의 저부편으로
추정된다. 평저로 바닥의 중앙부분이 약간 들린 형태이다. 기
벽두께가 크기에 비해 매우 얇은 편이다. 두께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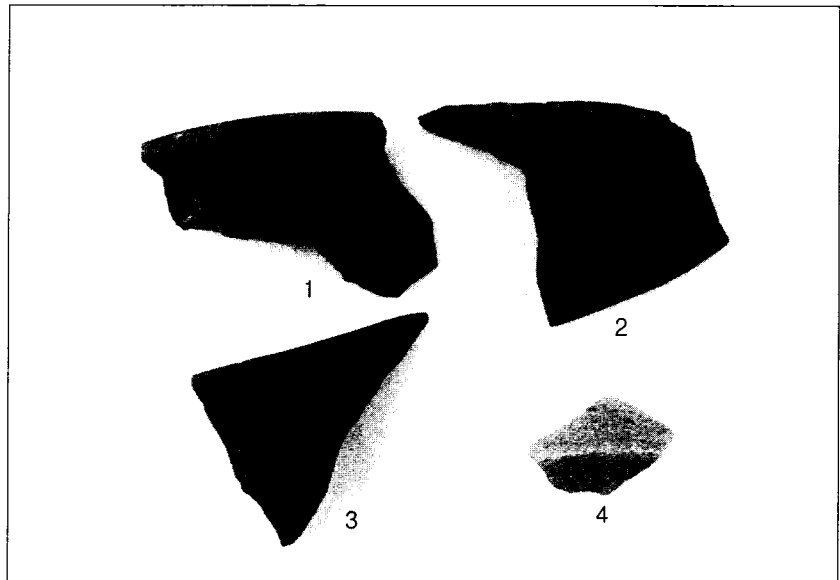


사진62 선감동 탄도 패총
채집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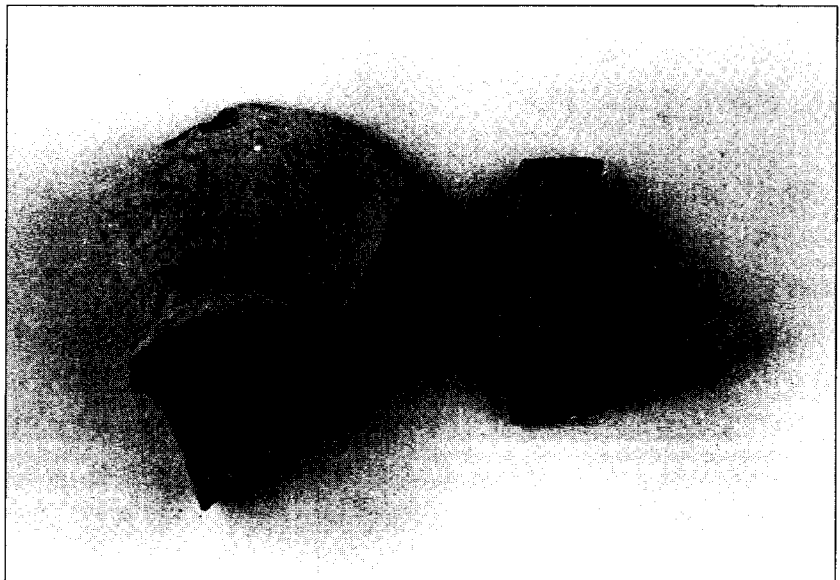


사진63 선감동 탄도 패총
채집 자기류

도면 8-3(사진 62-3)은 내외면은 흑색을, 속심은 자주색을 띠는 경질의 도기 저부편이다. 외면에는 유약이 불규칙하게 남아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었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남아있다. 두께 0.7cm

도면 8-4(사진 62-4)는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도기 저부편이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선명하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었다.

두께 0.7cm

(자기류)

도면 8-5(사진 63-1)는 백자대접의 저부편이다. 동체는 거의 수직으로 이어지다 저부에 이르러 예리하게 꺾인다. 안바닥은 매우 넓고 평평하며 안바닥 상면에는 포개구이에 사용했던 굽은 모래가 붙어있다. 굽은 전체 크기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내려갈수록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접지면은 거의 결실된 상태이다. 태토는 비교적 치밀하다. 굽바닥을 포함한 전면에 밝은 회청색 유약을 시유하였다. 추정저경 6.6cm

도면 8-6(사진 63-2)은 백자대접의 저부편이다. 구연부와 동체부는 결실되었다. 굽은 낮고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굽안바닥을 깊게 깎아내었다. 접지면의 폭은 좁고 고른 편으로 번조시 받쳤던 가는 모래가 남아있다. 태토는 비교적 치밀하다. 굽안바닥을 포함한 전면에 밝은 회백색 유약을 시유하였다.

17) 선재도 통오리 패총

- 위치 :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 시대 : 신석기시대
- 현황 : (사진 65~66)

1984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서해도서지방 지표조사에서 찾아졌다¹⁾. 대부도에서 선재대교를 건너 영흥방향으로 2.5km가량 北進하면 도로 오른쪽으로 “(주)옹진조선”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간판이 가르키는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비포장소로를 따라 100m쯤 가면 작은 네거리가 나오는데 좌회전하여 가면 (주)옹진조선에 이르게 된다.

이곳은 섬의 북단으로 야트막한 구릉들이 바닷가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패총은 (주)옹진조선의 컨테이너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데 컨테이너가 들어서면서 상당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다. 패총은 컨테이너로 진입하는 소로에서부터 확인된다. 1984년 당시에는 대부분 파괴되어 해발 5m의 언덕상단에 일

1) 지건갑·안승보, 앞의 글, 국립중앙박물관, 1984



사진64 선재도 통오리 패총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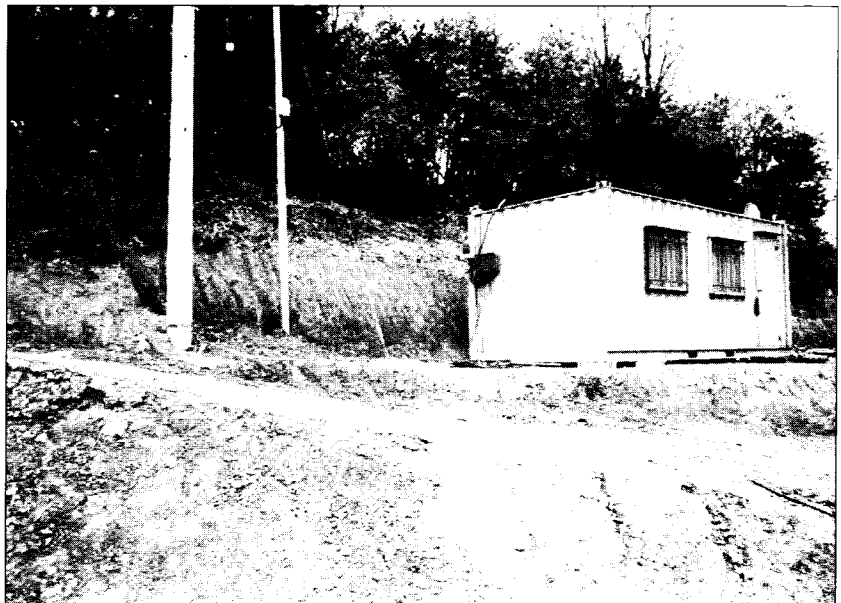


사진65 선재도 통오리 패총
근경

부만 잔존하고 70cm 두께의 흑갈색 조가비층으로 관찰되었다고 한다.

현재 가장 잘 남아있는 부분은 콘테이너의 주변으로 단면에서 관찰되는 규모는 길이(남-북방향)가 약 23.5m, 최대 두께는 110~120cm이다. 지표 바로 아래에서부터 비교적 균일한



사진66 선재도 통오리 패층
세부

띠모양을 이루며 두께는 대략 40~50cm이다. 주로 굴껍질로 이루어진 혼토패층(흑색점질토+굴껍질)이다. 위쪽사면에서는 7m가량 올라간 지점까지 육안으로 패각이 확인된다. 패각층 아래쪽으로는 적색 점질토가 40~50cm의 두께로 균일하게 쌓여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얼음썰기, 암갈색층, 암반층의 순으로 놓여있다.

패층은 콘테이너로 진입하는 소로 옆 단면까지 연결된다. 소로 단면(동-서방향)에 드러난 길이는 약 10m, 최대두께는 40cm가량이다. 소로바닥의 아래층에서도 드문드문 패각층이 확인된다. 그러나 소로를 만들면서 그 위에 주변에서 파낸 적색 점질토를 덮어 패각층의 규모나 범위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콘테이너 아래쪽에서도 균일한 패각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께는 20~25cm 가량 확인되었는데, 하단에는 얼음썰기를 포함하는 고토양층이 이어져 콘테이너 옆 단면에 드러난 패각층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콘테이너 옆 단면까지의 거리는 5~6m 이다. 이전조사에서는 소량의 빗살무늬토기편을 채집하였으나 이번조사에서는 유물이 채집되지 않았다.

18) 선재도 사매기 패총

지도12 선재도 사매기 패총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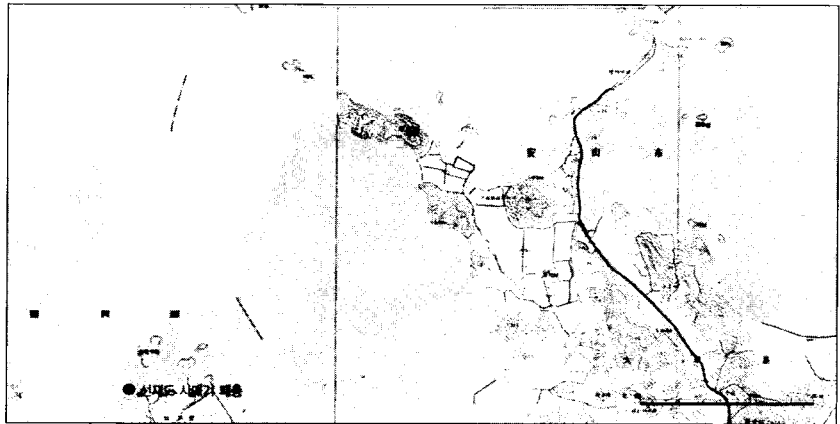


사진67 선재도 사매기 패총
전경(북에서)



- 위치 :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 시대 : 신석기시대, 원삼국시대
- 현황 : (지도 12, 사진 68~70)

선재대교를 건너 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로 2.5km가량 北進하면 도로 오른쪽으로 전술한 통오리 패총으로 가는 “(주)옹진조선” 이정표가 나타난다. 이정표를 따라 비포장소로 100m쯤 가면 작은 네거리가 나오는데 좌회전하여 가면 통오리 패총이 나오고, 직진하면 해안쪽으로 사매기 패총에



사진68 선재도 사매기 패총
근경



사진69 선재도 사매기 패총
세부

이르게 된다. 이 유적은 1984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서해도서지방의 지표조사로 알려졌다¹⁾.

사매기 패총이 있는 부분은 주변보다 오복하게 들어가 마치 작은 만과 같은 지형이다. 조사당시 에도 조개더미의 대부분은 파괴되어 없어지고 높은곳의 가장자리에만 남아있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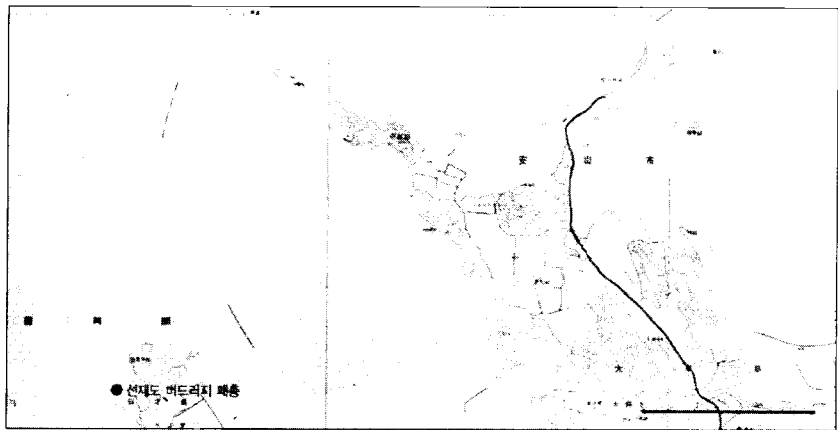
1) 지진갑·안승모, 앞의 글, 국립중앙박물관, 1984

한다. 패각층은 원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흑갈색조가비층(두께 40cm)과 그 아래 신석기시대로 추정되는 황갈색조가비층이 조사되었다.

현재 구릉 단면에 드러난 패층은 길이 20m, 중심부의 두께 50cm 가량의 규모이다. 대부분 굴껍질로 이루어진 혼토패층으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쌓인 편은 아니다.

구릉의 사면쪽으로도 3-4군데의 무더기를 이루며 드문드문 확인된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는 큰 규모였다고 하나 현재는 구릉 단면과 위쪽 사면에서 일부만 관찰되는 정도이다. 1984년 조사에서는 빗살무늬토기, 타날문토기, 갈돌 등을 채집하였다. 이번조사에서는 유물이 채집되지 않았다.

19) 선재도 버드러지 패총



지도 13 선재도 버드러지
패총 위치도

- 위치 :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 시대 : 신석기시대, 원삼국시대
- 현황 (지도 13, 사진 72~74)

이 유적은 1984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서해도서지방 지표조사로 알려졌다¹⁾. 선재도의 남북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北進하면 섬의 북서쪽 끝부분에 있는 포구에 이르게 된다. 이곳은 영흥도와 연결되는 지점으로 현재는 영흥대교가 건설되어 있다.

1) 지전길·안승모, 앞의 책, 국립중앙박물관,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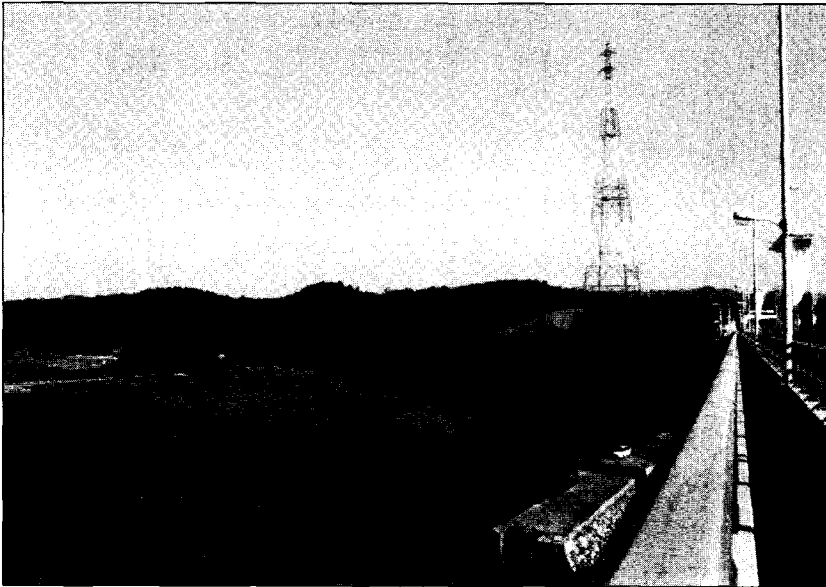


사진70 선재도 사매기 패총
원경(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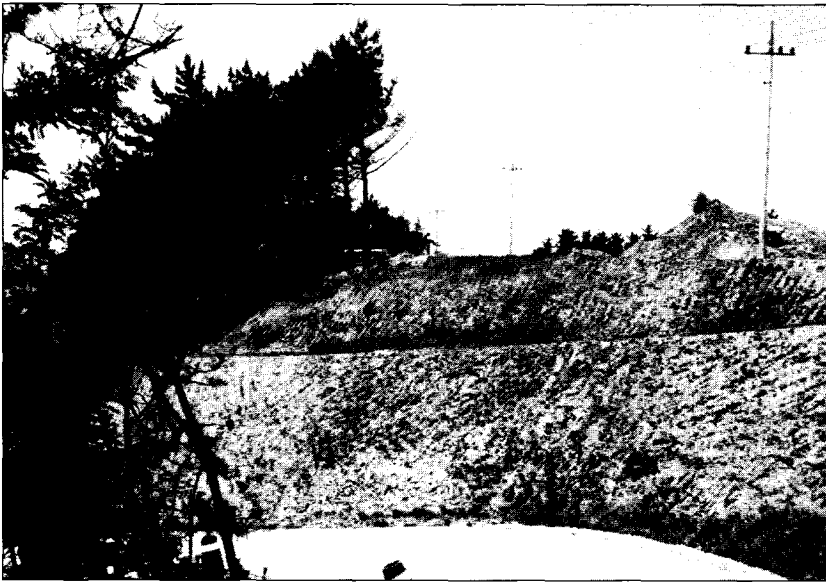


사진71 선재도 사매기 패총
근경

이전조사에 따르면 패총은 동서 100m, 남북 20m, 두께 60~100cm의 규모이며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표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과 타날문토기편을 채집하였다고 한다.

현재 주변은 영흥대교 건설공사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파괴가 심하여 패총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포구에 이르기



사진72 선재도 사매기 패총
세부

바로 직전의 구릉 절단면에 패총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며 지표에 패각이 조금 덮힌 형태로만 관찰된다. 남아있는 길이는 10m 가량이며 매우 소량이다. 대부분 굴껍질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채집유물은 없다.

3. 맺음말

이번조사에서는 안산시의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패총유적 18개소와 분묘유적 1개소를 확인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석기시대 패총 9개소, 신석기·원삼국(백제)시대 패총 5개소, 조선시대 패총 2개소, 시대를 알 수 없는 패총 2개소이다. 그중 오이도 신포동 패총과 대부도 말부흥 패총은 기존조사에서는 보고되었으나 이미 흔적조차 없거나 지점이 정확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한 유적이다.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안산을 포함한 경기도 해안지역에 산포하는 패총 유적은 대체로 신석기시대 후기로 편년되며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편년과 문화내용을 연구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또한 황해도, 한강 중상류, 서·남해안 지역 신석기 문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팀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패총유적의 파괴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사료용으로 패각을 채취 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안산 주변지역은 특히 폐해가 심했다고 한다. 그나마 남아있는 패 총유적도 군시설, 도로, 상가, 민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향토유적에 대한 관계 행정당국과 지역주민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엄익성/명지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소희/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 번호 | 유적명 | 위치 | 시대 | 조사내용 | 비고 |
|----|--------------|-----------------|--------|---------------------------------|------|
| 1 | 오이도 안말 패총 |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 신석기 | 빗살무늬토기편 동물유존체 | 지표조사 |
| 2 | 오이도 가운데살막 패총 |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 신석기 | 수혈주거지(3기), 노지(3기) 빗살무늬토기편 | 발굴조사 |
| 3 | 오이도 뒷살막 패총 |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 신석기 | 수혈주거지(추정), 노지(7기) 빗살무늬토기편 | 시굴조사 |
| | | | 백제 | 주거지 또는 노지 타날문토기편 | |
| 4 | 오이도 신포동 패총 |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 신석기 | 노지(3기) 빗살무늬토기편, 석기류 | 발굴조사 |
| 5 | 대부도 흘곶 0패총1 | 안산시 대부남동 | 신석기 | 빗살무늬토기편 | 지표조사 |
| 6 | 대부도 흘곶 패총2 | 안산시 대부남동 | 미상 | | 신규 |
| 7 | 대부도 구봉이 패총1 | 안산시 대부북동 구봉이 | 신석기 | 빗살무늬토기편 | 신규 |
| 8 | 대부도 구봉이 패총2 | 안산시 대부북동 구봉이 | 신석기 | 빗살무늬토기편 | 신규 |
| 9 | 대부도 북동 패총1 | 안산시 대부북동 | 신석기 | 빗살무늬토기편 | 신규 |
| 10 | 대부도 북동 패총2 | 안산시 대부북동 | 미상 | | 신규 |
| 11 | 대부도 남동 패총 | 안산시 대부남동 | 신석기 | 빗살무늬토기편, 석부 | 신규 |
| | | | 백제 | 타날문토기편 | |
| 12 | 대부도 남동 석곽묘 | 안산시 대부남동 | 고려 | 석곽묘 3기 확인 | 지표조사 |
| 13 | 대부도 중부흥 패총 | 안산시 대부남동 | 조선 | 연질토기편 | 신규 |
| 14 | 대부도 말부흥 패총 | 안산시 대부남동 | 신석기(?) | | 지표조사 |
| 15 | 불도 패총 | 안산시 선감동 도 | 신석기 | 빗살무늬토기편 | 신규 |
| | | | 백제 | 타날문토기편 | |
| 16 | 탄도 패총 | 안산시 선감동 탄도 | 조선 | 백자편, 도기편 | 신규 |
| 17 | 선재도 통오리 패총 |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 신석기 | 빗살무늬토기편 | 지표조사 |
| 18 | 선재도 사매기 패총 |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 신석기 | 빗살무늬토기편, 갈돌 | 지표조사 |
| | | | 원삼국 | 타날문토기편 | |
| 19 | 선재도 버드러지 패총 | 인천시 옹진군 흥면 선재리 | 신석기 | 빗살무늬토기편 | 지표조사 |
| | | | 원삼국 | 타날문토기편 | |

제4절 대부도 문화 유적

1. 홍정희 효자문



홍정희 효자문

1) 유래

효자 홍정희(洪貞羲)선생은 조선 후기인 1880년대 초 대부도 남동에서 태어난 이름난 효자로서,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선생은 어릴때부터 성격이 온순하고 부모에 대한 효성(孝誠)이 지극하여 정성을 다해 봉양(奉養)하였으며 그 뜻을 거르지 않았다.

특히 부친께서 별세(別世)하자 그는 깊이 애통(哀痛)해 하며 묘소 앞에 자그[한 여막(廬幕)을 지어놓고 그 곳에서 3년 동안 거처하였다.

그는 육식(肉食)을 하지 않고 소찬(素饌)으로 일관했으며, 한번도 자신집에 내려오지 않는 등 선친(先親)의 묘소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뛰어난 효행(孝行)과 마음 가짐은 마침내 조정(朝廷)에까지 알려져 고종(高宗) 30년 (1893년) 6월 효자 정문(旌門)이 건립되고 만인의 귀감(龜鑑)으로서 표상(表賞)되었다.

2) 위치 및 구조

현재의 정문은 맞배지붕에 전통기와를 올린 홑처마 건물로서 벽은 시멘트조이며, 근대에 개수(改修)된 것이다. 그 규모는 정면 3.20m, 측면 1.35cm이다.

2. 대부도 자선비

1) 유래

이찬(李燦) 선생은 한말(韓末)에서 1920년대 초까지 생존했던 이 고장의 (德望) 높았던 재산가(財産家) · 유지로서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선생은 일찍이 부농(富農)의 아들로 태어나 그가 생존해 있을 당시만해도 남동(南洞) 일원 (一圓)의 토지는 거의 그의 소유라 할만큼 대지주(大地主)였으며, 대부분의 농토(農土)는 많은 소작인(小作人)들에 의해 경작(耕作)되고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평소 마음이 소박하고 인정(人情)이 두터워 스스로 가난한 민중의 처지를 깊이 헤아려 일부의 땅은 가난한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빛과 소작료(小作料)를 탕감(蕩減)해 주는 등 범인(凡人)이면 생각할 수 없는 큰 덕량(德量)을 베풀었다고 한다.

그 뒤 선생이 별세하자 은혜(恩惠)를 입은 마을사람들이 거향적(擧鄉的)으로 장례(葬禮)를 치르고 생전의 고마운 마음씨와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현 남4동에 위치한 선생의 묘소 앞에 자선비(慈善碑)를 건립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선생의 가세(家勢)와 후사(後嗣)가 영락(零落)되고, 비(碑)를 돌보는 이가 없어 자주 쓰러져 1980년 4월 5일 남1통, 남3통



대부도 자선비

중간 도로변 현재의 위치에 이건(移建)되었다가 2001년 도로 확장공사로 대남초등학교 앞으로 이전 하였다.

2) 위치 및 구조

자선비의 석재(石材)는 화강암이며 대석(臺石)은 시멘트로 건립되었다. 그규모는 높이 140cm, 폭 34.5cm, 두께 15cm이다.

3. 쌍계사의 탕화

1) 쌍계사(雙溪寺) 현왕탱화(現王幀畵)

1803년에 제작된 탕화로 대부동의 쌍계사에 소장되어 있다. 원래 도성암(道成菴) 노전(爐殿)에서 조성된 불화이나 언제 어떠한 연유로 이곳 쌍계사에 모셔졌는지는 알 수 없다.

사람은 죽어 목숨이 끊어지면 몸 속의 영혼은 중천을 떠돌다가 삼일째 되는 날에 현왕여래(現王如來)가 주재하는 심판에 따라 영원히 거처할 곳을 결정받게 된다. 즉 죽은 자색 영혼은 저승사자의 안내로 현왕여래 앞에 이르러 살아 생전에 쌓은 업보(業報)에 따라 극락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현왕여래(現王如來)란 명계(冥界)의 염라대왕과 같은 성격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현왕탱화이다.

병풍을 둘러친 도상의 중앙에 홀(笏)을 들고 붉은 도포를 입은 현왕여래가 호피를 깔아 놓은 의자에 경책을 이용한 관을 쓰고 정좌해 있는데, 그 형상이 괴이하고 위엄 서린 얼굴의 긴 수염이 위협적이다.

현왕 좌우 상단에는 파초선과 일산을 든 동자가, 아래쪽 좌우 보처에는 대륜성왕(大輪聖王)과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묘사되어 있으며, 맨 왼쪽에는 판관(判官)과 녹사(錄事)가 죄의 기록이 담긴 두루마리와 장책을 들고 있다. 그리고 나뭇결이 아름다운 책상 위에는 문방사우를 비롯해 결재에 쓰이는 어

피인쇄함이 놓여 있다. 혼령을 심판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이 탕화는 안정된 구도에 채색이나 필선이 매우 세련된 불화이다.

조선 후기에 성행하였던 현왕탱화로서 현존하는 것 중에서는 경북 수다사(水多寺 : 1702년)의 현왕탱화가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상주 남장사(1788년), 금릉 금용사(1803년), 서울 봉은사(1844년), 양주 불암사(1846년) 등의 현왕탱화가 유명하다. 대부동 쌍계사의 현왕탱화는 경기도 지역에서는 시대가 가장 올라가는 불화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 탕화의 하단에는 다음의 명문이 담겨 있다.

嘉慶 八年(1003년) 靈玄

七月日 道成菴

現王幀 一部爐

爐殿 造成 奉安

于 道成菴

緣化秩

證師 龍峯 敬○

誦呪 慈懇默

金魚 有善

供司 取旻

都監 瑞弘

別座 普瓊 保體

化主 國一

施主 道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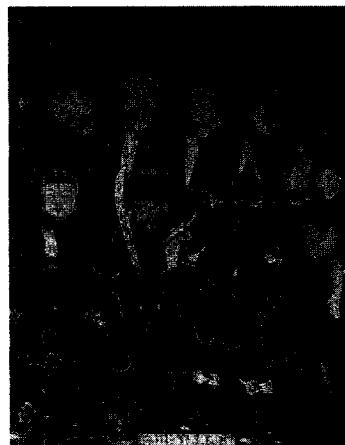
慈玉 保體

宋芙沐

本菴 桓裕

2) 쌍계사 신중탱화(神衆幀畵)

1803년에 제작된 것으로 크기는 세로 136cm, 가로 104cm이다. 신중탱화는 불교의 호법신(護法神)으로 사찰 도량을 지



쌍계사 신중탱화(神衆幀畵)

키고 불법을 수호하는 선친으로 법당의 좌우벽이나 요사채의 신중단에 모셔지는 불화의 일종이다.

신중탱화에 등장되는 호법신들은 중국이나 우리 나라의 재래의 토속신들이 많이 등장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재래 토속신앙이 불교의 전래 과정에서 불교에 습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중탱화는 그 어떠한 탱화보다도 고유의 특성을 지닌 민족의 여러 신앙 형태를 포용하고 있다.

화엄신중신앙을 근간으로 형성된 신중탱화는 가경(嘉慶) 8년(1803년)에 도성암(道成菴) 노전(爐殿)에서 조성되었는데 이 그림은 금어(金魚) 유선(幼善)스님에 의해 그려졌다. 불화를 그리는 스님을 금어(金魚) 또는 화사(畫師) · 화원(畫員) · 양공(良工) 등으로 부른다.

도성암에 봉안되어 있던 불화가 언제 어떤 연유에서 이곳에 옮겨 모셔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작 장소 · 시기 크기, 사찰의 여건 등에 따라 명문과 관계없이 이동 · 봉안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신중탱화에 등장하는 신(神)들은 39위(位)였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불교가 차츰 민간신앙과 강하게 결합되면서 104위까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단순하게 상 · 하 2단구도로 구성되어 있는 쌍계사 신중탱화는 위쪽 머리에 화관을 쓴 제석천왕(帝釋天王) · 대범천왕(大梵天王)과 의관 위에 경책이 있는 일궁천자(日宮天子) · 월궁천자(月宮天子)가 있으며, 또한 아래쪽 투구에 무장을 하고 두 손을 합장한 동진보살(童眞菩薩) · 용신(龍神) · 호계대신(護戒大神) · 산신(山神) 등이 버티고 서 있다. 상단과 하단 중간은 구름으로 분리하였고, 천동(天童) · 천녀(天女) 두 쌍이 좌우에서 유자 석류 등의 과일 그릇을 받쳐들고 공양을 올리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일반적인 신중탱화에 비하여 핵심적이며 대표적인 신상만을 나열한 아주간략한 내용의 신상도이나 신중단으로서의 역할이나 그림의 짜임새 · 채색 · 필선 등이 완벽한 수준급의 고급탱화이다. 머리 부분의 녹색 두광이 있는 동진보살과 제석 · 법천 · 일월궁천자는 천상세계의 명계중(冥界衆)을 나타내고, 용신 · 산신 · 호법신은 지상의 사바세

계를 담당하는 신중들이다.

얼굴에 용의 수염이 있고 머리에는 여의주, 손에는 용의 뿔을 쥐고 있는 의인화된 용신과 백발의 긴 수염에 투명한 두건을 쓰고 용의 형상인 긴 지광이를 짚은 산신은 어깨 부분과 허리 부분에 나뭇잎을 장식하였다. 특히 산신은 단군의 초상화나 산신헌화에서 흔히 보이는 위엄이 서려 있고, 점찰은 얼굴로 신단수 앞을 몸에 두르고 있어 신령스러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장군 복장에 키보다 더 큰 칼을 들고 검은 얼굴을 한 호법신장과 관복 차림에 홀을 들고 머리에 경책관을 쓴 천자 등은 민간신앙 계통의 신상들이다.

한편 신선의 선계에서나 있을 법한 천진무구한 동자들의 영특하고 귀여운 얼굴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고 불심충만하게 한다. 특히 두 동자의 얼굴을 겹쳐 그린 다정한 모습은 이 불화를 그린 스님의 심성이 동심에 깃들어 있어 조화롭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된 느낌이다.

同治 八年(1869년) 己巳 月日

水原 舞鳳山 萬儀寺

新畫成神衆幀奉安

丁本寺

緣化秩

證明比丘 印 ○堂快明

比呪 靜 ○堂信瓊

誦呪比呪 靜 ○堂智行

比丘 宋 ○

內 殿比丘 一濟 ○聰

金魚比丘 辛○

比丘 尙

鍾頭比丘 道○

都監比丘 普○

別座比丘 尙權

化主比丘 ○性 ○玄

施主秩

乾命 庚申生 裴氏
 坤命 ○○○ ○氏 兩主
 乾命 己亥生 金氏
 坤命 戊戌生 宋氏 兩主

3) 쌍계사 아미타후불탱화(阿彌陀後佛幀畵)

제작 연대는 미상이지만 쌍계사에서는 약 2백여 년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불화는 용주사 주지로 있었던 어느 스님이 화성의 어떤 절에서 이곳으로 가져 온 것이라고 한다.

아미타 신앙은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염불 독송하면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한다는 우리 나라 정토신앙의 근본 경전을 주제로 한 불교의 주된 한 신앙이다. 아미타불과 극락정토의 장엄을 설하는 무량수경(無量壽經)에서는 ①극락세계의 아름다운 모습과 삼악도(三惡道)가 없음을 설하고, ②부처님의 광명과 수명의 무량함과 그곳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없으며, ③만약 중생들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1~7일 동안 일심으로 염불하면 임종할 때에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음을 설하고 있다.

이미 신라 시대에 활발했던 아미타 신앙은 고려 시대에도 크게 성행하였고, 조선 시대 후기 새로운 불교 중흥기를 맞아 사원의 중심 신앙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하여 사찰의 무량수전(無量壽殿) · 미타전(彌陀殿) · 극락본전(極樂本殿) 등의 주존불은 반드시 아미타불을 모시는 도량이었다. 쌍계사의 주법당인 극락보전에도 목조아미타불상이 모셔져 있고 불상의 뒤편에는 아미타후불행화가 모셔져 있는데, 근간에 중건한 협소해진 현재의 법당에 비하여 아미타후불탱화가 크고 여러 차례 중창 불사를 거치는 동안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재는 새로 온 주지스님에 의하여 더는 파손될 염려가 없을 만큼 깨끗하게 표구가 되어 요사채 큰 방의 안전한 곳에 모셔져 있다. 대형 탱화를 무리하게 적은 법당에 모심으로써 불화의 하단부가 파손되어 명문이 완전 손

실되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조선 시대 후불탱화 중 뛰어난 작품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아미타후불탱화는 아미타여래가 서방정토에서 무량한 설법을 하고 있는 광경을 도설화한 아미타극락회상도(阿彌陀極樂會圖)를 말한다. 아미타극락회상도는 그림 중앙의 연화대좌 위에 가부좌한 좌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사천왕, 4보살, 십대제자와 성문중들이 엄격한 좌우 대칭 구도로 도설되어 있는데, 큼직한 키의 신광과 두광을 갖춘 아미타불의 우측에 관세음보살 · 문수보살 · 금강장보살 · 미륵보살 · 가섭존자를 포함한 5대제자, 북방천왕 · 도장애보살 · 지장보살 · 아난존자를 포함한 5대 제자, 서방천왕 · 남방천왕 등이 아미타불을 원형으로 둘러서 있다.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두광이 표현된 8대보살을 포함한 아미타 9존도 이러한 형식에 속하는 그림이다. 법문을 경청하는 자세로 중앙의 아미타불을 향하여 반쯤 몸을 돌려서 모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있다. 머리에 화불이 새겨진 백의관음보살과 연꽃을 받쳐든 대세지보살 사이에는 대체로 법을 청하는 청법 자세의 사리불존자가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결손된 부분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유난히 크게 그려진 주존불은 역삼각형의 광배, 정면을 향한 다부진 얼굴, 파도 문양처럼 보이는 검은 두발, 높은 육계에서 좌우로 흐르는 듯 피어오른 서기(瑞氣), 상단 중앙의 반쯤 보이는 연화문 등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 시대 후불탱화 중 시대적으로 앞선 전형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화면 상단 공간에 늘어진 비단의 치장과 적색 · 녹색 · 군청색의 주조색 바탕에 화사하면서도 차분한 색채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능숙하고 자연스러운 세필의 인물 묘사와 안정된 화면은 매우 뛰어난 수작의 불화임을 말해 준다.

이러한 유형의 탱화는 청주 보살사 영산회상탱화(1649년), 구례 화엄사 영산회상패불도(1653년), 하동 쌍계사의 아미타극락회상도(1687년),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장곡사 아미타극락회상도(1708년), 통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1740년)

등에서 나타나는 17세기 말이나 18세기 초에 유행하던 조선 후기 불화의 성숙기에 속하는 작품이다.

쌍계사의 아미타후불탱화는 특히 충청 이북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뛰어난문화재급 유물로서 마땅히 수정 · 보안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쌍계사 지장탱화(地藏幀畵)

이 지장탱화의 제작 연대는 1919년이고 크기는 세로 142.5cm, 가로 196.5cm인데, 현왕탱화(現王幀畵)와 더불어 원래는 명부전에 봉안되지만 소규모의 사찰에서는 큰 법당의 좌우측에 함께 모셔진다. 지장보살은 4세기경 부터 인도에서 처음 숭배되기 시작했으며,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는 인간의 사후세계를 담당하는 명부신앙의 대상으로 널리 숭배되며 왔다. 지장보살은 억압받는 자, 죽어가는 자, 나쁜 꿈에 시달리는 자 등을 구원하는 보살로서, 지옥으로 떨어져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모든 사자석 영혼을 다 구제할 때까지 자신의 임무를 쉬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구제만을 담당하는 보살이다.

쌍계사의 지장탱화는 지장보살을 가장 가운데 두고 좌우에



쌍계사 지장탱화(地藏幀畵)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그렸고, 염라대왕을 포함한 10대왕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녹사 · 판관 · 동자 등이 표현되어 있다. 즉 시왕과 판관 · 사자 · 현왕 등 명부계의 모든 탕화 내용을 한자리에 함축시킨 탕화로 볼 수 있다.

이 저장탱화의 명문에는 이추담 스님의 시주로 아미타불 1위, 관세음보살 1위, 중단탱화 1축을 그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큰 불사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大正 七年(1919년) 戊午 陰 四月

十四日 神供 五月 ○

日點眼奉安于大金山雙溪寺

蓮花所秩

證明比丘 圖兩運

持殿比丘 李○○

誦呪比丘 曹月峰

供司信女 李廣川

主持兼化比丘 李秋澤

阿彌陀佛 一位

觀世音菩薩 一位

中壇幀畫 一軸

大施主秩

京畿道 富川郡

大卑面堂前洞

居住

乾命庚申生 鉉源

坤命丙申年 李氏

坤命丙戌年 崔氏

女息壬子生 阿只

次女乙卯生 阿只

三女乙卯生 阿只

5) 쌍계사 독성탱화(獨聖幀畫)

제작 연대는 19세기로 알려져 있고 크기는 세로 99cm, 가로 53.5cm이다. 독성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고 석가모니불의 수기를 받아 남인도의 천태산(天台山)에 머무르다 말세 중생의 복덕을 위하여 출현하였다고 한다. 깊은 산속 계곡 속에 홀로 앉아 있는 괴팍스럽고 고집스런 얼굴로 표현되었지만 중생들의 간절한 기도를 잘 받아 주며, 특별히 복을 희구하는 신도들의 경배 대상이다. 춤추는 듯 서 있는 소나무 아래 보름달처럼 둥근 후광이 있고, 한 손에는 염주를 들고 한 손으로는 긴 눈뿔을 추스리고 있다. 독성탱화는 수독성탱(修獨聖幀) · 나반존자(那畔尊者)라고도 부르는데 16나한과 같은 구도법이다. 쌍계사 극락보전에 모셔진 독성탱화는 명문이 없지만 1945년 해방 전후 시기에 그려진 작품으로 약간은 탁한 채색이며 무거운 필선으로 표현되었다.

6) 쌍계사 산신탱화(山神幀畵)

제작 연대는 19세기로 추정되며 크기는 세로 99cm, 가로 53.5cm이다. 오래 전부터 전해 오던 우리 민족 고유의 토속 신앙 가운데 하나인 산신신앙은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되는 과정에서 불교에 습합되어 호법신으로 포용되었다. 특히 조선 시대에 성행하였던 불가의 도량 수호신을 담당하는 신중탱화(神衆幀畵)의 하단에 등장하는 만덕고승성개한적주산신(萬德高勝性皆閑諦寂主山神)으로 자리를 잡았다.

신중탱화 속의 산신은 17~18세기 불교가 대중화되는 새로운 혁신 ·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하여 독립된 신앙 체계를 갖추게 되자 사찰 안에 따로 산신각을 짓고 산신탱화나 산신상을 봉안하게 되었다. 근래 전국의 사찰 내에는 산신을 모시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은 민간신앙이다.

산신령의 역할은 가람의 수호는 물론 중생들의 길흉화복 · 수명장수 재복 · 자식점지 등의 소원을 잘 들어 주는 기복신앙의 표상물이다. 사찰의 산신각 · 칠성각 · 독성각 등에 산신 · 독성 · 칠성이 한 장소에 함께 모셔지는데, 모두 종래의 불교 속에 등장하는 예배대상왔는 달라 건물명에 전(殿)을



쌍계사 산신탱화(山神幀畵)

사용하지 않고 각(閣)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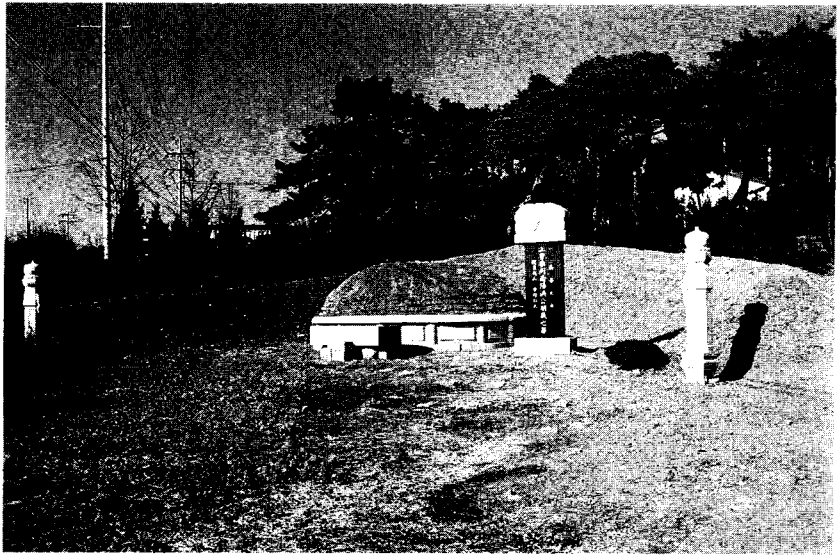
두루마리 형태인 종이 바탕에 채색으로 그려진 쌍계사의 산신탕화는 명문이 없어 제작 시기나 작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산신은 근엄하고 인자한얼굴에 눈썹까지 흰 수염이 난 백발노인으로, 머리에 청색 두건이 돌려 있고 적색 도포를 입은 채 청태 편 괴석 위에 정좌해 있는데, 한 손에는 부채를 든 자세로 불로초를 들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호랑이의 머리를 정답게 쓰다듬고 있다. 잘 길들여진 귀여운 고양이처럼 산신 곁에 웅크리고 앉은 줄무늬의 참호랑이는 유난히 큰 꼬리를 멋들어지게 휘감고 있다. 오색 구름 사이로 휘날어진 소나무 가지들이 더불어 있어 깊은 산속의 신령스런 신선을 연상케 한다. 산신의 형태는 선비형 · 도사형 · 무관형 · 불상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쌍계사의 산신도는 도사형으로 경기도 일원에서 많이 보이는 유형이다.

4. 홍명희선생 묘

1) 유래

홍명희[순조2년(1802)~고종19년(1882)]선생은 본관이 남양(南陽)으로 통정대부 공조참의를 지낸 홍호국(洪浩國)의 아들이며 가선대부(肅善大夫 : 조선시대의 관직으로 종2품 벼슬) 공조참판(工曹參判 : 조선시대 공조의 판서 다음 직위) 겸 오위도총부(조선시대 5위의 군무를 총괄하던 관청) 부총관으로 철종임금 재위시 현재 묘가 있는 대부도 신당동과 당전 일대 동남(東南) 20여리를 하사 받아 오위도총부 소속의 군마훈련 육영장으로 지정 받아 송림을 조성하고 군마를 육영하였다. 그의 아들 홍종석(洪鍾奭)은 경희궁 위장과 동지중추부사(중추부에 속한 종2품 벼슬), 예조판서를 지냈다. 손자는 오위장(五衛將 : 조선시대 오위의 위장으로 증2품 벼슬) 홍순구(洪淳球)이다

2) 구조



공조참판 홍명희선생 묘

① 표역의 구조

홍명희선생과 부인 밀양박씨의 합장묘로 봉분의 크기는 480×19Scm 이며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망주석 1쌍이 있다

② 묘갈

嘉善大夫 工曹參判 南賜洪明義 之墓라고 새겨져 있으며 비신의 크기는 85x25.5x240cm 이다.

3) 군마훈련육영장

현재 남아 있는 유적지는 2,000여평이며 이중 800여평이 묘역이다.

5. 구 대부면사무소 청사

1) 유래

구 대부면사무소 청사는 정면 5칸 측면3칸의 목조건물로 1932년 기공하여 1934년 준공된 목조건축물로 팔작지붕에 겹처마에 전통기와 양식의 건물이며 건평은 91.02㎡이다.

이 건물은 부천군 대부면사무소 웅진군 대부면사무소 등으로 쓰이다가 1982년 현 신청사가 마련된 후 대부해향관으로

3) 일제시대 기록 번역문

대부면 연혁 및 개요

이 섬은 이씨조선으로부터 수백년 전까지는 남양군의 딸린 곳으로 감목관을 설치하여 말의 사육을 주로 하던것인데 시 세에 따라 그것이 폐지되고 을유(乙酉)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1백여년전 도군(島郡)으로 분리, 우영관 겸 대부청사로 임명 되어 일반 행정을 펴 왔다.

그후 10년 후인 갑오(甲午)년에는 폐지되고 남양군에 속해 있다가 해방영절제 어문을 설립하여 군무에 종사하기로 했다.

갑진(甲辰)년에는 영흥면으로 분리되어 지금은 떨어져 있는 몇몇 섬들과 본도로서 동, 남, 북, 선감도, 풍도 등 5개리로 구분되어 1914년(大正三年) 3월 1일 부.군(府.郡)폐합 당시 남양군에서 부천군으로 편입되었다.

(1) 위 치

부천군의 남단 이르자면 인천항으로부터 약 18해리 남쪽에 위치한 도서이다.

(2) 기 후

이 섬은 연중 혹한에 영하 2.3도이고 여름철에는 최고 90의 습도를 지니며 바람은 늘 부는데 대개는 서남풍이다.

(3) 인구 및 호수

인구

4867인 (男 2,502 . 女 2,365)

호수 847호 (口人 3戶)

(4) 경지 면적 및 지질

a) 전 : 298정 1반

b) 답 : 629정 5반

- c) 대지 : 36정
- d) 임야 : 2543정

지질(地質)

밭과 임야는 빨간점토
논은 청점토

(5) 교통기관

이섬의 동쪽부터 약 3해리(海里)의 이곳인 수원군 송산면 마산포에서 작은 배를 이용하였고, 북쪽에서는 약 18해리(海里)의 인천으로 발동기선 편이 있을 뿐이다.

(6) 면사무소 건축의 이유

본면(大阜島)사무소는 1914년(大正3年) 민간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이래 약 20년을 경과했으나 건물은 허물어질 우려가 있고 협소했으며 날로 팽창하는 사무를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

1927년 (昭和年)이후 신축을 계획했으나 재정이 궁핍해서 건축비를 지변할 길이 없었는데 다행히 독지가가 나타나 신축하기에 이르렀다.

① 공사현황

본 건물의 설계를 바탕으로 상급관청의 허가를 얻어 1933년 (昭和 8年) 12월 24일 독지가 홍성균(洪性均)씨가 총공사비 4천9백78원을 회사하여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28일 기공(起工), 이듬해인 1934년 준공을 하기에 이르렀다.

② 건물구조 및 건평

- 구조는 목조 개와의 평가건(平家建)
- 사무실 : 13평 93
- 현 관 : 1평 77
- 회의실 : 10평 62
- 복 도 : 3평 63
- 숙직실 : 2평 38

욕 실 : 1평 77
사환실 : 1평 77
창 고 : 1평 77
변소, 기타 : 2평 15
계 42평 25

※대부도의 패총과 석곽묘는 대부도 선사시대 유적에서 설명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함.

제5절 대부도의 3·1 독립운동

대부면(大阜面)은 현재 안산시 대부동이다. 대부면의 김윤규(金允奎)·노병상(盧秉相)·홍원표(洪元杓) 등 3인은 1919년 3월 13일 대부면 영전리(營田里)에서 만나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결의하고 이날 밤 11시 김윤규의 집에서 포묵으로 태극기를 만들었다. 그 다음날 오전 3시경 집 밖으로 나가 독립만세를 외치니 이곳 주민들이 합세하여 권도일의 집 앞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후 위의 3인은 체포되어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루었다.

○ 김윤규·노병상·홍원표 판결

본적지 : 경기도 수원군 은덕면 신남리(隱德面 新南里)

현주소 : 동도 부천군 대부면 동리(大阜面 東里)1726번지

농업(무종교) 김윤규(金允奎), 12월 16일생 26세

본적지 : 동도 동군 동면 동리 943번지

현주소 : 위와 같은 곳

농업(무종교) 노병상(盧秉相), 11월 4일생 29세

본적지 : 동도 동군 동리 136번지

현주소 : 위와 같은 곳.

농업(무종교) 홍원표(洪元約), 9월 29일생 4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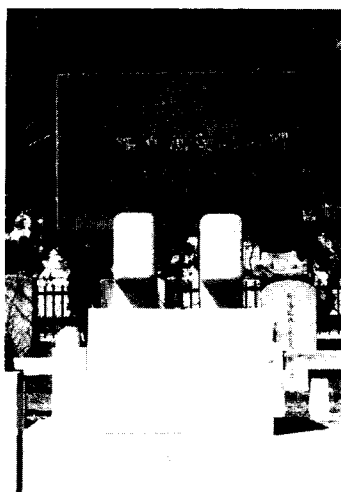
상기자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천면영록(千綿榮六)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 주문

피고 3인을 각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몰수한다.

□ 이유

피고들은 대정 8년 3월 초순 이후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시위운동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전하여 듣고 있던 차 동월 31일 매마침 피고들이 거주하는 면의 영전리(營田里) 사격장에



대부도의 3·1 운동 기념비

서 만나 함께 정치 변혁의 목적으로 피고들이 사는 동리에서도 역시 이 운동을 하기로 결의하여 이날 밤 오후 11시경 전기한 피고 김윤규 집에 모여 동 피고 소유의 포묵으로 구한 국기 1류(중 제1호)를 만들었으며, 이튿날 4월 1일 오전 3시경 같이 집 밖에 나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이 때문에 집합한 이미 10수명과 함께 그곳의 주막 권도일(權道一)집 앞에서 위의 구 한국 국기를 휘두르면서 조선독립만세를 같이 부름으로써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동을 하므로 말미암아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의 사실은

1. 당 공판정에서 피고 김윤규가 판시함과 동일한 취지로 자백한 것,
1. 검사의 피고 노병상 신문조서 중, 스스로 판시함과 동일한 취지로 공술한 것,
1. 검사의 피고 홍원표 신문조서 중, 스스로 판시함과 동일한 취지로 공술한 것,
1. 압수한 구 한국기의 현존하는 것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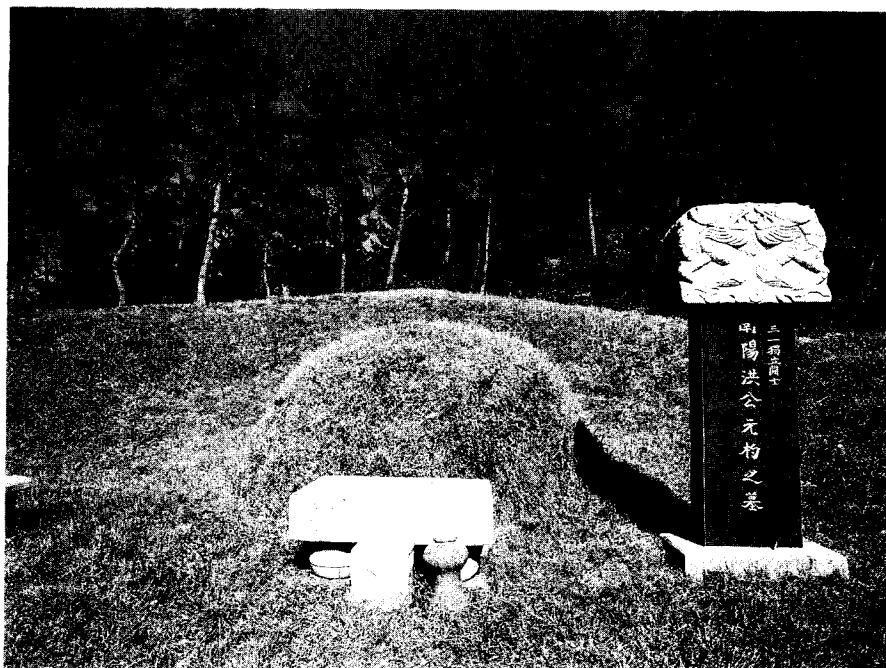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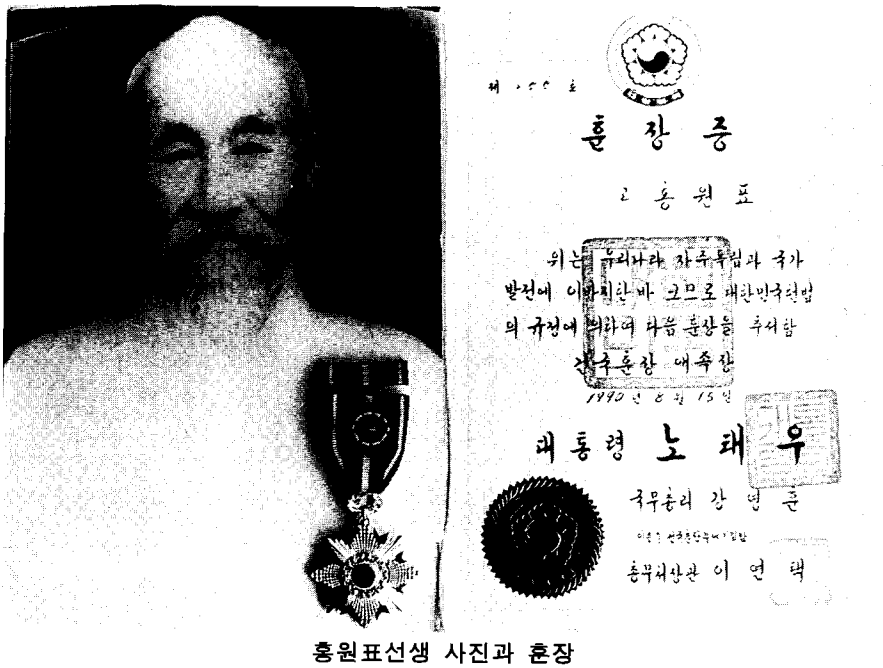
법에 비추건대 본건을 범죄 후의 법령으로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6조 제8조·제10조에 따라 신·구 양법을 비교 대조하면 신법에서는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고 구법에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구법의 형이 경하므로 위 구법의 각 법조를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 그 형기 범위 내에서 각각 처단할 것이며, 압수 물건은 범죄에 공용한 피고들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9조에 의거 몰수한 것으로 여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금천광길 (金川廣吉)

□ 비교

- ① 피고 3인은 경성복심법원에 공소 대정 8년 6월 20일 기각되고(대정 8년 형공 제466호), 고등법원에 상고 재정 8월 11일 기각됨(대정 8년 형상 제543호)



제6절 대부도의 전설과 옛노래 및 방언

1. 설화

1) 정수암

대부(大阜) 관내에 절[寺]이 세 곳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쌍계사(雙溪寺)이다.

이 절은 약 3백 년 전인 서기 1689년(숙종 15년)에 세워졌는데 이 절의 원래의 이름은 정수암(精水庵)으로 규모가 매우 작은 암자였다. 이 절을 세운 재미있는 사연이 전해진다.

옛날 어느 스님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현몽하기를 어느 우물에서 용 다섯 마리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것이었다. 잠을 깨고 보니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다. 스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가 꿈에서 본 장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났다. 큰 물 위에 산이 있고 그 산중에는 우물이 있었다.

이때 스님은 생각하기를 ‘이는 필경 부처님께서 나로 하여금 중생을 계도할 도량을 만들라는 계시야.’ 하고 그 장소를 찾아다녔다.

그는 죽장지난(竹杖之難) 이곳 저곳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육지에서는 그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스님은 배를 타고 대부도(大阜島)에 이르러 황금산(黃金山) 기슭을 헤매다가 비로소 꿈의 그 자리를 발견하였다.

그는 이곳이 부처님께서 계시하신 곳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이곳에 절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건립기금 조성에 나섰다. 그는 대부도 전역을 순회하며 공양미(供養米)를 거두고 독지가의 찬조를 얻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섬 주민들은 불도(佛道)에 뜻이 없고 빈곤한 관계로 모금하는 데 많은 고생을 하였다.

그 스님이 뜻을 세운지 수년, 드디어 그 정성에 감동해 기금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오륙 년 후 노력한 보람이 있어 작은 암자가 마련되었다.

이 절 옆에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우물이 바로 그 스님

의 꿈에 나타난 우물로 용 다섯 마리가 승천한 곳이라고 하여 용정(龍井)이라 불렀으며, 용들이 승천한 우물이 맑고 깨끗해서 정수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후 이 절 부근에 내[川]가 둘이 있다 하여 쌍계사(雙溪寺)로 개칭(改稱)되어 오늘에 이렀다고 전한다.

2) 인조와 은행나무

조선왕도 인조(仁祖) 초 갑자년 정월, 이괄(李适)이 평안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남쪽으로 내려와 서울을 에워싸니, 왕은 이 난을 피해 서울을 떠나 남양(南陽)에 이르러 배를 타고 풍도(楓島, 豊島)에 잠시 머물렀다. 그때 인조임금은 이 섬에 머문 기념으로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고 이 섬을 떠나 대부도를 향하였다.

360년 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섬에 있는 두 그루의 은행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으며, 이 섬 사람들은 이 어수거목(御樹巨木)을 존중시하여 잘 보호하고 있다.

3) 인조 임금과 대부도 처녀

‘풍도 은행나무’와 같은 시기, 같은 사건과 관계된 이야기이다. 서기 1624년(仁祖 2年), 인조반정(仁祖反正)때 큰송을 세운 무장 이괄(李适)은 논공행상시에 자기 공에 비해 낮은 2등공신의 행상(行賞)이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평안도병마절도사겸 부원수(平安道兵馬節度使兼 副元帥)로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다 급기야는 반란을 일으켰다.

이괄과 그의 부하장병들이 남하해 한양에 육박하자 인조임금은 긴급히 배를 타고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배가 일시 정박한 곳이 대부도였다.

인조 임금이 대부도에 올라 우물에서 물을 먹으려 할 때 이 섬의 어느 처녀가 물을 길고 있었다. 이때 인조 임금은 무심코 그 처녀를 보고 말하기를 “네 손이 참으로 곱기도 하구나.” 하며 그 처녀의 한 손을 쓰다듬어 준 후 이 섬을 떠났

다.

그후 이 처녀는 임금님이 만지신 손이라 하여 한 손을 천으로 감고 남이 절대로 못 만지게 하였고, 과년하도록 시집도 안 가고 수절하였다.

훗날 난리가 평정된 뒤, 이 얘기를 들은 인조 임금은 이 처녀를 도성으로 불러 들여 일생을 편히 살게 해주었다고 전한다.

4) 대부도의 학지

옛 지도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의하면 광주(廣州) 땅에 뻗어 내린 산맥은 화성(華城) 광교산(光敎山)에 이르러 두 줄기로 나누어 뻗다가 한 줄기는 서북으로 뻗어 안산(安山) 수리산(修理山)을 거쳐 소래산(蘇萊山)에 이르고, 다른 한 줄기는 서쪽으로 뻗어 화산(化山)에 이르러 세 갈래를 이룬다. 또한 화산의 한 맥(脈)이 서해로 뻗어 남양(南陽) 비봉산(飛鳳山)을 이루었고, 이 맥은 화양진(化梁津)에서 바다로 뻗어 선감도(仙甘島)를 지나 대부도에 이르러 뭉친 것이 황금산(黃金山)이다. 이 맥은 다시 해저(海底)로 뻗어 영흥도(靈興島)를 거쳐 덕적도(德積島)에 이르러 운도산(雲島山)에 이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양 화양진에서 대부도까지 해중(海中) 맥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맥이 있다고 전하는데 무너진 석맥(石脈)의 꾸불꾸불 뻗은 등마루가 조금(조수가 가장 낮은 때인 매달 음력 8일과 23일) 때에는 그 석척(石脊)이 약간 노출된다는 것이다. 옛날 이곳 사람들은 그 석맥(石脈)을 모르고 있었는데, 학(鶴)들이 조금 때면 그 맥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육지와 연결된 대부도 가는 길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길을 ‘학지(鶴指)’라 부르게 된 것이다. 학지란 ‘학이 길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다. 옛날 어느 사람이 위급할 때 학지를 따라 육지로 도망해 위기를 모면하였다고 전한다.

대부도는 연륙매입공사(連陸埋立工事)로 육지화 되었는데 이 학지를 따라 막았다고 한다.

5) 왕주물

안산시 대부동 종현 마을에는 우물이 세 개가 있었다. 현재는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셋이 있어 이곳에서 아낙네들은 물을 길고 빨래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우물이 바로 왕주물이다.

조선왕조 시절, 어느 왕이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물을 마시고 싶어했다.

수행하던 신하들이 좋은 물을 찾아 해매자 김씨 할머니가 큰 우물의 물을 권했다.

신하가 그 물을 떠서 진상하자 왕은 “참으로 맛이 있구나.” 하고 칭찬을 하였다. 왕은 덧붙여 “아직까지 이렇게 시원한 물을 마셔 보기는 처음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때부터 그 큰 우물을 임금 ‘왕(王)’자에 주인 ‘주(主)’자를 곁들여 ‘왕주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왕주물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말이 이 마을에 널리 퍼졌다.

무서운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임이 틀림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무당들은 불러 굿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 흉터가 되고 말았다.

그후 왕주물 근처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었고, 그 근처에는 상여독을 짓게 되었다. 상여독이란 죽은 사람을 실어다 묻고 되가져 와 보관하는 곳으로, 한낮에 지나가도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보니 더욱 귀신 출몰 소문이 무성하게 되었다.

마을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왕주물에서 노는 것을 막았을 뿐더러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타이르기까지 하였다.

지금은 우물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귀신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리기도 한다.

■ 대부동, 김동렬, 69세, 1996.

6) 홍정희 선생의 효자문

대부동 큰마을에는 홍정희 선생의 효자문(孝子門)이 있다. 그 내력을 살펴보면 조선왕조 후기인 18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마을은 “흘곳”이라 불려 왔는데 옛날에는 문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풍어의 기쁨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홍정희 선생은 남양 홍씨로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왔는데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과 우애가 깊었다. 홍정희 선생은 특히 효성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었다. 홍정희 선생은 부친이 별세하자 초상을 잘 치렀을 뿐더러 무덤 옆에 몇 집을 짓고 3년 동안 거처하였는데, 육식은 피하고 소찬으로 일관했으며 집으로 내려오는 일 없이 묘소를 지켰다. 이러한 그의 효행이 마침내 조정에 까지 알려져 고종30년(1893년) 6월 효자정문을 하사 받게 되었다고 한다.

효자정문은 팔각지붕에 기와를 올린 흘처마 건물인데, 개수되어 현재는 형태만 전한다. 규모는 정면 3.20m, 측면 1.35m이며, 벽은 시멘트 구조이다.

지금도 후손들이 기거하며 홍정희 선생의 효성을 이어 받고 있다

[대부동 김동렬69세, 1996]

7) 탄도의 삼형제바위

옛날 탄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아들 삼형제를 두고 살고 있었다.

어느날 부부는 삼형제를 집에 두고 갯벌로 일을 나갔다. 낙지, 조개 등을 잡느라 시간가는줄 모르고 갯일을 하는데 갑자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해무(海霧)가 끼기 시작하여 부부는 갯벌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짐작되는 방향으로 아무리 걸어도 육지는 나오지 않았고 갯벌에서 계속 해매는 동안 바닷물이 들어와 부부는 결국 죽어 두 개의 바위로 변하였다.

한편 집에서 부모를 기다리던 삼형제는 부모가 돌아오지 않자 산으로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부모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기다림에 지친 삼형제도 그곳에서 죽어 바위로 변하였다.

지금도 탄도에는 삼형제 바위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며, 바다에는 부부 바위가 삼형제 바위를 애절하게 바라보고 서 있다.

[선감동, 장일수, 56세, 1997]

8) 발고랑 전설

불도와 탄도 사이에는 방조제를 막기 전에는 바닷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갯벌에 마치 발고랑처럼 생긴 열두 개의 갯고랑이 있었는데(방조제를 막은 후에는 네 개 정도만 보인다) 이를 발고랑이라고 불렀다.

이 고랑은 옛날 불도에 살던 마귀할멈이 갯벌에 앉아 뒤를 보다가 미끄러져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이때 일어나려고 힘을 쓰며 손가락으로 긁은 자리라고 한다. 또한 선감도에 있는 선돌을 마귀할멈이 누운 똥자루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선감동, 홍기선, 56세, 1997]

9) 황금산의 나무귀신

황금산은 안산시 대부동에서 제일 큰 산으로 이 산에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무귀신 이야기를 여기서 소개한다.

아주 먼 옛날 이곳에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부인을 매우 사랑하였고 부인은 남편을 하늘같이 공경하였다.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슬하에 세 살박이 남자 아이까지 두고 단란하게 살았다.

어느날 남편은 나무를 하러 황금산에 올라갔다. 숲이 우거져 무시무시한 생각도 들고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무사히 나무를 한 짐 잘 해 가지고 내려가려 할 때, 뒤에서 무엇이 잡아당기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있는 힘을 다 해 지탱하려 했으나 역부족으로 쓰러져 버렸다. 소낙비가 앞을 가리도록 내리고 의식이 차차 몽롱해져 마침내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후 마을 사람이 그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왔으나 그는 정신을 못 차리고 신음하였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 보았지만 특별한 징후가 없었다.

며칠 후 그는 겨우 몸을 털고 일어나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 황금산에 올라가 그 나무를 베어 버려.”

“무슨 나무요?”

“혼바위 옆에 있는 상나무(향나무) 말야.”

부인은 그제서야 남편이 상나무귀신에 홀려 고생했음을 알았다.

본디 귀신이란 옛날에는 도처에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귀신은 피해를 입는 사람은 몸이 허약하고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남편 또한 몸이 허약할뿐더러 돌림병을 앓고 난 뒤라 염려가 되던 터였다. 결국 남편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 남편은 줄지에 잃은 아내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뜻하지 않게 청산과부가 된 그녀는 황액에 죽은 남편을 위해 없는 살림에 살풀이곳을 하였다. 만신은 열편 굿판을 벌이다가 기절하는 척 하더니 독백조로 다음과 같이 쏟아 놓았다.

“나무 탓이야. 상나무귀신 탓이야!”

상나무는 신성시해 오던 나무였다. 영험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상나무 가지를 꺾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었다. 아무튼 무당이 지적하는 것이 상나무여서 아내의 마음이 흔들렸다.

“황금산 귀신이 놀라 당신 서방이 죽게 된 거야. 우선 귀신을 달래야 해.”

무당은 남편의 영혼이 안정을 못 찾아 헤매고 있으니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남편을 잃은 그녀는 당장에 살길이 막막하였다. 농사도 별로 없어 품을 팔아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형편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김씨 집 밭을 매고 돌아와 곤한 잠에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 남편이 나타나 묻는 것이었다.

“여보, 황금산 상나무 베어 버렸어?”

그녀는 대답 대신 벌떡 일어났다. 깊은 밤이었다. 그녀는 세 살짜리 아들을 업고 낫을 들고 황금상으로 올라갔다. 산길은

스산한 바람이 불고 험했다. 언젠간 본 적이 있는 상나무를 간신히 찾아내 낮으로 힘껏 후려쳤다.

그때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산을 달려 내려왔다.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죽은 남편의 한을 풀어주었다는 기쁨이 무서움조차 아게 하였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띠를 풀고 등의 어린애를 내려놓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게 웬일인가! 어린애의 목이 없어진 것이다.

그녀는 비로서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쳤다. 신성시하던 상나무를 잘라 남편의 소원을 풀어 주다가 결국 자식의 목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후 그녀는 그 마을을 떠나 어디론가 재가해 갔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 소식을 아는 이가 없었다. 이 나무귀신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널리 알려져 왔다.

[대부동, 김동렬, 69세, 1997]

10) 풍도의 왕신(王神)독감이

옛날부터 풍도에는 사업 번창을 돕는 신으로 왕신이 있었는데,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의 존재는 막강하였다.

그런데 이 신은 장난이 매우 심하였다. 달 밝은 밤이면 마을에 나타나 서당 문에 그림자를 지게 하는 등 장난을 치다가 서당 훈장이 호통을 치면 사라지기도 하였고, 외딴집 부엌에 들어가 숯뚜껑을 솥 안에 집어넣는 묘기도 부렸다. 뿐만 아니라 힘에 부치는 큰 나무들을 이집 저집으로 옮겨 놓기가 일쑤였고, 배에서 쏘 큰 참나무를 뽑아다 주는 신통력도 부렸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이집 저집을 전전하면서 심술을 부렸고, 제사를 지내는 집엔 꼭 나타나 제사음식까지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을 왕신(王神)이라고 불렀다 한다.

섬 사람들은 흔히 무속을 숭상하는 예가 많았다. 고사를 지내고 굿을 하는가 하면 경 읽기도 자주 하였다. 특히 중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경쟁이를 불러 며칠씩 주야로 독경을 하며 천신(天神)·지신(地神)·오방제신 등을 불러 채유를 빌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대를 잡고 신장을 내려 막신(병나게 한 신)을 찾아내 결박해 단지에 가두고 백지로 봉하여 땅을 묻기도 하였다.

그러나 왕신 독잡이는 당할 수가 없었다. 제 마음대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짓궂은 일을 서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어떤 때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물로 장만한 고기를 어린애가 먼저 맛보았다고 하여 그 어린애를 물속으로 던지기도 하였다 한다.

그러나 독잡이는 좋은 일도 많이 하였다. 고기잡이를 하다가 배 바닥에 구멍이 생겨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독잡이가 쥐를 잡아다 물 구멍을 막아 주어 변을 면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말하자면 독잡이는 풍도 사람들과 애환을 같이하는 신이었던 것이다.

[풍도, 고상호, 60세, 1997]

11) 선감도 나룻배 사공

선감도 북단과 마주하고 있는 대부도의 갯골은 물살이 세고 간만의 차가 심해서 나룻배를 이용해야 했다.

옛날부터 나룻배 사공이 많았지만 이 이야기는 박신태 뱃가공 이야기로부터 비롯된다. 박신태 사공은 그날그날 대부도와 선감도에서 잡은 어물이라든가 곡물 등을 실어나 주며 비교적 넉넉하게 살았다.

나룻배 샅으로 현물을 많이 받던 때라 집의 찬거리도 넉넉했고, 특히 그는 술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쉬는 때에는 거나하게 취하기 일쑤였다. 맛을 잡은 아낙네는 맛을 주고, 굴을 따는 아주머니는 생굴을 나룻배 샅으로 주었는데 절반은 절이고도 남아 술 안주로 족했다.

박 사공은 물살이 셀 때는 노젓기가 힘들어 고생을 많이 했으나 위낙 몸이 튼튼해 이를 잘 견디었고 곧잘 흥겹게 노

래를 부렸다. 그러나 그는 가진 것 없는 노총각 사공이었고, 또 돌림병인 마마(천연두)로 얼굴이 엷었으며 왼손잡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곰보사공이라 불렀다.

곰보사공은 고향이 영흥도라고 했다. 그곳에서 소년 시절에 부모를 여의고 대부도로 옮겨와 방아머리에서 낄품을 팔았다고 한다. 그러나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의지할 곳이 없어 선감도로 옮겨와 초가집을 짓고 정착했다고 한다.

대부도 사람들은 육지로 드나들 때마다 곰보사공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섬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곰보사공은 사시사철 나룻배를 저어 생활하였는데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사리 때는 힘이 더 들었다. 또한 겨울이면 왕래하는 사람들 이 거의 없어 초가집에서 술이나 마시면서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는 노래를 구성지게 잘 불렀는데 특히 그가 즐겨 부르는 노래는 뱃노래와 청춘가 노랫가락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날 곱게길러서
요런 고생을 왜시키시나요.”
“날 데려가세요 날 데려가거라
정든 내사랑아 날 데려가세요.”
“사람마다 벼슬하면은 어부될 사람 어디 있고
의사마다 병 고친다면 북망산천이 왜 생겼나.”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었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 만족할까.”

이러한 노랫말을 곰보사공의 철학이요 인생관이었다. 원망과 한탄, 그러나 현실에 만족하는 생활관은 몸소 겪어온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었다.

일본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다. 섬에까지 일제의 압력이 밀고 들어오는 1940년대 초, 일제는 한국 사람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했다. 창씨개명이란 예컨대 박(朴)씨는 ‘기무라’,

이(李)씨는 ‘구니모도’라고 부르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조치였다.

그 당시 대부면장은 김완수 씨였는데, 이 같은 행정조치를 윤기은이란 사람에게 주지시키는 것을 곰보사공은 덤덤하게 듣고만 있었다.

그들은 곰보영감 집에서 술을 거나하게 마셔 감정이 솟구칠 대로 솟구쳐 있었다. 그런데 윤기은이 박신태 사공에게 물었다.

“자네, 창씨개명을 하면 좋겠나?”

“창씨개명이 무엇이유?”

“자네 이름과 성을 일본놈 식으로 고친다는 것일세.”

박신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아무려면 어때유. 밥 많이 먹고 술만 있으면 족하지요.”

윤기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에이, 이 개만도 못한놈!”

“내가 개라구요? 천만에, 천만에 말씀을.....”

윤기은은 선감도 도수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민족심이 강했다. 항일운동으로 고생한 선친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보다도 자신의 인생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청년이었다. 그러니까 무식하고 가정이 없는 박신태와는 대조적이었다.

윤기은 도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신태, 자네 술 취했나?”

“아뇨, 저 멀쩡해요.”

“멀쩡한 사람이 일본놈도 좋고 창씨개명도 괜찮단 말인가?”

“사람은 다 매한가지라구요. 고생뿐인 인생인데 잘살기만 하면.....”

윤 도수는 벌떡 일어나 박신태의 뺨을 내리쳤다. 이는 김완수 면장을 때려 주고 싶은 충동이 엉뚱한 곳으로 분출된 것이었다.

박신태도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 윤 도수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김완수 면장이 둘 사이에 끼어들어 싸움은 일단

수그러졌다.

사실 박신태는 세상일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풍족하게 먹고 살기를 바랄뿐 창씨개명에 따른 민족적 수치심이라든가 우국 충정은 생각조차 못했다. 그만큼 박신태의 생활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김완수 면장이 적당히 얼버무려 사태는 수습되었으나 윤기은 도수로부터 뺨을 맞은 박신태는 언젠가는 앙갚음을 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이었다. 그날따라 매우 바람이 세었고 물때가 나뻐으나 윤기은 도수가 나룻배를 불렀다. 윤 도수는 대부면장 김완수의 부름을 받고 가는길이었다.

술에 취한 박신태는 배 손님이 유독 한 사람뿐이라 잠시 지체하였다. 그때 윤 도수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빨리 좀 가야겠네!”

박신태는 아무 대꾸도 않고 뒤를 보러 갔다.

“저 놈이 사람을 때려. 나두 어엿한 젊은이인데.....”

그는 윤기은에 대한 묵은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그러나 뒤를 보고 오면서 생각해보니 나라 일을 모르고 일본놈이 돼도 좋다는 자신의 말이 망발임을 깨닫게 되었다.

박신태는 천천히 나룻배를 저어 나갔다.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 힘껏

저어 가던 노가 빠지면서 배가 딴 곳으로 흘렀다. 박신태는 술이 과했고, 배 또한 견잡을 수가 없게 되자 윤도수는 당황하여 두루마기를 벗고 덤벼들었다. 그런데 배는 여전히 다른 곳으로 쏠살같이 흘러갔다.

박신태가 소리쳤다.

“윤 도수 양반 저리 비켜요! 내가 누군데요. 이래봬도 십여년 이것을 했다구요!” “신태 이 사람, 정신차려!”

윤 도수는 겁에 질린 모습으로 노를 바로잡아 주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이 많으면 별 탈 없이 닻을 내리거나 힘을 모아 견딜 수가 있다. 그러나 단 둘 뿐이고 당황한 닻으로 한참만에야 물에 eof 수가 있었다. 겨울 철이지만 박신태도 윤도수도 땀에 젖었다.

“신태, 오늘은 술이 과했어.”

“그래요. 술, 술 때문이에요.....”

“이 사람아, 술도 음식이니 알아서 해.”

“네, 알았어유. 어서 다녀오세유.”

박신태는 윤도수의 창씨개명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었으나 순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 뒤를 흐렸다.

그때 윤기은 도수가 말을 이었다.

“여보개 신태, 자네 창씨 성은 기무랄세.”

“뭐요, 기무라요? 그게 무슨 날벼락이유!”

“아니 이 사람, 일본놈도 좋고 창씨개명도 좋다질 않았나?”

“저 그때 술이 그랬어요. 그리고 김면장 풀 좀 보자고 그랬던 거예요. 저도 비록 사공이지만 조상도 있고 나라도 있어유?”

윤도수는 가슴이 벅차 올랐다.

‘역시 박신태가 면장보단 낫구나.’

그는 면사무소로 향하면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박신태는 술에 흠뻑 취하였다.

박신태는 그후 장가도 들고 자식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현재는 선감도의 나룻배는 없어지고 제방이 쌓여 육로로 변했다.

[대부동, 김동렬, 69세, 1997]

12) 까치섬

대부도 까치섬은 소나무를 비롯해 참나무, 아카시아나무, 찔레나무 등이 무성한 섬이었다. 특히 찔레꽃이 만발하는 유월에는 벌과 나비가 넘쳐나는 경관 통은 섬이었다. 또한 까치밥이라고 말하는 열매가 많아 까치들이 몰려 살았다는 추측도 가능한데, 이 까치밥이란 찔레꽃의 열매를 말한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의 일이었다. 농사에 지친 어떤 농부가 논일을 하다 지쳐 소나무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런데 숲에 내려온 큰 구렁이가 그 농부를 휘감아 숲속으로 끌고 갔다. 농부는 지친 몸에 정신이 몽롱해져 의식을 잃었다.

그런데 그 섬에 모여 살던 까치들이 이 모든 상황을 낱알이 지켜보고는 기진한 농부를 깨우고 머루, 다래 등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 결국 농부는 기운을 차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구사일생으로 되살아난 농부에게 있어서 까치소리는 구원의 소리였다. 옛날 사람들은 물론 오늘날 사람도 까치소리가 아침에 들리면 반가운 손님이나 기쁜 소식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까치섬 농부의 경우는 이에 대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부는 그후 틈만 나면 까치섬으로 건너가 까치에게 은혜를 갚았다. 추수한 곡식도 갖다 주었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들을 거두지 않고 까치들의 먹이로 남겨 두었다. 그리하여 점차 이웃 마을, 이웃 섬의 까치들까지 이 섬으로 모여들어 이 섬은 이름 그대로 까치섬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많던 까치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소나무, 참나무 등 나무들을 마구 베어 버렸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여기저기 쓰레기가 나뒹굴어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까치밥을 만드는 쫄레꽃 덩굴만은 그 옛날을 말해주듯 푸르게 자라고 있다.

[대부동, 김동렬, 69세, 1997]

13) 독주굴 부자

옛날 독주굴에 대부도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마을에 흉년이 들어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인데 그 집만은 양식이 풍족하였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마을사람들이 부잣집으로 먹을 것을 얻으려 매일 몰려들었으며 먼 곳 가까운 곳을 가리지 않고 매일 같이 먹을 것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아무리 부잣집이라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라 부잣집 며느리의 마음 고생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어느날 한 스님이 시주를 하러 왔는데 며느리가 스님에게 하소연 하며 어

똥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 수 있는냐고 물었다. 스님은 집 주위로 작은 성을 쌓고 날이 어두워지면 빗자루질을 대문밖 쪽을 향해서 하라고 일러주었다.

며느리는 매일 날이 저물면 대문밖 쪽으로 비질을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다.

옛 어른들이 날이 저물면 비질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다고 해서 금기시 하는 것으로 여기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독주골에는 옛날 부자집이 있었던 집터와 주춧돌이 남아 있으며 성돌은 전담의 축대를 만드는데 활용되었다고 한다.

이정태(대부도 향리지 편찬위원장)

2. 옛노래

1) 모심기소리(영전동, 동5리)

여기두 하나를 심었구나
 예두 하나를 심었구나
 여기 저허기 심구보니
 양식자리가 분명허다
 (소리 김철룡)

2) 논매는 소리(영전동, 동5리)

- 메김소리
 천지 지간 만물중에
 민지 대본 농사로다
- 받음소리
 A.에에 위위응호
 B. 아아아아 응호

※ 두패로 나누어서 받으며 A패는 예로 받고 B패는 아로 받는다.

(소리 김철룡)

3) 닻줄꼬기 호롱통 감을 때(풍도)

◦ 받음소리

에에라 술레야 에리야 술레야

◦ 외침소리

- 천천히 돌리지요 -

이 닻줄 꼬아가지고

어디메로 갈 것이야

◦ 매김소리

빙빙빙 돌려라 힘이 들어 못돌것네

연평칠산 다듬어두 꼬덕없이 건디겠네

에 에라 술레야 슬슬돌리소

〈말하듯〉 - 잘 돌리요 - ~슬슬~

※ 세 사람씩 호롱통을 감고 닻줄 고는데 노인네가 가서 소리 주기도 한다

(소리 서인석)

4) 굴 딸 때 하는소리(풍도, 청춘가곡풍)

- | | |
|--------------|------------|
| ① 언제나 널까 | 언제나 널까 |
| 요놈의 굴딱지 | 언제나 널까 |
| ② 우리 어머니히느으은 | 뿔허게 날 봐서허 |
| 해골청산에 예 | 굴딱지를 뜯게 허나 |
| ③ 무정한 세월아 | 오고가지를 말어라 |
| 아까운 내청춘 | 세월없이 다 갔네 |
| ④ 세월이 가기는 | 흐르는 물걸고 |
| 인상이 늙기는 에에에 | 바람결 갈구나 |
| ⑤ 청침에 거니던 | 청주병을 들구요 |

- | | |
|--------------|----------------|
| 오동나무 밑창으로 | 임 찾아 가누나 |
| ⑥ 천길 만길이 | 뚝 떨어져 살아두 |
| 정든 님 떨어지구는 | 못 살어 주겼구나 |
| ⑦ 세월이 갈라면 | 혼저나 가지요호 |
| 아까운 내 통툰을 | 왜 더리고 가느냐 |
| ⑧ 북망산천아 | 말 물어 보잔다 |
| 상사로 간 무덤 | 몇이나 되느냐 |
| ⑨ 울지 마러라 | 너 울지나 마라 |
| 감감은 거문 밤이 | 종고나 동틀 때나 있으리라 |
| ⑩ 남산 공산으흥 | 불공을 맡구요호 |
| 내 집이 온 손님 | 팔세를 말어라 |
| ⑪ 바람이 불려서 | 갈대와 같구요 |
| 믿을 수나 없는 건 | 여자의 마음이라 |
| ⑫ 이 불통 저 불통 | 저 남산 보아라 |
| 우리도 죽어지면 에이 | 저 모냥 저 풀 된다 |
| ⑬ 간다 못 간다하 | 얼마나 울어서 |
| 정거정 마당에 예히 | 한강수가 되었네 |
| ⑭ 부정 방초는 | 년년이 오건마한 |
| 한 번 간 인생은 예헤 | 왜 다시 못 오나 |
| ⑮ 못살겠네요 | 나 못살겠네요 |
| 이놈의 시상(세상)을 | 못 살어 주겠네 |
| (소리 고재분) | |

5) 배올로네(풍도)

- | | |
|----------|--------|
| ① 배 올라오네 | 배 올라오네 |
| 뱅이 뱅이 | 열두뱅이 |
| 그니 그니 | 쌍이그니 |
| 오라오는 | 저네 배는 |
| 북배판복 | 상을 두고 |
| 실룩샐룩 | 당겨 온다 |
| ② 금처드네 | 금처드네 |
| 마이배뿌리 | 금처드네 |

| | |
|------------|---------|
| 지치바레 | 동저고리 |
| 파랑돌떠 | 눌러떠고 |
| 오래비 허릿대 밑에 | 알진알진 |
| ③ 네가 잘나서 | 일색이나 |
| 넌들 으려서 | 일색이나 |
| 풍도라 생길라면 | 석 시나 있구 |
| 난지라 생길라면 | 석시나 없지 |
| 삼사월에 | 오는 배가 |
| 난지로 | 쫓겨가네 |

(소리 최응금)

6) 반디노래

풍도의 어린이들이 반디를 잡으며 부르던 소리이다. 반디를 여러 마리 잡아서 호박꽃 안에 넣으면 환하다. 반디를 부르기 위해 “①반디야 쪽쪽, ② 거기물은 흐리고, ③ 여기 물은 맑다” 하면서 유도한다.

(소리 오재희)

7) 실강달강

◦ 풍도 고재분 씨 창 ‘실강달강’

| | |
|---------|----------|
| 실강 | 달강 |
| 서울 질이 | 갔더니 |
| 밤 한 되를 | 얻어다가 |
| 사랑 밑에다 | 넣었더니 |
| 머리 감은 | 새옹쥐가 |
| 들며 날며 | 다 까먹고 |
| 하난가 둘인가 | 남은 거 |
| 가메술이다 | 삶아서 |
| 장도칼로 | 으쓱비썩 깎아서 |
| 너허구 나하구 | 먹자 |

(소리 고재분)

◦ 풍도 오재회 씨 창 ‘실강달강’(아기 어르는 소리)

| | |
|---------|-------|
| 실 강 | 달 강 |
| 고모네 집에 | 갔더니 |
| 오리송편 | 해 놓고 |
| 오물쭈물 | 먹더라 |
| 내 생일 때 | 오면 봐라 |
| 팔고물 새끼나 | 주나 보라 |

(소리 오재회)

8) 남생이

풍도에서는 두레(농약, 풍물)놀 적에 춤추는 남생이(두거비처럼 생긴 동물) 모양의 잡색을 보고 부녀자들끼리 놀리는 소리가 있다.

◦ 풍도 고재분 씨 ‘남생이’

| | |
|-------------|-------------|
| 남생아 남생아 | 도깨비는 춤 잘 추구 |
| 남생이는 춤 못 친다 | 덜경덜경 절두 추구 |
| 네 선생이 누구냐 | 날 보덤 잘 춘다 |

(소리 고재분)

9) 방구타령

◦ 풍도 고재분 씨 ‘방구타령’

시아버지는 방구는 호령 방구
 시어머니는 방구는 잔소리 방구
 시할머니는 방구는 찢어진 방구
 시누년 방구는 이간질 방구
 시동생 방구는 도둑 방구
 대통령 방구는 통일 방구
 서방님 방구는 단 방구

(소리 고재분)

10) 고사덕담(대부 종현동)

월하금일 하바시에 해동조선을 마련할제
 경기하고도 삼십육관 한양터 생겨있고
 이씨한양 등극시에 봉황이 년짓 생겼구나
 확을 눌러라 대궐짓고 대궐앞에 육조로다
 오향문 삼각산에 각도각읍 마련할제
 충청도 오십삼관 공주계명을 마련하고
 전라도 오십사관 전주계명을 마련할제
 광해는 일품이요 광주는 이품이요
 수원은 삼품이고 대부도는 특품이라
 이대 면대를 들러올제 한양을 뚝떠나서
 뽕태고개를 훌훌 넘어 들팔들을 건너서
 마산포를 성큼건너 대부를 당도하니
 이대면대는 대면대요 이대동정은 대동정이라
 건명천 보시택에 당도하니 그들아니 좋을소냐
 태산낙맥이 뚝떨어져서 집터 하나가 생겼구나
 자형을 놓아보자 무슨자형을 놓았느냐
 좌자형을 놓았으니 아서라 그좌형 못쓰겠다
 좌천에 용두백고 거북이 등을 눌러서 집터를 닦을적에
 아래동네 선머슴네 윗동네 선머슴네 막걸리를 잔뜩먹고
 고추상투를 흔들면서 어이허리 지경이야
 북방에 닳갈지경 청학 한쌍을 문었으니
 하계머리를 다칠소냐 가만가만이 다터꾸게
 어허리 지경이야 동방에 닳갈지경
 백학 한쌍을 문었으니 하계머리를 다칠소냐
 가만가만이 닳더꾸게 어이허리지경이야
 서발에 닳갈지경 풍학한쌍을 문었으니 하계머리를 다칠소냐
 가만가만히 닳꾸게 어이허리지경이야
 남중방을 다닫어 놓고 주추를 놓아보세
 밀화주추 급폐주추 둥굴둥굴이 호박주추를
 여기저기 놓았으니 그들아니 즐거울소냐
 그런그리도 하려니와 제목을 내어보세

소산에 올라 소목을 내고 대산에 올라 대목을 내며
 쫓지 없는 땡강소며 부랄없는 내시소며
 육걱뿔이나 작걱뿔이나 왜걱지걱 실어다가
 와가로다 집을질체 무슨지우가 들었느냐
 이급최안정박이 육성가지가 들었구나
 굽은나무는 잣다듬고 자즌나무는 굽다듬어
 와가로다 집을 지을제 안방은 삼칸이요
 건넌방은 이칸이고 대청은 육칸이요
 골방도 두칸이다 열두칸에 주행랑을
 이구자로 지여놓고 대문 한간을 드러다보니
 시시계문은 만복래요 이일선자 황금출이라
 영영히 그려잇고 안방치장을 불작시면
 치여다 보아라 소라반자 내려다 보니 감자장판
 백노지 도배지에 황노지 굽지에다 자괴황농
 반다지에 작이로다 거드레장이나 셋별같은 늦요강이
 여기저기 놓였으니 그들아니 좋을소나
 그런그리도 하려니와
 살풀이가 세다하니 살풀이를 풀어를 보세
 산으로 오너라 산신살이나 들로 내려라 들요살
 지붕에는 용두살 대문안에 수문살
 대청에는 성주살 안방건너 제적살
 형제지간에 우위살 내외지간에 곱방살
 아궁이에는 용요각시 굴뚝에 굴대장군
 살랑밧창 땡그렁각시 그들아니 좋을시고
 일년은 열두달 과녁은 열석달 하루하고도 스물네시
 정월이라 드는 액은 이월한식 막아내고
 이월이라 드는 액은 삼월삼짇로 막아내고
 삼월이라 드는 액은 사월초파일로 막아내고
 사월이라 드는 액은 오월단오로 막아내고
 오월이라 드는 액은 유월유두로 막아내고
 유월이라드는 액은 칠월칠석 막아내고
 칠월이라 드는 액은 팔월 한가위로 막아내고
 팔월이라 드는 액은 구월구일 막아내고

구월이라 드는 액은 시월상달 막아내고
 시월이라 드는 액은 동지팔죽 막아내고
 동짓달이라 드는 액은 선달이라 그믐날
 방맞이 맞은 북어대加里 덜미질끈
 묶어다가 의주월강에 소멸하니 그들아니 좋을소냐
 그런그리도 하려니와 자손을 두어보세
 아들일랑 삼형제 딸일랑은 형제로다
 명이랑은 삼천갑자 동방석이 명을주고
 북일랑은 석순때 북을주어 짧은 명을 길게 입고
 긴명은 서려다가 이택에 아들 따님전 진봉하니
 그들아니 좋을소냐 그러기도 하려니와
 공부를 하여보세 무슨공부 하였느냐
 천자 유학동문선습 논어맹자 시전서전
 백가지를 무불통치 하였구나 시절이 태평하야
 알선과거를 본단 말을 바람결에 넋짓들고
 마부불러 분부하되 마송이 명을듣고서
 산낙귀 끌어내려 술질썰썰 다한 후에
 가진 안장을 짚는다 소양삼공에 산호평
 호피도포 맵시난다 천홍사 좋은 들레
 상모 물려 덤복달어 앞뒤저쳐 놀리매고
 바람같이 가는말에 구름같이 올라앉아
 한양성 득달하니 팔도선비 구름메듯
 웅개종개 모였구나 시지한장을 들켜주고
 글귀나기를 기다진다 현제판 바라다보니
 과거열흘에 동요할이라 하여거는 용현에 먹을 갈아
 청황보 모시필을 반중등 흙신풀러 일필에 의지하야
 일선에 선장하니 삼지관이 바라다 보고
 어하 그 글 잘지었다 자작귀 관수로다
 한림학사를 제수하야 본택으로 내려올제
 앞에는 아이광대 뒤에는 어른광대
 좌우에 늘어서서 옥저소리 더욱 좋다
 그런 그리도 하려니와 본택으로 당도하니
 앞마당에 선진잡고 뒷마당에 후진잡아

선진 후진을 가릴적에 헌책력 껌혀놓고
 새책력 내어놓고 상기복력 가릴적에
 일생이기는 이중천 삼화출중 사중하니
 오황하고 육중하니 칠하적명은 팔중기
 종구 좋은날 가려다가 대화중 부인마마
 버선발로 뛰어나와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을씨구
 산수수학은 네아니냐 일개인중 영화로다
 구사당을 열어놓고 백배치성을 다한 후에
 갖은 보물을 다 받는다 산호 진주 호박이며
 금은보화를 받았으니 그들아니 좋을소냐
 갖은 채단을 다 받는다 그런그리도 하려니와
 농사를 지여보세 앞노적에 뒷노적
 명제노적하였으니 그를 아니 좋을소냐
 짐승을 먹여보세 말을 먹이면 용마되고
 소를 먹이면 우영이되고 개를 먹이면 마당 녀울이 복술개
 안팎으로 드나들며 어경경경 짓는 소리에
 만사 복록이 아아-헤에 ----- 아-- 미-

김복동(김선용) (1936. 11. 12. 대부북동1756-1)

11) 행상소리(탄도)

◦ 메김소리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저승길로 나는간다.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이로구나
 어하 청춘 소년들아 백발노인 보고 웃지마라
 엇그제가 청춘이더니 오늘날에 백발일세
 활대같이 곧던 허리가 질마가지가 웬말이고
 샛별처럼 밝던 눈이 어두컴컴 웬말이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울지마라
 명년삼월 돌아오면 꽃은 다시 피련만은
 인생한번 죽어지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다시 올 길 생각하니 한심하고 처량하다
 아침나절에 성탄몸이 저녁나절에 병이들어

부르너니 어머니요 달래너니 냉수로다
침침산은 옛산인데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장창 흐르는 물이 옛물 어이 있을소냐

◦ 받음소리
어어여 어어여 어이

12) 회댓이(달공)소리(탄도)

◦ 매김소리
이 산 저 산 다 찾아봐도 이 자리가 내명당이로구나
앞깎이고 뒤깎쳐서 잘 다져주세
먼데 사람 듣기 좋고 가까운데 사람 보기 좋게
콕콕 밟아 잘 다집시다 달공 달공 잘 다졌네

◦ 받는소리
어이허리 달공

장일수(1941. 1. 10 선감동 24)

[1~9 안산시사(문화재관리청 이소라)에서 발췌]

[이정태(대부도향리지 편찬위원장)]

3. 대부도의 방언

대부도는 지난날의 행정구역이 웅진군 대부면이었으므로 1971년에 채집된 대부도 방언, 즉 웅진군의 남쪽인 대부도 방언은 안산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는 북쪽인 덕적면 방언과 유사점이 많음을 유추할 수가 있다. 예컨대 '가을'은 '가불', '가락지'는 '까락지', '값'은 '깁'으로 표준어와 현격한 음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방언 자료 제시의 요령으로는 비표준어, 즉 사투리에 대한 표준어를 ()속에 표시하고, 그 중 웅언은 먼저 기본형을 보인 다음 실제로 쓰인 보기를

들었다. 그리고 기호의 표시는 우리말사전에 통용되는 것으로 표기하였다.

1) 고유어

(1) 명사

| | |
|-------------|----------------|
| 가블(가을) | 가시텀불(가시덤불) |
| 가이(개) | 개꾸랑(개울) |
| 개빨(개필) | 괴기, 계기(고기) |
| 꿩이, 꿩이(고양이) | 구넉, 구녕(구멍) |
| 구슬구슬(구실) | 그지(거지) |
| 글밭(그루밭) | 꼬추(고추) |
| 나룻깨(나루터) | 나모, 남구(나무) |
| 남저지(나머지) | 냉중, 야중(나중) |
| 넘(남) | 네기(이야기) |
| 늘(널) | 늪, 뇌(누에) |
| 단쟁이(본토박이) | 달거리(달구지) |
| 당그레(넉가래) | 도꾸(도끼) |
| 도야지(돼지) | 돈불이(돈벌이) |
| 돌맹이(돌맹이) | 두깁(화장실) |
| 두께비(두꺼비) | 두루메기(두루마기) |
| 두미(더미) | 똥아지(똥리 또는 또아리) |
| 말리, 마레(마루) | 매나리, 메누리(며느리) |
| 명식(명석) | 모리(모래) |
| 무수(무우) | 바대(바다) |
| 바이, 바우(바위) | 배차(배추) |
| 버러지(벌레) | 범댕이(바보) |
| 비틀(비탈) | 빔장(김장) |
| 사람(사람) | 새뻬, 삭시(색시) |
| 색경(거울) | 쌈(쌈) |
| 선상님(선생님) | 소스랑(쇠스랑) |
| 손각지(꼭두각시) | 손꼬락(손가락) |
| 손뜯(손톱) | 수넵(숫놈) |

| | |
|----------------|-------------|
| 숫달(섣달) | 속잔(석잔) |
| 시굴(시골) | 시단치마(세폭치마) |
| 쭈수(수수) | 아수(아우) |
| 안안팍(안팍) | 애맘소, 았소(암소) |
| 애비, 아배이(아비) | 어슬기(코뚜레) |
| 여주가리(옆) | 오메, 어메(어머니) |
| 움물(우물) | 잇날(옛날) |
| 재떨이(재떨이) | 저울(겨울) |
| 젓두리(젓두리) | 지둥(기둥) |
| 지지배, 지지방치(계집애) | 지팡이(지팡이) |
| 질(길) | 질쌈(길쌈) |
| 깃석(짚신) | 찌리(끼리) |
| 치(키) | 치매(치마) |
| 통시(뒷간) | 티받이(쓰레받기) |
| 할만네(할머니들) | 호무(호미) |

(2) 대명사

| | |
|---------|---------|
| 거시기(그것) | 닉(누구) |
| 무새이(무엇) | 저시기(저것) |

(3) 동사

| | |
|----------|---------------|
| 가주다(가지다) | 갈치다(가르치다) |
| 글다(걸다) | 끄메다(꺾매다) |
| 맨지다(만지다) | 맹글다, 맨들다(만들다) |
| 멕이다(먹이다) | 미다(메다) |
| 불다(벌다) | 심들다(힘들다) |
| 씨다(쓰다) | 웁기다(웁기다) |
| 잡히다(잡히다) | 절구다(절이다) |
| 정치다(경치다) | 지돌르다(기다리다) |
| 키다(키우다) | 패다(파다) |

(4) 형용사

| | |
|----------|--------|
| 가깝다(가깝다) | 겉다(갈다) |
|----------|--------|

| | |
|------------|----------------|
| 기시다(게시다) | 까닭스럽다(까다롭다) |
| 달르다(다르다) | 따수하다(따스하다) |
| 아득하다(아득하다) | 아쉽다(아쉽다) |
| 알맴다(알밋다) | 연만하다(원만하다) |
| 우습다(우습다) | 위똥게(어떻게) |
| 즉다(적다) | 지다랴다(길다랴다) |
| 질다(길다) | 파르드름하다(파르스름하다) |

(5) 관형사

| | |
|--------|--------|
| 무신(무슨) | 어늬(어느) |
| 우쩍(어쩍) | |

(6) 부사

| | |
|------------|------------|
| 거진(거의) | 그리구(그리고) |
| 깡그리(깡그리) | 달구, 들구(자꾸) |
| 뽕뽕이(뽕뽕이) | 뽕(꼭) |
| 말끔(말끔) | 먼침(먼저) |
| 불썬(불썬) | 암마(아마) |
| 어여(어서) | 외래(오히려) |
| 운제, 은제(언제) | 인자(인제) |
| 트니(흔히) | 하량(같이) |
| 햇짝(잔뜩) | |

2) 한자어

(1) 명사

| | |
|----------|----------|
| 강한도(강원도) | 강변(강변) |
| 고상(고생) | 고선(고손) |
| 공보(공부) | 관례(관리) |
| 괴통(교통) | 구신(귀신) |
| 귀경(구경) | 남영(남양) |
| 넌편(남편) | 냉중(나중) |
| 냥반(양반) | 대통량(대통령) |

| | |
|----------|----------|
| 동세(동서) | 동창성(동창생) |
| 망주석(망부석) | 매사포(면사포) |
| 명진(명정) | 명질(명절) |
| 모(묘) | 민서기(면서기) |
| 맹(병) | 벨안간(별안간) |
| 새면(사면) | 셀랑(신랑) |
| 생야(상여) | 성제(형제) |
| 소이(소위) | 소자문(효자문) |
| 송년(흉년) | 시상(세상) |
| 싯방(셋방) | 영괌(영감) |
| 요디(요대) | 요량(요령) |
| 이사(예사) | 장력(달력) |
| 지끔(지금) | 지장(기장) |
| 짐해(김해) | 차멸자(침모) |
| 총객(총각) | 충청두(충청도) |
| 즈녀(처녀) | 친장(친정) |
| 택주(탁주) | 평풍(병풍) |
| 풍섭(풍습) | 피박(폐백) |
| 피양(평양) | 학상(학생) |
| 핵교(학교) | 행편(형편) |
| 호미(회) | 호양(교양) |
| 홍재(행재) | 황하두(황해도) |

(2) 형용사

| | |
|------------|------------|
| 고이하다(괴이하다) | 구하다(귀하다) |
| 맥연하다(막연하다) | 미식하다(무식하다) |
| 송하다(흉하다) | 지레하다(지루하다) |
| 추하다(취하다) | |

(3) 부사

| | |
|--------|----------|
| 기중(그중) | 댕댕이(당당히) |
| 별랑(별로) | |

(4) 조사

| | |
|---------------|---------------|
| -구(-고;기시다구) | -꺼정(-까지;어디까지) |
| -구선(로서는;남자루선) | -보담(보다;그쪽보단) |
| -으루(으로;해변께루) | -이(에;가을이) |
| 과두(과도;맘과두) | 마닥(마다;해마닥) |
| 만이(만에;보름만이) | 버텀(부터;어디버텀) |
| 이는(에는;그 전이는) | 쫼(쫼;다섯시쫼) |

(5) 용언의 어미변화

| | |
|-----------------|----------------|
| 수다(-습니다;갈수다) | 이요(-이요;없어요) |
| 있어라우(-었어요;했어라우) | 지우(-지요;잊어버리지우) |

(6) 마침법(종지법)의 시킴꼴

| |
|-----------------------|
| -졌어(-졌어요;모르졌어요) |
| -졌이유(-졌어요;알겠이유) |
| -니께요(-니까요;허니께요, 가니께요) |
| -셨구만유(-셔구먼요;오셨구만유) |
| -시지요(-시오;드시오, 염료마시지요) |
| -씨유(-시오;갔시유) |
| -여(-요;그게여, 갔단말여, 말이여) |

(7) 기타

| | |
|-----------------|--------------------|
| -거덩(-거든;있거덩) | -걸랑(-거든;하걸랑) |
| -구설랑(-고서;그리고설랑) | -나서(-는데;오나서) |
| -니께(-니까;허니께) | -르라구(-려고;벨라구) |
| -시걸랑(-시거든;오시걸랑) | -왔갔지만(-왔겠지만;보왔갔지만) |
| -은디(-은데;좋은디) | |

제7절 대부도 지명유래

대부도는 시청이 있는 안산에서 서쪽으로 약 35.8km 해상에 자리잡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 서신동, 시흥시 정왕동(오이도)과 방조제로 연결되어 있다. 동경 126°22', 북위 37°04'에 위치하며 면적 40.93km² 해안선 길이 61km 이고 부속 유인도로 탄도(炭島), 불도(佛島) 선감도(仙甘島), 풍도(豐島)와 육도(六島)가 있다. 2001년 6월 현재 인구는 대부도 2,316가구에 6,087명 풍도 56가구에 94명, 육도 25가구에 50명 합계 2,316세대에 6,231명(남 3,226명 여 3,005명)이다. 삼국시대에는 마한(馬韓)에 속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주(漢州)에 속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소속이었으며 조선시대에 남양군(南陽郡)에 속하였다. 인조(仁祖)때에는 방어사(防禦使)가 주재(駐在)하였으며 1914년 3월1일 남양군에서 부천군(富川郡)으로 편입되었고 1973년 행정구역 개편(법률 제2597호)으로 웅진군(甕津郡)에 편입되었다가 1994년 12월 26일 행정구역 개편(대통령령 제14,434호)으로 안산시에 편입되었다.

화성시(華城市) 서신(西新)에서 탄도(炭島)까지의 0.853km의 방조제(공사기간 1987년 10월~1988년 4월) 탄도에서 불도(佛島)까지의 0.180km의 방조제(공사기간 1987년 10월~1988년 4월), 불도에서 선감도(仙甘島)까지의 0.290km의 방조제((공사기간 1988년 2월~1988년 2월), 선감도에서 대부도로 연결되는 0.327km의 방조제(공사기간 1988년 5월~1988년 5월)가 완공되었고 시흥시(始興市) 오이도(烏耳島)와 대부도를 연결하는 11.206km 방조제(공사기간 1988년 4월~1994년 1월)의 준공으로 육지와 연결되었으며 시화호가 생겨났다

남양쪽에서 대부도를 바라보면 섬같지 않고 큰 언덕처럼 보인다고 하여 대부도라고 불렀으며 다음과 같은 전래지명(傳來地名)이 있다.

○ 연화부수지(蓮花浮水地)

섬의 형태가 마치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다고하여

부르는 명칭으로 명당을 뜻하는 것으로 인재가 많이 배출될 형상이라 한다.

○ 낙지섬

섬의 형태가 큰 낙지가 팔방으로 발을 벌리고 있는 것과 같다고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황금산(黃金山)이 낙지의 머리고 낮은 산줄기들은 낙지의 발과 같은 형상이라고 한다

○ 죽호(竹湖)

호수처럼 대나무가 무성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대부도는 서해 훈풍의 영향과 토질이 비옥하여 대나무가 잘 자란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 大部島와 大府島

큰 것을 뜻하며 여러 섬을 다스리는 뜻과 도서(島嶼) 중의 중심도서라는 뜻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조 후기까지 불린 지명이다

○ 大富島

토질이 비옥하여 농사가 잘되고 해산물이 풍부하므로 부유한 섬이라는 뜻으로 불린 것으로 생각된다.

1) 상동(上洞) - 북1, 5리 -

북1리와 북5리 일대를 상동이라고 부르며 옛날에 이곳에 판서가 살았다하여 으뜸 마을이라 상동이라 했다고 한다. 또 남양부사, 절도사 등이 주재했다고 해서 상동이라 부른다.

◦ 말물재

동사무소 뒷산의 명칭이다. 산의 형태가 말의 모양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쪽의 범돛재 앞쪽이 말의 꼬리, 산 중간지점이 말의 배 예비군중대 뒤쪽이 말의 목, 갈마지쪽이 말의 머리라고 하는데 갈마지는 옛날에 물이 흔했으나 목마른 말이 물을 마셔버린 것 같이 물이 귀하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 독족골 약수터

범돛재와 말물재산 사이 북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수량이 많은 우물이 있다 말물재산 꼬리에 해당돼 말의 오줌같다하여 약수로 알려져 있으며 손, 발이 빠졌을 때 담그고 있으면 낫는다고 한다. 범돛재 당고사 때 이 물로 보름동안 목욕재계하였다고 한다.

◦ 범돛재(범돛재 : 虎頭峴)

대부초등학교 뒷산으로 범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한다. 이 산은 와골(瓦谷)에서 시작하여 범돛재에서 그쳤는데 와골쪽이 범의 꼬리이고 범돛재이 범의 입이 상동쪽을 향하고 있어 옛날에는 상동쪽에서는 소를 키우기 힘들었다는 말도 있다.

◦ 일제의 신사터(日帝神社止)

동사무소 뒤의 예비군중대 자리. 일제말 신사를 지으려고 터를 닦았으나 패망하여 짓지 못했다.

◦ 왕жат재(王座峴)

이괄(李适)의 난(亂)(또는 병자호란) 때에 인조대왕이 피난차 대부도에 잠시 머물러 동사무소 앞 논뜰 건너 동성이의 잔디밭에 앉았다 일어나 다시 피난길로 떠났는데 왕이 앉았다가 갔다고하여 왕жат재라 한다.

◦ 소자마을(孝子村)

400여년 전에 신씨가문(辛氏家門)에 효자가 있어 임금의 효자정문을 내려 효자마을이라고 했다 한다. 효자가 소자로 변음 됐으며 소자마을 신씨는 영원 신씨라고 하며, 한편 남양읍지에 평산신씨(平山申氏) 신용남(申龍男)이 목자(牧者)로서 효행이 깊어 효종때에 효자정문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어 동일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설도 있으나 대부초등학교 옛 정문 앞 신응구(辛應九)라는 사람이 집 앞의 효자문을 해방 후까지 관

리했으나 소실된 시기는 정확치 않다.

◦ **개잡재**

북1리 남쪽 끝쪽에 있으며 옛날에는 이곳에서만 개를 잡았다고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수문통안(水門通)**

북1리 서쪽 해안에 있는 논벌을 말하며 방죽을 막고 배수로를 만들었다하여 수문통안 이라고 부른다.

◦ **서풍산(西風山)**

북5리 서쪽 해안에 남북으로 가로 막힌 산줄기로 서풍을 막아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상지목골(성지목골)**

범돛재 넘어 대부중학교 못미처 있는 마을로 옛날 대부진 주위에 토성을 쌓았던 아래의 골짜기 마을이라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장승백이**

와골 못미처 있는 마을로 장승을 세웠던 곳이라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감남골(감나무골)**

북1리 서쪽마을로 옛날부터 감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벗말**

대부출장소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는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와 갯벌이 있어 염벗을 민들어 소금을 굽던 곳에 생긴 마을이라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서편말**

동사부소 서쪽 마을로 소자마을을 말한다.



너분섬

◦ 너분섬

물이 빠지면 연육이 되는 섬으로 봉우리 남쪽이 넓고 평평하게 되어 있다.(용진군 선재도에 소속된 무인도이다)

◦ 병풍산

바다에 서 있는 바위산으로 병풍처럼 생겼고 물이 빠지면 연육이 된다

◦ 두루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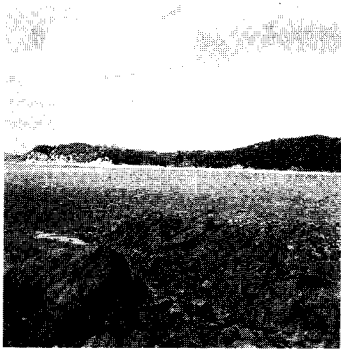
병풍산과 너분섬 중간에 있는데 너분섬 양쪽으로 뱃길이 있어 뱃사람들이 두루 살펴보고 다니는 섬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용진군 선재도에 소속된 무인도이다)

◦ 흰바구리

산이 온통 하얗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으로 새방죽 옆으로 있는 작은 산이다.

[임규덕 (1934. 1. 25) 대부북동 426]

[김영혁 (金榮赫 1938. 10. 1) 대부남동 369 - 3]



흰바구리

2) 종현동(鐘懸洞) - 북2리 -

조선시대 인조대왕이 이괄의 난 때 피난 중 이 마을에 잠시 머물러 신하에게 저 앞에 보이는 우거진 숲 속에 우물이 있을 것 같으니 물을 찾아보라고 손으로 가리키자 신하가 황급히 그 곳에 들어가 찾아보니 조그만 우물이 있어 불통에 물을 가득 채워 왕에게 바치니 갈증을 느끼고 있던 왕이 한숨에 물을 마시고난 얼마 후 이 우물을 왕지정이라 칭하고 기념으로 쇠로 만든 종을 하사 하였다하여 종현동이라고 불렀다 한다는 설과 마을 지형이 종처럼 생겼고 마을 가운데 불룩 솟은 곳이 종추처럼 생겨서 종현동이라는 설이 있다.

약 450여년전 남양홍씨가 들어와 살았으며 남양홍씨 10가구, 경주김씨 6가구, 전주이씨 5가구, 밀양박씨 6가구, 경주최씨 4가구, 창원황씨 4가구 인동장씨 3가구, 의흥예씨 6가구, 풍기

태씨 5가구 등이 살고 있다.

◦ **왕지정(王指井)**

왕이 손으로 가르켜 찾아낸 우물이라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임진왜란 때라는 설, 병자호란 때라는 설, 이괄의 난 때라는 설 등이 있다.

◦ **꼬깔섬**

구봉이 건너쪽에 있는 작은 무인도로 꼬깔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꼬깔섬 갯골은 골이 깊고 좁으며 풍량이 잘 인다고 한다.

◦ **서낭당**

종현동에 서낭당이 두 곳 있었으며 마을 서쪽 지수나무산 기슭과 속말(가운데 마을)당산에 있었는데 속말 당산에는 150여년 된 송림(松林)이 남아있다

◦ **어릿굴(오지굴, 오리굴)산 절터**

어릿굴산 동남쪽에 절터가 있는데 절에 빈대가 많아 버리고 떠났으며 지금도 그 절터의 돌을 뒤집어 보면 빈대껍질이 붙어 있다고 한다.

◦ **어릿굴(오지굴, 오리굴) 우물**

지금도 자연샘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물맛이 좋고 수량이 풍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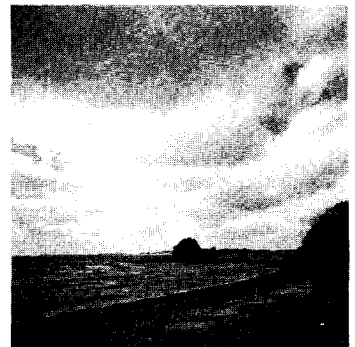
◦ **고래장터(고려장터)**

어릿굴(오리굴)절 산 밑에 고래장터라고 불리는 옛무덤 흔적이 있었으나 시화방조제 토취장으로 없어졌다.

◦ **구봉이 선돌(立岩)**

구봉이 해안에 서있는 두 개의 큰 돌(바위).

◦ **선돌살(구봉이 돌살)**



구봉이 선돌

구봉이 선돌쪽에 고기잡는 살을 땔 때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 살에 물이 빠지지 않았다하여 붙여진 이름.

◦ 구봉이 채석장 약수

인천 개항 당시 구봉이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데 힘 좋은 중국사람 하나가 큰 바위에 구멍을 뚫자 그 구멍에서 약수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 선창방죽논뜰

종현동 앞 논뜰은 갯벌이던 곳을 방죽을 막아 논으로 만든 곳이라하여 부르는 이름.

◦ 동메뿌리

속말과 건너마을 중간으로 외줄기로 뻗어나온 종다리산 능선이 해안쪽으로 나가 동산이 되었는데 이를 동메(洞山) 또는 동미(洞尾)로 불고 있다 종다리산은 종을 매달아 놓은 형상이다.

◦ 두우현재빠기

북2리와 북3리의 경계에 있는 산줄기에 있던 등성이 고개를 말하며 시화방조제 토취장으로 사용돼 없어졌다.

◦ 큰에메기

두우현 북쪽 작은에메기 다음 고추장뿌리 쪽에 물이 들락날락하는 바위와 산뿌리 사이의 물목을 말한다.

◦ 작은에메기

두우현재빠기 다음 갯골이 있던 곳의 물목.

◦ 여수갯골

북3리쪽에 있는 큰 산줄기에서 흘러내려 오는 물이 이쪽으로 모여 물이 혼하여 남아돌아 나가는 갯골이라하여 여수(餘水)갯골이라 하였다.

◦ **돈지섬**

구불이염전 저수지 서쪽에 있는 새둥지처럼 생긴 작은섬으로 둥지섬이 변음되어 돈지섬으로 부른다.

◦ **주름**

주름이란 굽주린 귀신을 뜻하는 것으로 주린 귀신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 **지수물산(桂樹井山)**

마을 돌메뿌리 오른쪽 산에 우물이 있는데 물맛이 좋아 계수우물이라 하며 이 산을 지수물산으로 부른다.

◦ **연목이**

주름 큰산 다음의 물목으로 물이 빠지면 연육(連陸)이 되어 연육물목을 연목이라 불렀다.

◦ **두멍**

물이 고이는 큰 웅덩이가 있던 곳.

◦ **느릿개**

해안이 길게 늘어졌다 하여 느릿개라고 부른다.

◦ **느리(느리뿌리)**

해안의 굴곡이 느리고 긴 갯장술을 말하며 여기에 있는 산을 느리큰산 또는 느리뿌리로 부른다.

◦ **선돌바위**

우뚝선 바위를 말하며 천연(약수)물산 서쪽에 있다.

◦ **힘액이**

외딴 후미진 곳으로 재앙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다. 꼬깔섬 못미처 동쪽해안의 개미허리처럼 잘룩한 곳.

◦ **천연수**

약수가 나오는 곳을 천연수(天然水)라고 한다.

◦ 천연물산

약수가 있는 윗 골짜기의 산이름.

◦ 구봉염전

북2리와 북4리 사이에 있으며 옛날부터 염벚이 있던 유명한 염전이다.

◦ 대봉염전

구봉염전 북쪽 낙섬(落島) 서쪽에 있는 염전.

◦ 두명큰산

구봉염전 서쪽에 있는 산봉우리로 두명쪽에 있다하여 두명큰산이라 한다.

◦ 꼬깔이 돌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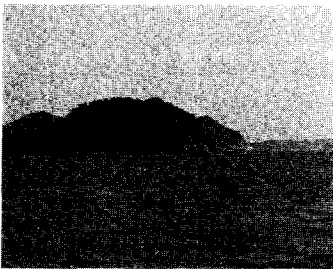
꼬깔섬 끝의 돌살로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

◦ 구봉도(九峰島)

봉우리 아홉 개로 된 구봉리는 구봉염전이 천일염전이 되면서 제방을 축조하여 연육이 되기 전까지는 섬이었다.

[홍성웅 (1940. 6. 1) 대부북동 1291]

[김복동 (1928. 8. 5) 대부북동 1279]



바다에서 본 구봉도

3) 두우현(斗牛峴) - 북3리 -

두우현은 원래 종현동에 포함되어 있던 마을로 산뒤에 있다고하여 뒷고개, 또는 뒷면 이라고 부르던 마을이다 마을의 산세가 북두칠성(北斗七星)같다고하여 두우현이라고 불렸으며 상두우현을 윗뒷재 하두우현을 아랫뒷재라 부른다. 쌍계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나부랑굴 뼈꼭산

나부랑굴에는 남양홍씨의 묘가 있는데 옛날 이곳에서 장례

를 지낼 때 바위를 들추자 뼈꼭새가 울며 날아 갔다하여 이 묘가 있는 산을 뼈꼭산이라 한다고 한다

◦ **절골**

쌍계사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서 절밑에 있다고하여 절골이라고 하며 윗절골과 아랫절골이 있다.

◦ **항낭골**

북3리 남쪽 끝에 있던 마을.

◦ **쌍계산**

쌍계사가 있는 산으로 해발 108m로서 산세가 수려하며 쌍계사를 감싸고 있다.

◦ **숯부리(禾不里)**

북3리 동쪽 해안에 있으며 옛날에 숯을 굽던 곳이라고 전하고 있다.

◦ **달보는 산**

절골마을 동쪽에 있는 산봉우리로 정월대보름에 이산에 올라가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 **양반골**

옛날 어떤사람이 육지에서 와 살면서 양반행세를 하며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개섬뿌리**

북3리 북쪽 끝에서 방아머리쪽으로 불쑥나간 지역의 작은 섬이 개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시화방조제 토취장으로 없어졌다.

◦ **차다골**

우물물이 차다고하여 붙여진 이름.

◦ **나부랑골**

고려장터라고 전해오고 있으며 지형이 낮아 나부랑골이라고 한다. 권씨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도깨비가 많이 나와서 이사 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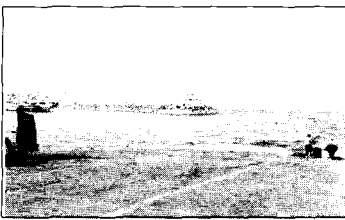
◦ **학달우물**

북리 넘어가는 쪽에 있는 우물로서 학들이 날아와서 먹었다고 해서 학달우물이라 부른다.

◦ **감투섬**

감투처럼 생긴 작은 섬

[홍성웅 (1940. 6. 1) 대부북동 1291]



방아머리 선착장

4) 방아머리 - 북4리-

약 150여년전부터 배씨, 최씨, 강씨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으며 대부도와 떨어진 섬이었으나 60여년전 구봉염전을 만들면서 대부도와 연결 되었다 연결되기 전에는 돌징검다리로 건너다녔다.

◦ **방아머리(舂頭浦)**

구봉염전 쪽에 있는 서의산으로부터 길게 뻗어나간 끝지점으로 디딜방아의 방아머리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한문으로 방아쥬을 용(舂)자를 써서 용두포라고 1871년 제작된 대부도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 **접줄**

방아머리 동쪽 해안 장술 일대를 접줄이라고 부르며 현재 방조제 수문 안에 있다

◦ **큰 강쟁이**

방아머리 선착장 쪽에 38m의 암초가 강변의 정자처럼 생겼다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현재의 선착장.

◦ **작은 강쟁이**

큰 강쟁이보다 작은 암초

◦ **너춘여**

큰 강쟁이 위 선착장 안쪽으로 있는 바위 이름

◦ **마여**

바위 모양이 말같이 생겼다하여 마여(馬嶮)라고 부른다.

◦ **매봉**

매의 주둥이처럼 생긴 당넙어 뿔 동쪽에 뾰족하게 나온 바위.

◦ **당너머 뿔**

당산(서의산) 북쪽 해안 갯벌

◦ **납섬**

물이 빠지면 납작하게 나타나는 섬.

◦ **느락개**

납섬 앞 느락뿌리쪽에 있어 느락개라고 부른다.

◦ **서의큰산(西矣大山)**

방아머리 서쪽에 있다하여 서의큰산이라 부른다. 해발100m.

◦ **개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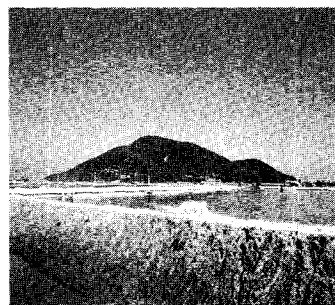
섬모양이 개처럼 생겼다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시화방조제 토취장으로 없어졌다

◦ **서위(西矣)**

방아머리 서쪽에 있는 마을 어조사 찻길 위로 발음하여 부른다.

◦ **방아머리 큰산**

서의큰산 보다는 작으나 방아머리쪽에 있다하여 부르는 이



서의 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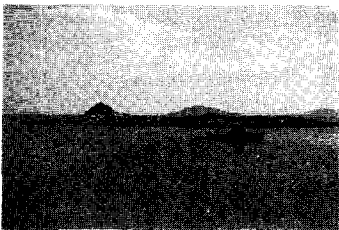
름이다. 시화방조제 토취장으로 사용돼 없어졌다.

◦ 사근여

방아머리큰산 동쪽에 있는 바위섬 암초 비슷한 바위를 ‘여’라고 하며 ‘산근처 여’를 줄여 사근여 라고 부른다.

◦ 수청물뚜렁

옛날에는 이 곳에 물푸레나무(水靑木)가 많아 수청목뚜렁을 수청목뚜렁으로 부른다.



방아머리

◦ 노루녀

수청물뚜렁 옆의 여로서 노루처럼 생겼다

◦ 마귀할멈 공깃돌

수둑 위로 다섯 개의 큰 바위가 있었는데 방조제 공사로 없어졌다



큰 가리기섬

◦ 가리기섬(쌍섬)

바위섬 두 개가 나란히 있어 일명 쌍섬이라고도 하는데 시화방조제 공사로 하나는 방조제가 되었다

[정인순 (1936. 9. 1) 대부북동 1857-6]

[김정호 (1936. 1. 3) 대부북동 1857-6]

5) 고유지(古油地) - 동1리 -

대부도의 중심지에 위치한 마을로 옛부터 땅이 기름져 사람이 살기좋은 땅이라고하여 고유지라고 불렀다. 조선조 세종 때부터 염벚이 있었다. 고유지는 평택임씨(平澤林氏) 집성촌으로 현재 12~16대 손이 살고 있다.

◦ 비선거리

대부도가 남양부에 속해있을 때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감목관(監牧官) 등의 선정비를 세워 놓았던 곳. 도로확장 공사로 대부출장소 마당으로 이전 하였다.

◦ **활터**

고유지에 면사무소가 있을 당시(1910~1933)에 마을 앞 활터가 있었다. 1934년 면사무소가 상동으로 이전한 후 활쏘기 행사가 없어지면서 활터도 없어졌다.

◦ **계로당(啓勞堂)**

현재 마을회관 자리에 있던 서당 이름.

◦ **고유지 웃말우물**

물맛이 좋고 수질이 풍부하여 식수는 물론 가뭄에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였다. 심한 가뭄에도 지상까지 물이 넘쳐흘렀으며 현재도 잘 보존되고 있고 각종 토지 측량시 이 우물이 기점이 된다.



웃말우물

◦ **주막거리**

비선거리 밑에 주막이 있었고 누룩술이 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 **염벗**

고유지 마을 앞의 염전은 조선초기 세종때부터 있어왔다. 옛날에는 가마솥에 불을 때서 소금을 만들었으나 근래에는 천일염전이다.

◦ **안개(만아들)**

염벗으로 들어오는 갯고랑으로 말부흥포와 신당포 사이에 있었으며 나무배, 소금배 등이 드나들던 곳이다.

◦ **까치섬**

마을 남쪽에 있는 조그만 동산으로 소나무가 많고 까치가 많이 살았다

◦ **공마루**

고개마루가 공처럼 둥글게 생겨서 부르는 이름

◦ 반동산

고유지와 갈마지 경계에 있는 산으로 산 중턱에 씨름을 하던 씨름터가 남아 있으며 둥그런 산봉우리에서는 정월대보름과 팔월 추석날 각 마을에서 달구경을 하러 오기도 하였다.

◦ 연자방아간

고유리 아랫마을 간선도로 옆에 있었으며 여름에는 보리, 가을에는 벼를 찼었다. 현재도 연자메는 남아 있다.

◦ 말림산

고유지 아랫마을에 있는 산으로 분지천(동4리)과 경계가 된다. 이 산의 능선에서 건너편 까치산으로 활을 쏘았으며 현재도 활터가 남아 있다.

[임우선 (林吁善 1924. 1. 1) 대부동동 1466]

[김금준 (金今俊 1935. 7. 30) 대부동동 1427]

6) 갈마지(渴馬地) - 동2리 -

대부도 중앙에 위치해 있어 해안선이 없는 마을이다.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산의 형태가 말머리 모양이고 그 앞에 작은 우물이 있는데 목마른 말이 이 우물물을 먹고 갈증을 면했다고 해서 갈마지라고 불려왔다.

◦ 큰화개재

갈마지마을 북쪽의 황금산 산줄기 내림이 마을 뒷산이다. 산모양이 큰 뚜껑을 덮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

◦ 작은화개재

약우물에서 두우현으로 넘어가는 고개.

◦ 진묵골

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참나무가 유난히 많아 진묵(참나무)골인데 진묵골로 부르고 있다.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

◦ **섬배기우물**

마을 앞 말머리재에 있는 우물로서 수량이 원래 많아 마을 전체가 식수는 물론 농업요수로도 썼다. 몇섬지기 논의 물도 댈 수 있다고하여 섬배기우물이라 불렀다.

◦ **말머리재**

마을 앞산이며 동사무소 뒷산인 이곳이 말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안악갈마지(아랫갈마지)**

동쪽에 있는 동네로 안악갈마지(아랫갈마지)로 부른다.

◦ **너머갈마지**

안악갈마지에서 서쪽 너머에 있는 동네.

◦ **웃갈마지**

갈마지에서도 가장 북서쪽에 있는 동네.

◦ **안산(案山)**

마을 앞산으로 정월대보름 때 달맞이를 하던 산이며 단오 때 나무가지에 그네를 매고 그네뛰기를 하던 200여년 묵은 소나무가 남아있다.

◦ **독주골**

뒷골고개 아래인데 외딴 골짜기로 후미진 곳. 다리 뻗데 담그면 잘 낚는 약수가 있다.

[김한규 (1934. 5. 10) 대부동동 1317]

7) 당전동(당말 堂前洞) - 동3리 -

황금산 남동쪽 퇴밭재앞에 위치한 남향마을로 황금산 중턱에 당이 있어 당앞에 위치한 마을이라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50여년전 평산신씨가 들어와 마을을 개척하였고 현재 16세손들이 살고 있으며 150여년전 남양홍씨가 들어와 6세손들이 살고 있다

평산신씨 5가구, 남양홍씨 6가구, 경주김씨 2가구, 파평윤씨 2가구, 고령신씨 2가구, 교화노씨 2가구 등이 살고 있다.



영전 쪽에서 본 황금산

◦ 황금산(黃金山)

대부도의 주산이며 황금이 매장되었다고 유래되며 일제 때에는 금광도 있었으나 폐광 되었다 시화지구 간척사업 토취장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 되었다. 해발 172m.

◦ 퇴밀재

당전 뒷산으로 맷방석에 쌀을 쌓아놓은 형상이며 황금산에서 뻗어나온 산줄기가 툇마루 같이 생겨 그밑에 있다하여 퇴밀재라고 부른다.

◦ 하개재

황금산 서쪽너머에 있는 고개로 두우현(뒤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지나무 고개

황금산 동쪽에 있는 고개로 나무하러 갔다가 쉬었다 오는 고개

◦ 뒷골고개

마을 뒷산 골짜기에 있는 고개로 삼신우물이 있다.

◦ 오소로지 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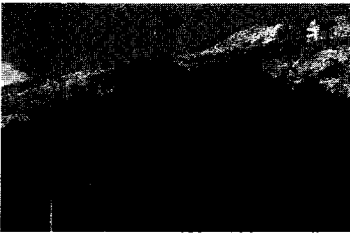
오소리가 많았다는 고개.

◦ 솔개바위산

영굴재에 있는 산으로 솔개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 흑반재 고개

고유지에서 당전동으로 넘어오는 고개.



황금산의 당지

◦ 빈쟁이

황금산에서 퇴밀재산 남쪽으로 내려간 산줄기에 나무가 없고 잔디만 조금 있는 곳.

◦ 당앞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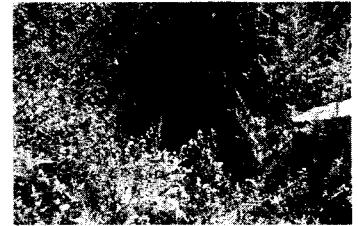
수량이 풍부하여 지금도 마르지 않고 물이 흘러 넘치며 보존이 잘 돼 있다.



당앞 우물

◦ 작은우물

당앞우물 바로 아래 있으며 주로 빨래터로 이용되었고 현재도 잘 보존되어 있다.



작은 우물

◦ 무쇠장군

당 옆에 무쇠로 만든 말과 말위에 칼을 든 장군형상이 있어 무쇠장군이라 했는데 한국전쟁 후 유실됐다.

◦ 당번덩

당 옆에 있는 작은 옹달샘이 있던 습지.

◦ 샛터말(新基村)

당 앞 동네 아랫마을을 샛터말이라고 하는데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하며 수량이 풍부한 샛터말 우물이 남아 있다.

[홍경의 (洪慶義 1928. 1. 30) 대부동동 928]

8) 분지내(汾地村, 분지천 汾地川) - 동4리 -

물 혼할 분(汾)자를 쓴다. 황금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봉화산(烽火山) 불당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분지촌에서 합쳐져 개울물이 많아졌다하여 汾之村이라 하였고 분지내라고도 하였다.

교하노씨 10가구, 평산신씨 5가구 등이 살고 있다.

◦ 방아작다리

봉화재산 서북편에 위치한 작달(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방아다리처럼 형성되어 붙여진 이름.

◦ 봉우재(烽火峴)

마을 동쪽 불당골산을 말하며 봉화를 올리던 곳이라하여 봉우재라고 부른다.

◦ 분지정(汾之井)

이 마을에서 제일 물맛이 좋고 수량이 많은 우물이다. 마을에서 정초에 소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던 우물이다.

◦ 떼집거리

옛날 주막이 있었는데 떼로 쌓아서 지은 집이라 허리를 굽히고 들어 갔다고 한다. 서낭당 밑에 있었다.

◦ 서낭당(城隍堂)

마을 동남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목(神木)에 색색의 형겁이 걸려있고 돌무더기도 있다.

◦ 행낭골(行廊谷)

한지락골 너머 있으며 6가구가 살고있다.

◦ 솔따배기

행낭골 남쪽에 있으며마을뒤에 소나무가 뻗뻗히 들어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깃돌

대동초등학교 앞쪽에 따로 떨어진 동네로 마을 이름이며 부근에 있는 돌이 깨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행낭골우물

우물 주위가 옛날부터 붉은 층의 토질이다. 전설에 의하면 허씨집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하다 배신하여 여자를



서낭당

칼로 찢러 죽여 우물에 빠뜨린 후부터 우물 주위가 붉어졌다고 한다.

◦ 상재미(上場洞)

솔따배기 위에 있는 동네. 5가구가 산다.

◦ 불당골(佛堂谷)

봉화재산 밑 고을로 예전에 불당이 있었다고 한다.

◦ 불당골 개울(佛堂谷川)

불당골(봉화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황금산에서 내려오는 물보다 수질이 좋아 현재 상수도 수원으로 쓰고 있다.

◦ 한지락골

마을회관 뒤쪽 산기슭에 있는 마을로 함지박 모양으로 우묵하게 생겼으며 함지박골이 변음되어 한지락골로 불린다

◦ 솟벌

안개에서 나오는 민물과 바다의 조수 영향으로 바다 가운데 큰 모래뺨 언덕이 생겼고 이곳에 바지락 굴 소라 등 해산물이 많았으나 시화지구 간척사업으로 매몰되었다.

[노재석 (盧載錫 1934. 11. 25)대부동동 811]

9) 신당리(新塘里) - 동5리 -

조선조말 육지로부터 이주한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정자(亭子)를 크게 짓고 여기에서 마을사람들이 모여 흥겹게 놀게 되었는데 이 정자를 가르켜 신당(新塘)이라고 불렀고 그 때부터 마을 이름이 신당리로 불렸다고 한다. 한편 마을에 안방죽, 새방죽 등으로 부르는 방죽이 있어 뺨자를 연못 당이 아닌 방죽 당으로 읽으면 새 방죽을 쌓은 동네라고하여 신당리라는 설도 있다.

◦ 삼신우물

아기를 못낳는 부인들이 아기 점지를 빌던 우물. 손 발이 빠졌을 때 이 우물에 담그고 있으면 낳는다하여 일명 약수우물이라 부른다.

◦ **고두메기**

물이 외골로 들어왔다 외골로 곧게 나가는 물목이라하여 고두메기라고 부른다.

◦ **질마재**

산의 형태가 소의 질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서낭당고개**

동4리와 경계 지역에 서낭당이 있었다고하여 부르는 이름

◦ **벼랑산**

나루개산으로 산이 위낙 벼랑졌다고하여 부르는 이름

◦ **농바위**

동5리 서쪽에 있는 바위인데 모양이 농작 같다하여 부르는 바위 이름

◦ **햄섬(해미섬)**

동5리 남쪽 해안뿌리밖에 있는 섬으로 큰햄, 거북햄, 가운햄 등 세 개의 섬이 있다 해무(海霧)가 많이 끼는 섬으로 안개가 자욱히 끼면 섬위의 소나무들만 겨우 보일정도이다. 해무를 대부도사람들은 해미라고 발음한다

◦ **장승백이**

동5리 북쪽 오수로지 쪽으로 장승을 세웠던 곳.

◦ **안방죽**

새방죽 안쪽으로 갯벌을 막아 논으로 만들면서 쌓은 방조제로 새방죽 안쪽에 있어서 안방죽이라고 부른다.

◦ **새방죽**

신당리 앞에 축조한 방조제 이름.

◦ **진두(津頭)**

나루개를 진두라고 한다. 옛날부터 대부도 관문이었으나 연육이 되었다. 김완수 면장 공덕비가 있다.

◦ **주막거리**

나루개에 옛날 주막이 있던 곳.

◦ **털미섬**

고두메기 북쪽에 있는 작은 무인도. 간조시 연육이 되기도 하고 뿔로 걸어서 드나들 수 있는 섬이다 섬주위에 소라, 바지락, 가무락, 낙지 등이 많고 소나무 우거진 모양이 사람 머리털처럼 생겨서 털미섬 이라고 부른다.

◦ **소필**

큰햄섬 동남쪽에 있는 갯벌로 바지락이 많았다.

[김철용 (1910. 10. 30) 대부동동 126]

[문혼식 (1931. 9. 25) 대부동동 96-5]

[김한규 (金漢奎 1934. 5. 10) 대부동동 1317]

10) 영전동(榮田洞, 靈田洞) - 동6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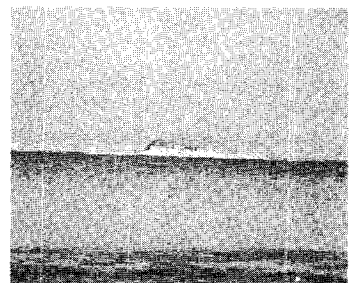
밭이 기름지고 여러 곳에 샘이 많아 전답에 고갈이 없으며 사람들이 근면하여 부지런하여 풍족한 생활, 즉 영화를 누리는 동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 **함박이(含泊耳)**

대부도 주민들이 육지로 왕래하던 최초의 선착장이다 함박이란 선착장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란 뜻이라고 한다.

◦ **외지섬**

무인도로 철새들이 많이 날아들고 낙지, 바지락, 게, 숭어 등이 많이 잡혔다. 예전에는 어막을 설치했었다. 현재 시화호



외지섬

안에 있다.

◦ 땀섬

쌀섬 해안 밖으로 아주 가깝게 있는 무인도 기암에 노송이 있고 백로가 많이 살았으며 아름다운 섬이나 시화호 쪽에 있어 현재는 바닷물이 말라있다.

◦ 오수로지

북쪽으로 동6리 경계지점에 있는 곳으로 까마귀의 집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고추장뿌리

동리 서편재 넘어 쌀섬뜰 방조연안 독이다. 약쑥이 많았다. 고총(古塚)뿌리가 변음되어 고추장뿌리로 되었다고도 한다.

◦ 수상골(泉石洞, 水産谷) 우물

황금산 동쪽 일명 작은황금산이라고 하는 곳의 바위에서 솟는 우물로 가운뎃말 우물과 지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큰 이무기가 살아 이무기가 몸을 뒤척이면 물이 뒤집히고 가운뎃말 우물이 빨개졌다고 한다.

◦ 가운뎃 말

영전 중심지의 큰 마을.

◦ 건넝굴(越泉屈)

영전에서 보아 서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영전마을 안산(案山)이다. 영전 건너편에 있다하여 건넝굴이라고 부르는데 건너샘굴이 변하여 건넝굴이 되었다고도 한다.

◦ 윗말

위쪽에 있는 마을.

◦ 켓말(군말)

한쪽 구석에 있는 마을.



땀섬

◦ **쌀섬(米袋)**

옛날에는 가뭄이 심하던 논밭인데 해방 후에 관정을 파서 지금은 오히려 물이 남아도는 곳이다. 농사를 지으면 쌀이 아주 좋아서 밥을 지으면 기름이 흐르고 부드럽고 밥맛이 좋아서 쌀섬이라고 부른다. 바다에 있는 섬이 아니다.

[김한규 (金漢奎 1934. 5. 10) 대부동동 1317]

[김석배 1929. 3. 18 대부동동 1099-1]

11) 중부흥(中富興) -남1리-

대부도 남쪽 중앙부위에서 남동쪽으로 반도형(半島形)을 이루고 있는 지역. 1871년 작성된 대부도 지도에 말부흥끝에 부항포(浮甕浦)라고 표기돼 있어 물위에 떠있는 목이 긴 항아리(또는 병)같은 형의 포구라는 뜻이다 말부흥 끝에 포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웅진군지에는 산이 부엉이 같이 생겼다 하여 큰부엉이, 작은부엉이라고 불렀고 약 50년전부터 가운데 부엉이라고 불렀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부항포의 부항을 부엉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생각된다. 부항포 지명이 바뀐 것은 일제때로서 1917년경에 작성된 지도에 浮甕浦를 扶項浦(부항포)라고 한자만 다르게 표기하였다. 남1리와 남2리 사이에 있는 돌메기 갯골이 목이 긴 항아리 같이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1942년경 일제가 농촌진흥회를 조직하고 식량증산과 수탈을 할 때에 부엉이라고 발음되는 마을 이름을 부흥(富興)이라고하여 중부흥, 말부흥으로 한자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주강씨 3가구, 남양홍씨 5가구, 안동권씨 3가구, 경주최씨 5가구, 전주최씨 1가구 청주양씨 8가구, 고령신씨 3가구, 평산신씨 3가구, 교화노씨 3가구, 남평문씨 3가구, 경주김씨 2가구, 김해김씨 2가구, 경주이씨 8가구, 밀양박씨 5가구, 평택김씨 3가구 등이 살고 있다

◦ **한우물**

옛날부터 있던 우물로 수량이 많고 물맛이 좋아 온동네가 이물을 길어다 썼고 마을 이름도 한우물동네라고 하였다.

◦ **느릿뿌리**

지형의 경사가 느리게 내려가면서 해변에서 뾰족하게 나가

그쳤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느릿뿌리 들**

느릿뿌리의 경사진 땅을 논 밭으로 만들어 느리뿌리 들이라고 부른다

◦ **붉은부리**

남1리와 6리 경계지점으로 이 지역 토지 색깔이 붉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금당구지**

한우물 동네에서 동쪽 동림산업 염전쪽으로 있는 지형이 낮은 골짜기이다. 황금산에서 금닭이 날아와 내려 앉은 곳이라고 해서 금당구지라고 한다.

◦ **종자문**

남리와 상동 경계 사이의 산 모퉁이 좁은 길목을 부르는 이름.

◦ **항낭골(행낭골)**

행랑채에 사는 목부들이 많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각큰재**

고개의 경사가 급하여 각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왕 소나무**

약 200여년된 소나무로 둘레가 2m 70cm 나 된다 전설에 의하면 새가 씨앗을 물어다 심었다고 한다

[김영혁 (金榮赫 1938. 10. 1) 대부남동 369-3]

[최창운(1954. 1. 3) 대부남동 12통]



왕 소나무

12) 말부흥(末富興) - 남2리 -

지명유래는 중부흥과 같으며 옛날에 말을 사육했다하여 ‘말부’이라고도 했다.

◦ **말샘산(말새미)**

마을앞에 있는 산으로 말이 먹는 샘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이름.

◦ 아랫돌막(아랫돌메기)

말부흥과 중부흥 사이에 있는 좁은 갯골 윗쪽에서 물이 들어와 아랫쪽으로 돌아 빠진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윗돌막(위돌메기)

만복염전 서쪽 중부흥 사이의 좁은 갯골 이름으로 말부흥이 섬이었을 때 물이 먼저 들어와 나중에 빠졌다고 한다.

◦ 큰산재빼기

아랫돌목쪽에서 가까운 큰산곶에 있는 고개를 이르는 말이며, 큰산밑의 해안은 큰산개라고 부른다.

◦ 작은말

대부염전 안쪽(북쪽)당산에 있는 작은 마을.

◦ 메나발

옛날 고기가 많던 어장이름으로 민어가 많이 잡혔다고 한다. 간척사업으로 논이 되었다가 다시 염전으로 변했다.

◦ 큰마을

말부흥끝에 있는 마을로 남2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며 마을앞에 선착장이 있다. 당산 안쪽마을이다.

◦ 당산(堂山)

큰마을 앞에 있는 산으로 이 당에서 풍어제를 지냈다. 당산 높이는 28m이나 외지사람에게 팔린 후 파내고 집을 지었다. 설달 그믐에 날을 잡아 당제를 지냈었다.

◦ 당산뿌리

말부흥의 가장 동쪽 끝 뿌리로서 당산끝이라하여 당산뿌리라고 부른다.

◦ 장승백이

말부흥 해안쪽 마을입구에 장승을 세웠던 자리



할미섬

◦ 할미섬

대부섬전앞 남쪽에 붙은 섬으로 옛날에 마귀할멈이 살았는데 풍도를 걸어서 건너다녔다는 전설이 있다. 굴 바지락 낙지 잡아 등이 잡힌다.



작은 할미섬

◦ 작은 할미섬

큰할미섬과 같이 대부섬전에 옆에 있는 작은섬으로 연육되었다.

◦ 파산게미

배들이 정박해 있다가 바람이 심하게 불면 부서지는 곳

◦ 쥐구덕바위

당산앞 바다에 있는 바위로 조심하지 않으면 배가 좌초되기 쉬웠다고 한다.

◦ 통돌바위

돌 하나가 넘적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갯벌에 묻혀있다.

◦ 옛새두멍

옛날 건너가기가 가장 쉬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임순성 (林順成 1929. 4. 20) 대부남동 산 371]

[홍남의 (洪南義 1939. 4. 16) 대부남동 7-34]

13) 학난골(鶴卵谷) - 남3리 -

산세가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이라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행낭골(行廊谷)

학난골의 다른 이름으로 조선시대 말을 돌보는 복부와 감독관들이 잠을 자던 행랑을 지었던 곳이어서 행낭골이라는 설이 있다.

◦ 영장마루

다른 갯벌보다 빨이 깊어 잘못하면 빠져죽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옛날 말을 키울 때 이 빨로 몰아넣어 잡아먹었다하여 말을 죽여 영장하는 곳이라하여 영장말, 영장말을 다시 영장마루로 부르고 있다.

◦ **삼태골**

명골 가기 전의 골짜기 이름으로 지형이 삼태기 모양같다하여 붙여진 이름.

◦ **웃뿌리**

고래웃뿌리라고 하는데 장거리여로 가는 바위줄기가 고래 모양의 형이라하여 붙여진 이름

◦ **장거리(장자여)**

물이 나가면 걸어서 건너가는 길이 4~5미터 되는 큰 여.

◦ **고래뿌리**

고래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현재는 양식장 시설이 들어섰다.

◦ **용머리**

대남초등학교가 있는 지역. 용돛고개에서 내려온 산줄기 끝이 용머리 같다고하여 지어진 지명. 도로사업으로 용머리 갈던 산봉우리는 형체가 없어졌다. 비가 안 올 때 용머리를 향해 활을 쏘면 비가 왔다고 한다

◦ **동심마을**

웃동심과 아랫동심으로 나누어지는데 웃동심은 용머리 서쪽 윗골까지이고 아랫동심은 대남초등학교에서 남쪽인 윗밭재 까지이다. 골이 깊은 동네라고 해서 동심마을이라고 했다

◦ **벌곡동**

윗밭재에서 서쪽으로 남4리와의 경계지점 마을이다. 벌곡동

서쪽에 홀곶패총이 있다.

◦ **웃발재**

옛날에 웃을 놀던 바위가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술발 속직경 3.5m 정도의 평평한 돌이 깊히 박혀져 있으며 그위에 웃을 놀던 자리라고 하는 마귀할멈이 손가락으로 눌렀다고 하는 자국이 있다.

◦ **절골**

웃발재 아래 골짜기를 절골이라고 하며 옛날에 절이 있었으나 빈대 때문에 폐사되었다고 한다. 주춧돌이 남아있다

◦ **멍골(멍굴)**

이 마을은 학의 향문쪽이라고하여 멍굴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멍덕굴이란 가장 좋은 흰꿀을 말하는 것으로 학의 향문쪽이어서 토지가 기름지고 잘산다는 뜻이라고 한다.

◦ **강거래**

멍골서 남쪽 해안에 있는 마을인데 옛날에는 이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강건너 마을이라고 해서 강거래라고 하였다 하는데 현재는 마을앞까지 염전이 되었다.

◦ **증주물**

중이 먹던 우물이라고 해서 증주물이라고 불렀다.

◦ **서근여**

고으래 동남쪽 뿌리밖에 있는 여(岩)로 간조때 연육이 되어 서서 건너다고 해서 서근여이다.

◦ **아침서근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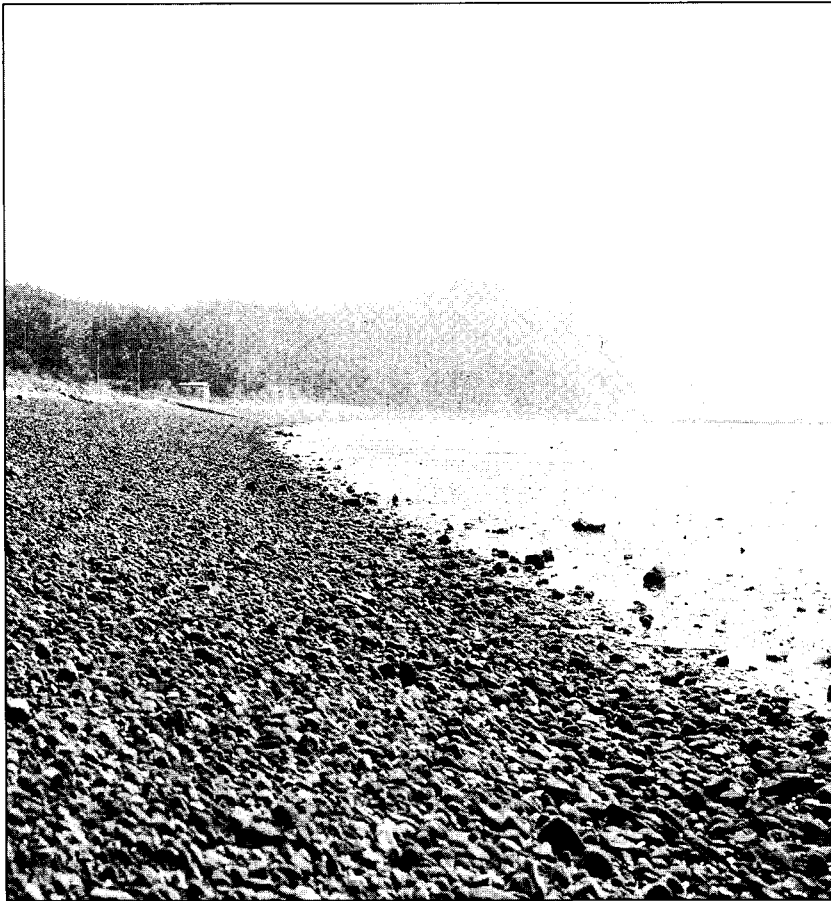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배들이 의지하여 피하던 곳으로 아침 녘에 서서 건너던 여라고 한다

◦ 두몽

남3리와 4리의 경계의 갯골로 옛날에 백마(白馬)가 나온 자리라고 하며 무척 깊은 곳이었으나 지금은 메워졌다

◦ 긴장술이

해안가가 긴 자갈밭으로 되어있다.



긴장술이

[김영조 (金永祚 1927. 11. 19) 대부남동 954-4]

14) 흘곶동(訖串洞) - 남4리 -

대부도 남쪽의 끝뿌리라고하여 고래뿌리, 쪽박골섬뿌리, 메추리섬뿌리, 선근여, 강거래뿌리 등이 송곳같이 뿔족하게 생겨 바다로 뻗어갔기 때문이다. 19세기전 대부도 지명에 나타나는 곳이 흘곶, 영전, 종현인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된 마을이다.

◦ **큰말**

마을회관 서쪽마을로 남4리에서는 제일 큰 마을이며 제일 오래된 마을이다 흘곶이란 지명은 이 마을을 이르는 지명이다.

◦ **당골**

마을회관 동쪽마을로서 당산 동쪽에 있다. 웃당, 아랫당이 있었는데 웃당은 제물을 소머리로 썼고 아랫당에서는 정초에도 큰굿을 했으며, 두 당은 남3리와 4리에서 공동관리 하였다. 아랫당 주변에는 구지나무가 많다. 작은당골, 큰당골이 있다

◦ **젓말**

당재너머 해변가 끝마을로 젓말이라 부른다.

◦ **아랫모통이**

큰마을 아랫쪽 산모통이에 있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북굴**

북쪽으로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북굴(북굴)이라 한다

◦ **집넘어**

큰말 뒷산너머 동네 10여 가구가 살며 간척지 논들이 조성되며 새로 생긴 마을이다.

◦ **씨름터**

큰말 못미처 씨름을 하던 평평한 곳이다.

◦ **안산(案山)**

큰말 앞에 있는 산으로 쪽박처럼 모양이 좋았으나 포도밭이 되었다.

◦ **북굴산**

남4리의 울타리 격인 산으로 흘곶마을의 북쪽산이라 해서 북굴산이라고 부른다.

◦ **당재끝**

당재빠기 끝이라하여 부르는 지명이다.

◦ **메추리섬**

큰말 앞에 있는 섬으로 물이들어 오면 섬이 되고 빠지면 연육이 된다. 섬 형태가 메추리를 닮았다.

◦ **막뿌리**

메추리섬 끝에 있기 때문에 막뿌리라고 한다.

◦ **상여집 뒷산**

갯말 너머 메추리섬 남쪽에 상여집 있는 작은 산으로 소나무가 울창하다.

◦ **번강죽뜰**

천수답이 많고 물이 적어 번개가 치고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곳이어서 번강죽뜰(번개강죽)이라고 했다.

◦ **쪽박술섬**

불굴산 줄기 서쪽 끝 해안에 따로 떨어져 있는 작은 바위섬(여)으로 섬 모양이 쪽박처럼 생겼다. 바위섬이지만 위에 소나무가 있다.



쪽박술섬

◦ **해나무**

해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교목으로 수백년 묵은 나무인데 전에는 왜가리가 둥지를 틀었었다.



해나무

◦ **만목섬**

메추리섬과 붙어있는데 좁은 목으로 경계가 되어 있다.

◦ **들안뜰**

들안에 논이 있어서 들안뜰이라고 한다.

◦ **중우물뜰**

중우물 앞에 있는 뜰.

◦ **시제멧갓**

큰마을 서쪽산 기슭에 있는 이씨묘역(李氏墓域)으로 시제를 지내는 묘역이라 해서 시제멧갓이라 한다.

◦ **큰말 앞장술**

큰말 앞의 해안 자갈밭을 말한다.

◦ **중우물**

옛날에 중이 이 곳을 지나다가 밭목을 빼었는데 이 우물에 밭을 담그자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물고사를 드리던 곳이다.

[이은흠 (李銀欽 1934. 3. 15) 대부남동 1012-3]

15) 흥성리(興成里) - 남5리 -

원래는 해적들이 이 섬을 침범 약탈하는 것을 막기위해 해적선 망을 보던 곳이라하여 망선리(望船里)였고 마을이름이 ‘끝 망생이’ ‘작은 망생이’ 등으로 지금도 부르고 있다. 望仙里라고 표기하기도 했으나 망선리의 어감(語感)이 좋지않다고해서 흥성리로 개명하였다.

◦ **끝망생이**

마을 끝에 있어 끝망생이라 불려왔다.

◦ **작은망생이**

산너머 마을로 3가구가 살며 절터가 있다.

◦ **벗터골**

큰망생이와 작은망생이 중간지점에 있다. 옛날 바닷물이 이

곳까지 들어와 소금을 굽던 벅이 있던 곳이라하여 벅터골이라 하였다.

◦ **다른박골**

고개너머 한쪽에 있는 마을

◦ **한사위**

끝 망생이 건너쪽에 있는 마을인데 찬 바람을 많이 받는 곳이라고 하여 찰한(寒)자를 써서 한사위라고 하였으며 윗한사위, 이레한사위 등 두 곳이 있다. 마을 한쪽에 있어 한사위라는 설도 있다.

◦ **작은 마락골(馬落谷)**

옛날 남5리 일대가 말목장일 때 말을 방목하던 곳으로 골짜기가 깊고 경사져서 말이 굴러 떨어지던 곳.

◦ **아랫산지뿌리**

망생이뿌리와 맞보고 있는 산뿌리.

◦ **큰 마락골**

작은 마락골보다 골짜기가 크다.

◦ **선너머**

산너머 있는 마을.

◦ **육골(六谷)**

남5리 동남쪽에 인접한 마을로 골짜기가 여섯 개가 있어 육골이라고 하며 고려시대 석관묘가 발견되었다.

◦ **잘푸리**

장골 잣등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마을로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흔하여 풀이나 곡식이 잘 자란다. 큰잘푸리와 작은잘푸리가 있다.

◦ **홍성리 나루터**

남5리 큰산줄기 서쪽 끝에 있는 나루터로 영흥면 선재도 나루터와 마주보고 있다. 맹생이 나루터라고 불렀다.

◦ **물흘리**

잘푸리 서쪽 해안으로 큰산 북쪽 계곡에서 물이 흘러 내려온다.

◦ **고천지뿌리**

마을의 안녕과 풍년, 풍어를 하늘에 기원하는 제단이 있던 산뿌리라는 설이 있으며 무속인들이 내림굿을 많이 하던 곳이다 옆 골짜기 바위위로 늘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이 있다.

◦ **산재뿌리(선지뿌리)**

홍성리 나루터에서 서남쪽으로 마주 보이는 산뿌리로 옛날 해적들이 침입할 때 이 곳에서 망을 보면 먼저 적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선지(先知)뿌리라 한다. 여기서 먼저 보고 망생이로 연락을 했다.

◦ **옆뿌리**

자리너머 남쪽으로 뽕죽하게 옆으로 돌출한 산뿌리.

◦ **거문여뿌리**

한사이뿔 동남쪽에 뽕죽하게 뻗어나간 암석뿌리로 돌 색깔이 검은 색이다.

◦ **안산(案山)**

한사위쪽에 있는 해발 43m 의 산으로 큰홍성리 앞산으로 마을의 안산(案山)이다.

◦ **남대문뿌리**

산과 산사이에 있는 뿌리로 대문같이 생겼다고 해서 부르던 이름인 데 부수어 방죽을 막는데 쓰고 흔적이 조금 남아

있다.

◦ **정상굴뚝**

큰산밑 마을 중간에 있는 들로 물맛이 좋고 수량이 풍부한 우물이 있다.

◦ **큰산**

황금산 다음으로 큰산.

[임규학 (1935. 4. 8) 대부남동 1127-4]

[강순식 (1960. 10. 4) 대부남동 1115-7]

16) 셋터 - 남6리 -

◦ **용머리(龍頭)**

남6리와 남3리의 남쪽 경계지역으로 용두고개 남쪽의 끝 봉우리가 용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나 도로개설로 없어졌다.

◦ **용두고개(龍頭峴)**

남6리 용머리 못미쳐 용두재 마을쪽의 고개.

◦ **막골**

셋터마을 서쪽 골짜기로 남쪽으로 길게 뚫린 골짜기이다. 이 곳은 고려장터로 늙은이들이 마지막 가는 골짜기라고 해서 막골이라고 부른다.

◦ **비틀**

남6리 용두고개 동쪽에 있는 마을로 마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서 비틀이라고 한다.

◦ **어지런이(漁池峴)**

용두고개 서쪽 산기슭에 있는 마을로 바닷물이 들어올 당시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 어지(漁池)라고 했으며 고개를 어지현이라고 했는데 이 것이 변음되어 어지런이라고 한다.

◦ **섭수리산**

남6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74m이다. 묘하게 외줄기로 하나가 우뚝하게 서 있다.

◦ **샛티(샛터)**

옛날 남리를 흘곶으로 부를 때 상동과 경계지역이다. 경계 사이에 있다고 해서 샛티라고 불렀다.

◦ **용두재마을**

용두고개 옆에 있는 마을.

[김영혁 (1938. 10. 1) 대부남동 369-3]

[신대현 (1923. 2. 7) 대부남동 279]

17) 선감동(仙甘洞) - 선감1리 -

고려시대부터 선감미도(仙甘彌島)로 표기되어 왔다.(高麗史) 1913년 남양군이었던 대부면을 부천군으로 편입할 당시 불도와 탄도를 합하여 선감1리로 하였다가 1961년 법정리를 행정리로 분할 하면서 선감도를 선감1리, 불도와 탄도를 선감2리로 하였다.

○ 옛날에 속세를 떠나 선경(仙境)에 살며 구름과 학을 벗하고 불로장생(不老長生)을 하며 신변자재(身變自在)를 한다는 신선(神仙)이 내려와서 맑은 물로 목욕을 했다하여 선감도로 불리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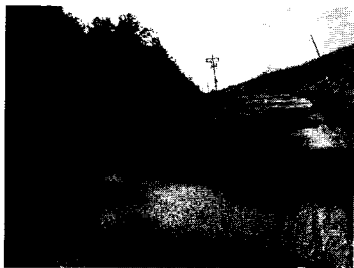
○ 선감도 높은 산 위에 정결한 바위가 있어 이 바위에 신선이 내려와 노닐었다하여 선암도(仙岩島)라고 했다가 후에 선감도로 바뀌었다는 설도 있다.

○ 홍다구(洪茶丘)는 고려인으로 원(元)나라에 귀화하여 고국인 고려를 제압하고 김방경(金方慶) 더불어 삼별초를 평정했는데 원나라의 일본정벌에 참여했다가 실패하고 고향인 남양에 돌아와 선감도에서 일본정벌에 필요한 배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때부터 섬의 이름을 선감이(船監吏 또는 船監島)로 불렀다는 설도 있다

○ 고려패망 후 왕씨들이 숨어 살았다고 하며 왕씨들 부둣이라고 하는 폐묘가 남아있다.

◦ **당재(堂峴)**

산업교육원 뒤쪽(북쪽) 높은 등성이를 당재라고 한다. 당산



당 재

정상에 옛날부터 당집이 있어 매년 정월 열사흘날 온동네가 공동으로 당제를 지냈다. 산 위에 큰당과 산중턱의 작은당 두 곳이 있었다.

◦ 절골(寺谷)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흔적은 없다.

◦ 선감나루개(벼락뿌리)

선감도 북쪽 끝에 있으며 대부도 진두나루개와 300m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다. 산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 벼락뿌리로도 부른다 현재 대선방조제 공사로 연육이 되었다.



선감 나루터

◦ 장골연못(場谷蓮池)

선감도 말목장에서 말들에게 물을 먹이던 연못. 현재는 메워져 있다.

◦ 말재비드렁

당재산과 옆산에 있는 흙이나 돌로 쌓은 둑을 얘기하며 말이 넘어가지 못하게 쌓은 것이며 말을 잡을 때 이 말재비 두렁으로 몰아넣어 잡았다고 한다.

◦ 장골(場谷)

초원(草原)이 좋아 마장(馬場)이었던 곳이며 선감학원이 있던 자리이다.

◦ 동산뿌리

선감도 동쪽 산뿌리이며 화성군 사람들은 알미뿌리라고 한다.

◦ 꾀끼뿌리

선감도 남쪽 끝지역에 꾀끼산이 있고 이 산뿌리를 꾀끼뿌리라고 한다 불도와 마주보고 있는 산뿌리이다. 병자호란 때 중국사람들이 먹고 버렸다는 대추씨가 자라 대추나무가 많았는데 알이 굵은 호대추였다.

◦ 우물꾸미

불도사람들이 길어다 먹는 우물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발견했다고 한다.

◦ **벗말(塩村)**

마을회관이 있는 선감도 큰 마을로 옛날에는 이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 와 염벚 있었다하여 벗말이라고 부른다.

◦ **배래**

선감학원자리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섬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 **큰골(長谷)**

큰재산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 **오리골(오리나무골)**

큰골에 동남쪽에 있으며 오리나무가 많아 오리골이라고 한다. 큰오리골과 작은오리골이 있다.

◦ **그늘산**

큰말앞 해안에 뽕죽한 산봉우리가 있어 여름에는 이 산 그늘이 많아 그늘산이라고 한다.

◦ **할미섬**

마귀할미가 살았다는 섬으로 염전을 만드느라 연육이 되었다.

◦ **치섬**

배래 앞에 있던 작은 섬.

◦ **우물재산**

동네 가운데 있는 산으로 산위가 평평하였다.

◦ **선돌**

아랫나들이에서 어장으로 들어가는 뺨 가운데에 있으며 마을 1940년대 마을 공유수면 매립시 깨어다 쓰고 현재 조금만 남아있다. 마귀할멈 뒤편자리라고 한다

◦ **삼신할머니우물**

장골위에 있는 우물로 가뭄을 타지 않고 당주가 목욕재계

하던 우물이며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했으나 경기도 공무원수련원에서 등산로를 만들면서 훼손하여 묻어버리고 그 위에 등산로를 만들었다. 그 이 후 마을에 손(孫)이 줄었다고 한다.

◦ 개우물

바닷물이 나가면 떠먹을 수 있는 샘으로 물맛이 좋다.

◦ 우물재산

재 넘어 우물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며 산정상이 평탄하여 선비가 놀며 책을 읽었다 한다, 현재도 500여평의 잔디밭이 있다.

◦ 뒤뜨렁

마을뒤의 언덕을 말하며 언덕밑에 우물이 있는데 물맛이 좋다

◦ 그무랭이

거무랭이라고도 하는데 흙 자체가 검은빛을 띤다

◦ 남대문뿌리

마을 남쪽에 있었는데 돌뿌리가 대문형태로 되어 있었으나 간척사업으로 없어졌다

◦ 웃나드리

마을어장 윗쪽에 어장을 드나드는 길이 있었다.

◦ 아랫나드리

마을어장 아랫쪽에 어장을 드나드는 길이 있었다.

◦ 내골창

이 골은 물이 많아 항상 물이 흘러 내를 이룬다고 하여 내골창이라고 불렀다.

◦ 화랑재

옛날에 선비들이 활을 쏘던 활터가 있었다고 한다.

[문기식 (文基植 1935. 11. 26) 선감동 567]

[장경호 (長慶鎬 1948. 6. 10) 선감동 571]

18) 불도(佛島) - 선감2리 -

1864년에 간행된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誌)에 처음으로 불도가 기록되었다.

옛날 어부가 고기잡이를 나가 고기를 잡던 중 그물속에 조그만 부처가 걸려 그 부처를 지기집 방안에 모셔놓고 정성을 드리며 모시던 절터를 불접리(佛接里)라고 하였고 섬이름도 불도라 하였다고 한다. 섬의 지세가 지네 형국이다.

전주이씨 3가구, 남평문씨 3가구, 남양홍씨 2가구, 금녕김씨 3가구 등이 살고 있다.

◦ 돌뿌리

옛날 불도에 있던 돌부처를 화성군 서신면 절로 옮겨갈 때 이 뿌리에 배를 대고 싣고 간 뿌리이며 돌로만 된 뿌리이며 마을 앞에 있다.

◦ 넘에

불도마을에서 서쪽등성이 너머 해안쪽.

◦ 발고랑

불도와 탄도 사이에 있는 갯고랑으로 옛날에 마귀할멈이 뒤를 보다가 얹어져 손으로 짚고 일어날 때 손가락으로 긁어 생겼다는 열두개 고랑이 있었다. 선감도의 선돌이 마귀할멈 똥자루라고 한다.

◦ 목개

탄도와 불도사이에 있는 갯골 1986년 이목개를 막아 연육이 되었다.

◦ 소죽은 부리

죽은소가 바닷물에 떠 밀려와 묻었다는 곳.

◦ 당산뿌리

불도 북쪽 약간 높은지대에 당이 있고 그 산뿌리를 말한다.

◦ 부처집께(부치미, 佛接里)

옛날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 온 돌부처를 불당을 짓고 모시다 화성군의 절로 모셔 갔는데 부처집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보통 부처짓께로 부른다.

◦ **밤나무재**

불도 북쪽 당산 동쪽에 밤나무가 많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

◦ **아랫낭**

동굴산 남쪽 해안을 아랫낭이라고 부른다 아랫낭에 작은 우물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자살을 하면서 아리랑을 불러서 아랫낭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 **검은여**

당산 동북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바위섬으로 바위색이 검다. 방조제 공사로 뿔에 묻혀 조금만 보인다

◦ **상여골**

드는부리 남쪽 탄도염전 서쪽너머의 골짜기에 상여집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

[홍기선 (1941. 9. 9) 선감동 21]

[이정광 (1954. 6. 2) 선감동 21]

19) 탄도(炭島) - 선감2리 -

탄도는 지금도 ‘숯무루’라고 불리고 있다. 옛날 이 곳이 무인도 이 때 수목이 울창하여 그 나무를 베어 숯을 굽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신동국여지승람(新東國輿地勝覽)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편에는 탄모도(炭毛島)라고 기록되었고 1861년 간행된 《대동지지》에도 炭毛島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1871년경에 작성된 《대부도지도》에는 탄매도(炭埋島)로 적혀있다.

순천장씨 4가구, 광산김씨 3가구, 전주이씨 3가구 등이 살고 있다.

◦ **목개뿌리**

탄도 북쪽 끝의 산뿌리로서 불도와의 사이에 있는 갯골(목개)이름을 따서 목개뿌리라고 하였다.

◦ **드는부리**

탄도 북쪽 목개 못미처 산봉우리 서쪽 해안이다. 이쪽으로 들어 온 물이 목개로 들어간다 해서 드는부리라고 하였다.

◦ **염장골**

사람이 죽거나 바닷물에 떠내려 온 시체를 이 곳에 매장을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삼형제 바위

바위 세 개가 나란히 줄지어 서있다. 부모가 갯벌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기다리다가 삼형제가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선돌

바다에 서있는 두 개의 바위로 키 큰 바위가 남편, 작은 바위가 부인으로 삼형제바위 전설에 나오는 부모바위이다.

◦ 주데터

삼형제 바위 아래뿌리 산 중간에 있는 지명으로 쪼트로 된 밭줄을 꼬넌 곳이다.

◦ 아래뿌리산(아래뿌리)

탄도 남쪽으로 뻗어 나온 뿌리에 해발38m 봉우리가 있어 이를 아래뿌리 산이라고 부르고 산끝뿌리를 아래뿌리라고 부른다.

◦ 웃뿌리

마을 윗쪽에 있는 산뿌리.

◦ 절골

마을 뒤 당산줄기 너머 절이 있었다는 골짜기.

◦ 미륵뿌리

당산 동쪽뿌리로서 옛날 이 곳 해안에서 덕적도 어부가 그물로 돌부처를 건져올려 불도에 가져다 모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당산(堂山)

마을 뒷산으로 당이 있다. 탄도의 당은 할아버지당으로 소를 잡아 당제를 지내고 불도의 당은 할머니당으로 닭을 잡아 당제를 지낸다.



선 돌

◦ **당집우물**

부잣집 처녀가 물이 귀해 절로 물을 길러 갔다가 스님이 길어준 물 한동이를 이고 내려오다 넘어져 동이를 깨트린 자리에서 샘이 나왔다고 한다. 탄도 산 중턱에 있다

◦ **구능뿌리**

귀신이 많이 나와 구낭제를 지내던 곳.

◦ **목섬**

이 섬과 구능뿌리 사이로 물목이 사람 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목섬이라고 한다.

◦ **누에섬**

햄섬(해미섬)이라고도 하며 누에처럼 생겼다.

◦ **머개섬**

물이나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작은섬.

◦ **왕소나무바탕**

절골에 큰소나무가 많아서 왕소나무바탕이라고 했다.

[장일수 (1941. 1. 10) 선감동 24]

20) 풍도(豊島)

풍도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조말까지는 단풍나무 풍(楓)자를 써서 楓島로 표기되었으나 1909년 대부면의 하부행정리(下部行政里)로 되면서 豊島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풍도는 섬전체가 활엽수로 덮혀있고 특히 단풍나무가 많아 가을이면 섬전체가 단풍으로 붉게 물드는 섬이다. 농토가 없고 섬 근해 어장에 해산물이 풍족치 않아 살림이 넉넉치 못했던 풍도 사람들은 섬이름을 풍년 豊자로 바꾸었다고 한다.

◦ **후망산(候望山 胡望山)**

해발175m의 풍도 최고봉으로 청일전쟁 때에 아산만에서 일본인들과 청국인들이 교전할 당시 청국인(淸國人)들이 망을 보던 산이라 하여 호망산(胡望山)이었는데 후망산으로 변했다고도 한다. 전라도로 세곡 실러 간 남편을 기다리던 산이기

도 하다.

◦ **웃말**

섬 동쪽의 완만한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집을 지은 마을로 가장 윗쪽에 있다.

◦ **중안말**

중간지역에 위치한 마을.

◦ **아랫말**

제일 아랫쪽에 있는 마을.

◦ **양짓말**

섬 북쪽에서 남향한 마을.

◦ **곶말(구억말, 귀안말)**

섬 구석진 곳에 있는 마을.

◦ **음산말(음삼말)**

남쪽 산 기슭에서 북향한 마을.

◦ **앞장술**

마을 앞 해안가의 자갈밭.

◦ **작은장술**

작은여뿔 너머 길이가 짧은 해안의 자갈밭.

◦ **긴장술**

작은장술 남쪽으로 연결된 긴 자갈밭.

◦ **큰여뿔**

마을 왼편 산밑의 검은 돌줄기로 이 곳에서 닻을 주고 출항할 때를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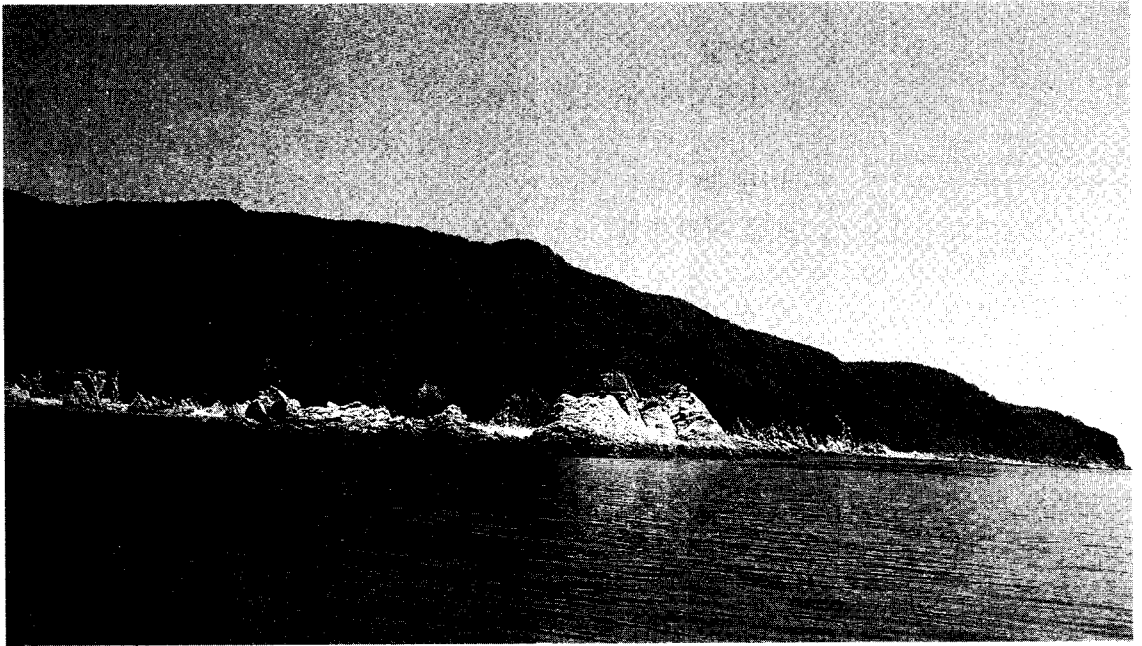
◦ **작은여뿔**

마을 오른쪽 방파제처럼 길게 뻗은 돌줄기로 바위 위에 위

험포지로 솔가지(立松)를 세워둔다.

◦ **입송뿌리(立松)**

작은 앞장술 남쪽 끝에 길게.나온 돌줄기에 소나무를 꽂아
놓아 배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입송뿌리

◦ **마이배**

남쪽 산줄기 끝 절벽위에 매가 집을 짓고 사는 바위. 마이
는 매의 느린 말이고 배는 바위의 준말이다.

◦ **마이배 뿌리**

마이배가 뽕죽하게 바다쪽으로 뻗어나간 산뿌리.

◦ **북배**

서쪽 산밑에 붉은 돌줄기가 넓게 뻗어나간 것.

◦ **진배**

길게 바다로 뻗어나간 바위줄기.

◦ **공동묘지**

북배 윗쪽에 있는 마을 공동묘지 1914년 일제시대에 지정한 곳으로 북망산이라고도 한다.

◦ **메물바위**

메밀같이 생긴 바위로 북쪽 해변에 있다.

◦ **갯드레**

북쪽 바닷가에 평평하고 큰 돌밭으로 ‘갯’은 바다를 말하고 ‘드레’는 들의 느린말로 평평하다는 뜻이다.

◦ **구렁배**

구렁이가 살고 있는 북쪽의 바위.

◦ **구렁배 탄목**

구렁배에서 멀리 떨어진 큰 여. 이 근처는 수심이 매우 깊다.



구렁배 탄목

◦ **북배탄목**

진배 남쪽 옆에 있는 목을 가진 붉은 돌섬‘탄’은 떨어진의 뜻이고 ‘목’은 사람의 목처럼 가늘게 된 줄등.

◦ **썰물배**

물이 썰나가야 사람이 갈 수 있는 바위.

◦ **속여**

바다 속에 있는 여로 북동쪽 해안에 있다.

◦ **학바위**

큰여뿔 너머 검은돌에 흰돌이 학처럼 나타난 바위.

◦ **선돌바위**

큰여뿔 너머에 있는 우뚝 선 바위.

◦ **안산**

후망산 남쪽 앞에 조금 낮은 산으로 이 산을 마을 앞이라 하여 안산(案山)이라 부른다.

◦ **절골**

안산 밑 평지에 절터가 있으며 땅을 파보면 그릇조각이 나온다.

◦ **참나무골**

참나무가 많은 골짜기.

◦ **동산**

학교 뒷산으로 옛날에 이 곳에 당이 있었는데 훗수가 증가하여 닭과 개 소리가 들려 산신령이 옮기라는 현몽이 있어 마을 뒤 서쪽너머로 옮겼다고 한다. 큰나무들이 뻗뻗히 들어서 있었고 한아름 되는 벚나무도 있었는데 모두 벌채를 하자 이장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 큰나무 한그루만 남겼어도 덜 섭섭하겠는데 어찌 그렇게 싹 벨 수가 있느냐며 나무랬다고 한다.

◦ **등무재**

마을 뒷등성이 큰 은행나무 동편쪽으로 나무가 없는 평지이며 벌거숭이 아이들까지 놀던 곳. 또는 벌거숭이 아이들이 뛰어 노는 것 처럼 나무가 없는 산등성이라는 뜻.

◦ **목금이**

목찌미를 뜻하며 산목 근처에 산이 튀어나온 곳.

◦ **큰 골떨이**

서남쪽 뒷편 잡목이 우거진 넓은 급경사골.

◦ **평너던**

동무재 윗편 평평하고 넓은 곳.

◦ **못안(모안)**

북쪽 산줄기 끝쪽 아래의 평평한 곳.

◦ **삼밭골**

산 밭골의 변한 말.

◦ **작은장술 개울**

동산 너머 개울 수질이 좋다.

◦ **진장술 개울**

진장술 위 개울 수질이 좋지 못하다.

◦ **청옆골**

동무재 너머 골, 수량이 적다.

◦ **양지말 개울**

비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개울.

◦ **개랑너머**

개울 건너.

◦ **당산**

마을 서쪽, 은행나무고개 너머 산 중턱에 있으며 당집이 있다. 원래 학교 뒤 동산에 있던 것을 이 곳으로 옮겼다.

◦ **섬창(선창)**

배가 머무는 곳 방파제 안쪽으로 선창의 변한 말.

21) 육도(六島)

◦ 끝녹섬(末六島)

여섯 개의 섬 중 가장 북쪽에 있는 무인도. (녹섬은 육섬의 변음)

◦ 가운데 녹섬(中六島)

끝녹섬 남쪽으로 있는 섬.

◦ 육섬(六島)

여섯 개의 섬중 가장 크고 마을이 있는 유인도.

◦ 질마섬

육섬 남쪽에 있는 섬으로 소의 질마 같이 생겼다. 뱀이 많으며 육도를 왕래하는 길이 7m 정도의 큰 뱀도 있다고 전해온다.

◦ 정철이

질마섬 남쪽 뽕죽한 삼으로 정의 끝처럼 뽕죽하다하여 정초리섬 이라고 한다.

◦ 물우녀(尾六島)

바위 두 개가 서 있는 여(썰물 때는 나타나고 밀물 때는 잠기는 바위)로 배가 다니는 물길 위에 있는 여 라는 뜻이라고 한다.

◦ 작은수리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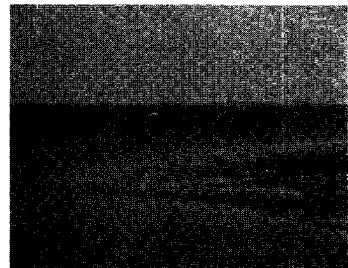
끝녹섬 서쪽에 서있는 바위로 독수리가 살고 있다.

◦ 큰수리바위

가운데 녹섬 서쪽에 서 있는 바위로 독수리가 알을 품는 곳.

◦ 이무기 바위

육도(유인도) 서북쪽 산밑 앞쪽의 바위로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죽었다는 바위.



육도 김 양식장



이무기 바위

◦ **독가치**

육도 남쪽 끝에 낮은 산줄기의 형태가 독과 같이 생겨 해안으로 뿔뚝하게 나간 지형 독곶(甑串)의 변음 또는 독곶(獨串).

◦ **앞장술**

마을 앞의 넓은 자갈 밭.

◦ **큰 낭성바위**

큰육섬 동남쪽으로 검은 돌줄기가 바다로 뻗어나간 것을 큰 낭성이라 부른다. 낭성이란 돌줄에 부딪치는 파도가 성(城)같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 **낭성바위**

큰 낭성바위 북쪽 산밑에 중절모자같이 생긴 바위.

◦ **당**

육섬 남산 상봉에 노송이 우거진 곳으로 옛날에는 여기서 당제를 지냈으나 근래에 노인들이 다니기 힘들다고 가까운 곳으로 옮김.

◦ **샘너머**

샘에서 서쪽으로 넘어가 있는 해안.

◦ **뒷등산**

육도 마을의 북쪽으로 긴 산줄기.

◦ **독끝장술(동끝장술)**

육도 동남쪽에 있는 자갈밭.

◦ **수독**

마을 앞 수북하게 모인 자갈국에 수지나무가 숲을 이루었다고 해서 수독이라고 함.

◦ **불씨는 재빼기**

마을에 급한일이 있을 때 풍도와 마주보이는 산 등성이에

서 불을 놓아 연기로 풍도에 신호를 보내던 곳.(풍도와는 멀리 약속이 되어 있다)

◦ **방죽논**

육도 마을 북쪽에 방죽을 쌓아 만든 논.

◦ **막뿌리**

육도 북쪽의 끝 산뿌리.

◦ **주벽골**

옛날 고기잡는 원돌(柱木網)을 매던 북쪽의 어장.

◦ **산두바위(산뒤바위)**

마을 앞 장술에 있는 예쁘게 생긴 세 개의 바윗돌.

◦ **갯샘**

마을 앞 뺨 속에서 솟는 샘으로 극심한 가물에는 이 물을 이용했다고 한다.

[차석기 (1923. 9. 8) 풍도리지 (1923. 9. 8) 저자 충남 당진 술항1]

[정달동 (1937. 2. 6) 안산시 풍도동 192]

[이현우(李鉉雨) 안산문화원 사무국장/향토사가]

제8절 종교

1. 민속신앙

1) 불도와 탄도의 당제(풍어제)

(1) 당의 위치와 형태

불도의 당은 큰당과 작은당 2개로 나누어져 있다. 큰당은 마을 뒤횥에 자리잡은 당제산(당산)에 바다 쪽을 향해 당집형태로 꾸며져 있고 작은당은 마을로 들어가는 옛길의 길목에 크지 않은 나무로 상정되어 있다. 굿이 끝나 뒤에 창호지에 쌀을 조금 싸서 서낭을 만들어 나무에 걸어 둔다. 큰당은 벽돌 1칸 집으로 슬레이트 지붕이며 양철문을 달았다. 내부의 낮은 돌제단 위에 제기 3개, 촛대 2개, 한지로 접어둔 고깔모 3개, 향꽃이 1개가 놓여 있다. 오른쪽 구석에는 조화를 꽂은 꽃병을 비롯해 분통, 손거울, 색동고무신 3켢레와 초를 놓아 두었고 외쪽 위로는 줄을 치고 어린아이 색동 한복을 걸어 두었는데, 이는 서낭님에게 바친 서낭님 옷이다. 당집 왼쪽의 소나무 아래에는 조라술 담그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탄도의 당은 마을 보세산 정상에 있었으나 3년전 산불로 당이 타버린 후 콘테이너박스로 당집을 대신했으며 석산개발로 보세산을 깎고 있어 산 중턱으로 내려와 있다.

불도의 서낭당은 할머니 당이고 탄도의 서낭당은 할아버지 당인데 두 당은 서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2) 제의 절차 및 내용

불도와 탄도의 제의 준비과정은 같으나 불도는 닭, 탄도는 돼지를 제물로 쓰는 것만 다르다.

선달 그믐 안에 당주를 정하고 정월 초사흘 안에 만신에게 당굿날을 가리러 간다. 대개 정월 보름 안쪽으로 잡는데 불도와 탄도의 당제 지내는 날짜는 하루나 이틀 사이를 둔다.

당주는 부부 1집을 선정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나 좋지 않은 일이 있는 집은 제외한다. 당주가 선정되고 날을 가린 후에는 금기에 들어가 음식도 비린 것을 먹지 않고 소금장 정도만 먹는다.

당주는 당산날 하루 전에 제당을 청소하고 조라술 묻는 곳에 술을 만들어 묻어 둔다. 제물은 불도는 통닭, 탄도는 돼지고기를 쓰며 삼색실과, 식혜와 두부 두모, 둥근 달떡 두 개이고 기타 어·육류는 올리지 않는다. 달떡은 마을 부인네들이 당주집에 모여 직접 만든다. 또한 별도로 멍쌀 깻팥이 떡을 150개 정도 만드는데, 이 것은 만신이 굿 끝 판에 재수 굿을 할 때 마을 사람들에게 복 받으라고 나누어 주는 떡이다.

예전에는 동네 만신이 굿을 했으나 지금은 없다. 화성군 송산면 마산리의 단골만신이나 인천의 만신이 굿을 하며 탄도는 지금도 3년에 한번씩 당굿을 하지만 불도는 1995년 이후 중단되었다.

(3) 제의 진행과정

만신들은 당산날 낮에 마을에 도착하면 먼저 당주집 고사를 지낸 후 2~3시 경에 당산으로 올라간다. 당맞이를 가는 것이다. 불도에서는 만신들이 기를 앞세우고 당으로 올라가는 도중 언덕길에서 탄도 쪽을 보면서 “탄도 도당할아버지 불도 당제 지내니 술 잡수시러 오시오” 하고 3번 외친다. 탄도 서낭신인 도당할아버지를 불러 함께 모시는 것이다.

당으로 올라가 그 곳에서 2시간 정도 굿을 하고 당신(堂神)을 모시고 마을 가운데 있는 당마당으로 내려온다. 당마당에서의 굿은 저녁식사 후에 시작하여 밤새 놀고 다음날 아침에야 끝난다. 당마당에는 천막을 치고 한 쪽 옆에 화롯불을 피우는데 바다 쪽으로 굿상을 차리고 그 옆으로 집집마다 개인 정성으로 꽃반을 가져다 놓는다. 꽃반은 개인 축원상으로 소반 위에 쌀을 깔고 그 위에 실 감은 수저를 꼽은 밥그릇을 얹는다. 조라술도 떠 놓는다.

대동에 대한 치성을 드릴 때는 당주가 대표로 굿상 앞에 절

하고 만신의 공수를 받는다. 굿을 마치고는 잔 받으라고 꽃반 올린 사람들을 불러 쌀점을 쳐주고 축원소지를 올려 준다. 쌀알이 짝수로 나와야 좋다. 이러한 개인 축원 상다짐으로 밤을 새운다.

예전에 배 부리는 집에서는 뱃기를 미리 당마당에 세워 두었다가 당산에 올라갈 때 가지고 가서 신을 내린다. 당신을 내린 뱃기는 자신들의 배에 가져다 꽂고 고사를 지낸 후 다시 당마당으로 가지고 와 꽂아 두었다가 그 다음날 굿이 모두 끝난 후 다시 배로 가져다 놓는다.

만신과 함께 오는 악사는 예전에는 삼현육각을 모두 잡혀 6명이 짝을 이루었으나 요즘은 피리, 해금, 장구, 대금 4명과 만신 1명이 오는데 150만원 정도를 주고 굿상에 쓸 제물을 만신이 대신 준비해 오게 한다.

(4) 결산 및 마무리

제의 경비는 마을 대동회의 공동경비로 하고 부족분은 현금으로 호당 거출한다. 그러나 쌀은 집집마다 정성으로 조금씩 거둔다.

당주에게는 별도의 사례비는 없지만 당집에 깔기 위해 해마다 새로 구입하는 돗자리를 당굿이 끝난 후 당주집이 갖도록 하고 있다. 결산은 당굿이 끝난 날 저녁에 당주집에 모여서 음복을 하면서 계산하고 끝낸다. 당제를 지낸 후에는 풍물을 두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금기처럼 전한다.

*제보자 : 홍기선, 장일수, 이정광

2) 풍도의 당제

(1) 당의 위치와 형태

약 20여년 전부터 당제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당산은 잡풀과 나무들이 우거져 접근이 어려운 형편이다. 당제를 지낼 당시에는 아랫당과 웃당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아랫당에는

당집이 있고 웃당은 산 위에 큰 고목나무로 마련되어 있었다. 지금도 웃당 신목은 남아 있다. 당시 당집 안에는 식사도구, 떡 시루, 술잔 등의 제기를 보관하였을 뿐 별도로 모신 것은 없었다.

(2) 제의 절차 및 내용

이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하루를 전후하여 선달 그믐께부터 풍물(뚜드렁패 라고도 하는데 상모놀이와 탈을 쓴 잡색까지 일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을 치며 마을과 집집을 도는 지신밟기를 했다. 보통 2~3일이 걸렸는데 마지막 날에 무당을 불러 동네굿을 한 다음 다시 날을 가려 잡아 당제를 지냈다. 그러나 약 40여년 전에 동네굿은 중단이 되었고 당제도 몇 년 더 지속 되다가 이 역시 단절 되었다.

풍물은 음력 선달 스무여드레 정도에 시작해서 집집마다 지신을 밟고 나면 2, 3일이 걸렸다. 이러한 지신밟기는 우물굿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당시 7개 정도되는 마을 우물을 돌면서 “물 잘나서 1년내내 물걱정 않고 잘먹게 해달라”고 축원하였다. 초이튿날은 동네사람들이 모두 모여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풍물을 치면 집주인은 마당에 명석을 깔고 농사 지은 보리를 통말에 고봉하나 담고 실타래를 감은 숟가락을 꼬아서 내놓았다. 간혹 돈을 놓기도 하며, 풍물꾼들은 집안을 돌면서 한참 놀다가 막걸리 술상을 받아 먹고 다음집으로 옮겨 간다.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 보리 · 콩 · 쌀 등이 모아지므로 이것을 모두 모아 결산을 본 후 장에 내다 팔아서 기금을 만들어 굿과 당제를 지낼 경비로 썼다.

풍물은 행마(상모), 기 등 일색을 갖추었으며, 바가지에 수염을 달아 만든 탈을 쓰고 바보짓을 하는 “어딩이”라는 탈꾼도 있었다. 풍물놀이가 끝나는 날 저녁부터 무당이 하는 굿이 시작된다. 밤새 하는 하루굿으로 매년 한 번씩 하는 “동네굿”이라고 하며 무당은 이작도(승봉도 옆에 있는 섬)에 사는 부부무당이 맡아서 하였다.

굿상에는 선주와 각 가정에서 준비한 개인상이 따르는데, 밥

그릇에 쌀이나 잡곡을 담고 실타래를 묶은 수저를 꼬아 작은 소반에 올린 것이다. 무당은 먼저, 동네 일년 열두달 사고 없이 고기 많이 잡게 해 달라고 기원하였다. 굿의 마지막에 무당은 선주들 개개인의 소지를 올리면서 무사풍어를 기원해 준다. 개인치성까지 마치면 새벽 2 - 3시경이 되는데, 이때 “대승배”를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가 띄운다. 이것이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나 가야 좋은 것이며 섬으로 다시 밀려오면 좋지 않다고 믿었다. 대승배를 싣고 나갈때는 풍물을 치고 소리하며 나갔다가 이 배를 띄워 보낸 후에는 풍물소리를 내지 못한다.

동네굿이 끝난 후에 날을 잡아 당산을 잡숫는다. 당산에서는 별도의 소지를 올리지 않는데, 동네굿에서 무당이 했기 때문이다.

당굿이 끝나면 동네에서는 50대 전후의 남녀 1명씩을 “당제 잡숫는 사람”으로 선출하고 “당산 잡수러 올라간다”. 당산 잡수러 갈 사람은 미리부터 초상집이나 아이를 낳은 집 등 부정 한 곳에는 가지않고 모든 것을 금기한다. 비린 것도 먹지 않고 일주일간 간장반찬으로만 먹는데 모두 몸가짐을 정갈하게 하기위함이다. 산제 지내기전에 산 입구에도 금줄을 쳐서 누구든 함부로 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제물은 남자 당주가 인천까지 나가서 쌀 1말, 조기 3마리, 사과, 배, 색동사탕 등을 물목대로 구입해 온다. 제물장을 봐 가지고 마을에 들어올 때는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별도로 마을 뒤편으로 돌아가서 당산으로 바로 올라간다.

당주들은 당제 잡숫는날 새벽 일찍 당산에 가서 샘을 정리하고 종일 제물을 장만 한다. 두 사람은 말을 하면 부정탄다고하여 가능하면 말을 하지않고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준비를 하며, 제물은 아랫당에 쓰일 제물과 웃당에 쓸 제물을 따로 준비한다. 예전에는 당산에서 직접 절구를 찧어 떡을 찧고 제물을 준비했다. 제물준비가 끝나면 남자 당주는 웃당가는 길은 미리 치워두고 시간이 나면 잠시 눈을 붙인다. 새벽 4 -5시경에 일어나 아랫당에 먼저 제를 지내고 이어서 따로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웃당으로 가서 제를 올린다. 소지는 없고 동네가 전부 병없이, 우환없이 잘 살게 해 달라고 비손하고 당주 둘이

절한다. 술잔 한 잔 부어 올리고 절하고 밖에 나와 떡, 과일 등을 조금씩 떼어 동서남북으로 뿌리는 것으로 간단히 끝낸다.

제의후 제물은 남녀 당주가 나누어 가지고 내려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않고 자기네 식구만 먹는데, 떠사람을 먹이면 부정한다고 했다. 당주들에게는 수고비를 조금 주었다.

1989년 조사보고된 풍도의 민속신앙 자료를 보면 온 마을의 평안과 해상운행의 보호를 맡은 신을 산신(山神)이라하고 1년에서 3년 마다 음력 2월 중에 제를 지냈다고 하였다. 정결한 남녀(부부도 가함)를 제관으로 삼고 3일간 입산금지, 제관집 출입금지로 술가지와 황토로 표시를 하는 금기를 지켰으며 제관은 3일간 목욕하고 제물을 준비하되 고기는 금지한다고 하였다.

제를 지내는 시간은 밤중에 기제사 지내는 것과 같이 매 2그릇, 국 2그릇, 기타 제물을 당집에서 준비하여 당 속에서 지낸다고 하였다. 육도에도 당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제관 1명, 밥 2그릇, 냉수 2그릇, 포 뿐이요 고기를 쓰면 화가 있다하며 물은 갓 샘물을 쓰고, 백지 한 장 집어 벽에 걸고 한 장은 바닥에 깔고 상놓고 그리고 제를 지낸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제의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몇 년 더 지속되다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중단되었다.

(3) 결산 및 마무리

제의 후의 결산은 풍물을 치면서 집집마다 돌면서 모은 쌀, 보리 등의 곡물을 현금으로 바꾸어 제의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무당에게도 별도의 수고비 없이 개인 치성 제물인 곡물을 거두어 가는 것으로 대신하였기 때문에 간단히 정산하는 것으로 끝낸다.

*제보자 : 고재욱, 김영수, 오재희, 오개남, 양옥길

3) 불도의 가신신앙

김복녀씨 댁에는 성주와 터주, 걸립이 남아있다. 예전에는 해마다 안택고사를 지냈으나 대주가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모두

출가하여 타지에 나가고 할머니가 혼자 남게된 후부터 지내지 않고 있다. 대략 5년 전의 일로 당시 집에 우환이 있어서 만신 4-5명을 불러서 크게 굿을 하였다.

평소에는 봄, 가을에 날을 잡아 안택고사를 지냈다. 가신의 신체는 성주는 마루 상량 아래에 한지를 2cm폭으로 겹쳐서 부채접기를 한후 가운데를 반으로 접어 못에 걸어두었다. 만신이 안택고사를 한후 새로 만들어 걸은 것이다. 그 맞은편 바깥쪽 아래 벽에는 새끼줄을 치고 그 줄에 북어 대가리를 꿰고 한지 두권을 통채로 걸쳐두었는데 이를 걸립이라고 한다. 걸립은 문간귀신으로 잘 얻어먹지 못하는 존재이므로 별도로 제물을 바치는 것인데, 집에 아픈사람이 생기거나 우환이 있을 때도 걸립에 풀어 먹인다.

대주가 살아있을 때에는 연평도로 고기를 받으러 다니고, 또 인천으로 소금이나 쌀을 실어나르는 목선을 부리느라 늘 나다녔으므로 당시에는 안택고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터주는 짚 주저리로 만들어 두었던 자리만 있고 신체는 남아 있지 않다.

안택굿을 할 때 차리는 제물은 팔시루 떡, 사과, 배, 북어, 막걸리 등이며, 북어는 상에 두 마리 놓고, 아들 명길게 해달라고 북어에 실타래를 감아 떡시루 위에도 얹었다. 촛불 켜고, 돈도 놓는다.

굿은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되는데 주로 성주 앞에서 축원을 하고 그 후 떡을 나누어 담아 터주에도 잠깐 빌고, 부엌 조왕에도 떡을 한접시 담아 올린다. 만신은 축원을 하고 악사들은 징, 장구, 껏껏이, 재금을 맡아 떠들석하게 굿을 하면 동네사람들도 모두와 구경을 하고 함께 음복한다.

집안 고사후 다음 날에는 동네 당산에 올라가 동네정성을 드린다. 제물은 불 3그릇, 생공양미 3그릇을 올리고 촛불 켜고 사고지 종이(한지)를 걸어 젓상을 준비한 후 절하고 술 한 잔 올리고 끝낸다.

*제보자 : 김복녀, 박홍열

4) 풍도의 가신신앙

『풍도리지』에는 가내제신(家內諸神)으로 성주신(성조대감 · 상량신)을 제일 높은 신 (諸神 지휘하는 神)으로, 지신을 터주로 하여 뒤뜰에 터주가리(집터의 신)를 세운다. 용신을 부엌을 맡은 조왕신으로, 업신을 창고와 가재도구를 맡은 신으로, 축신을 화장실을 맡은 신으로 형벌을 주장한다고 하며, 문신을 인간을 맡아 출입의 안전과 악귀를 제거한다고 하며, 마부신을 가축을 주장하는 마구간의 신으로, 조상신을 자손을 보호하는 신, 세존(부처)신을 가족 수명, 곡식, 의복을 맡은 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집안신에 대한 안택 주관자는 정쟁이(정은 經任)이며 풍물은 북, 돛양판을 독경하며 올린다고 하였다.

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안택 결정일부터 지낼 때까지는 술가지와 황토로 출입을 금하는 표시를 한다. 정한 장소에 떡을 한 그릇씩 갖다 놓고 성주갈아 붙이기를 한다. 대를잡아 신을 내려 가족의 1년 신수를 묻고 그 백지를 물에 적셔서 뭉쳐서 묶은 것을 떼어내고 새것을 붙인다.

이어 가족 수대로 사고지를 잘라 빌면서 태우는데 맑게 잘타면 좋고 잘안타면 흉하다 한다. 독경이 끝나고 마당에 나가 경을 읽고 모든 음식을 바가지에 담고 국물을 부어 의지 할 곳 없이 떠도는 모든 잡신에게 많이 먹고 멀리 가라고 일정한 곳에 버린다. 어떤 고사든지 끝에는 부정물림이 공식으로 끼어 있다.

현재 시점에서 풍도에 전승되고 있는 가신신앙은 마을 공동신앙의 전승이 단절된 것처럼 가신신앙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개남씨 댁 성주받이와 동토

성주를 모시는 것을 성주받이라 하는데 “성주받는 양반”을 불러서 매년 정월이나 이월에 한다. 경쟁이는 북을 두드리면서 성주풀이를 하는데, 이를 안택한다고 했으며, 정월에 주로 하였다. 40년전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며 그때마다 성주를 새로 바꾸었는데, 한지를 둥근모양으로 뭉쳐서 물을 빨라 마루 상량

위에 붙이면 그대로 붙어 있었다.

젓상은 마루 뒤주위에 차리며, 밤중에 집안 식구끼리 나누어 먹고 만다. 제물은 팔시루떡 3되 정도해서 성주상에만 시루채 놓고 부엌의 주왕, 뒷결의 터주, 허수애비가 있는 변소간에는 조금씩 떼어 놓는다.

또한 이 댁 건너방 기둥 좌측에는 왕(王)자를, 우측에는 왕령(王令)이라고 기둥나무에 직접 먹글씨로 써두었는데, 동토를 막기위한 방패라고 한다. 집안에 누가 아프면 잡귀가 생긴때문이라 하고 이를 통토났다고 한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써둔 것이다. 그래도 탈이 났을 때에는 무당을 불러 풀어내야 하는데 밥을 해놓고 양푼을 두드리면서 경을 외운 후 밥을 바가지에 담아 버림으로서 액귀를 쫓는다. 6. 25이후 없어졌다.

(2) 오재희씨 댁 고사

10여년전 고기배를 부릴 때는 대동에서는 “당산에 정월고사를 잡숫고”, 개인 가정에서는 집안 성주를 위하는 안택고사를 지냈다. 꽃계를 잡기위해 닳배가 나갈 때에도 고사떡을 했다. 두 개의 떡시루가 주제물이며, 안시루(집시루)는 집에서 뒤주위에 올려놓고, 통북어 한 마리와 처음 그물을 놓아 잡은 고기를 올렸다. 바깥시루는 배위에서 차려 바다에 풀어내는 것으로, 예전에는 무당이 했는데 지금은 선주가 간단히 빈다. 지금도 행하는 집이 있다.

칠월칠석에는 동산 우물에 목욕재계하고 밤에 샘에 가서 밥, 나물 등을 간단히 차리고 주부가 혼자가서 정성을 드렸다.

(3) 고재옥씨 댁 고사

이 댁에서는 도리도로 작업하러 가기 전날에 고사를 지낸다. 부부가 목욕재계하고 뒤주위에 촛불 켜고 메 한 그릇, 술 한 잔으로 간단히 차리고 절한다. 도리도에 있는 기간동안 풍랑 없이 잘 갖다 오게 해 달라고 조상님께 고하고 가는 것이다.

또한 가을에 낱을 잡아 안택고사를 지낸다. 성주는 문창호지를 물에 담궈서 둥글게 뭉쳐 기둥에 붙여 놓으면 몇 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데, 별도의 관리나 손질 없이 늘 그대로 두는 것이다. 고사를 지낼 때 성주에는 백설기를 시루채 올린다. 터주는 집터를 지켜주는 신으로 부엌 기둥마루 옆에 상을 차리고 정화수를 떠 놓거나 술을 한잔씩 올린다.

집안신에 고사를 지낼 때는 절은 하지 않고 술을 올리고 비손만 한다. 보리술로 농주를 담았을 때에도 제일 먼저 조상님께 드리고 먹는다.

(4) 이정숙씨 댁 고사

육도는 행정구역상 안산에 속해있으나 생활권은 당진에 속한다. 6개섬중 다른 5개섬은 무인도이고 육도에만 9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다.

대동 당제는 오래전에 없어져 지금은 돌로 쌓은 제단이 허물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성주받이는 몇해 전까지도 했는데, 지금 모시고 있는 성주는 30년전에 단골무당인 “이적할머니”가 와서 받아 준 것이다. 그 후로도 조상만 위하는 때는 할머니 혼자 와서 하고 안택고사를 크게 할 때는 할아버지가 함께 와서 했다. 매년 정월이나 2월 중에 낱을 잡아 지냈다.

(5) 풍도의 배서낭과 뱃고사

배를 처음 구입하면 어느 배든지 배서낭을 모신다. 그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양옥길씨의 경우 창호지를 두 장 접어서 배방장에 걸어 두었다. 서낭님 옷이라고 여기며, 배를 구입한 후부터 걸어두고 매년 다시 갈아주거나 처음 그대로 두기도 한다. 고깃배에는 창호지에 북어를 묶어 서낭을 모시기도 한다.

예전에는 황해도 부포, 연평, 웅진 등으로 출어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어선과 소금, 쌀 등을 운반하는 운반선이 다녔는데, 출어시에는 반드시 무당을 불러서 출어고사를 지냈다.

대개 4월에 고기잡이가 시작되는데 그때 돼지 제물을 준비해

배위에서 지냈다. 근래에는 주로 새벽에 선주집에서 제물음식을 장만하여 무당없이 식구끼리 조용히 지내고, 아침에 동네사람들을 불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지난해에도 지냈다.

그 외 “뱃고사”, “서낭님 고사”, “배서낭 고사”라고 부르는 고사를 지내는데, 이는 선주의 성의로 한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선주 재량으로 하는 것이다. 고사의 목적은 사업번창, 선원의 무사 평온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서낭고사를 지낼 때는 운반선은 화물 적재실 안에 젓상을 놓고 제물을 차린다. 지금은 별도로 모신 서낭신체는 없다. 술 한 잔 올리고 3번 절하고 선주나 선장이 축고하는데, 그 내용은 “서낭님 앞에 떡과 급매를 차려 놓고 축고하니 내루 빛(냄새와 빛)으로 많이 흠향하십사”고 축원한다.

소지는 없고, 고사를 지낼 때는 삼색뱃기를 내다 쏜다. 삼색은 흰색, 남색, 홍색, 혹은 홍색, 황색, 남색으로 하며, 가운데에 상자(上字)를 쓴다. 뱃기는 선주가 제작하는 것이며 고사후에는 배에 보관한다.

고사 끝에는 산물이라고하여 음복전에 제물을 조금씩 떼어 바가지에 모두 담아서 내버리는데, 다음과 같이 축고한다.

“물안에 참봉, 물위 참봉, 진걸로 마른 걸로 많이 먹고 멀리 가십사”고 한다. 참봉은 도깨비를 일컫는 것으로 도깨비는 감히 참석을 못하는 자리이므로 따로 떼어 주는 것이다. 고사후 선원들 끼리는 그 자리에서 서낭님 응감한 퇴주잔이니 한잔씩 먹자고 하고 모두 음복한다.

*자료제공 : 양옥길

5) 영전 당제

(1) 당의 위치와 형태

동내의 주산봉에 군웅할머니라는 신(神)을 위하는 윗당과 아랫당이 있다. 아랫당에 여신(女神)의 노랑저고리 남치마를 토담으로 된 당에 안치했다.

(2) 제의 절차 및 내용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며 모든 액을 물리쳐 달라는 의식으로 봄에 드리는 당고사는 뒷 바다에 그물을 매어 첫물선에 드는 송어를 제물로 삼고 음력 2월 하순경에 당제 길일을 잡고 온 동네 남녀노소가 모여 당마당에서 무부(巫夫)들의 징, 해금, 제금, 북, 장구, 피리로 주악을 잡고 여자무당은 군웅할머니의 노랑저고리와 남치마를 입고 춤을 추며 여신을 달랜다.

뽕선을 경영하는 집에서는 높은 대낭대에 오색천을 매달고 당앞 만신들 앞에 별도로 둥근 땃방석을 깔고 쌀 한말을 수북하게 담고 숟가락에 실타래를 감아 꽃고 돈을 함께 놓고 만신의 공수를 받는다. 이 때 만신이 여러 신을 불러 주문을 외우면 낭대를 잡고 있는 사공의 손이 진동하여 그 큰 낭대가 흔들리면 대 내렸다고 하며 선주와 사공은 덩실덩실 춤을 춘다. 낭대를 잡은 사공은 곧바로 해안에 대 있는 배로 가서 낭대를 배 앞에 묶고 선주가 마련한 땃고사를 지낸다

한국전쟁 후 점차 사라지기 시작해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자료제공 : 김석배

[1~4 안산시사(경기도박물관 김지옥)에서 전재 및 발췌]

2. 오래된 사찰과 교회

1) 쌍계사



쌍계사 극락보전

(1) 소재지 : 대구북동 1058번지 (☎ 032-886-2110)

(2) 창립일자 : 1689년

(3) 창립자 : 죽헌(竹軒)

(4) 현주지 : 항명

(5) 연혁 :

창건 및 연혁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하는 바가 없으나 이 절에 보관되어 있는 [정수암 성조기(淨水庵成造記)]라는 현판을 통해 그 대강은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처음에는 절 이름이 정수암(淨水庵)으로서 1689년(숙종 15) 죽헌스님에 의해 창건 되었다가 1722년(경종 2)에 허물어졌고 1745(영조 21)에 그 터에 다시 정수암을 세우기 시작하여 1748년 완공된 뒤 1750년 지금의 쌍계사로 절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그런데 절 앞에 세워진 안내문에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절의 전신인 정수암이 창건된 해를 1660년(현종 1)으로 적고 있고, 또 이 절 경내에서 1576년(선조 9)에 해당되는 만력(萬曆) 4년의 연호가 찍힌 명문와(銘文瓦)가 발견되는 것에 의해 적어도 그 무렵 혹은 그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1689년(숙종 15)의 명문와도 극락보전 지붕에 몇 점 얹혀져 있었는데 거기에 신영(信英)과 설청(雪淸) 등의 스님 이름이 보이고 있어, 이 때 앞서의 죽헌스님과 함께 중건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1750년 쌍계사로 절 이름이 바뀐 뒤로는 1869년(고종 6)에 한차례 절을 중건한바 있으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1986년 요사를 중건하고 1989년에는 법당을 새로 지었고 1993년에 약사여래상을 봉안하였다. 법당(대웅보전)의 규모는 40평 정도이고 오래된 조선시대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목조아미타불좌상과 1803년에 제작된 신중탱화(神衆幀畵)와 현왕탱화(現王幀畵), 제작연대 미상의 아미타후불탱화(阿彌陀後佛幀

畵), 1919년 제작된 지장탱화(地藏幀畵들), 19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산신탱화(山神幀畵)가 있다. 그리고 극락보전 뒤에는 취혈당대사의 글이 새겨진 부도가 있다. 절의 경내는 약 450평 정도로 절 앞마당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고 용정이라고 하는 바위에서 솟는 맛좋은 우물이 있다.

[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 2 (1995. 10. 사찰문화연구원)에서 발췌]

(6) 역대주지

- 인종(1963. 6 - 1967. 6)
- 법정(1978. 6 - 1981. 6)
- 광보(1981. 6 - 1985. 6)
- 창렬(1985. 6 - 1997. 2)
- 진효(1997. 2 - 1999. 5)
- 항명(1999. 5 - 현재)

2) 대부천주교회

(1) 소재지 : 대부북동 184번지 (☎ 032-883-6826)

(2) 창립일자 : 1958년

(3) 창립자 : 장요왕

(4) 현신부 : 이윤하

(5) 연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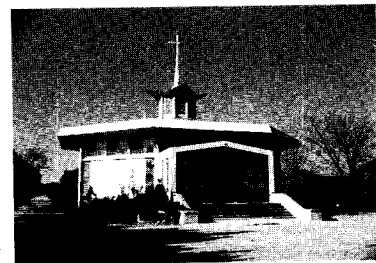
· 1959년 8월 당시 부천군 대부면 북리 상동에 초가삼간을 얻어 신자 20여명이 인천 답동 장요왕 신부님의 지도를 받아 최초로 신자생활을 하였다(대부공소)

· 1971년 5월 부천군 대부면 북리 184번지에 흙벽돌 공소 신축

· 1977년 1월 용진군 대부면 북리 184번지에 시멘트벽돌 슬라브 공소 신축

· 1997년 10월 15일 본당 승격(대부천주교회) 웬 핵돌(멕시코 과타루페 소속) 신부 부임

· 현재 본당 1, 공소 4개소(말부흥, 선감, 선재, 영흥) 신자수



대부 천주교회

300명

(6) 역대신부

- 민에로니모(1963. 3 - 1965. 6)
- 장요왕 (1965. 7 - 1967. 1)
- 최분도 (1967. 2 - 1971. 5)
- 강마테오 (1971. 6 - 1973. 9)
- 나마르띠노(1973. 9 - 1977. 1)
- 강마가엘 (1977. 2 - 1980. 2)
- 조성규 (1980. 2 - 1984. 2)
- 박복남 (1984. 2 - 1989. 2)
- 이수일 (1989. 2 - 1991. 2)
- 김중학 (1991. 2 - 1991. 3)
- 최상진 (1923. 3 - 1992.10)
- 웬텍돌 (1992.10 - 1996. 1)
- 장태식 (1996. 2 - 2001. 2)
- 이윤하 (2001. 2 - 현재)

(자료조사 : 대부도향리지편찬위원회 박현자)

3) 대부감리교회



대부 감리교회

- (1) 소 재 지 : 대부동등 1435번지 (T. 032-886-0048)
- (2) 창립일자 : 1920년
- (3) 창 립 자 : 김성배, 조재희, 강문호, 이수신전도사
- (4) 현 목 사 : 전희선
- (5) 연 혁 :

- 1920년 3월 15일 교회 창립
- 1920년 홍범표씨 대지를 얻어 예배당 건축
- 1947년 3월 27일 고유지로 교회 이전
- 1961년 정종국목사가 남리교회와 홍성리교회 개척
- 1963년 4월 3일 최은덕목사가 중앙감리교회 개척
- 1970년 2월 22일 현 대지에 116평 예배당 신축(당시 대부면장 홍승문씨가 대지 270평을 기증)

- 1972년 10월 15일 이규한목사가 부흥교회 개척
- 1982년 2월 인요환목사가 대영교회 개척
- 1987년 9월 29일 제일교회 대지 300평 구입

(6) 역대목사

- 1대 김성대(1922. 4 -)
- 2대 차경창(1924. 3 -)
- 3대 강문호(1926. 1 -)
- 4대 정동윤(1931. 4 -)
- 5대 권성집(1932. 3 -)
- 6대 강문호(1934. 3 -)
- 7대 함정희(1936. 4 -)
- 8대 김기영(1939. 4 -)
- 9대 김종숙(1940. 4 -)
- 10대 성락준(1944. 4 -)
- 11대 이화춘(1945. 5 -)
- 12대 이동웅(1947. 3 -)
- 13대 권세창(1951. 4 -)
- 14대 이기욱(1953. 3 -)
- 15대 오기섭(1955. 4 -)
- 16대 김종국(1957. 4 -)
- 17대 최은덕(1959. 4 -)
- 18대 윤덕영(1964. 5 -)
- 19대 허상길(1965. 3 -)
- 20대 맹기영(1969. 4 -)
- 21대 이규한(1971.11 -)
- 22대 전영호(1974. 7 -)
- 23대 인요환(1979. -)
- 24대 한모길(1983. 6 -)
- 25대 명창식(1984. 8 -)
- 26대 조용석(1986. 6 -)
- 27대 김동현(1987. 9 -)
- 28대 강희선(1991. 8 -)

○ 29대 정영원(1996. 9 -)

○ 30대 전희선(1998.10 -)

(자료조사 : 대부도향리지편찬위원회 박현자)

3. 대부도 종교단체 현황

1) 기독교

| 단체(법인명) | 성직자 | 전화번호 | 주 소 |
|----------|-----|--------------|------------|
| 영광교회기도원 | 한용대 | 032)886-0084 | 북동 1855-13 |
| 대부중앙교회 | 한용대 | 032)886-0084 | 북동 218 |
| 제일감리교회 | 이택환 | 032)886-3900 | 북동 1848 |
| 양떼교회 | 정진수 | 032)884-9368 | 동동 68-7 |
| 대영교회 | 김재근 | 032)886-4300 | 동동 409 |
| 두현은혜교회 | 오득환 | 032)886-5012 | 북동 1 |
| 선감장로교회 | 윤석용 | 032)886-9047 | 선감동 212 |
| 선감제일장로교회 | 이재석 | 032)886-3762 | 선감동 32 |
| 홍성리교회 | 이해주 | 032)886-0220 | 남동 163 |
| 부흥교회 | 원충연 | 032)886-0343 | 남동 1479 |
| 남리교회 | 김일문 | 032)886-4200 | 남동 산325 |
| 풍도반석교회 | 김정순 | 032)832-7638 | 풍도동 19 |
| 대부교회 | 정희선 | 032)886-0048 | 동동 1435 |
| 대부장로교회 | 박창수 | 032)886 5745 | 북동 492-3 |
| 안산서부교회 | 김중환 | 032)882-1800 | 북동 1160-4 |
| 새안산제일교회 | 권영학 | 032)885 1044 | 남동 375-1 |

2) 천주교

| 단체(법인)명 | 성 직 자 | 전화번호 | 주 소 |
|---------|-------|--------------|-----------|
| 대부천주교회 | 윤하 | 032)886-0040 | 북동 184 |
| 선감공소 | | 032)886-7824 | 선감동 580-1 |
| 말부흥공소 | | 032)886-2211 | 남동 6-1 |

3) 불교

| 단체(법인)명 | 성 직 자 | 전화번호 | 주 소 |
|---------|-------|--------------|---------|
| 쌍계사 | 항명 | 032)886-2110 | 북동 1058 |
| 자현사 | 법현 | 032)883-9033 | 북동 121 |

제9절 기관단체

1. 행정기관

1) 안산시 대부 출장소



(1) 연혁

- 1914. 03.01 경기도 부천군 편입
- 1973. 07.01 경기도 용진군 편입
- 1994 12.26 행정 구역 개편으로 용진군 대부면에서 안산시 대부동으로 편입

(2) 특성

- 안산시 서해안에 위치한 도·농 복합의 해양 관광 요충지. 시화 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시 개발 및 전원주택지 개발 적지.
- 주민 대부분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부곡해 농산물 생산으로 수도권내 최고의 농수산물 공급기지로 각광 받고 있음.
- 대부 포도는 안산시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아 가고 높은 당도와 육질로 인정 받고 있음.

(3) 인원

공무원수 20명 청원경찰 5명

공무원 1인당 주민수 330명

(4) 행정

행정 구역 20통 55반

(5) 면적

40.928제곱 킬로미터

(6) 인구(2002년 1월 현재)

6,248명, 남 3,222명 여 3,026명

2,411세대

(7) 기관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고등학교 1개소

의료시설 3개소 보건 지소 1개소 의원 2개소

노인정 4개소, 어린이집 1개소

주민 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연중 정보화실, 바둑 교실,
서예교실,헬스장)

2) 대부 보건지소

(1) 인원

공중 보건의 2명, 보건직 3명

(2) 이용현황

일반 내과 1일 평균 내원객 30명, 치과 1일 평균 내원객 10
명

(3) 시설

내과 진료실(심전도), 치과(치과 X선실) 치료실, 모자보건실



대부 보건지소

(4) 사업**모자 보건 업무**

예방 접종, 가정 방문 사업, 풍도 연중 6회 검진 사업

3) 경로당

대부 경로당

(1) 대부 경로당(대부 북동)

회장:권인섭, 총무:신현배

(2) 중현 경로당(대부 북동)

회장 :김복동, 총무:황순길

(3) 선감 경로당(대부 선감동)

회장 :정은선, 총무:이강화

(4) 영전 경로당(대부 동동)

회장 :이병순, 총무:박완복

4) 웅진농협 대부지점

개점일 79년 5월26일

(1) 직원현황

지점장, 부지점장 2명 ,계약직 3명, 일반 계원

(2) 조합원수

1145명

(3) 출자금

순수 출자금 15억 3천 4백 만원

(4) 사업 내용

농협 구매 사업, 판매 사업

(5) 특색

농협 구매 사업은 웅진 농협 전체에서 50%를 차지 할 정

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구매 사업으로는 비료와 농약 구매로 포도 농가에 조달 사업, 판매 사업은 대부 지역에서 생산한 포도를 공판장에서 판매 2001년 9월말 실적 31억 8천 8백만원을 올렸으며, 판매 금액은 23억 7천 6백 만원, 생활물자 판매는 7억 4천 7백만원을 달성했다.

(6) 건물 사용 현황

본 건물, 반지하 (연쇄점), 3층 회관으로 활용, 옆 건물 2동 자제실과 비료 창고로 사용.

5) 웅진수협 대부지점

(1) 위치

안산시 대부 북동473번지

(2) 조합원수

1,242명

(3) 출자금

6천 2백 85만 7천 원

(4) 직원수

11명

(5) 사업 내용

① 상호금융사업

경제 사업 : 판매 사업(2001.01.01-12.11)-약 73억

구매 사업 : 8억 4천 4백만원



웅진수협 대부지점

6) 웅진축산농협 대부지점

(1) 개점일

1995년 6월 20일

(2) 직원현황

홍진표지점장 외 6명

(3) 조합원 수

1,303명

(4) 출자금

41,800원

(5) 사업내용

- 금융 : 예금, 대출, 공제 및 신용카드사업
- 구매 : 사료업무
- 판매 : 정육판매

(6) 특색

예금, 대출, 공제 및 신용카드사업을 통한 농어민 복지향상과 사료구매사업을 통한 농어민과 조합원의 편의제공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체계확립,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신뢰도 제고, 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직거래 유통기능 활성화에 기여하며 정육판매장에서는 축산물 판매장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 소비확대, 품질의 고급화 및 부위별, 등급별 차등판매체제를 확립해가고 있음

7) 안산시농업기술보급소 대부농민상담소

(1) 연혁

- 웅진군 농촌지도소 남부지구 출장소
- 안산시 행정구역 개편 편입(1994. 12. 26)
- 안산시 농촌지도상담소 대부출장소(1994. 12. 27)
- 안산시농업기술보급소 대부농민상담소 현재(1999. 1. 1)
- (포도가공센터 준공 : 2001. 6. 7)



안산시농업기술보급소
대부농민상담소

(2)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동 1253-1

(3) 면 적

- 대지면적 : 5,616m²
- 연 면 적 : 1,641m²
- 건축면적 : 528m²
- 주 용 도 : 공장/업무시설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3층(지하1층, 1층 : 포도
가공센터 운영)

(4) 하는 일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식량작물재배기술, 소득작물재배기술, 농업조직육성, 농촌생활개선훈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대부지역의 포도(600ha) 특산물육성을 위해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포도가공센터를 설치하여 포도주, 포도즙을 생산하고 있음

(5) 역대 근무자

- 노신종(1994. 12. 21 ~ 1998. 6. 30)
- 김준환(1998. 7. 1 ~ 1999. 12. 31)
- 이진교(2000. 1. 1 ~ 현재)

8) 안산경찰서 대부파출소

(1)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안산시 북동 294-4번지. 안산 경찰서에서 남서 방향으로 약 35Km(승용 차량 이용시 약 40분 소요)

(2) 연혁

1914. 03 대부면 고래 감독관 및 첩사 방어사를 배치 수원 남양군에 예속 행정 구역 변경에수반 하여 부천군에 편입
1925. 03 명칭 변경 인천 경찰서 대부 주재소 관할 대부 본도, 선감도, 불도, 탄도, 풍도,육도



안산경찰서 대부파출소

1949. 05. 07 관할경찰서 변경 인천수상경찰서 창설
 1961. 07. 19 인천수상경찰서 폐지 인천수상경찰서채 편입
 1987. 09. 03 인천 중부 경찰서 대부 지사로 개칭
 1992. 06.13 탄도 선감 출장소 폐쇄
 1995. 행정 구역 개편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관할 경찰서 변경. 인천 경찰청 중부 경찰서 대부지서에서 경기도 지방 경찰청 안산 경찰서대부 파출소로 운영.

(3) 지역 특수성

치안 현황 : 시화 방조제 연육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급속한 외지 차량의 통행 증가로 교통사고 및 여행성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음(차량 통행량 토요일 및 휴일 약 15,000-20,000여 대), 교통 사고 사망 사고 전년도 대비 2배 증가.

(4) 인원

경찰관13명 의경 1명

(5) 부속 도서 현황

경기도 안산시 풍도동 및 육도.

안산시 선감도 탄도항에서 서남쪽으로 약 23Km,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53Km, 충남 서산시에서 북쪽으로 약 15km의 거리에 위치.

인천 연안 부두에서 왕경호가 1일 1회운항(소요시간 3시간) 총 2명 경찰관1명 부부.

(6) 대부 파출소장 재임기간

김길영 경사

최관식 96.05.14-97.03.04

서광남 97.03.04-97.08.28

김만화 97.08.28-2001.4.18

이승우 2001.04.18-현재

9) 인천 해양경찰서 대부지서

(1) 연혁

1992년 인천 해양 경찰서 탄도 선박 출입항 신고소 개소.

1995년 인천 해양 경찰서 대부지서 개서4개 신고기관 관장



인천 해양경찰서 대부지서

(2) 신고 기관

탄도 신고소, 매항 신고소, 용두리 신고소, 전곡 신고소, 민간 대행 신고소:서위, 선검, 주곡, 매항

(3) 중요임무

- ① 해상관련 민원사항 접수 처리
- ② 해상에 있어서의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 ③ 해상관련 정보수집
- ④ 관내 선박 출 입항 신고기관의 지휘감독
- ⑤ 해수면 유도선 안전관리 및 출입하 통제 업무
- ⑥ 기동 순찰정 운영 등

(4) 인원

총인원 22명

경위 1명, 경사 4명, 경장 3명 순경 1명 진경 13명, 대부 지서 8명, 탄도 신고소 4명, 매항신고소 3명, 용두리 신고소 3명, 전곡 신고소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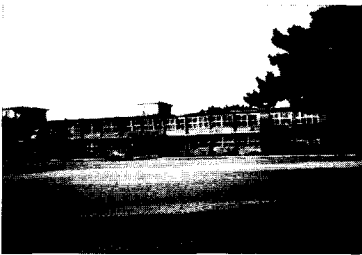
(5) 선박 현황

어선 817척, 여객선 3척, 유선 13척, 화물선 1척, 어선 791척, 해상 레저 기구 13척, 기타선 4척

(6) 단속 실적

228건(2001년 1월-2001년 11월) 해상절도, 폭력, 기타 각 1건 수산업법 30건, 선박 안전법 11건, 선박직원법 4건, 어선법 10건, 수상레저 50건, 수산 자원 보호령 15건, 선박법 2건, 유도선 및 도선 사업법 3건, 낚시어업법 15건, 기소중지자 35건, 통고처분 50건

2. 교육기관



대남초등학교

1) 대남초등학교

- 소재지 : 안산시 남동 1066-123번지
- 설립연월일 : 1961년 4월 11

(1) 주요 연혁

- 1960. 06. 23 대남분교장 인가
- 1961. 04. 01 대남국민학교 인가 (6학급)
- 1982. 03. 10 대남국민하교 병설 유치원 개원
- 1990. 04. 10 육도분교장 폐교
- 1996. 03. 01 대남초등학교로 개칭, 제12대 진종근 교장 부임

(2) 학교현황 () 안은 풍도분교

- 학급 수: 6(2)
교사 및 교지(m²) ; 교실 수 : 12(4), 교지 : 24,872
재학생 수; 남 : 52, 여 : 40, 계 : 92
- 교직원 수
교사 ; 남 : 6(1), 여 : 3(1), 계 : 9(2)
일반 ; 남 : 2(1), 여 : 2, 계 : 4 (교사와 일반 합계 : 15)

(3) 역대 교장

- 제1대 : 정관호 61.08.17~63.03.30
- 제2대 : 유근학 63.03.30~65.02.28
- 제3대 : 최태영 65.03.01~66.02.28
- 제4대 : 한봉현 66.03.01~68.02.28
- 제5대 : 윤학중 68.03.01~70.12.25
- 제6대 : 김영목 70.12.26~74.08.31
- 제7대 : 오창흠 74.09.01~80.02.28
- 제8대 : 전광수 80.03.01~86.02.28
- 제9대 : 이희섭 86.03.01~91.02.28
- 제10대 : 김경수 91.03.01~93.02.28

- 제11대 : 방충일 93.03.01 ~ 96.02.28
제12대 : 전중근 96.03.01 ~ 97.02.28
제13대 : 윤창진 97.03.01 ~ 99.08.31
제14대 : 우영구 99.09.01 ~ 2001.08.31
제15대 : 박수철 2001.09.01 - 현재

(4) 학교 상징

- 교화 : 국화
- 교목 : 소나무
- 교훈 : 성실하고 심성이 바르며 협동하는 어린이

(5) 학교 특색

자연을 탐구 하고 친숙감 기르기 :

- 환경 애향단 조직 운영
- 나의 자연 탐구(관찰장 활용)
- 자연 탐구 체험 학습활동

신지식 키우기 위한 도서실 운영 :

- 1일 30분 이상 책읽기
- 1인 1독서록 갖추기
- 꿈을 주고 문제 해결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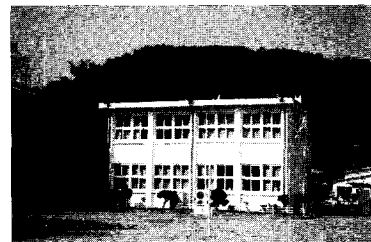
(본교는 화성군 · 시흥시와 연륙된 도서학교로서 운동장을 비롯한 주위의 건물이 노송에 쌓여 경관이 매우 아름다우며, 정면에는 푸른 바다가 있는 전형적인 해안가 시골 학교 임.)

(6) 교가

금산 뿔어 내린 대부의 남단
천만 년 역사 이을 청송에 쌓여
보고의 너른 바다 가슴에 안고
느림하게 자라나는 대남 어린이.

2)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는 안산시 남동 풍도리에 있으며,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

1986년 3월 1일자로 대남초등학교로 편입되었다.

이 학교의 학생 수는 전교생이 9명(남자 7명, 여자 2명)이고 교직원 조직은 교사 2명, 기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 형태는 2명의 교사가 복식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3) 대동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 소재지 : 안산시 대부동 동4통 838번지
- 설립연월이 : 1970년 3월 2일

(1) 주요 연혁

- 1969 .08. 02 대부 국민학교 대동 분교장 설립인가(3학급)
- 1969. 11 .12 대부국민학교 대동 분교장 개교
- 1970. 03. 02 대동국민학교로 승격 초대 이덕용 교장 취임.
5학급 편성
- 1976. 11. 27 사택 2동 준공
- 1977. 03. 01 보호급식학교 지정
- 1982. 03. 01 대동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 1988. 08. 26 조리실 확장 영양사실 강의실 증축 준공
- 1989. 03. 01 선감국민학교 불도분교 본교로 편입
- 1991. 09. 01 제5대 윤우현 교장 부임
- 1993. 03. 01 테니스장 준공
- 1996. 03. 01 대동 초등 학교로 교명 변경 6학급 편성
- 1996. 12. 10 신관교실 증 개축(교실 6, 특별실 1, 조리실 1)
- 1999. 08. 31 학내망 설치공사
- 1999. 09 01 제 7대 노종수 교장 취임
- 2001. 02 16 제 29회 졸업(19명 누계 907명)
- 2001. 03 01 초등 6학급 유치원1학급 편성

(2) 학교 현황

- 학급 수 ; 6
- 교사 및 교지(m²) ; 교실 수 : 10, 교지 : 11,369
- 졸업생 수 ; 남 : 446, 여 : 461 (계 : 907)

- 재학생 수 ; 남 : 81, 여 : 74 (계 : 155)
- 교직원수 ;
 - 교사 ; 남 : 11, 여 : 2, 계 : 13
 - 일반 ; 남 : 4, 여 : 2, 계 : 6 (계 : 19)

(3) 역대교장

제1대 이덕용 70.03.01~76.02.28
제2대 오원근 76.03.01~80.08.31
제3대 유명규 80.09.01~87.02.28
제4대 조창원 87.03.01~91.08.31
제5대 윤우현 91.09.01~96.02.28
제6대 최춘묵 96.03.01~99.08.31
제7대 노종수 99.09.01-현재

(4) 학교 상징

- 교화 : 개나리
- 교목 : 은행나무
- 교훈 : 실력있는 어린이, 예의 바른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

(5) 학교 특색

- 동요부르기, 민속놀이 지도로 바른 인성 갖기
- 독서장제 운영
- 1인 1기 재주 갖기

(6) 교가

1. 의젓한 황금산을 바라보면서
온 정기 모아 닦는 배움의 터전
새롭고 아름답게 커가는 우리
다 함께 슬기 모아 전통 만들자.
2. 황해의 푸른 바다 굽어보면서
깊고도 넓은 마음 키워 온 우리
서로가 다정하게 일깨워 나가
내 고장 밝혀 주는 큰일꾼 되자

<후림> 참되게 자라는 대동 어린이 대동 어린이.

4) 대부초등학교



대부초등학교

- 소재지 : 안산시 대부북동 180번지
- 설립연월일 : 1921년 8월 20일

(1) 주요 연혁

- 1921. 08. 20 대부공립보통학교 인가
- 1922. 07. 05 대부공립보통학교 개교(2학급)
- 1925. 03. 20 제1회 졸업
- 1941. 04. 01 대부국립국민학교로 개칭.
- 1961. 04. 01 대남국민학교 승격 분리(6학급)
- 1970. 03. 01 대동국민학교 승격 분리(4학급)
- 1982. 02. 12 제1회 유치원 졸업
- 1994. 09. 01 제26대 함광소 교장 취임
- 1994. 12. 26 웅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
- 1996. 02. 15 제71회 졸업
- 2000. 03. 01 제 29대 조병조 교장 취임
- 2001. 02 16 제 76회 졸업식

(2) 학교 현황

- 학급 수 : 6
- 교사 및 교지(m²) ; 교실수 : 11.5, 교지 : 49,300
- 재학생 수 ; 남 : 107, 여 : 117, 계 : 224
- 교직원 수
 - 교사 : 남 : 8, 여 : 2, 계 : 10
 - 일반 : 남 : 3, 여 : 2, 계 : 5 (계 : 15)

(3) 역대 교장

- | | | |
|-----|-----------|-------------------|
| 제1대 | 하라 도모이치로 | 22.06.14~24.04.1 |
| 제2대 | 사이토 미쓰타로 | 24.04.11~24.11.07 |
| 제3대 | 우시카이 나호기치 | 24.12.20~31.05.27 |

| | | |
|------|----------|----------------------|
| 제4대 | 김태식 | 31.05.27 ~ 32.03.31 |
| 제5대 | 한규면 | 32.03.31 ~ 36.03.31 |
| 제6대 | 서영호 | 36.03.31 ~ 37.03.31 |
| 제7대 | 가와모토 쓰치조 | 37.03.31 ~ 41.03.31 |
| 제8대 | 곤도 이소이치로 | 41.03.31 ~ 42.04.22 |
| 제9대 | 이계영 | 42.04.22 ~ 44.03.31 |
| 제10대 | 계삼순 | 45.03.31 ~ 45.10.31 |
| 제11대 | 박능서 | 45.10.31 ~ 50.11.08 |
| 제12대 | 김경선 | 50.11.08 ~ 51.06.30 |
| 제13대 | 고태영 | 51.06.30 ~ 54.06.02 |
| 제14대 | 안윤식 | 54.06.02 ~ 56.08.31 |
| 제15대 | 이여원 | 56.09.04 ~ 59.03.27 |
| 제16대 | 변규현 | 59.03.27 ~ 61.10.06 |
| 제17대 | 조연휘 | 61.10.06 ~ 64.03.20 |
| 제18대 | 김상규 | 64.03.20 ~ 66.03.01 |
| 제19대 | 오재희 | 66.03.17 ~ 70.03.01 |
| 제20대 | 이월호 | 70.03.01 ~ 72.10.31 |
| 제21대 | 이지술 | 72.11.20 ~ 80.08.31 |
| 제22대 | 채장석 | 80.09.01 ~ 84.08.31 |
| 제23대 | 조병규 | 84.09.01 ~ 88.02.26 |
| 제24대 | 이봉현 | 88.03.01 ~ 93.02.28 |
| 제25대 | 유만균 | 93.03.01 ~ 94.08.31 |
| 제26대 | 함광소 | 94.09.01 ~ 96.08.31 |
| 제27대 | 김경숙 | 96.09.01 ~ 99.02.28 |
| 제28대 | 이경자 | 99.03.01 ~ 2000.2.28 |
| 제29대 | 조병조 | 00.03.01 ~ 현재 |

(4) 학교 상징

- 교화 : 개나리
- 교목 : 은행나무
- 교훈 : 튼튼한 몸으로 창의성을 키우며 바르게 행동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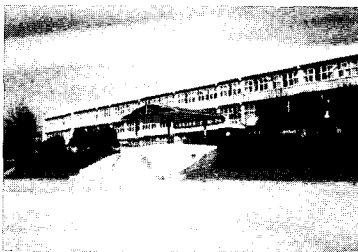
(5) 학교 특색

- 경제 살리기 교육 충실 : 저축과 물자절약,
사랑의 기증운동 전개(재활용실 설치 운영)
- 환경보존교육활동의 충실 : 환경 보존 교육 실시,
환경 시범 학급 운영및 자활기금 조성, 분리수거의 생활화

(6) 교가

쌍계사 송림 속에 새소리 높고
우뚝 솟은 황금산 정기도 맑다
창해 여울 철썩이는 아담한 터에
천여 꽃봉 자라나는 배움의 전당
장하다 영웅영재 굳게 뭉치어
우리 모교 창업을 길이 빛내세.

5) 대부중 · 종합고등학교



대부중 · 종합고등학교

- 소재지 : 안산시 대부북동 697-6번지
- 설립연월일 : 1976년 12월 28일

(1) 주요 연혁

- 1976. 12. 28 대부종합고등학교 6학급 설립 인가
- 1978. 03. 01 초대 변석 교장 부임
- 1995. 01. 25 제9대 김창연 교장 부임
- 1996. 09. 01 상업과를 정보처리과로 개편
- 2000. 09. 01 중학교 21대 고교 12대 임승복 교장 부임
- 2001. 02. 13 고교 제 22회 65명 졸업(누계 1,864명)
중학교 제 41회 졸업(누계 4,029명)

(2) 학교현황

- 학급 수 ; 고교 6학급, 중학교 6학급
- 교사 및 교지(m²) ; 교실 수 : 14, 교지 : 24,539
- 졸업생 수 ; 고교 2000년도 남 : 39 , 여 : 20, 계 : 59
- 재학생 수 ; 중학교 남 : 89 여 : 92 계 : 181
고등학교 남 : 91 , 여 : 68, 계 : 159

- <교직원 수> 중학교 교사 10명 직원5명
고등학교교사 계 : 16
일반 3 (계 : 19)

(3) 역대 교장

제1대 변 석 78.03.01 ~ 80.02.29
제2대 노상술 80.03.01 ~ 82.02.28
제3대 유장득 82.03.01 ~ 85.02.21
제4대 이석민 85.03.01 ~ 86.02.28
제5대 이영의 96.03.01 ~ 88.02.29
제6대 이상만 88.03.01 ~ 90.02.28
제7대 박규양 90.03.01 ~ 93.08.31
제8대 정오봉 93.09.01 ~ 95.01.24
제9대 김창연 95.01.25 ~ 98.02.28
제10대 안종현 98.03..1 - 99.08.31
제11대 김한기 99.09.01 - 2000.8.31
제12대 임승복 2000.09.01 - 현재

(4) 학교 상징

- 교화 : 개나리
- 교목 : 은행나무
- 교훈 : 성실-어질고 참되게, 아름답고 바르게

(5) 학교 특색

- 현장 체험 학습 실시 : 갯벌 탐사와 생태계 연구 활동, 문화재 탐사 활동, 가족 학급별, 동아리별 현장 체험 학습 활동, 농작물 재배와 가축 기르기 활동, 학생 애향대 활동
- 특기적성 교육 실시 : 학생 참여 중심의 축제(황금제), 컴퓨터 특기 적성반, 생활영어 지도 강화, 사물놀이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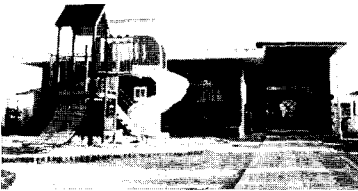
(6) 교가

서해의 푸른 물은 우리 맘이요
황금산 그 자태는 우리의 기상

산 넘고 나루 건너 희망을 안고
 슬기론 대부건아 여기 모였네
 우리우리 진리를 캐는 삼천리의 등대수
 영원영원 빛날 그 이름 우리 대부중고교.

6) 시립 대부 어린이집

(1) 취지



시립 대부 어린이집

대부 지역내에 보육 욕구를 가진 주민들의 보육 편의를 제 공하고 아동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과 농어촌 지역의 보육 시설의 증진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세워진 어린이집이다. 특히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이며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생각하고 커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잘 자라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곳입니다. 아동 중심의 보육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유 대관계가 잘 형성되는 어린이집. 아동들의 통합교육의 선진화 및 공동체 놀이가 늘 활발히 움직여 지는 배움터이다.

(2) 시설 특성

① 아동들의 흥미와 발달에 적합한 공간 구성

| | | |
|---------------|--|--------------|
| 시설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북동 348-5번지 | |
| 건립규모 | 부지 면적 : 1,099m ² 연건평:166m ² | |
| 주요시설 | 지상 1층 | 보육실(3개) 시청각실 |
| | | 원장실 |
| | | 실내체육실(볼풀장) |
| | | 주방 및 화장실 |
| 보육정원 및 종사자 | 45명(2세 : 7명, 3세이상 : 38명) 원장 1명, 교사 3명 , 조리사 1명, 차량기 사 1명 | |

② 전인적인 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 구성

③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위한 안전 시설 준비

④ 실외 놀이 공간 구성의 다양성 및 개방적 공간 확보

⑤ 보육 철학

정서적 안정, 영양, 안전, 발달을 위해 노력해야 함.

밝고 원만한 성격 형성 기초 다지기

자연 친화적인 물리적 환경과 함께 환경 살리기 교육에도 앞장

학부모, 아동을 감동시키고 앞서가는 보육의 기초 형성

(3) 보육 목표

원장의 교육 철학이 담긴 목표

부모의 요구 및 기대 수준 충족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보육목표

(4) 관리

① 밝고 원만한 성격 형성

② 자연스러운 발달을 유도

③ 깨끗하고 질서가 있는 생활 습관 지도 형성

④ 창의력 사고 능력 함양

⑤ 보육의 질적 관리

(5) 교육 연령

① 반 편성의 기본 방향

- 혼합 연령으로 편성

- 영아반, 4·5세반 혼합 연령으로 구성

② 반별 보육 목표설정

3~4세반 : 정서, 안정 및 신체 발달에 중점

5세반 : 사회성 발달에 중점

6~7세반 : 인지 발달에 중점

③ 반별 교육 활동 차이

3~4세반 : 개별과 보육에 역점

5세반 : 소그룹 활동에 역점(관찰일지 활용)

6~7세반 : 대그룹 활동에 역점(초등학교와 연계, 수·한글 지도를 개인차를 고려하여 개별 교육활동)

(7) 교육계획**① 수업의 질적 관리 운영 계획**

유아와 rapport형성과 개별 보육에 역점
 rapport형성은 유아 보육의 출발점
 유아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 보육 실시
 체계적인 교육 계획안 작성과 차질 없는 실행
 연간, 월안, 주간 계획안의 연계성 확립
 교육계획에 따른 치밀한 수업 준비와 실행
 보육일지 작성등 철저한 수업의 평가
 보육과정에 수시로 참관
 매주 출석부와 보육일지를 통한 평가
 다양한 교육 경험 기회의 제공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조기 유아영어, 작업중심 미술, 국어 교육의 특별 프로그램 제시

② 통합 보육실시

자현사 내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과의 연계 교육 및
 농촌 일손돕기.
 차량 서비스
 유아의 발달수준 평가
 개인별 관찰일지 기록
 영역별 관찰일지 기록

③ 안전, 영양 및 건강의 운영 계획

안전은 보육의 기본- 유아 종합 보험의 가입 및
 유아 방치 상황의 철저예방
 영양은 유아의 건강 및 신체 발달에 직결, 시설장은
 조리 과정에 직접참여

④ 교사의 자질 향상

교사는 유아의 중요한 인적 환경
 자질과 전문성의 끊임없는 연마- 직무 윤리 등 교사
 자체 교육과 외부 재교육연수 기회에 적극 참여.

⑤ 물리적 환경 조성의 운영 계획

안정성, 안락성, 편리성, 신체 크기 대비 적절성,

운동성등 고려

전기, 가스, 소방장비 안전적이고 주기적인 점검.

전체 바닥 기름 보일러, 에어컨 점검 및 설치, 보호

물리적 환경(실외 놀이터 개·보수)

⑥ 보육시설의 가정과의 운영 계획

일년도 보육 운영 계획을 사전에 공지해 준다.

반별, 영역별 보육 목표를 설정하여 가정에 배부한다.

개별 관찰일지를 통한 발달 상황을 수시로 연결해 준다.

가정 통신란을 통해 부모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활동으로 연계한다.

⑦ 지역사회와의 유대 운영 계획

사회적 특성 및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보육 정책 수립

노년층의 농어촌 지역의 특징을 감안하여 교사의 복장,

용모에 유의

지역 내 병설 유치원과 연계 통합교육.

건강과 교육을 위해 지역 내 병원, 보건소, 공공기관과

연계활동

(7) 시립대부어린이집 시설연혁 및 교육연혁

1982년 12월 14일 ; 다목적 회관 내 웅진군 새마을 유아원
시작

신입원아 8명(원장 1명, 교사 1명)

1988년 12월 20일 ; 웅진군 대부 새마을 유아원 신입원아
12명

1997년 4월 1일 ; 제 3대 시설장 김정선 원장 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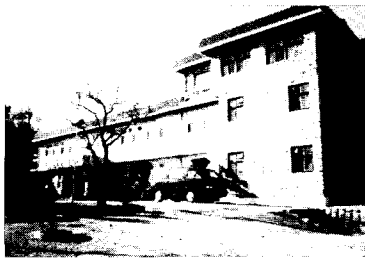
1997년 12월 10일 ; 어린이집 1차 보수 공사

2001년 2월 23일 ; 제 9회 졸업식 - 졸업생 16명

2001년 3월 6일 ; 제 10회 입학식

2001년 12월 14일 ; 소식지 “샘골”발간

7) 선감 학생 수련원 해양 탐구관



선감 학생 수련원 해양 탐구관

· 안산시 선감동 667-2

(1) 연혁

- 90.02.28 대동 초등학교 선감 분교 폐교
- 94.04.01 수련원으로 용도 변경(부천 교육청)
- 95.01.01 경기도 안산 교육청으로 이관
- 96.03.01 보수공사(배수로 극기훈련 12코스 조정 등)
- 96.07.24 선감 학생 수련원 개원
- 97.12.23 지하층, 2층, 관사 증축
- 98.07.20 야외 취사장 설치, 보수공사
- 99.03 해양 탐구관 개관

(2) 대지현황

면적 총면적 2,813평, 활동장 2,575평, 건물 연면적 238평

(3) 해양 탐구관 구성

영상 자료 검색 코너-대부도 주변 지역 안내, 해양 탐구 학습장 안내, 해양생물 자료 검색.

우리나라 어업의 발달과 미래-원시적 현재 미래의 어업, 굴, 조개, 파래, 김양식, 낚시 낚시줄 어망, 물고기 양식, 바다 목장 원양어업.

해양 자원의 개발-우리나라 해양 개발 계획안내

바닷물의 성분-바닷물의 미량 원소

빛의 파장-빛의 스펙트럼

갯벌-갯벌의 생태모형

바닷속의 생물들-조간대 생물들, 공생관계, 해조류, 극피동물, 강장 동물, 패류 갑각류

해양 생태 재연 코너-해양 생태재연

우리나라의 수산 자원-우리나라 수산 자원, 우리 나라 주요 어장, 우리나라 주요항구, 우리나라 어촌 생활

바다의 탄생-바다생명 탄생

해양 자원-우리나라 해류, 해양 환경 보존

영상 학습관-해양 영상물 관람

(4) 해양 체험 프로그램

(1일 체험 학습)

해양 학습관 안내 -해양 탐구관 견학-선착장 견학-염전 견학-갯벌 탐사

(2일 체험 학습)

1일 만남의 날 : 해양 학습관 안내-해양탐구관견학- 어촌 마을 견학-염전 견학-극기훈련-해양 탐구 주제결-사물놀이-야영놀이-편지쓰기

2일 체험의날 : 등산-새우 양식장 견학-갯벌탐사

(3일 체험학습 프로그램)

1일 만남의 날 : 해양학습관-해양탐구관견학-어촌 마을 견학-염전견학-극기훈련-해양탐구 주제해결-사물놀이~야영놀이

2일 체험의 날 : 등산-새우 양식장 견학-시화호 견학-갯벌 탐사-사물놀이-해양 탐구 주제 해결-편지쓰기

3일 다짐의 날 : 등산 (황금산)-선착장 견학

8) 경기 도립 직업 전문학교

· 안산시 선감동 산 400-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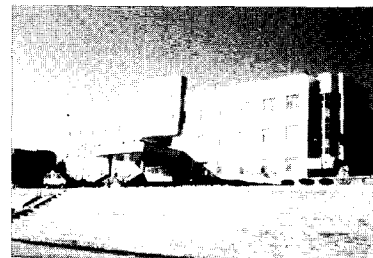
(1) 연혁

95년 3.9 학교 설치조례 공포

95년 5.15 개교

98년 9.14일 농민교육원 직업 훈련 기능 통합

2001년 9월 20일 경기도 행정 기구 설치조례(IT과 신설)



경기 도립 직업 전문학교

(2) 기구 및 현 정원

4과 8담당

정원 : 64명 일반직 19명, 별정직 28명 기능직 17명

(3) 시설 규모

부지면적 : 17,242평

건축물 : 12개도 4,440평

(4) 주요 업무 추진 실적

건실한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 무 기능 비 진학 청소년과 취업 보호 대상자를 기능인으로 양성하여 도내 산업체에 기능인력 공급을 통한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알선: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교과 편성으로 취업 대상 업체 방문 수요조사

(5) 취업 실적(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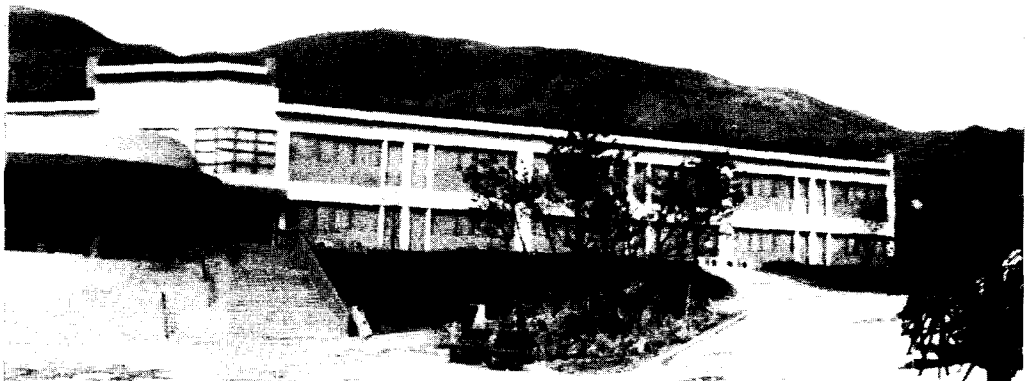
1년과정 : 전산응용과외 7개 공과 31명

6개월 과정 : 특수 용접과 36명중 35명 취업

(6) 장기 발전 방안

도내 중소기업 구인 요청이 쇄도하는 기계밀링 분야와 가스 용접 분야의 기능 인력 양성과 신 산업에 부응 할 수 있는 IT 전문 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장기 발전 방안 마련

9) 경기도 선감 청소년 수련원



(1)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 산 130번지

(2) 개원일

2001년 7월 9일

(3) 일반 현황

8만 7천평의 부지위에 건축 연면적 1,475평규모로 총 공사비 105억원이 투입된 시설이다.

(4) 시설 현황

생활관 - 숙박시설(4인용 침대 12실, 20인용, 온돌 3실, 12인용 온돌 16실, 지도자실방송실, 양호실), 세미나실(120인실 1실, 50인실 2실, 휴게실 120석, PC 5대)

관리동 - 관리실 3실, PC실 1실 식당 1실(250석 규모) 경기도 선감 청소년 수련원은 경기도가 운영 주체인 비영리 단체다.

(5) 업무내용

청소년 수련 활동과 대외협력 이벤트 활동 기업 연수 기획 특성화 프로그램 레저 이벤트 등.

프로그램 - 갯벌 체험 레프팅 싸이클 훈련 지역 명소 탐방 써바이벌 게임 암벽 등반 등. 가족 단위 휴양 공간으로 인근 대부도 관광단지와 연계한 휴양 시설로 이용이 가능.

(6) 3대 중점 교육

갯벌 해양 생태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갯벌 체험, 다양한 해양 수련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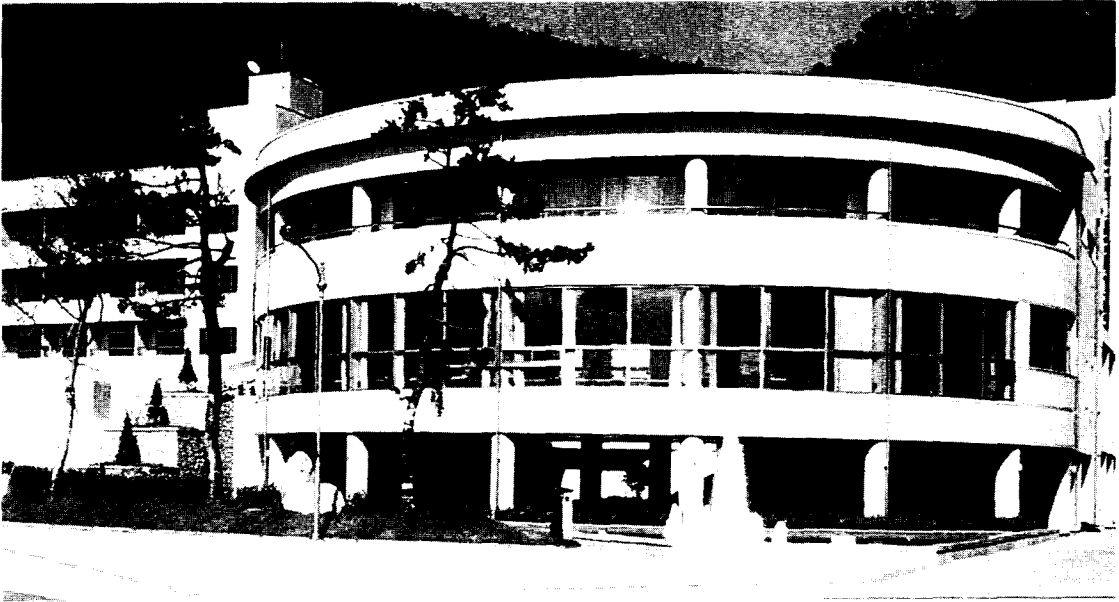
레저 스포츠 연계 운영 : 패러 글라이딩, 오리엔 티어링, 레프팅, 검도, 서바이벌,

대안 학교 캠프 운영 : 가출 청소년 쉼터,성교육 프로그램, 금연 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10)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

(1) 위치

안산시 선감동 산 120-1



(2) 개원일

1999년 12월 10일

(3)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부지 53,899평 연면적 3,095평

(4) 시설 현황

교육 시설

- 대강당1실 200-300수용
- 중강당1실 80-120명 수용
- 세미나실 3실 40-80명 수용
- 소세미나실 1실 20-35명 수용
- 분임 토의실 3실 10-20명 수용

숙박 시설

- 13평형(5인 기준)-콘도룸 35실
- 9평형(4인 기준)-비콘도룸 15실

편의 시설

- 단체식당 1실 150-200명 수용
- 잔디운동장, 족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탁구장, 사우나실 남녀 각 1실, 노래방, P.C방, 어린이 놀이터, 산

책로(극기훈련장), 야외수영장.

- 2002년 예정 시설(서바이벌 게임장, 갯벌훈련장, 전거 도로)

(5) 원훈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첨단 교육 프로그램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최고의 교육 환경
자신의 발전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

[박공주(내일신문 기자)]

부 록

1. 古文獻속의 大阜島와 隣近섬들

차 례

1. 小引
2. 各種 地理志속의 大阜島와 隣近섬들
3. 正史속의 大阜島
4. 옛 漢詩속의 大阜島와 楓島

1) 小引

오늘날의 대부도는 넓이 40.928km², 2천4백여 가구에 인구는 약 6천3백명으로 安山市의 열여덟개 작고 큰 沿岸島嶼중 가장 큰 섬이다.

동경 126°39′, 북위 37°18′에 위치하여 안산시의 도심으로부터 35.8km 상거하고 있다. 기후와 풍토가 순후하기 이를데 없어 옛부터 사람들의 심성이 곱고 말(馬)이 살진다고 했다.

19세기초에 제작된 古地圖에 의하면 大金山(황금산)을 진산으로 동쪽으로 불도와 선감도, 서쪽으로 영흥도와 소우도, 남서쪽에 소홀도, 소이작도와 대이작도를 거느리고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한떨기 연꽃같은 상서로운 땅”(蓮花浮水地)¹⁾으로 또는 “신선들이 사는 三神山 보다 더 좋은 곳”(分明此日 : 山勝)²⁾으로 西部京畿 海上八景의 첫손가락으로 칭송되어 왔다.

主島인 대부도를 비롯하여 선감도, 불도, 탄도, 풍도, 육도등 5개의 유인도가 안산시로 편입된 것은 1994년 12월 16일이였다. 그동안 이들 섬은 조선시대에는 仁川과 水原府 또는 富川과 南陽府등의 屬地였다가 우리시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웅진

1) 이훈익 ; 『仁川沿海島嶼地誌』筆寫本, p. 130 참고.

2) 李明漢 ; 『白洲集』권8, 「大阜島客館」.

군의 관할이었다.

이들 섬들은 1984년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連陸化되었다. 시화방조제는 북으로는 방아머리에서 시작되어 작은가리섬을 거쳐 시흥시의 오이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남으로는 동리진두 선착장에서 시작하여 선감도 불도·탄도를 거쳐 화성군 서신면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2002년 중에는 안산에서 시흥시를 거쳐 대부도에 이르는 大路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섬만이 갖는 풍광과 정취는 다소 감소될 것이나 내륙인 안산과 연안도서를 잇는 임해관광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歷史와 文化的 인프라가 중요한 관광상품이 된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안산시는 歷史·文化的 인프라가 매우 풍부한 곳이다. 이는 조선후기 문화운동사의 중심지 중 하나가 곧 안산이기 때문이다. 북으로 진산인 수리산 밑에서 발원하여 읍내를 남북과 동서로 가르는 乍川 또는 介橋川을 사이로 남촌과 북촌, 중촌의 취락이 형성된 위에, 북촌에서는 荷谷 鄭齊斗의 양명학이, 남촌에서는 星湖 李滉의 실학이 중촌에서는 ‘안산15학사’의 한 사람이며 영조임금의 命撰으로 『山林經濟』를 증보한 藥隱 柳重臨의 의학과 산림경제학으로 별칭되는 또 다른 실학이 鼎立되었고, 豹菴 姜世晃과 그의 제자인 檀園 金弘道의 새로운 文化와 藝術이 꽃피웠던 곳이 안산이었다.

이 글에서는 대부도와 풍도·선감도 등 우리의 도서지역이 어떠한 내용과 모습으로 古文獻에 담겨져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옛날의 地理志에 나타나 있는바를 고찰하고, 둘째, 『高麗史』와 『조선왕조실록』등 正史에 실린 글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끝으로 조선시대 개인모집에 쓰여진 대부도와 풍도에 대한 옛 漢詩를 읽으면서 이들 아름다운 섬들이 또한 어떻게 우리 文學속에 形象化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各種 地理志속의 大阜島와 隣近섬들

우리나라의 地理志는 官撰地理志와 私撰地理志로 大別할

수 있다. 관찬지리지는 국가가 안으로는 內治와 밖으로는 國防을 위한 통치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기 위하여 임시 기구로 찬집청을 만들고 편찬에 종사하는 관료들을 임명하여 계획적으로 편찬한 지리지이고, 사찬지리지는 관료나 학자들이 개인적 관심 내지 학문연구를 위하여 편찬한 지리지이다.

그러므로 역대 왕조에서 편찬된 지리지는 대부분 관찬지리지이고 사찬지리지는 대부분 조선후기에 이르러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 까닭은 개인의 힘으로 방대한 전국적 규모의 지리지를 만든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이는 국가의 機密에 속하는 것이었음으로 개인이 지리지를 편찬하는 것은 禁忌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르면 많은 사찬지리지들이 개인에 의해 쓰여진다. 李重煥의 『擇里志』 丁若鏞의 『我邦疆域考』 金正浩의 『大東地志』 등이 그 예이다. 이들 사찬지리지들은 서양 과학문명의 영향아래 실학자들에 의하여 쓰여진 특색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 사찬지리지는 人的·物的 자원의 종합적 파악과 분석 자료로서는 관찬서에 비하여 그 기록이 疏略하거나 정보의 정밀성에서도 한단계 낮다고 평가 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관찬지리지 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관찬지리지의 書目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三國史記地理志 (1145년 고려 仁宗 23년, 金富軾등 撰進)
- 高麗史地理志 (1451년 朝鮮 文宗 1년, 鄭麟趾등 撰進)
- 世宗實錄地理志 (1454년 朝鮮 端宗 2년, 鄭麟趾등 撰進)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朝鮮 中宗 25년, 李荇·申公濟등 撰進)
- 東國輿地志¹⁾ (朝鮮顯宗朝때 편찬된것으로 추정, 撰者등 未詳)

(1) 三國史記地理志

1) 이 地理志는 편찬자와 편찬年代가 명시되지 않아 확실한 경위를 알수없다. 다만 책의 내용으로 보아 顯宗年間에 쓰여진 地志로 추정할 따름이다. 그러나 체제, 기술내용은 官撰書에 가깝고, 총 9권10책으로서 八道の 各邑을 모두 수록하는등, 방대한 규모로 보아 개인의 찬집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관찬지리지로 분류했다. 鄭求福교수는 鍾溪 柳馨遠의 저작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삼국사기지리지』는 우리나라 最古의 관찬지리지로서 『三國史記』50권 중 권34~37의 4권으로 編次되어 있다. 권34에서부터 36권까지는 新羅의 疆域을 다루었고 권37이 高句麗와 百濟編이다. 이중 신라부분은 대체로 통일신라시대의 九州를 중심으로한 郡縣의 變遷과정을 극히 소략하게 기록해 놓은 일람표에 지나지 않으나 다행히도 이를 통하여 통일 신라의 지방행정조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백제에 관한 나머지 한권은 더욱 소략하여 나타나 있는 지명들을 어디에 소속시켜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무질서하게 나열해 놓고 있다. 이와같이 「삼국사기지리지」는 주로 당시의 郡縣名을 나열해 놓았을 뿐 국가가 필요로 하는 통치자료로서는 크게 未洽하다. 이는 『三國史記』가 삼국이 멸망한 오랜 뒤에 만들어 졌으므로 기록들이 많이 湮滅된데서 온 결과가 아닌가 한다.¹⁾

따라서 本 地理志에는 대부도와 그 인근의 섬들은 누락되어 있다. 단지 권35의 신라편에 안산(獐口郡)과 수원(水城郡)·남양(唐恩郡)·인천(栗津郡)등 인접 郡縣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안산과 인근지역에 대한 가장 오래된 文獻記錄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안산에 대한 기록을 원문과 함께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장구군은 본래 고구려의 장항구현으로 경덕왕때 이름을 고쳐 오늘날의 안산현이 되었다. (獐口郡 本高句麗獐項口縣 景德王改名 今 安山縣.)

이로써 안산의 신라와 고구려때의 이름은 獐口郡 또는 獐項口縣으로 “노루”와 관련하여 불리워졌던 것을 알 수 있고 오늘날과 같이 안산으로 개명된 것은 통일신라의 경덕왕(재위 742~765)때 임을 확인할 수 있다.

本 地理誌의 기록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대부도는 삼국시대 해상교통 및 군사적 요충지였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도지역은 그 당시 한강유역과 인천·남양만에서 덕적도를 거쳐 황해를 가로질러 중국으로 통하는 해상교통로를 장악하려는 삼국간

1) 이상은 李成茂 ; 『全國地理志』, 亞細亞文化社刊, 1981. 의 해제편을 참고할 수 있다.

의 치열한 지배권 다툼에 따라 그 소속이 여러차례 바뀌고 있었다. 대부도 지역을 맨처음 지배한 것은 백제였다. 백제는 한강유역의 서울, 옛 漢州에서 점차 세력권을 넓혀 3세기 중반경 부터는 경기·충청지역까지 그 세를 확장시켜 나갔는데 대부도 역시 이 무렵 백제의 세력권 내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近肖古王 27년(372년)부터 인천의 능허대로부터 덕적도를 거쳐 황해를 건너 중국의 산둥반도에 이르는 중국과의 해상교통로를 개설한 이후 인천과 덕적도를 잇는 항로상에 위치한 대부지역에 대한 백제의 지배력 또한 보다 강화되어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4세기말부터 5세기까지 계속되는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따른 무력침공과 백제의 대 중국 해상로에 대한 고구려의 봉쇄전략으로 대부지역에 대한 백제의 지배력은 날로 쇠퇴하여 갔을 것이다. 마침내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백제 개로왕 21년) 고구려에 의해 한강유역을 점령당한 백제의 南遷政策에 의하여 고구려는 남양만에서부터 동으로 충청도와 경상도 북부 지역을 거쳐 동해안의 영일만 까지 그 세력권을 확장해 갔는데 이 때 고구려가 남양만 지역에 새롭게 설치한 행정구역이 唐城郡이었음으로 대부도지역 역시 고구려에 포함되었고 구체적으로 당성군에 소속 되었다.

551년 羅濟同盟에 의하여 백제는 숙원인 한강유역의 실지를 다시 회복하였는데 이에 따라 대부도 지역도 다시 백제의 세력권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2년후인 553년 신라 진흥왕은 백제를 기습공격하여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남양만 지역에 당항성을 쌓아 여기에서부터 덕적도를 거쳐 중국에 이르는 해상교통로의 교두보로 삼았다. 이에따라 대부도지역은 신라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신라의 대중국 해상통로를 차단 하려는 백제와 고구려에 의하여 당항성은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지만 신라는 이곳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한편 남양만 지역을 처음 장악한 진흥왕14년(553년)부터 통일신라에 이르기 까지 신라는 당성군이란 고구려시대의 지명을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경덕왕 15년(757) 唐恩郡으로 고친 것을 제외하고 신라말까지 이 지역에는 변화가 없었다.¹⁾

1) 이상은 『웅진군지』, 웅진군지편찬위원회刊, 1989, pp 425~428를 참고하였음.

“당은군은 본래 고구령의 당성군으로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 오늘날 옛과 같이 옛이름을 회복하였다.(唐恩郡 本高句麗唐城郡 景德王改名 今復故)

라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2) 高麗史地理志

1451년 조선조 文宗1년 鄭麟趾등이 撰進한 『高麗史』 137권 중 권56~58의 3권으로 편차되어 있는 것이 『高麗史地理志』이다.

이 「지리지」에는 고려가 건국된 918년부터 고려가 멸망한 1392년까지 약 5백년간의 전국 각 郡縣의 沿革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전국을 開城과 5도(楊廣道·慶尙道·全羅道·交州道·西海道), 兩界(東界·北界)로 나누고 그 아래 州·府·郡·縣名을 나열하여 相互統屬關係를 밝히고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보다는 다소 발전된 형식과 내용을 지녔으나 『삼국사기 지리지』와 마찬가지로 매우 疏略한 것이 흠이다. 그러나 연안도시의 섬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안산과 대부도에 대한 기록은 권56에 들어 있으며 이는 『고려사』 본편의 기록과 함께 대부도에 대한 최초의 文獻記錄으로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닌다.

唐城郡(南陽)條에 들어 있는 기록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¹⁾

당성군은 본래 고구려의 당성군이었는데 신라의 경덕왕이 당은군으로 고쳤으나 고려초에 옛이름을 회복했다. 현종9년(1018년) 수주(수원)의 속군이었으나 후에는 인주(인천)의 속군이 되었다. 명종 2년(1172년)에 감무를 두었고 충렬왕16년(1290년)에는 洪茶丘의 內鄕이라 하여 知益州事로 승격되었다가, 또 한차례 뛰어올라 江寧都護府가 되었고 同王34년(1308년) 益州牧으로 승격하였는데 충선왕2년(1310년)에 전국의 牧이 폐지됨에 따라 등급을 내려 南陽府로 삼았다. 大部島와 小牛島, 仁物

1) 唐城郡에 대한 기록은 仁州府(仁川)의 屬郡이었으므로 仁州에 대한 기사보다 한 字 내려서 기록하고 있다.

島, 伊則島, 雜良串島 沙也串島, 難知島, 木力島가 포함되어 있다. 載陽縣은 옛날의 安陽縣인데 현종9년(1018년)에 오늘날의 이름인 재양현으로 불렀고 수주지역 안에 任置되었다가 후에 남양부의 속현이 되었다. (唐城郡 本高句麗唐城郡 新羅景德王改爲唐恩郡 高麗初復古名 顯宗九年 爲水州屬郡 後來屬 明宗二年置監務 忠烈王十六年 以洪茶丘內鄉 陞知益州事 後又陞爲江寧都護府 三十四年又陞爲益州牧 忠宣王二年汰諸牧 降爲南陽府 有大部島, 小生島, 仙甘彌島, 靈興島, 召物島, 承黃島, 仁物島, 伊則島, 雜良串島, 沙也串島, 難知島, 木力島 載陽縣古安陽縣 顯宗九年 稱今名 屬水州任內 後來屬.)

한편 안산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안산현은 본래 고구려의 장항구현인데 신라 경덕왕때 이름을 고쳐 장구군이 되었다. 고려초에 안산군으로 고쳐졌고 현종 9년에 水州(수원)의 屬縣이 되었다. 후에 監務를 두었고 충열왕 34년 文宗임금이 이곳 외가에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知郡事로 승격되었다.(安山縣 本高句麗獐項口縣 新羅景德王改爲獐口郡 高麗初改爲 安山郡 顯宗九年來屬 後置監務 忠烈王三十四年 以文宗誕生之地 陞知郡事)

이 때 수주부의 속현은 안산을 비롯하여 永新縣·雙阜縣·龍城縣·貞松縣·振威縣·陽城縣까지 모두 7개의 縣이 있었다.

대부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이 文獻에는 오늘날의 한자 표기인 “大阜島”대신 “大部島”로 쓰고 있다. “大部島”란 명칭은 “大府島”¹⁾와 함께 고려때부터 사용되어 오다가 조선시대에는 “大部島”란 표기로 통일 되었으나 조선조말 부터는 오늘날과 같이 “大阜島”로 써오고 있다.

“阜”란 본래 “언덕”이나 “나지막한 산” “土山”등을 뜻하는 글자(如山如阜 如岡如陵-『詩經』)이고 “部”는 “거느리다” “통솔하다” “지배하다” 관할하다”는 뜻으로 써온말이 였으나 “큰마을이나 관청”을 뜻하기도 한다.(部十三州-『漢書』) “阜”와 “部” 모두 크다는 뜻에 어원을 두고 있어 말의 근원은 같

1) 『高麗史』권24, 고종3년1월 乙亥條.

다고 하겠다.(『阜成兆民-『詩經』, 部婁無松柏-『左傳』¹⁾))

또한 오늘날의 仙甘島는 仙甘彌島로 고려때부터 써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명칭은 조선시대까지 계속되다가 대부도와 같이 조선말기 부터는 仙甘島로 통일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3) 世宗實錄地理志

1454년(단종2년) 정인지등에 의하여 『世宗實錄』이 撰進될 때 실록의 권148에 編次된 地理志가 『세종실록지리지』이다. 1432년(세종14)에 편찬되었으나 지금은 失傳되어 없어진 『新撰八道地理志』의 내용중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조금씩 고쳐 실록의 부록으로 넣었다는 것으로 학계에서 논의된 바 있다.

내용은 경기도등 八道에 소속되어 있는 328개 郡縣에 관한 각종 人文地理的인 내용을 실고 있다. 특히 戶口·軍丁등 力役收取에 필요한 경제관계 사항과 名山·大川·軍營·牧場등 國防에 관한 사항, 그리고 姓氏·人物등 주민의 신분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 조선왕조의 새로운 정치·사회·경제적 기반을 확립하기위한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생각된다.

대부도에 대한 기록은 이 「지리지」의 「수원도호부」조와 「남양도호부」조에 실려있다. 「수원도호부」조의 주된 내용은 고려 元宗12년(1271년)²⁾ 대부도의 향몽세력인 “大府島別抄”에 대한 기록을 간단히 적고 있다. 이와같은 기록은 『고려사』에도 보인다. 또한 「남양도호부」조에는 대부도의 위치와 섬의 둘레, 둔전의 結數, 목장의 규모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① 水原都護府

본래 고구려의 매홀현(買忽縣)인데, 신라가 수성군(水城郡)

1) 우리의 上古時代 “部婁”는 “큰사람” 또는 “큰나라”라는 뜻으로 쓰였다.

2) 『地理志』의 原文에는 元宗대신 元나라가 비칭했던 忠敬王이란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

으로 고쳤고, 고려 태조(太祖)가 남정(南征)할 때, 고을 사람 김칠(金七)·최승규(崔承珪) 등 2백여 사람이 귀순(歸順)하여 공을 세웠으므로 수주(水州)로 승격시켰으며, 성종(成宗) 14년 을미에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穆宗) 8년 을사【곧 송나라 진종(眞宗) 경덕(景德) 2년.】에 이를 파하고, 현종(顯宗) 9년 무오에 다시 지수주사(知水州事)로 삼았다. 충경왕(忠敬王) 12년 신미【곧 원나라 세조(世祖) 지원(至元) 8년.】에 몽고 군사가 대부도(大部島)에 침입하여 백성을 노략질하니, 섬 사람들이 분함을 못 이겨 몽고 군사를 죽이고 반(叛)하매, 주관(州官) 안열(安悅)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쳐서 평정하였으므로, 그 공으로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키고, 그 뒤에 또 목(牧)으로 승격시켰다가, 충선왕(忠宣王) 2년 경술에【곧 원나라 무종(武宗) 지대(至大) 3년.】모든 목(牧)을 없앴에 따라 수원부(水原府)로 강등시켰다. 공민왕(恭愍王) 11년 임인에【곧 원나라 순제(順帝) 지정(至正) 22년.】홍건적(紅巾賊)이 선봉(先鋒)을 보내어 항복하기를 청하매, 양광도(楊廣道)의 주군(州郡) 가운데서 수원이 맨먼저 항복하여 <적을> 맞아들였으므로, 적의 형세가 더욱 퍼졌기 때문에, 군(郡)으로 강등시켰는데, 고을 사람들이 재상 김용(金鏞)에게 뇌물을 많이 주어서 얼마 안 되어 다시 부(府)로 되었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도호부가 되었다.【별호는 한남(漢南)이니, 순화(淳化) 때에 정한 것이다. 혹은 수성(陷城)이라고도 한다.】

② 南陽都護府

본래 고구려의 당성현(唐城縣)인데, 신라가 당은군(唐恩郡)으로 고쳤고, 고려가 옛이름[唐城]으로 복구하여, 현종(顯宗) 무오에 수주(水州) 임내(任內)에 붙어있다가, 뒤에 연주(仁州)에 옮겨 붙였으며, 명종(明宗) 2년 임진에【곧 송나라 효종(孝宗) 건도(乾道) 8년.】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충렬왕(忠烈王) 16년 경인에 고을 사람 홍다구(洪茶丘)가 원나라에 벼슬하여 정동행성 우승(征東行省右丞)이 되었으므로 지익주사(知益州事)로 승격되고, 뒤에 또 강녕 도호부(江寧都護府)로 승격되었다가, 34년 무신에 또 익주목(益州牧)으로 승격되었다. 충선왕 2년 경술에 모든 목(牧)을 없앴에 따라 남양부(南陽府)로 강등되어, 본조(本朝)에서도 그대로 따랐다가, 태종 13년 계사

에 예(例)에 의하여 도호부(都護府)로 고쳤다. 속현(屬縣)이 1이니, 재양(載陽)이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수원에 이르기 15리, 서쪽으로 화지량(花之梁)에 이르기 30리, 남쪽으로 수원(水原) 임내(任內) 쌍부(雙阜)에 이르기 20리, 북쪽으로 안산(安山)에 이르기 10리이다.

호수(戶數)가 4백 87호, 인구가 7백 78명이고, 군정(軍丁)은 사위군(侍軍)이 2명, 선군(船軍)이 1백 45명이다.

본부(本府)의 토성(土姓)이 6이니, 홍(洪)·송(宋)·방(房)·박(朴)·최(崔)·서(徐)요, 망성(亡姓)이 1이니, 오(吳)이다. 재양(載陽)의 토성이 4이니, 손(孫)·윤(尹)·신(辛)·우(祐)요, 내성(來姓)이 1이니, 서(徐)이며, 【안산(安山)에서 왔다.】 속성(續姓)이 1이니, 전(田)이다. 인물(人物)은 첨의중찬 경흥군 충정공(僉議中贊慶興君忠正公) 홍자번(洪子蕃)·첨의중찬 광정공(僉議中贊廣定公) 홍문계(洪文系) 【모두 충렬왕(忠烈王) 때 사람이다.】·첨의정승 남양후 문정공(僉議政南陽侯文正公) 홍언박(洪彦博)이다. 【공민왕(恭愍王) 때 사람이다. 당(唐)에서 재주 있는 젊은이 8인을 보내어 고려에 가서 가르치게 하였는데, 홍(洪)도 그 중의 하나이다. 자손이 대대로 삼한(三韓)에서 귀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사는 곳을 당성(唐城)이라 하였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 되며, 바다가 가까워서 기후(風氣)가 일찍 더워지고, 간전(墾田)이 4천 3백 48결(結)이다. 【논이 8분의 3이다.】 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수수·팥·참깨·뽕나무·삼(麻)이요, 토공(土貢)은 지초이며, 약재(藥材)는 사자발쑉 【가장 좋은 것이다.】·백부자(白附子)·연밥이요, 염소(鹽所)가 44이다. 경석(磬石)이 부(府) 동쪽 사군사(舍郡寺)의 서쪽 산에서 난다. 【빛이 푸르고 흰 것이 섞이고 문채가 있다. 금상(金上) 9년 정미에 캐서 경쇠를 만들었는데, 소리가 음률에 맞았다.】 어량(魚梁)이 2이다. 【주로 민어·송어가 나고, 또 송어·상어·참치·가물치[加大魚]·조기[石首魚]·큰새우·중새우·곤쟁이[紫蝦]·모시조개[黃蛤]·대합조개[生蛤]·미네굴[土花]·굴[石花]·낙지(落地)가 난다.】

역(驛)이 1이니, 해문(海門)이요, 관방(關防)이 2이니, 영종포(永宗浦)와 【부 남쪽에 있으니, 수군 만호(水軍萬戶)가 수어(守禦)한다.】 화지량(花之梁)이며, 【부 서쪽에 있으니, 우도

수군 첨절제사(右道水軍僉節制使)가 수어한다.】 봉화(烽火)가 2곳이니, 염불산(念佛山)과 【부 서쪽에 있다. 동쪽으로 수원(水原) 흥천산(興天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본부(木府) 해운산(海運山)에 응한다.】 해운산(海運山)이다. 【부 북쪽에 있다. 안산(安山) 무고리(無古里)에 응한다.】 선감미도(仙甘彌島) 【화지량(花之梁) 서쪽 수로(水路) 2리에 있으니, 둘레가 5리이며, 소를 놓아 먹인다.】 대부도(大部島) 【화지량 서쪽 2리에 있다. 길이 30리요, 너비가 15리이니, 좌도 선군영(左道船軍營) 밭이 1백여 결(結)이 있으며, 나라의 말 4백 18필을 놓아 먹이는데, 염부(鹽夫) 4호가 살면서 돌보게 한다.】 소우도(小牛島) 【대부도 서쪽 5리에 있으니, 둘레 15리이며, 염부(鹽夫) 2호가 있다.】 영흥도(靈興島) 【소우도 서쪽 7리에 있다. 길이 25리, 너비 15리이며, 염부(鹽夫) 5호가 있다.】 소홀도(召忽島) 【영흥도 서쪽 30리에 있다. 예전에는 소물도(召物島)라 하였으며, 둘레가 20리이나, 밭이나 사는 사람이 없다.】 덕적도(德積島) 【소홀도 남쪽 60리에 있다. 예전에는 인물도(仁物島)라 하였으며, 둘레가 15리인데, 나라의 말 2백 57필을 놓아 먹인다.】 우음도(訥音島) 【부 북쪽 수로(水路) 2리에 있다. 둘레 13리이며, 밭 5결이 있는데, 부의 사람들이 드나들며 농사를 짓는다.】 새곶이 [土也串] 【나라의 말을 놓아 먹인다.】

위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당시 대부도는 남양부에서 수원도호부로 屬地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勝覽』은 1476년(성종7년)에 盧思愼·姜希孟·徐居正·成任·梁誠之등에 의하여 撰進되었고, 『新增東國輿地勝覽』은 1530년(중종25년) 李荇등에 의하여 增補된 55권 24책의 방대한 文獻이다.

정치·경제·군사관계 기록뿐 아니라 禮·俗·詩文등 유교적 문화요소가 보다 강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로 미루어 『東國輿地勝覽』은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확립기에 집대성된 官撰地理志의 한 典刑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도와 인근도서들에 대한 기록은 권9의 남양도호부 11

川條와 牧場條에 실려 있는데 다음과 같다.

- 대부도는 府서쪽 53리되는 곳에 있으며 목장이 있다.(大部島 在府西五十三里 有牧場)
- 선감미도는 府서쪽 50리에 있으며 목장이 있다.(仙甘彌島 在府西五十里 有牧場)
- 우음도는 府서쪽 45리에 있다.(牛音島 在府西四十五里)
- 수홀도는 府서쪽 41리에 있다.(愁訖島 在府西四十一里)
- 영흥도는 대부도 서쪽에 있으며 목장이 있다.(靈興島 在大部島西 有牧場)
- 소홀도는 성종17년에 안산군에 옮겨 붙였다. [신증] 지금 임금(中宗) 14년에 안산으로부터 도로 남양부에 붙였다.(召訖島 成宗十七年 移屬 安山郡 [新增] 今上十四年 自安山還屬于府)
- 덕적도는 성종17년에 인천부에 옮겨 붙였다.(德積島 成宗十七年 移屬仁川府)
- 독갑도는 덕적도 남쪽에 있으며 주위가 25리이고 목장이 있다.(禿甲島 在德積島南 周二十五里 有牧場)
- 승황도는 독갑도 서남쪽에 있으며 주위가 45리이고 목장이 있다.(昇黃島 在禿甲島西南 周四十五里 有牧場)
- 풍도는 성종17년에 수원부에 옮겨 붙였다.(楓島 成宗十七年 移屬水原府)

한편 수원도호부 山川條에는 楓島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 풍도는 부 서쪽 45리 되는 곳에 있는데 둘레가 20리이다. 성종17년에 남양으로부터 와서 예속되었는데 목장이 있다.
- 제부도는 선감미도의 남쪽에 있다.(濟扶島 在仙甘彌島南)
- 탄모로도는 소우도 남쪽에 있다.(炭毛老島 在小牛島南)
- 오질도는 부 서쪽에 있고 목장이 있다.(於叱島 在府西 有牧場)
- 소우도는 대부도 서쪽에 있다.(小牛島 在大部島西)

이 밖에 입파도 · 구을암도 · 오리도에 대한 기록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생략한다.

(5) 東國輿地志

『新增東國輿地勝覽』이 찬진된지 130여년이 지난 顯宗朝에 『東國輿地志』가 9권10책으로 편찬되었으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편찬자와 編纂年代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한 경위는 알 수 없다. 그러나 八道の 各郡이 모두 수록된 것으로 미루어 개인적인 私撰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권1의 범례에 따르면 이 책은 『여지승람』을 增修하고 그간의 변동된 조례를 『大明一統志』와 역대 史志 및 諸書로서 바로 잡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부도와 풍도에 대한 기록은 권2 京畿道 南陽都護府條와 水原都護府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대부도는 府서쪽 53리에 있다. 조수가 물러갈 때면 육지와 이어진다. 목장이 있다.(大部島 在府도 五十三里 潮退則連陸 有牧場)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하여 조수가 退潮하면 바닷길이 열린다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남양도호부조에는 대부도와 함께 수흥도 · 우음도 · 선감미도 · 영흥도 · 소흥도 · 덕적도 · 승황도 · 신야곶도 · 이측도 · 제부도 · 탄모로도 · 오질도 · 소우도 · 입파도 · 선협도 구을암도 결오리도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사와 거의 같음으로 생략하기로 한다. 풍도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풍도는 府서쪽 45리에 있고 섬의 둘레는 20리이다. 성종17년 남양부로부터 귀속되었다. 목장이 있다.(楓都 在府西四十五里 周二十里 康靖請王十七年 自南陽府來屬 有牧場)

3) 正史속의 大阜島

여기에서 正史라 함은 『高麗史』와 『朝鮮王朝實錄』을 말함이다. 『고려사』에는 본고 제2장에서 언급한 地理志의 기록을 제외하고 모두 3차례정도 대부도가 등장하는데 모두 大府別抄에 대한 기록들이다. “大府都別抄가 밤에 인천경역의 소래산 아래에 나가 몽고병 100여인을 격퇴시켰다”¹⁾는 것과 “元

1) 『高麗史』권24 高宗, 43년4월 康辰條.

宗 12년 2월에 손돌목을 지키던 몽고병들이 대부도에 들어가 주민을 침탈하니 백성들이 심히 원망하였다. 大部人 崇謙등이 봉기했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몽고인 6명을 죽이고 叛하거늘 水州副使 安悅이 군사를 거느리고 討平하였다” 등의 기록이 그것이다.

『고려사』에 비하여 『조선왕조실록』의 대부도에 대한 기록은 행정·경제·국방·교통사항들이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첫 번째 대부도에 관한 기록은 세종18년 7월25일 戊午條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감목관을 혁파하고 각 목장을 지방수령으로 하여금 겸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함길도의 도련포 목장(都連浦牧場)은 함흥 소윤(咸興少尹)으로, 말응도 목장(末應島牧場)은 영흥 판관(永興判官)으로, 두언태 목장(豆彦台牧場)은 지단천군사(知端川郡事)로, 마랑이도 목장(馬郎耳島牧場)은 홍원 현감(洪原縣監)으로, 반상사눌도 목장(反上四訥島牧場)은 용진 현령(龍津縣令)으로, 충청도의 대산곶 목장(大山串牧場)은 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로, 홍양곶 목장(興陽串牧場)은 결성 현감(結成縣監)으로, 원산도 목장(元山島牧場)은 고만 만호(高蠻萬戶)로, 개야소도 목장(開也召島牧場)은 서천포 만호(舒川浦萬戶)로, 난지도 목장(難智島牧場)은 당진포 만호(唐津浦萬戶)로, 전라도의 지도 목장(智島牧場)은 함평 현감(咸平縣監)으로, 도양곶 목장(道陽串牧場)은 지고흥현사(知高興縣事)로, 임치도 목장(臨淄島牧場)은 우도 도만호(右道島萬戶)로, 장산도 목장(長山島牧場)은 주량 도만호(周梁都萬戶)로, 자은도 목장(慈恩島牧場)은 다경포 만호(多慶浦萬戶)로, 경사도의 오해항 목장(吾海項牧場)과 석을포 목장(石乙浦牧場)은 지동래현사(知東萊縣事)로, 가조음도 목장(加助音島牧場)은 지거제현사(知巨濟縣事)로, 경기도의 자연도(紫燕島)·용류도(龍流島)·무의도(無衣島) 목장은 지인천군사(知仁川郡事)로, 대부도(大阜島)·여흥도(呂興島) 목장은 남양 도호부사(南陽都護府使), 덕적도(德積島)·사야곶(士也串)·이작도(伊

作島)·소홀도(召忽島) 목장은 좌도 첨절제사(左道僉節制使)로, 매도(煤島)·장봉도(長峯島)·위도(位島) 목장은 정포 만호(井浦萬戶)로, 주문도(注文島)·보음도(浦音島) 목장은 우도 첨절제사(右道僉節制使)로 겸해 임명하고, 감목관(監牧官)은 모두 혁파(革罷)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다음 기사는 경기도관찰사 성건이 대부도등에 농지를 개간하는 것을 아뢰는 기사이다.

성종실록 권199, 18년1월26일(정묘) / 경기도 관찰사 성건이 남양 대부도 등을 개간할 것을 아뢰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성건(成健)이 남양(南陽) 대부도(大部島)와 강화(江華) 보음도(浦音島)의 지형을 그려서 올리며 아뢰기를,

“대부도 가운데는 토지의 품질이 기름져서 곡식 2백여 석을 심을 만하고, 또 해택(海澤)이 있어서 2백여 석을 심을 만하니, 마땅히 경계를 쌓아서 목장의 말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화량(花梁) 당령 선군(常領船軍)의 반(半)을 나누어서 갈고 가꾸도록 하소서. 보음도도 땅이 기름져서 5, 6백 석을 심을 만하니, 청컨대 목장을 다른 섬으로 옮기고 월곶이[刀串] 당령 선군의 반을 나누어서 갈고 가꾸도록 하여 국용(國用)을 돕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성건의 말을 사복시(司僕寺)에 자세히 유시(諭示)하여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다음, 계속하여 『조선왕조실록』의 대부도에 관한 기록은 순서에 의하여 소개한다.

성종실록 권200, 18년02월19일(기축) / 특진관 김승경이 호조당상 등이 대부도 등지의 둔전 개간 여부를 살피도록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특진관(特進官)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대부도(大部島), 강화(江華)의 보음도(甫音島) 등지에 둔전(屯田)을 두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단지 사복시 정(司僕寺正) 강귀손(姜龜孫)만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는데, 이같은 연혁(沿革)의 중대한 일은 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호조 당상(戶曹堂上)·경기 감사(京畿監司)와 더불어 일시에 살펴서 정하도록 하소서. 더구나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저축을 넓히는 것은 이익이 매우 크니, 이제 마땅히 여러 도(道)에 두루 유사(諭示)하여 만약 노는 땅 으로서 경작할 만한 곳이 있거든 다시 대신(大臣)을 보내어 살펴보게 해야 합니다. 만일 적당하면 목장(牧場)은 물론하고 둔전을 설치하여 군수(軍需)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급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권201, 18년3월4일(갑진) / 호조 판서 이덕량 등이 대부도 등에 둔전을 두는 방법을 아뢰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성건(成健) 등이 남양(南陽) 대부도(大部島)와 강화(江華) 보음도(甫音島)의 둔전(屯田) 배치 형태를 그려 올리고 인하여 아뢰기를,

“이 땅은 모두 경작하기에 적합합니다만 보음도는 월곶이[川串]의 선군(船軍)으로서는 다 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모름지기 목장(牧場)을 옮기어 백성이 스스로 경작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대부도는 겨우 2백여 석(碩)을 심을 정도이니, 목장을 옮기지 말고 화량(花梁) 수군(水軍)으로써 혹은 토장(土場)을 쌓고 혹은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경작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권201, 18년3월14일(갑인) / 대사헌 김자정이 대부도의 둔전 개간을 내년에 하자고 논계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大司憲) 김자정(金

自眞)이 논계(論啓)하기를,

“대부도(大部島)에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개간(開墾)하게 되면 오로지 목자(牧子)의 소를 쓸 것이니, 반드시 사농(私農)을 폐(廢)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영구히 파하지는 않더라도, 청컨대 내년을 기다려 개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王)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김자정이 또 아뢰기를,

“한명회(韓明澮)가 목욕(沐浴)을 하겠다는 핑계로 공주 온천(公州溫泉)에 가는데, 그 뜻은 청주(淸州)의 농장(農莊)을 보려는 것입니다. 충청도의 여러 고을에서 한명회가 사잇길로 간다는 말을 듣고 앞을 다투어 백성을 역사시켜 길을 닦고, 진천(鎭川) 현감(縣監)과 찰방(察訪) 등은 미리 경상(境上)에 이르러 영접하여 기다리고 있다 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王)이 말하기를,

“정승(政丞)의 병은 여러 사람이 다 아는 것인데, 어찌 핑계 삼아 말하겠는가? 하물며 병은 깊어지기 전에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이미 가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다시 그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수령(守令)이 백성을 역사시켜 길을 닦는 것은 부당하니, 헌부(憲府)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201, 18년3월14일(갑인) / 승정원에서 대부도의 역사를 정지하지 말기를 아뢰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대부도(大部島)를 명년을 기다려 개간하면 한갓 사체(事體)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정교(政敎)가 번거롭게 될 것입니다. 만일 둔전(屯田)을 두고 내수사(內需司)에 곡식을 저축하기를 예전의 경림(瓊林)·대영(大盈)과 같이 한다면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해 흉년이 들어 국고가 텅비었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자 하는 것인데, 무엇이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큰 공을 이루는 자는 작은 폐단을 따지지 않는다.’ 고 하였으니, 비록 간책(簡策)에 쓰더라도 단연코 후세의 비방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역사를 시작하였는데, 이어 곧 파하면 불가하지 않습니까? 잘살게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백성을 부리면 비록 괴롭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백성을 위하여 시작하였으니, 또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청컨대 역사를 정지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둔전을 설치하는 것은 어찌 사용(私用)을 삼고자 하는 것이겠는가? 다만 군자(軍資)를 보충하고 저축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관(臺官)과 대신(大臣)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니,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은데, 내가 어찌 홀로 고집하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백성에게 스스로 경작하기를 허용하되 마치 예전의 정전법(井田法)과 같이 하여, 여덟 집이 나누어 사전(私田)을 받고, 그들이 힘을 합하여 공전(公田)을 경작하게 해서 십분의 일의 이익을 거두었으면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자,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지금 이미 기계(器械)를 수송하여 선군(船軍)을 역사시킨 것이 며칠이 되었으니, 경솔히 파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성건(成健)·이덕량(李德良)·김승경(金升卿)·이세우(李世佑)는 모두 임금이 중하게 여기는 신하이다. 둔전(屯田)이 백성에게 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반드시 설치하려고 하여 비록 대간(臺諫)과 대신(大臣) 심회(沈澮) 등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고집을 부리면서 말하기를, ‘큰 공을 이루는 자는 작은 폐해를 계산하지 않으니, 간책(簡策)에 쓰더라도 단연코 후세의 비방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니, 식자(識者)가 그르게 여기었다.” 하였다.】

성종실록 권201, 18년3월15일(을묘) / 대사헌 김자정 등이 차자를 올려 대부도의 역사를 일시 정지할 것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자정(金自貞) 등이 차자(笱子)를 올리기를,

“지난번에 대부도(大部島)의 목장 안에 있는 소전(召田) 등지가 논[밭]을 만들기에 합당하다고 해서 개간하여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그 논같이하는 소는 영흥(靈興)·선감(仙甘)·대부(大部) 등 세 목장 목자(牧子)의 사축(私畜)을 쓰고, 그 인부(人夫)는 화량(花梁)·영종(永宗) 두 포(浦)의 수군(水軍)을 쓰라고 명하고, 인하여 남양 부사(南陽府使)·화량 절제사(花梁節制使)에게

감농(監農)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신 등이 온당치 못한 사유를 대강 들어 두세 번 계달하였는데 이를 호조(戶曹)에 하문(下問)하시니, 호조에서 아뢰기를, ‘기계가 이미 완비되었으므로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신 등은 들으니, 예전의 천자(天子)·제후(諸侯)가 종묘(宗廟)의 자성(盛)을 위하여 적전(籍田)을 둘 뿐이고, 그 나머지 토지는 백성이 모두 받는다고 합니다. 그 둔전(屯田)이니 영전(營田)이니 하는 것은 다만 후세의 변장(邊將)이 이익을 말하고 사공(私功)을 요구하는 술책이지 선왕(先王)이 국가를 생각하여 들을 경리(經理)하고 토지에 인하여 조세(租稅)를 제정한 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경(四境) 안이 왕토(王土)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사사로이 정휴(町畦)를 만들어 국둔전(國屯田)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백성에게 이로운 것이 십배가 아니면 할 것이 못 됩니다. 지금 세 목장의 거민(居民)이 을사년의 참혹한 흉년을 겪고 굶주림이 극도에 달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없으므로, 집집마다 가축을 잡아먹으며 조석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병오년 1년은 비록 조금 수확을 하였으나 공채(公債)·사채(私債)의 빚을 갚기 위해 우마(牛馬)를 다 팔아서 남은 것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금년 농사에 만일을 기대하고, 차라리 먹을 것을 못먹으면서도 콩과 끝을 꾸어다가 그 소를 기르는 형편인데, 지금 만일 그것을 빼앗아다가 둔전을 개간하게 하면 백성의 근심과 원망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리에 어그러지는 것은 지혜 있는 자를 기다리지 않고도 알 것입니다. 호조에서는 한갓 이재(理財)만을 힘쓰고, 백성의 농사 시기를 빼앗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며 반성을 하기는 커녕 앞서 한 말의 잘못된 것을 문식(文飾)하니, 매우 불가합니다.

또 수군(水軍)을 설치한 것은 바다 도적을 막자는 것입니다. 마땅히 전심으로 주楫(舟楫)을 다스려 수전(水戰)에 예측하게 하여야 하겠는데, 근년에 이 무리들을 모두 몰아다가 토목(土木)에 역사시키고 지금 또 둔전에 역사시키니, 다만 두 포(浦)의 군사가 휴양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변군(邊軍)도 맥이 풀리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군국(軍國)의 원대한 계획이겠습니까? 감농관(監農官)도 해마다 세철 동안 군사를 영솔하면서 권과(勸課)를 빙자하여 침요(侵擾)하며 폐해를 끼치는 것이 또한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니,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 어찌 구구한 둔전에 있다 하겠습니까? 농사 시기를 빼앗지 말고,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에 힘쓸 수 있게 하

여 모두 남은 곡식이 있게 되면 자연히 국고가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낭비하면서 말하기를, ‘국가의 용도가 부족하니, 마땅히 둔전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면 취렴(聚斂)의 결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전 사람이 국군(國君)의 부력(富力)을 물으면 말[馬]을 쟁해서 대답하였으니, 지금 이 목장은 선왕(先王)께서 규칙(規)하신 것인데, 어찌 침노하여 개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땅이 비옥하여 땅에 이익을 남길 수 없다면 마땅히 백성이 스스로 경작하는 것을 들어주어서 조세(租稅)를 거둘 뿐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권201, 18년3월16일(병진) / 인정전에 나아가 대부도를 개간하는 것에 대해 내린 책문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선비를 책문(策問)하였다. 그 책문에 이르기를,

“내가 덕이 없는 사람으로서 조종(祖宗)의 간대(艱大)한 업(業)을 이어받은 지가 19년이 되었다. 밤낮없이 애쓰며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도모하였으나 그 요령을 얻지 못하였다. 백성의 풍속은 후하게 되기를 바라나 날마다 효박(消薄)한 데로 나가고, 선비의 습관은 바꾸어지기를 바라나 점점 비오(卑汚)한 데에 이르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수령(守令)은 백성에게 임하는 관리이므로, 그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은 백성의 휴戚(休戚)에 관계된 것이다. 내가 착한 일은 나타내고 악한 일은 징계하여 권장하고 징계함이 있고자 하여, 간간이 조관을 보내어 시위(施爲)하는 것을 규찰(糾察)하게 하였으나 공수(逕)·황패(黃)·탁무(卓茂)·노공(魯恭)의 정사는 보지 못하고 한갓 수식(修飾)하며 기망(欺罔)하는 폐단만 있으니 장차 무슨 방법으로 이를 바꾸어야 하겠는가? 소민(小民)들이 그것을 보고 수령(守令)의 작은 흠을 꼬집어 내어 입을 열지 못하도록 꾀하며 고자질하는 것이 날로 심하니, 장차 무슨 방법으로 구제해야 하겠는가? 한 문제(漢文帝)가 몸소 현묵(玄默)을 행하자 선비는 염치(廉)를 숭상하고 백성들은 순후(醇厚)해져서, 남의 과실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였는데, 지금은 내가 표솔(表率)하는 것이 그 도리를 얻지 못하여 그런 것인가?

지금 헌의(獻議)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대부도(大部島)는 토지가 비습하여 목축(牧畜)에는 마땅치 않고 가색(稼穡)에 마땅

하다고 하므로, 내가 둔전(屯田)을 두어 군자(軍資)를 넉넉하게 하려는데, 조정과 민간에서 분분하게 떠들며 혹은 그 불가함을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옛적에 조충국(趙充國)·조지(秦祗)·등애(鄧艾)의 무리가 모두 둔전(屯田)으로 성과를 나타냈는데도 당시에 이의가 없고 후세에도 이론(異論)이 없었으니, 어찌 그 실상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송(宋)나라의 공전(公田)이 조세(租稅)가 중한 폐단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겠는가? 삼국(三國)의 일로 말하면 신라(新羅)·백제(百濟)·고구려(高句麗)가 정립(鼎立)하여 세 조각이 되었으니, 그 토지와 인민을 대개 알 수 있는데 그 번성할 때에는 동정 서벌(東征西伐)하며 서로 서로 각축(角逐)하여 각기 완성한 나라가 되었고, 고구려는 수양제(隋煬帝)·당 태종(唐太宗)의 막강한 병력으로도 오히려 뜻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 강함을 알 수 있다. 고려[前朝] 태조(太祖)가 통합한 이래로 토지와 병민(兵民)을 통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니, 그 국세(國勢)가 삼국이 정립(鼎立)하였던 때보다 강하여야 하겠는데, 현종(顯宗)·공민왕(恭愍王)이 파천(播遷)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내가 조종(祖宗)의 업(業)을 이어 받고 가득찬 것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지키는데도 오히려 실추(失墜)됨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군사를 강성하게 하여 큰 기업을 굳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군액(軍額)이 넉넉하여지고 사졸(士卒)이 정예하게 되며, 군령(軍令)이 엄하여지고 장수로 훌륭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숙위(宿衛)하는 군사가 무기와 갑주(甲冑)가 무디고 헤어져서 이름은 기병(騎兵)이라고 하나 말[馬] 없는 자가 오히려 많다. 그래서 한 번만 열무(閱武)하는 일이 있으면 군졸(軍卒)이 당황하여 서로 꾸기에 여념이 없으니, 평시에도 이러하네 급한 때를 당하면 어떻게 보전할 수 있겠는가? 이 폐단을 구제하고자 하면 그 방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자대부(子大夫)는 고금의 일에 널리 통달하였으니, 반드시 능히 이것을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솔직하게 진술하여 대답하라. 내가 장차 관찰하겠다.” 하였다. 그리고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과(武科) 윤보상(尹輔商) 등 16인을 뽑았다.

성종실록 권201, 18년3월27일(정묘) / 도승지 이세우가 복명하고 대부도의 파종 상황을 아뢰다

도승지(都承旨) 이세우(李世佑)가 와서 복명(復命)하고 아뢰기

를,

“대부도(大部島)에 이미 파종(播種)한 것이 65석(碩)이고 파종하지 않은 것이 50석입니다.”

하였다.

성종 202 18/04/25(갑오) / 사복시 제조 윤호 등이 강화 보음도를 경작하지 말기를 아뢰다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 윤호(尹壕) 등이 와서 아뢰기를,

“남양(南陽) 대부도(大部島)는 땅은 넓고 말[馬]이 적으니 비록 둔전(屯田)을 두더라도 진실로 목장(牧場)에 방해될 것이 없지만, 강화(江華)의 보음도(甫音島)와 같은 곳은 큰 바다 가운데의 절도(絶島)인데다가 경작할 만한 땅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호조(戶曹)에서 백성들에게 경작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목장을 개간하게 될 조짐이 이로부터 시작되어 마정(馬政)이 실패할 듯하니, 청컨대 경작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권203, 18년5월26일(을축) / 도승지 이세우가 수원부사 양찬의 목사 부적임을 아뢰다

도승지(都承旨) 이세우(李世佑)가 아뢰기를,

“양주 목사(楊州牧使) 안상계(安桑)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양찬(梁贊)과 바꾸어 차임(差任)하도록 명하셨는데, 신이 생각하건대, 양주는 땅이 넓고 백성이 많은데 전 목사 이윤손(李尹孫)이 늙어서 일을 다스리지 못하였고 양찬도 수령의 재목이 아닙니다. 신은 아마도 양주의 백성들이 마침내 회복되지 못할까 합니다. 수원은 판관(判官)이 있으므로 양찬도 관(官)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다. 양찬의 실수한 것이 어떤 일인가?”

하자, 이세우가 아뢰기를,

“양찬의 실수한 바는 신이 듣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지적할 수 있었습니까? 다만 그 사람됨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양찬이 과연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면, 아무리 관관이 있더라도 어찌 임명할 수 있겠는가? 바로 들은 바를 진술하라.”

하니, 이세우가 아뢰기를,

“신이 대부도(大部島)에서 돌아올 때에 길에서 들으니, 사람들이 모두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가 대부도에 갔다가 수원을 경유하였는데, 어찌 들은 바가 없이 이 말이 있겠는가?”

하니, 이세우가 아뢰기를,

“신이 만약 들은 바를 기억한다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임금 앞에서 일을 아뢰려고 하는데 어찌 자세히 묻지 아니하겠는가? 사실대로 대답하라.”

하니, 이세우가 얼굴빛이 변하고 두려워하면서 앞의 말과 같이 대답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곧 홍문관원(弘文館員)을 보내어 양찬의 정치 득실(政治得失)을 사찰(伺察)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204, 18년6월9일(정축) / 지평 윤파가 유자광의 관직 제수와 도승지 이세우의 직무 태만을 아뢰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윤파(尹坡)가 와서 아뢰기를,

“유자광(柳子光)을 지금 한성 판윤(漢城判尹)으로 제수하였습니다. 유자광은 본래 열산(廩)이고 이미 큰 죄를 범하여 훈적(勳籍)에서 이름이 삭제되었는데, 비록 공이 컸기 때문에 용서하고 거두어 썼으나 군(君)을 봉한 것으로 족한 것이지, 경조(京兆)의 장(長)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또 대부도(大部島)는 다만 사출 노정(路程)밖에 안되는데, 도승지(都承旨) 이세우(李世佑)가 가서 살펴볼 때에 돌아가서 수원부(水原府)에 이르러 머물면서 자고 놀고 하느라고 6일을 경과하고서야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이미 마땅하지 못하는데, 요즈음 양찬(梁瓚)의 불법(不法)한 일을 하문(下問)할 때에 사실을 숨기고 바로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자못 신자(臣子)의 도리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자광은 비록 서열(庶)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도총관(都摠管)에 임명되었었고 또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전대(專對)하였었으니, 그 재기(才氣)를 보건대,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하다. 이 세우의 일은 알고 있다.”

하였다. 이세우가 아뢰기를,

“신은 정성근(鄭誠謹)과 사귄 정이 매우 두터운데, 사명을 받들고 대마도(對馬島)로 들어갈 때에 신이 말로 작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처음 생각으로는 길에서 말로 작별을 하려고 하여 초2일에 남양(南陽)에 갔고 이튿날 대부도에 갔다가 그 이튿날 남양으로 돌아왔는데, 날이 아직 저물지 아니하였습니다. 수원은 남양에서 거리가 30리 길이며 또 한강(漢江)의 직로(直路)이기 때문에 정성근을 만나 보려는 마음에 국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서 이날 수원에 이르렀는데, 정성근이 이미 광주(廣州)로 향하였으니 형편이 필시 서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하루를 머물렀던 것입니다. 신에게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전에는 그 문 앞으로 세 번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아니한 이가 있었다. 명(命)을 받들고 가는 데에는 진실로 마땅히 빨리 돌아와야 할 것인데, 길이 아무리 매우 가깝다 하더라도 남을 찾아갈 수 있겠는가? 양찬(梁贊)의 일은 내가 두 번이나 불었는데도 그대가 어찌하여 바로 아뢰지 아니하는가? 대죄(待罪)하라.”

하였다. 윤파(尹坡)가 또 아뢰기를,

“유자광에게 이제 한성 판윤을 제수하였으니, 반드시 장차 육조(六曹)나 의정부(議政府)에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육조나 의정부에 임명하지 아니하는 것은 군상(君上)의 일이니, 밑에 있는 자가 마땅히 의논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권204, 18년6월12일(경진) / 이세우를 파직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이세우(李世佑)가 남양(南陽) 대부도(大部島)를 살피본 뒤에 길을 돌아 수원부(水原府)에 가서 머물며 부사(府使) 양찬(梁贊)의 용렬(庸劣)한 과실을 눈으로 보고서도 두세 번 하문(下

問)할 때에는 길에서 전해 들었다고 대답하여 천총(天聰)을 속인 죄는 율(律)이 ‘대제상서 사물이실(對制上書詐不以實)’에 해당하니, 장(杖) 1백 대와 도(徒) 3년으로 하고, 《대전(大典)》에 의하여 고신(告身)을 모두 빼앗아야 합니다.” 하였는데, 어서(御書)로 파직(罷職)만 하라고 하였다.

성종실록 권208, 18년10월21일(정해) / 김석의 사록·황해도의 둔전 설치 등에 대해 대신과 의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정언(正言) 박희손(朴喜孫)이 아뢰기를,

“김석(金)은 다만 살인뿐이 아니고 사람(士林)에서 모두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함을 말합니다. 어미의 상중에 있으면서 기생을 간통한 일은 비록 확실한 증거는 없다지마는, 말하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니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묻기를,

“만일 그렇다면 사록(司錄)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조정(朝廷)에 설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홍문관에서 또한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사람의 전정(前程)을 망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찌 경솔히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신이 연소(年少)하였을 때에 제배(輩)들과 때를 지어 날마다 유희하는 것으로 일을 삼으면서 혹은 중을 구타하기도 하고 계집아이를 희롱하기도 하여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김석의 살인이 또한 연소한 때에 있었으니, 족히 깊이 논할 것은 없으나, 다만 어미 상중에 기생을 간통한 것은 강상(綱常)의 죄인인데, 어찌 성조(聖朝)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일이 이미 10년을 지냈으니,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김석의 사록(司錄)을 고치고 그 기생을 간통한 일은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사증(辭證)을 조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는 금년에 잘 결실되지 않았는데, 선군(船軍) 4백 명이 지금 산대(山臺)의 역사에 나가 있으니, 청컨대 이들을 먼저 돌려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도는 농사가 잘되지 못하고 지금 또 중국 사신을 지판(支辦)하는 일이 번다하니, 선군을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국가에서 선군(船軍)을 설치한 것은 본래 방수(防戍)를 위한 것인데, 근래에는 영작(營作)과 둔전(屯田)에 반드시 이 무리를 역사시킵니다. 예전에 조충국(趙充國)이 선령(先零)을 칠 때에 보졸(步卒)이 머물러 두고 둔전을 개간하여 군사의 양식을 잇대다가 선령이 항복한 뒤에는 이내 파하였습니다. 지금의 둔전은 이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종조(世宗朝)에 수산 둔전(守山屯田)을 설치하였고, 세조조(世祖朝)에 조석문(曹錫文)이 호조(戶曹)를 겸판(兼判)할 때에 둔전을 설치할 것을 억지로 요청하므로 세조께서 비록 그 의논을 허가하기는 하였으나 실은 기뻐하지 않아서 마침내 파하였습니다. 청컨대 둔전을 파하고 백성에게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고 법에 의하여 조세를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은 대부도(大阜島)·보음도(甫音島)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두 섬은 수로가 험하고 멀어서 백성이 왕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둔전을 두어 선군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왕래하기가 어려운 것이야 평민과 선군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대부도는 경작하여 거두는 곡식이 일 년에 5백 석에 불과하여 얻는 것이 비용을 보충할 수가 없으니, 이는 국가의 이익이 아닙니다. 그러니 백성을 소집하여 경작하게 해서 법에 따라 조세를 거두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만일 응모하는 자가 없다면 예전과 같이 목장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상량(商量)하여 조치하겠다.”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북경[京師]에 가는 행차를 영접하고 호송하는 군사는 평안도·황해도만이 그 괴로움을 받는데, 왕래가 분주하여 사람과 말이 모두 죽으니, 형편이 장차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개성부(開城府)와 경기(京畿)의 정병(正兵)을 윤차(輪次)로 차송(差送)하여 그 힘을 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와 같이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였다.

성종실록 권213, 19년2월12일(병오)/사은사 성건이 면등제·자등제에 대해 아뢰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사은사(謝恩使) 성건(成健)을 인견(引見)하니, 성건이 아뢰기를,

“신(臣)이 여러 관사(官司)의 노비(奴婢)를 보니, 날로 조잔(凋殘)하여 가고 있습니다. 대개 노비(奴婢)들은 그 본사(本司)의 고역(苦役)을 꺼려서 백단(百端)으로 면역(免役)하기를 꾀하여, 타사(他司)의 장인(匠人)이나 궐내(闕內)의 차비(差備)에 소속되기를 구하여 본사(本司)에서 역사하는 자는 거의 없으니, 지극히 미편(未便)합니다. 이제부터는 상의원(尙衣院)과 같이 일이 긴요한 장인 및 궐내의 차비 이외에는 양인(良人)으로 차정(差定)하여 점차로 습숙(習熟)시킴이 어떻겠습니까? 또 《대전(大典)》에 기록된 장인으로 긴요하지 않아 혁파(革罷)할 만한 자가 많이 있는데, 《대전》은 경솔히 개정할 수 없으나 그 감할 만한 자를 따라서 감함은 어떻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금후로는 장인(匠人)들은 양인(良人)으로써 차정(差定)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경기 감사(京畿監司)로 있을 적에 전리(田里)를 순심(巡審)하였는데, 이른바 면등제(面等第)의 일을 보건대, 이 법이 지극히 미편(未便)하였습니다. 가령 한 면(面)이 중(中)의 중일 경우는 그 사이의 농사(農事)가 풍흉이 사뭇 다릅니다. 기름진 토지는 생산하는 곡식이 많은데도 세금은 너무 가벼웠고, 메마른 토지는 생산하는 곡식이 적은데도 세금은 너무 무거웠으며, 다른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국가(國家)의 소입(所入)은 풍족하지 못하는데도 민폐(民幣)는 지중(至重)하였습니다. 자등제(字等第)의 법(法)은 혹 흉년을 만나야 행하니, 이 법이 어찌 흉년에만 행할 만하며, 풍년에 행할 수 없겠습니까? 만약 자등제(字等第)를 따른다면 국가의 소입이 전보다 감절은 될 것이며 민폐도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면등제(面等第)의 법(法)은 행한 지 이미 오래이고, 자등제(字等第)는 정밀하게 하기가 가장 어려우니, 장차 참작하여서

하라.”

하였다. 성건이 또 아뢰기를,

“금년에는 대부도(大阜島)의 농사(農事)가 지극히 잘 여물었습니다. 그 곁에 또 천방(川防)을 수축(修築)하여 경작할 만한 곳이 있으니, 청컨대, 시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가(可)하다.”

하였다. 이에 앞서 성건이 부경(赴京)하려고 할 적에 진달할 것이 있어 소대(召對)를 구하려고 한 까닭으로 사견(賜見)한 것이다.

숙종실록 권6, 3년10월1일(을사) / 준마를 제주도에서 사들여 남양 대부도에서 번식시키게 하다

사복시(司僕侍)의 말[言]에 의하여 준마(駿馬) 68필을 제주(濟州)에서 사들여 남양(南陽) 대부도(大阜島)에서 번식시켰다.

숙종실록 권7, 4년10월3일(경오) / 대신과 비변사의 제신을 인견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이 경기(京畿)의 우심(尤甚)한 읍(邑)은 추등(秋等)의 수미(收米) 6두(斗)를 봉납(捧納)하여 본읍(本邑)에 유치하였다가 조곡(穀)으로 삼아 기민(飢民)을 진구(賑救)하고, 춘등(春等)의 6두(斗)는 특별히 전감(全減)하며, 그 다음의 읍은 춘등에 3두를, 그 나머지는 모두 춘등에 1두를 감(減)하고, 백관(百官)의 반록(頒祿)도 지난해에 의하여 각각 1두(斗)를 감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기었다. 좌의정(左議政)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대부도(大阜島)와 인천(仁川)의 자연도(紫燕島)에서는 옛날에 사슴을 사냥하여 진상(進上)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람의 거주가 점점 성(盛)하여 사슴이 거의 절종(絶種)되다시피 하여 비싼 값으로 무역하여다 납부하므로 실로 고질된 폐단이 되었으니, 청컨대 금년을 한하여 권도로 감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영구히 혁파하게 하였다.

숙종실록 권38, 29년4월5일(경진) / 행 사직 이인엽이 북한 산성의 역사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상소하다

행 사직(行司直) 이인엽(李寅燁)이 상소하기를,

“지금 성(城)을 만들기에 적합한 땅을 의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탕춘 대성(蕩春臺城)과 홍복 산성(洪福山城)이라고 말하는데, 형세의 험준함이 어느 곳이 낮고 어느 곳이 못한지를 피차 비교해 헤아리지 않고서, 곧 한 마디 말하는 사이에 갑자기 막대한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자량(資糧)과 기계(器械) 같은 것은 원근을 물론하고 오히려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지만, 성자(城子)에 이르러서는 한 번 쌓은 뒤에 뜻에 따라 옮길 수 있겠습니까? 성을 지키는데 쓰는 것은 샘물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탕춘대성(蕩春臺城) 앞의 한 굽이의 물은 여름에는 가물고 겨울에는 마르며, 땅이 모두 모래와 돌이므로 비록 흙을 쌓아서 물을 가둔다 하더라도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할 듯합니다. 이같은 형세를 마땅히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니, 가볍게 큰 역사를 일으키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약조(約條)의 말은 여러 신하들이 이미 여러 번 진달하였는데, 지금 큰 성을 서울 가까운 땅에 새로 쌓으면 성벽이 가로세로 뻗어서 길에 다니는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인데, 저들이 만약 물으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그렇다고 감히 말할 수 없으나, 또한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를 꺾는 방법은 만전(萬全)을 기하기에 힘써야 하는데, 어찌 혹시라도 무사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북성(北城)의 동쪽 기슭은 바로 서울 내룡(來龍)의 산맥인데 술가(術家)의 말은 비록 깊이 믿을 것이 못되지만, 성조(聖祖)께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설치하여 3백년 동안 아끼고 보호하던 땅을 마땅히 쉽사리 파서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성터를 닦고 쌓을 즈음에 산을 파고 돌을 깨뜨려서 지맥(地脈)을 파손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만약 뒷날에 작은 불길함이 있으면 근거없는 의론이 떴어 일어나서 반드시 허물을 이에 돌릴 것인데, 장차 무슨 말로 그 의혹을 풀겠습니까? 아! 해마다 거듭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고갈되었는데, 가령 성을 쌓아서 백 가지 이익이 있고 한 가지 해(害)도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시의(時宜)에 아주 어긋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라에 삼공(三空)이 있어 공사(公私)가 텅 비었으니, 그 형세가 또 고을의 흠부(欠賦)를 독촉해 받고 시호(市戶)의 포채(逋債)를 가혹하게 징수하지 않

을 수 없는데, 신은 이 일은 장차 환난(患難)을 대비하려는 것이지만 난(亂)만 불러 일으킬까 싶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굶주린 백성이 길에 가득하여 구제하는 일이 날로 급한데도, 너무 오래 지연시켜 비난하는 의논이 마구 일어납니다. 대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하여야만 나라가 편안하므로, 옛부터 성철(聖哲)의 교훈은 반드시 백성을 구호하는 일로써 근본을 삼았고, 성지(城池)를 먼저하고 인민을 뒤에 하는 일로써 국가의 깊고 먼 장래의 생각으로 삼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선왕(先王)의 적자(赤子)가 불행히 흉년의 재앙을 만나서 오직 부모가 가까이 있다는 마음으로써 의지하여 먹여 주기를 바라는데, 구휼을 맡은 신하가 이에 ‘둘째 일’ 이라고 말하니, 저 소민(小民)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실망하여 마음이 떠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비록 높은 성벽이 솟아 있더라도 백성이 진심으로 불쫓지 않는다면, 누구와 더불어 지키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진정(賑政)에 전심하여 때에 맞추어 구호하면, 바야흐로 흠어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까 합니다. 대저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산과 계곡이 험준한 데 있다고 하더라도, 오기(吳起)가 이른바, ‘군주의 덕에 있고, 지세의 험준함에 있지 않다.’ 라는 것이 진실로 격언(格言)입니다. 오직 성명(聖明)께서 실덕(實德)으로써 실정(實政)을 행하여, 서민으로 하여금 모두 윗사람을 친하고 장관(長官)을 위해서 죽는 의(義)를 알게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성(城)을 이루어 반석처럼 안전할 것인데, 어찌 ‘어디로 가서 의탁하겠느냐?’ 하는 한탄이 있겠습니까? 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감히 저지(沮止)시키기 위한 의론만이 아닙니다. 일찍이 생각하건대, 천하의 일은 스스로 근본과 말단(末端)이 있는데, 지금 관방(關防)과 군정(軍政)이 허술하여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먼저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신칙하여 수륙(水陸)의 형편을 살펴보고, 각각 믿을 만한 곳을 정하여 많은 병력을 나누어 두고 지방 방비의 형세를 증가시킨다면, 비록 외구(外寇)가 있을지라도 국도(國都)에 접근하는 근심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신이 이른바, 마땅히 먼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를 생각하지 않고서 한 성(城)으로 거두어 들어가는 계획만 힘쓰는데, 진실로 변경 밖에서 적을 방어하지 못하여 안팎 산하(山河)를 모두 적에게 주고 한갓 고단한 군사를 데리고 홀로 외로운 성을 지키면, 비록 반수(般)로 하여금 성을 쌓게 하고, 묵적(墨翟)으로 하여금 성을 지키게 할지라도 나라가 위망

(危亡)하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듣건대, 홍북 산성(洪福山城)은 형세가 북성에 견줄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육로(陸路)에 연하였고 또 남한(南漢)과 기각(角)의 형세가 있으니, 마땅히 양주(楊州)로 하여금 부치(府治)를 홍북 산성 안으로 옮기게 하여 세월을 끌면서 차차로 쌓게 할 것입니다. 만일 해방(海防)을 근심한다면 강화(江華)·교동(喬桐)과 영종도(永宗島)·대부도(大阜島) 등 섬에 전함(戰艦)을 더 두고 서로 연락하여 각각 제어하게 하고, 수원(水原) 등의 고을을 좌보(左輔)로 삼고 장단(長湍) 등의 고을을 우보(右輔)로 삼으며, 안흥(安興) 등의 진(鎭)은 남해(南海)를 방비하고 소강(所江) 등의 진은 서해(西海)를 방비하게 하여, 섞여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 성원(聲援)하면 적이 감히 바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다른 도(道)의 육로에도 모두 그렇게 하지 아니함이 없으면, 울타리가 중복되고 산하(山河)의 지세(地勢)가 견고(堅固)하여, 비록 급변을 당하더라도 거의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故) 상신(相臣) 유성룡(柳成龍)이 임진년 초기에 진관(鎭管)의 제도를 회복하기를 청하였는데, 진관은 조종조(祖宗朝)에서 설치한 바로 군정(軍政)의 대강령[大綱]입니다. 한가할 때에 옛 제도를 수복(修復)하여 군사를 훈련하고 군량을 저축하며 험한 요새를 골라 지키면, 이와 같은 일들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허비하는 데 비할 바가 아니며, 한 번 규제(規制)를 정하면 저절로 점차 성취될 수 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廟堂)에 내려서 품처(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대신(大臣)의 차자(笥子)에 대한 비답(批答)에 이미 내 뜻을 밝혔다. 이른바, 내룡(來龍)을 파괴한다는 말은 해감(該監)으로 하여금 널리 물어서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뒤에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 김창집(金昌集)이 여러 지사(地師)를 불러 모아서, 이인엽(李寅燁)의 진달한 바를 가지고 각각 의논을 올리게 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교리(校理) 권상유(權尙游)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감여가(堪輿家)는 허황하여 본래 믿을 것이 못되며 축성(築城)은 나라의 큰 일인데, 한두 지사(地師)의 말로써 결정하려고 하면 사체(事體)에 어긋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 나라를 정하실 때에도 지사에게 물으셨으니 대저 ‘밭을 가는 일은 마땅히 종[奴]에게 물어야 한

다.’는 까닭이다. 한번 논란(論難)하는 것이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하였다. 두서너 달이 지나서 여러 지사(地師)들이 비로소 모여 의논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내룡(來龍)의 맥을 파서 깨뜨리는 것은 해가 있다.’고 하였으나, 유독 동지(同知) 신경윤(愼景尹)은 해가 없다고 하였는데, 마침 성역(城役)이 중지되었다. 이인엽은 평소에 묘당(廟堂)의 계략을 스스로 맡아서 경기(經紀)함이 많았으나 빈말 뿐이고 실시됨이 없었으며, 그 상소에 조목별로 진달함이 자못 많았는데도 임금이 받아 들이지 않았으며, 품처(處)를 명한 것은 다만 내룡을 파서 깨뜨리는 일 뿐이어서, 식자(識者)들이 이를 해석히 여겼다. 그러나 그가 진휼(賑恤)을 논할 일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침해하고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는 것처럼 한 것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 마음의 자취를 의심하였다.

한편 楓島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 권58 14년 10월 21일(병오) / 경기 점마 별감 대호군 조혜가 흑·백 두 말에 관해 아뢰다

경기 점마 별감(點馬別監) 대호군 조혜(趙惠)가 아뢰기를, “인천(仁川)에 사는 학생 하일(河逸)이 말하기를, ‘예전에 어떤 뱃사람이 나에게 말한 것이라면서 이르기를, 『충청도 덕산현(德山縣)에 풍도(楓島)라는 섬이 있는데, 섬 가운데는 작은 못[池]이 있고, 흑·백(黑白) 두 말[馬]이 있어 늘 못가에 나타나더니, 사람이 혹시 엿보게 되면 홀연히 모습이 없어지고 자취만 보일 뿐이다.』고 하더니, 근년에 와서 그 못은 메워지고 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사온데, 또 근일에 황해도 해주(海州)의 연평도(延平島)에서 흑·백 두 말이 모습을 나타내었다가, 사람이 보게 되면 문득 숨어 나타나지 아니하매, 뱃사람들이 옛 사람이 인천에서 보았다던 그 흑·백 두 말이 이제 연평도로 옮겨 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옵더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해도 감사로 하여금 찾아보고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81 8년 6월 12일(정미) / 소홀도·이작도를 초지량

에, 풍도 등을 영종포에 소속시키다

병조(兵曹)에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소홀도(召忽島)·이작도(伊作島)·독갑도(禿甲島)·사아곶이도[絲也串島]·풍도(楓島)·승황도(昇荒島)의 6목장(牧場)은 모두 영종포(永宗浦)에 소속되었는데 초지량(草芝梁)만은 하나도 관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6목장은 모두 목자(牧子)가 없는데 영종포(永宗浦)만이 홀로 지켜보는 폐단을 받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소홀도(召忽島)·이작도(伊作島)의 두 섬[島]을 초지량(草芝梁)에 소속시키고, 풍도(楓島)·승황도(昇荒島)·사아곶이도[土也串島]·독갑도(禿甲島)의 네 섬을 영종포에 소속시켜서 노고하고 편안함을 고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4) 옛 漢詩속의 大阜島와 楓島

白雲居士 李奎報(1168~1241)가 경차관으로 수원과 남양을 순시할 때 대부도와 선감미도·풍도 등의 목장에서 살진 말을 점고하고 다음과 같이 短句를 지었다.

荆馬晴方牧 들 말은 비가 개이자 곧 놓아 먹이고,
巢禽暮自投 깃들이는 새는 날이 저므니 저절로 돌아오네.

戀生堂 洪汝方(1364~1438)은 남양사람으로 太宗 때 벼슬이 承旨에 이르렀으나 곧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와 終身했다. 한 편의 시를 이름에 몹씨 빨라 마치 바람이 달리 듯 했다고 한다. 대부도와 인근 섬들의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제목은 「海中列嶼」이다.

海中列嶼分南北 바다가운데 여러섬은 남북으로 나뉘었고
雲外遙岑或有亡 구름밖 먼 멧뿌리는 보일락 말락하네.
窮谷雪消溪漲綠 궁벽한 골짜기 눈 녹으니 시내에 푸른 물 넘치고
曲堤風過柳搖黃 굽은 제방에 바람 지나니 버들은 누른 빛을 흔드네.

松堂 權孟孫(1390~1456)의 「大阜島晚春」은 다음과 같다.

遠岫橫新黛 먼산은 이제 막 그린 눈썹이 비낀 듯 하고,
長楊舞細腰 긴버들은 가는 허리로 춤을 추네.
登臨迎月夕 높이 올라 달을 맞는 저녁이요,
吟詠賞煙朝 읊조리며 읊으니 아지랑이 완상하는 아침이라네.

四佳亭 徐居正(1420~1488)은 姜希孟을 따라 여러 번 그의 안산 別墅에서 風流를 즐기고는 했다. 楓島를 읊은 단구는 다음과 같다.

楓林寂寞撐魚艇 단풍나무 숲은 적막한데 고기잡이 배저으며
茅店分明點蟹燈 띠막에는 분명히 게잡는 등불 켜놓았네.

풍도는 가벼운 죄를 입고 中途付處되는 벼슬아치들의 귀양지였다. 安村 裴應璩은 풍도로 귀양가는 벗과 이별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雨歇河橋外 빗줄기 멎자 하교밖에는,
風鳴落葉秋 바람에 우는 가을낙엽 홀날리네.
一樽相別後 술한동이 들고 서로 이별한 후에는,
其奈月明愁 그 이별 어찌하리 달밝은 밤의 수심을.

여기에 나오는 河橋는 唐詩에 자주 등장하는 이별의 다릿목이 아니라 忠淸南道 唐津郡 石門面 橋路里를 말함이다. 풍도는 오늘날 안산시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때는 예산군 덕산과 당진군에 포함된 적이 있고 당진 교로리는 이 섬에 이르는 지름길이 었다.

이렇게 풍도에 중도부처되는 친구와의 별리를 가슴아프게 읊었던 安村도 늙은 나이에 똑같은 풍도로 귀양가는 몸이 되었다. 1599년 그의 나이 56세 때이다. 4월 초파일을 이곳에서 맞았던 모양이다. 제목은 「楓島燈夕」이다. 『安村先生文集』 권 1에 들어있다.

月色燈光一樣明 달빛과 등불은 한 가지로 밝고,
 落花芳草古今情 떨어지는 꽃잎과 방초는 예나 이제나 정답네.
 明年此夕身何處 내년에는 이 저녁을 어디에서 맞을까?
 笑殺浮生水上萍 물위에 뜬 부평초 같은 삶, 웃음으로 지워보네.

汾陰 崔天健(1538~1617)은 안산의 南人·小北詞壇을 任班과 함께 開創한 杜機 崔成仁의 고조부이다. 1612년(광해군 4) 대사간 이이첨·유인길 등이 小北派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金直哉의 무옥에 연좌되어 풍도에 부쳐되었다. 이때 쓴 시가 「楓島孤村」이다. 『汾陰先生文集』권1에 들어 있다.

孤村落葉行逕微 외로운 촌 낙엽길, 지나는 행인 드물고,
 寒烟出沒茅簷 차운 연기는 떠 치마 밖에 끓일 듯 오르네.
 昨日初收十畝田 어제 거둔 열이랑의 밭곡식,
 半擬官租半私債 반은으로 바치고 반은 빚을 꺼야 하리.
 半夜西隣村犬吠 한밤중 가까운 서쪽 마을에 개짖는 소리,
 有吏疾呼來打扉 관리는 급히 호통치며 사립문을 두드리네.
 布裳無完風力 등걸잠뱅이에 옷도 갖추지 못 했는데 바람은 매섭고,
 織女機頭螢亂飛 베짜는 여인 베틀머리에 반딧불만 요란히 나네.
 聞道強胡渡遼水 듣자 하니 강한 오랑캐는 요수를 건넜다는데.
 丁男半向城南死 장라네. 정들은 반이나 성 남녘에서 죽은 목숨이
 老翁無心又無眠 늙은이 무심하여 잠 못 이루는데,
 臥向秋天計鴈字 누운 채 가을하늘 향하여 기러기 안자를 써보네.

‘計鴈字’의 속뜻은 鴈行(兄弟)을 말하는 것으로 兄弟를 그리워 하는 心懷가 안스럽기 까지하다. 崔天健이 태어나 자라난 마을은 水原의 正南面 汾陰마을, 당시 안산과는 至近의 거리였다. 그러므로 楓島 孤村의 民生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고 있었을 터였다.

다음은 大阜島詩의 백미라고 일컫는 白洲 李明漢(1595~1645)의 「大阜島客館」을 읽을 차례이다. 이 詩는 「白洲集」권8에 들어 있다.

雲海蒼茫澹月華 아득히 먼 운해 속 달은 휘영청 밝고,
 暮潮初落見平沙 저녁 썰물 뒤 드러나는 드넓은 백사장.

鳩鳴小塢深深樹 작은 언덕 짙은 숲 사이로 비둘기 울고,
 搜嘍長洲點點花 바닷새 먹이 쪼는 섬들, 점점이 꽃과 같은데.
 物色依然泉客 예대로 보기 좋은 샘물가의 웅기종기한 민가들,
 人烟宛似洞仙家 밥 짓느라 피어오르는 연기, 신선의 동천(洞天) 같아라
 分明此日三山勝 분명 나는 오늘 삼신산보다 더 좋은 곳에 와 있어,
 自是平生夢裡誇 이 만족감 평생 꿈속에서까지 자랑하고 싶네.

아득히 먼 雲海 속의 밝은 달과 썰물 뒤 드러나는 백사장, 작은 언덕과 비둘기 우는 숲, 샘물가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민가, 꽃송이같이 바다위에 떠 있는 섬들, 그리고 밥 짓느라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 등을 시인은 ‘대부도객관’의 八景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속에서 시인은 곧 神仙들이 사는 洞天이나 三神山에 온 듯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우리 安山の ‘大阜島客館’에 대한 기록은 이 시 이외에 유감스럽게도 찾을 수가 없다. 安山の 舊郡誌와 南陽邑誌등 각종 기록 속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명환이 이 시를 쓴 시기는 1610년을 전후한 시기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임진왜란 이후에도 객관은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姜 景 勳 (文學博士, 東國大)]

2. 역대 면장, 출장소장 및 의원 현황

1) 면장 및 출장소장

광복 이전

| 순번대 | 면장성명 | 한문성명 | 재 임 기 간 | 비고 |
|-----|------|------|-----------|----|
| 1대 | 홍순태 | 洪淳台 | 1909~1910 | |
| 2대 | 김응순 | 金應淳 | 1910~1910 | |
| 3대 | 임남수 | 林南洙 | 1910~1911 | |
| 4대 | 임문수 | 林文洙 | 1911~1911 | |
| 5대 | 노겸수 | 盧謙洙 | 1911~1913 | |
| 6대 | 허 용 | 許 鎔 | 1913~1915 | |
| 7대 | 홍남표 | 洪南杓 | 1915~1921 | |
| 8대 | 김종윤 | 金鍾允 | 1921~1923 | |

광복 이후

| 순번대 | 면장성명 | 한문성명 | 재 임 기 간 | 비고 |
|-----|------|------|---------------------------|----|
| 1대 | 김완수 | 金完洙 | 1927. 5. 23~1946. 2. 27 | |
| 2대 | 김지하 | 金智夏 | 1946. 2. 28~1947. 2. 14 | |
| 3대 | 홍성문 | 洪性文 | 1947. 2. 15~1949. 3. 9 | |
| 4대 | 이창흠 | 李昌欽 | 1949. 3. 10~1952. 5. 6 | |
| 5대 | 임근도 | 林根道 | 1952. 5. 6~1953. 9. 30 | |
| 6대 | 이상길 | 李商吉 | 1953. 10. 1~1954. 9. 15 | |
| 7대 | 이창흠 | 李昌欽 | 1954. 9. 16~1956. 6. 7 | |
| 8대 | 공태영 | 孔泰榮 | 1956. 8. 8~1960. 5. 21 | |
| 9대 | 임범용 | 任凡龍 | 1960. 5. 22~1960. 12. 25 | |
| 10대 | 홍성도 | 洪性道 | 1960. 12. 26~1966. 12. 12 | |
| 11대 | 임성환 | 任成煥 | 1966. 12. 13~1968. 3. 10 | |
| 12대 | 김영도 | 金榮壽 | 1968. 3. 11~1974. 11. 19 | |
| 13대 | 안세창 | 安世昌 | 1974. 11. 20~1976. 1. 22 | |
| 14대 | 김성태 | 金星泰 | 1976. 1. 23~1984. 1. 4 | |
| 15대 | 하준성 | 河俊成 | 1984. 1. 5~1989. 1. 9 | |
| 16대 | 안현기 | 安顯奇 | 1989. 1. 10~1990. 11. 19 | |
| 17대 | 최선희 | 崔善浩 | 1990. 11. 20~1993. 6. 30 | |
| 18대 | 박상득 | 朴相得 | 1993. 7. 1~1999. 6. 30 | |
| 19대 | 이두철 | 李杜喆 | 1998. 7. 1~1999. 6. 10 | |
| 20대 | 안병훈 | 安炳勳 | 1999. 6. 11~2000. 4. 29 | |
| 21대 | 이범구 | 李範九 | 2000. 4. 30 ~ 현 재 | |

2) 역대 시의원

| 순번대 | 시의원 성명 | 한문성명 | 재임기간 | 비고 |
|-----|--------|------|------------------|----|
| 1대 | 박정호 | 朴政浩 | 웅진군의원 1993~1996년 | |
| 2대 | 노영호 | 盧鈴鎬 | 안산시의원 1996~1999년 | |
| 3대 | 노영호 | 盧鈴鎬 | 안산시의원 1999~ 현재 | |

3) 면의원

| | 이름 | 생년월일 연 령 | 본적 및 주소 | 직업 | 학력 | 경력 | 소속 정당 |
|-----|-----|------------------|----------------------------|-----|-----------------------|---|----------|
| 의장 | 공태영 | 1919.08.30 33 | 인천시 화수동 68 부천군 대부면 동리 | 양조업 | 경성명륜전문학원 부송중학 3년 졸 | 대부면장/경찰후생 협회 수상서지부 이사/대한청년단 | 자유당 |
| 부의장 | 이태성 | 1912.06.21 40 | 부천군 대부면 남리 부천군 대부면 남리 | 농업 | 대부초등학교 졸 한문 수학 | 농촌진흥회 구장 8년 | 자유당 |
| 의원 | 김경의 | 1922.09.14 30 | 부천군 대부면 북리 부천군 대부면 북리 | 농업 | 경기공업학교 졸 | 대부면서기/대한청 년단대부면단장/경 기전기회사인천지 점 동력과 도전계 근무 | 자유당 |
| 의원 | 홍성락 | 1917.07.14 35 | 부천군 대부면 남리 부천군 대부면 남리 | 농업 | 인천사정고등학교 졸 | 대부면 남리 구장 | 자유당 |
| 의원 | 이명흠 | 1902.04.04 50 | 부천군 대부면 남리 부천군 대부면 남리 | 농업 | 한문 수학 | | 자유당 |
| 의원 | 정대준 | 1918.01.20 34 | 부천군 대부면 북리 부천군 대부면 북리 | 농업 | 대부초등학교 졸 | 면서기/한청대부면 지부 총무과장 | 자유당 |
| 의원 | 최관옥 | 1924.01.17 28 | 인천시 경동 150 부천군 대부면 남리 | 농업 | 인천중등예비학원 졸 | 인천동방극장 영화 기사/대한청년단 대 부면 부단장 | 자유당 |
| 의원 | 장기원 | 1905.09.07 | 부천군 대부면 동리 부천군 대부면 동리 | 농업 | 대부면 대흥학당 졸 | 구장 9년 | 자유당 |
| 의원 | 차동렬 | 1916.09.17 36 | 부천군 대부면 풍도리 부천군 대부면 풍도리 | 농업 | 대산보통학교졸 | 산업위원회 위원 해운업 | 자유당 |
| 의원 | 노병철 | 1886.07.25 66 |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 부천군 대부면 동리 | 농업 | 한문서당 졸 | - | 자유당 |
| 의원 | 노재원 | 1906.11.28 46 |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부천군 대부면 남리 | 염업 | 춘천공민교 졸 | 경기도피복조합 감 사/북공장 및 인천 염업조합 감사 | 자유당 |

4) 제2대 면의원

| 이름 | 연 령 | 직 업 | 학 력 | 경 력 | 소속정당 |
|-----|-----|-----|--------|-----|------|
| 김경의 | 35 | 농업 | 중학교 졸업 | 면의원 | 자유당 |
| 변정의 | 33 | 상업 | 소학교 졸업 | 상업 | 자유당 |
| 홍성락 | 40 | 제염업 | 중학교 졸업 | 면의원 | 자유당 |
| 김수열 | 64 | 농업 | 중학교 졸업 | 면의원 | 자유당 |
| 노승우 | 48 | 농업 | 소학교 졸업 | - | 자유당 |
| 이태성 | 45 | 농업 | 소학교 졸업 | 면의원 | 자유당 |
| 정경선 | 45 | 농업 | 소학교 졸업 | - | 자유당 |
| 임우선 | 33 | 농업 | 소학교 졸업 | - | 자유당 |
| 임창선 | 31 | 농업 | 중학교 졸업 | - | 자유당 |
| 노백우 | 36 | 농업 | 소학교 졸업 | - | 자유당 |
| 최관옥 | 33 | 농업 | 중학교 졸업 | - | 자유당 |

대 부 도 향 리 지 편 찬 위 원 회

1) 편찬위원



이 정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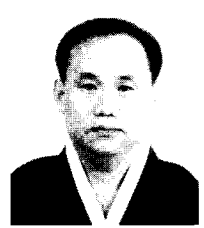
노 영 호



김 영 돌



문 정 희



이 현 우

- 편 찬 위 원 장 : 이정태(안산문화원장)
- 편찬부위원장 : 노영호(안산시의회 의원)
- 편 찬 위 원 : 김영돌(안산향토사연구소장)
- 편 찬 위 원 : 문정희(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편 찬 위 원 : 이범구(대부출장소장)
- 상 임 위 원 : 이현우(향토사가)

2) 자료조사위원

신재철/유한표/신경수/박창봉/정동석/최운섭/김종현/이승성/김광수/김민규/정갑용/최창운/백순명/이두영/홍사의/강순식/권덕기/신철수/이정광/정달동/임규덕/김영도/홍승간/윤준용/예남돌/홍성웅/김복동/신영철/김정호/김금준/임영수/홍경의/노재석/하준성/문훈식/김석배/문경섭/안현기/이홍선/김영조/이은흙/홍범의/신대현/임규학/최성기/장경호/홍기선/장일수/오기섭

3) 행정지원(안산시)

최정환(기획실장)/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이용호(문화담당)/김재화(대부출장소 총무담당)/김재봉(대부출장소 산업담당)/이규용(대부출장소 도시개발담당)/박근호(문화계) 조규복(대부출장소) 강진희(안산문화원)/박현자(안산문화원)

정 오 표

| 쪽 | 줄 | 틀 립 | 고 침 |
|------|----|---------|----------|
| 화보5 | 3 | 부사과 홍우규 | 내금위 홍우규 |
| 화보5 | 3 | 내금위 홍희구 | 부사과 홍희구 |
| 화보13 | 1 | 유간간 | 유간난 |
| 화보14 | 1 | 고교시절 | 고교시절 |
| 화보14 | 3 | 이영자 | 김영자 |
| 화보15 | 1 | 최창훈,이영자 | 최창운,김영자 |
| 215 | 10 | 자그[한 | 자그마한 |
| 224 | 23 | 人卑面 | 人阜面 |
| 226 | 19 | 畫善大夫 | 嘉善大夫 |
| 226 | 21 | 오위토총부 | 오위도총부 |
| 226 | 밑2 | 증2품 | 종2품 |
| 227 | 5 | 南賜洪明義 | 南陽洪明義 |
| 229 | 11 | 섬들고 | 섬들과 |
| 229 | 밑9 | 2.3도 | 23도 |
| 230 | 15 | 昭和年 | 昭和2年 |
| 341 | 7 | 41,800원 | 41,800만원 |



대부 구봉도의 낙조